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V

–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친일협력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V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IV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친일협력-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 간 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 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싣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 례 (14)

* 발간사 ····· 4

* 해제 :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 ····· 21

Ⅰ. 기독교

1.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1921) ····· 51

2. 『기독교세계』의 주요 논설과 기사 ····· 79

1) 한국 상황 및 소식 관계 글 79

(1) 겐모치(劍特生), 한국통신 79

(2) 한국 경성교회 83

(3) 우에다(上田義雄), 한국 부산통신 84

(4) 한일 기독교신자의 상호 교훈(사설) 85

(5) 견문록 87

(6) 이노우에(井上良民), 조선의 음모사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각오는 어떤가? 재일 선교사의 태도는 어떤가? 88

(7) 다카하시(高橋直巖), 조선 장로파 총회 방청기 89

(8) 도미나가(富永德磨), 조선에 관한 견해(1) 90

(9) 일선(日鮮)사건과 미국교회동맹(기사) 92

(10) 요네자와(米澤生), 교계 각지 한국 경성청년회 개관식 93

(11) 무나카타(宗像), 한국 경성교회 94

(12) 한국 경성 일본기독교회 94

(13) 한국 평양교회 확장 전도 95

(14) 다카하시, 조선교회 참배기 96

(15) 와타세, 조선의 크리스마스 97

2) 한국 전도에 관한 글 99

(1) 히사키 신지로(久木辰次郎), 한국전도사견(韓國傳道私見) 99

(2) 니시우치 덴코(西內天行), 한국 기독교도에게 보내는 글 101

(3) 한인 전도자를 양성하라(사설) 103
(4) 만한(滿韓) 전도회사를 만들어야 한다(사설) 104
(5) 경성교회 집중전도(기사) 106
(6) 한국전도의 진일보(경성 · 평양 두 교회의 회당 신축) 108
(7) 미야가와(宮川經輝), 한국 확장 전도 특별광고 109
(8) 조선의 백만인 운동(사설) 109
(9) 조선전도기도일(사설) 110
(10) 모두 조선전도를 지원하자(기사) 111
3) 배일문제에 관한 글 111
(1) 미야가와(宮川經輝), 배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각오(시론) 111
(2) 기독교에 미치는 배일문제의 영향(사설) 113
(3) 어느 기자, 배일문제에 관한 그린 박사의 의견 115
(4) 새로운 시국의 진전과 기독교 117
4) 에비나 목사의 한국 시찰담(상 · 하) 118
5) 츠나시마(綱嶋一山), 조선에서 만주로(1~3) 123
6) 가토(加藤直士), 만선순유(滿鮮巡遊)엽서통신(3~4) 128
7)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의 글 132
(1) 조선 영계(靈界)의 새로운 기운 132
(2) 조선교화와 조합교회의 사명(1~3) 135
(3) 조선 소요사건의 진상과 그 선후책(잡록, 시론) 138
(4) 이른바 한국전도의 성공에 대하여 143
(5) 한국전도론 144
(6)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읽는다(논설) 147
(7) 조선 전도에 대해 가시와기(柏木) 군에게 답하다(논설) 150
(8) 조선전도 일진전기(一進轉機)(논설) 153

3. 『기독신문』 창간호 ····· 154
1) 발간사(1938) 154
2) 조선의 기독교 개황, 사고(社告) 155
3) 각지 명사들의 축사 158
(1) 강필성(姜弼成), 시국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정신계의 목탁이라는 사명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158
(2) 김동훈(金東勳), 사십만 신도의 계발기관으로서 노력하라 159

(3) 김대우(金大羽), 국민의식의 계발에 보탬이 되라 159
(4) 김시권(金時權), 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도보국에 매진하라 160
(5) 김활란(金活蘭), 기독교의 재건 공작의 사명을 다하라 160
(6) 니와 세이지로(丹羽淸次郎), 조선반도교도의 사상지도자가 되라 161
(7) 미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공헌하라 161
(8) 방응모(方應謨), 문화의 일대진전 162
(9) 백관수(白寬洙), 기독교의 약진 162
(10) 사메지마 모리타카(鮫島盛隆), 섭리의 성업 162
(11) 언더우드(H·H·アンダーゥト),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163
(12)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 심령의 교육적 사명을 완성하라 163
(13) 오긍선(吳兢善), 불편부당으로 선전하라 164
(14) 유각경(俞珏卿), 신국면 타개의 역할을 하라 165
(15) 유형기(柳瀅基), 조선반도 교계의 전체적 기관으로서 165
(16) 윤치소(尹致昭), 경세종과 광명탑이 되라 165
(17) 윤치호(尹致昊), 여론의 중심 시대의 지도자가 되라 165
(18) 이명직(李明稙), 시시비비 춘추직필 166
(19) 이문주(李文主), 물심양면으로 완벽을 기하라 166
(20) 히다카 젠이치(日高善一), 잃어버린 영혼을 탈환하는 폭격기 166

4. 『구세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 167
1) 경향각지에 성황 이룬 30주년 기념대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성대하게 개최 167
2) 토머스 윌슨, 퇴선(退鮮)의 성명 · 선언 · 지도기구 169
3)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조선구세단의 신기원을 만들다 170
4)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총력봉사 172
5) 황종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172
6) 나가카와 겐조(永川源藏), 성지부여에 근로봉사(보고) 173
7) 구세단 유신 1주년 감사기념회 －신의 성호(聖號)를 찬송할진저 174
8) 명치절의 연합봉축식 177
9) 인왕산인(仁旺山人), 애국일 노방(路傍) 강연회 178

5. 『장로회보』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 178
1) 정오묵도(正午默禱) 실시에 관한 건 178
2) 애국부인회, '해의 황자 축일(日之皇子の祝ひ日)' 실시에 관한 건 180

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 식사 및 개회사 182
4) 고사(告辭) 및 축사 183
(1) 미나미 지로(南次郎), 고사(告辭) 183
(2)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축사 184
(3) 쿠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축사 185
(4)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南), 축사 185
(5) 정춘수(禾谷春洙), 축사 186
5) 여신도대회 식사, 고사, 축사 186
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 190
7) 전시체제 신앙활동 -40만 장로교도 실천을 결의 192
8) 긴급통고문 -'신편찬송가' 정정 사용 주지의 건 194
9)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신체제 하의 신도 195

6. 『기독교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 196
1) 천장절(天長節) 관련 기사 196
(1) 천장절 봉축식(奉祝式) 성황, 조선기독교연합회 주최 196
(2) 천장절 봉축지사, 목사 우루가 마사미(宇留賀政實) 196
2) '천장절국민봉축실시요강'에 관한 건 198
3) 징병제실시축하강연회, 성명서 발표와 강연, 성결교회신도대회 199
4)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관련 기사 200
(1)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김응순(新森一雄) 씨 포부 200
(2) 귀금속 헌납의 건 202
5) 조선예수교장로회 전시포교지침 선서 202
6)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 204
(1)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1) 204
(2)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2) 206
(3)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6) 208
7) 정춘수(禾谷春洙) 관련 기사 210
(1) 임명기(통고문) 210
(2) 애국기 헌납자금 송금 독촉의 건 211
(3) 신상제(新嘗祭) 감사 곡물 헌상의 건 212
(4) 교단 규칙을 실시하도록 통달하는 건 212
8) 임시특별지원병 채용제 취지 철저의 건 213

9) 황종률(黃鐘律) 관련 기사 214
(1) 징병제도 실시 감사, 강연 및 영화의 밤 214
(2) 열혈남아는 결전장으로 나서자 215
10) 김진수(金城珍洙), 긴급 실행해야 할 애국사업에 관한 건 217
11) 국민징용령 －어떤 것인가?(2) 219

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 ····· 220
1)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 220
2)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1935년에서 1940년까지의 편지들과 조치들로부터 발췌(증거물A) 223
3) 찰스 어드만이 제임스 후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256
4) 해외에서 당신에게 호소하는 목소리 256
5) 1940년 10월 3일 조선 경성의 한국감리교회 감독 정춘수가 만들고 한국감리교의 이사 266
6)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 268
7) 감리교 이사회에 의해 1940년 10월 2일에 발표된 혁신성명 270
8) 해외선교부와 조선 문제 271

8. 기타 기독교 관계 친일논설 ····· 275
1) 갈홍기(葛弘基) 275
(1) 문화, 기독교의 일본화를 논한다(1~4) 275
2) 신흥우(申興雨) 277
(1) 조선기독교의 국가적 사명 277
3) 양주삼(梁柱三) 279
(1) 내지 기독교계의 동향 －내지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279
(2) 전열, 제4년의 각오 －총후는 총무장, 임전무퇴의 결사대로 282
(3) 조선의 징병제 실시 발표를 어떻게 느꼈는가 283
4) 오긍선(吳兢善) 283
(1) 시국과 기독교 교육 283
5) 오문환(吳文煥) 284
(1) 반도 기독교의 일본적 회전 284
6) 윤치호(尹致昊) 288
(1) 시국과 반도 기독교도의 사명 288
7) 정춘수(禾谷春洙) 289

(1) 기독교와 신체제운동 289
8) 채필근(蔡弼近) 290
(1) 종교와 동양 290
(2)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293
(3) 기독교회의 장래 295

II. 천주교

1. 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 ····· 303
1)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 결성 303
2)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새 역원과 제1회 역원회 303
3)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총회 개최에 관한 건 304
4) 경성에 시국강습회 304
5) 경성교구연맹 역원연성회 305

2. 경성교구연맹의 전시총동원 협력 ····· 305
1) 국민총력 205
2) 군기 헌납운동 307
3) 오늘의 시국 307
4) 병기헌납기금 응모상황을 보고 308
5) 경성교구연맹총회 309
6) 대동아전쟁의 경위 310
7) 경성에 천주교 결전대회 310
8) 대동아전쟁 기구 311
9) 반도민중의 각성 311
10) 사변5주년을 맞이하여 312
11) 징병제 실시 1주년 313

III. 불교

1. 이회광(李晦光) ····· 317
1) 운동적 맹약(기사) 317
2) 조선불교의 각성과 사회사업 317
3) 조선불교운동상 2대 조류의 충돌, 강대련 대 이회광,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병합하려는 중

대 문제!(기사) 320
4) 간판은 조선불교총본산, 주지는 일선융화와 정교일치(기사) 322

2. 김구하(金九河) ····· 323
1) 이세대묘(伊勢大廟) 323

3. 강대련(姜大蓮) ····· 323
1) 데라우치 수상을 뵈옵고(見寺內首相) 323
2) 불교옹호회와 법려(法侶)의 각오 324
3)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 325

4. 김태흡(金泰洽) ····· 326
1) 법려의 자각과 사회교화의 유의 326
2) 신동아건설과 내선일체 327
3) 황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 328
4) 국민정신과 씨 창설 329
5) 광영의 징병제도 실시 331

5. 허영호(許永鎬, 德光允) ····· 331
1) 황실의 어번영(御繁榮)을 축함 331
2) 황기 2600년을 맞이하여 332
3) 총본산의 운영 333
4) 대동아전 하의 화제(花祭)를 맞아서 335
5) 오직 하나의 기대 337

6. 권상로(權相老) ····· 338
1) 승려 지원병에 대하여 338
2) 비상시 반도불교의 임무 339
3) 대동아전쟁과 대승불교 342
4) 『임전의 조선불교』 발췌 346

7. 김삼도(金三道, 宇英生) ····· 350

1) 총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350

8. 이종욱(李鍾郁) ····· 352
1) 조선 불교도의 새로운 각오 352
2)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전체주의로 353
3) 총본산의 현실과 조선불교의 장래 353
4) 전첩(戰捷)의 봄 355
5) 징병제 실시의 영(榮)을 예대(譽戴)하고 357
6) 개병주의 359
7) 사상선도 · 종교보국 361
8) 성전필승과 불일증휘(佛日增輝) 361
9) 종정유시(宗正諭示)를 봉하여 362
10)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검선일여(劍禪一如)의 투철을 바라노라 363

9. 박윤진(朴允進) ····· 364
1) 불교의 전쟁관 364
2)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 문제 366

10. 임원길(林原吉) ····· 367
1) 종문(宗門)의 동량으로서 367

11. 『조선불교조계종보』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 ····· 368
1) 『불교 신』 제32집(1942년 1월) －군용기 헌납, 제2회 중앙종회, 황군장병감사 관계 368
2) 제1호(1942년 2월)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 종정유시(宗正諭示), 전첩축하행사 관계 370
3) 제2호(1942년 2월) －대조봉대일, 태고사법 시행, 군용기헌납 관계 373
4) 제4호(1942년 4월)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376
5) 제5호(1942년 6월) －국어강습회 관계 376
6) 제6호(1942년 7월)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377
7) 제7호(1942년 8월)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378
8) 제8호(1942년 9월) －국방 자재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379
9) 제9호(1942년 10월)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380

10) 제10호(1942년 11월) －시국불교강연, 종무타합회 관계 382
11) 제12호(1943년 1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399
12) 제13호(1943년 2월) －제4회 중앙종회, 헌납 관계 399
13) 제14호(1943년 3월) －기원절 국민봉축, 금속류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401
14) 제15호(1943년 4월) －포교사연성대회, 혜화전문 증축비 관계 404
15) 제16호(1943년 5월) －보국탁발(托鉢)과 국방헌금 406
16) 제18호(1943년 7월) －범종 및 놋쇠 금속헌납 앙고(仰告)법요(法要) 407
17) 제19호(1943년 8월) －범종 및 기타 금속류 공출·헌납에 관한 건 415
18) 제21호(1943년 10월) －성지 및 사원참배단, 금속류 회수, 헌납 관계 415
19) 제21호(1943년 11월) －본사주지 성지참배단 파견중지에 관한 건 419
20) 제1호(1944년 1월) －범종헌납 법요 419
21) 제2호(1944년 2월) －헌납 관계 419
22) 제4호(1944년 4월) －황군위문금 헌납 421
23) 제5호(1944년 5월) －조선불교보국대 편성, 각종 헌납운동 관계 421
24) 제6호(1944년 6월) －조선불교보국대 편성에 관한 건 425
25) 제32호(1944년 9월) －적국 항복기도 법요, 애국기 헌납 관계 426
26) 제35호(1944년 12월) －제6회 중앙종회, 각종 시국행사 관계 427

Ⅳ. 천도교

1. 이돈화(李敦化) ····· 435
1) 시국의 정해 435
2) 전쟁과 평화 437

2. 백중빈(白重彬) ····· 439
1) 천도교와 동방 439
2) 장기전 하의 가정보국 442
3) 비상시 하의 국민적 각오 446

3. 최린(崔麟) ····· 450
1) 기관교무에 대한 5대 요항 －1월 4일 시무식 석상에서 450
2) 시국과 교의 452

4. 조기간(趙基栞) ····· 457
1)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 457
2) 분기하자! 분기하자! 국민개로의 대진군으로 －일을 아니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459
3) 3백만 동덕(同德)에게 읍소 －백년 이후의 나를 생각하고 남녀노소 다같이 일어납시다 461
4) 징병제 실시와 국어보급 462
5) 성전필승의 3대 요결 －대동아전쟁 1주년에 제(際)하여 464
6) 필승 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 467

5. 이종린(李鍾麟) ····· 470
1) 취임사 470
2) 급고(急告) 471
3) 아등(我等)의 금일 472

6. 박완(朴浣) ····· 474
1) 동아신질서 건설 474
2) 전시신앙보국 477
3) 국민총력조선연맹 478
4) 총력운동실천요강 481
5) 영미(英米)적성국가 484
6) 전시국민생활 488
7) 결전생활에 철저하자 490
8) 결전과 전투배치 494
9) 12월 8일 497
10) 금년은 결승의 해 499

7. 최안국(崔安國) ····· 502
1)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 502
2) 신국신민의 본무 509

8. 정광조(鄭廣朝) ····· 509
1) 징병제와 아등의 준비 509
2)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511

9. 김병제(金秉濟) ····· 515
1) 성전결승기도를 앞두고 515
2) 학도제군에게 대하여 519
3) 군인과 종교 520

10.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 ····· 523
1) 북지사변 523
2)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524
3) 황국신민서사 복응(服膺)에 관한 건 526
4) 정황 조사보고에 관한 건 528
5) 4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529
6)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529
7) 도발(道發) 호외 531
8)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하여 531
9) 수도보국에 관한 건 532
10)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534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535
12) 비상시국 535
13) 연말연시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536
14) 도발 제6호 537
15)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에 관한 건 539
16) 부인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540
17) 천도교 제2회 법회 541
18) 천덕송(天德頌) 일부 삭제에 관한 건 541
19) 신앙보국 철저 542
20)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 · 선언 · 규약 543
21) 정동천도교연맹본부 결성 통지의 건 545
22)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 구매에 관한 건 546
23)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547
24) 도발 제5호 549
25) 국방성미(國防誠米)에 관한 건 550
26) 연맹통첩요항 선포의 건 551
27)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553

28) 도발 제9호 554
29) 교발(敎發) 제2호 556
30) 지방 순회에 관한 건 558
31) 황기 2600년 기념 저금에 관한 건 561
32) 연맹 역원 개선에 관한 건 561
33) 연맹기구 개조에 관한 건 562
34) 선서식에 관한 건 563
35) 교발 제4호 565
36) 순강에 관한 건 565
37) 전체 이사장회 경과의 건 569
38) 천덕송(天德頌)에 관한 건 569
39) 시일(侍日) 예식시간 변경에 관한 건 570
40) 교역자(敎役者) 양성 하기강습회에 관한 건 571
41) 7월 7일 국방헌금에 관한 건 572
42) 성전(聖戰) 완수에 관한 건 573
43) 기념교화의 요령 575
44) 교발 제6호 577
45) 성전결승기도에 관한 건 579
46) 전력증강에 관한 건 580
47) 신임역원 발포에 관한 건 581
48) 교발 582

Ⅴ. 시국관련 종교계 연합사업

1. 심전개발사업 ····· 587
1)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 587
2) 심전개발이란 무엇인가? 598
3) 김태흡, 『심전개발 및 시국에 관한 순회강연집』(1938) 606
4) 권순구, 심전개발론 663
5) 정봉시, 심전개발에 대한 유교 665
6) 조선총독부 중추원,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1936) 667
(1) 최남선, 조선의 고유신앙(상 · 하) 667
(2) 이능화, 조선의 고유신앙 686
(3) 방한암, 불교는 실행에 있다 693

(4) 윤치호, 나와 기독교 694
(5) 정만조, 유교의 진수 697
(6) 정봉시, 조선유교 대관 700
(7) 정인과, 기독교 교리의 진수 703

2. 종교단체 연합사업 ····· 710
1) 전시하의 시국연설 710
(1) 이돈화, 동양평화의 근본책 710
(2) 권상로, 시국각성의 필요성 711
(3) 양주삼, 오인(吾人)이 취할 태도 712
(4) 이종린, 금일 우리의 임무 713
(5) 안인식, 시국과 오인(吾人)의 각성 714
(6) 전필순, 태양은 창공에 높이 드날린다 715
2) 종교단체연합집회 상황 보고 717
(1) 이돈화, 장기비상시국과 장기비상결심 718
(2) 안인식, 시국 재인식의 필요 719
(3) 박연서, 총동원의 정신 720
(4) 박윤진, 보국정신(報國精神) 721
(5) 이종린, 관념에서 실천으로 722

* 찾아보기 ····· 725

해제 :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1.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자국에서의 종교정책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일본 자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기조는 전근대적인 국민교화(國民敎化)의 일환으로서 신사신앙(神社信仰)을 중심으로 여타 종교를 그 하위에 배치하여 행정력으로 통제·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식민지에 이를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들이 작용하여 그 변조가 없을 수 없었지만, 각 시기마다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졌을뿐 종교의 국가 통제·이용이라는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문제였다. 당시 조선에는 유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 일제가 장악은 물론 파악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등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종교를 무단으로 억압·통제할 경우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감부 시기부터 서구 선교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을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회유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내세워 종교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민족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헌병경찰들을 동원하여 종교계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자행하였다. '한일합병'이 공표된 당일에 발표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의 '유고(諭告)'에 종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1] 그는 여기서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유교·불교·기독교는 총독부의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으므로 평등하게 포교 전도에 보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의 '치안유지'나 '시정 목적'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의도와 위협을 문맥 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종교 억압·통제 의도는 이듬해의 시정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

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官報』 1910년 8월 29일자, 31쪽, "諭告."

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敎 · 侍天敎 · 大倧敎 · 大同敎 · 太極敎 · 圓宗宗務院 · 孔子敎 · 大宗敎 · 敬天敎 · 大成宗敎 등의 여러 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2] 그리하여 우선 그들의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와 유교부터 사찰령과 경학원규칙을 제정하여 총독부가 직접 통제 장악을 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사내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그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총독부는 공인종교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포교규칙'의 제정을 이미 1911년 초부터 검토하다가, 1915년 8월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발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규칙에서 "본령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 불도 및 기독교를 이름"이라 하여 이른바 공인종교를 일본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파신도와 불교, 기독교에 한정하고, 이들 종교선포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포교에 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교용도로 쓰기 위한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를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을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유사 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여,[3] 이 법령으로 사실상 조선총독은 모든 종교단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종교관련 법규들을 통하여 정작 일본에서는 그 제정이 좌절되었던 '종교법'을 조선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일찍부터 제정 실시하였던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이러한 종교관련 법규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총독부 관공리들, 특히 헌병경찰들을 통해서 신자 개개인에 신앙에 이르기까지 간섭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12년 3월에 공포한 경찰범처벌규칙이었다. 그 규칙 가운데 "단체 가입을 강청하는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화, 시가의 게시, 반포, 낭독 또는 방음을 하는 자", "함부로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 符呪 등을 하고 혹은 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하여 禁厭, 기도, 부주 또는 정신료법 등을 실시하고 또는 神符, 神水 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구류 또는 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이 규칙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불교계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억압을 받아오다가, 1895년 일본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의로 도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되고, 일본 불교의 각 교파들도 일찍부터 조선에 나와 조선 불교계를 일본 불교계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제의 병탄 직후인 1910년 9월 이회광 같은 친일 승려는 일본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의 사주를 받아 조선의 원종을 일본의 조동종에 '연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한용운을 비롯한 임제 법통의 승려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이렇게 분열된 조

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1), 77쪽.
3) 『朝鮮總督府 官報』 1915년 8월 16일자, 154~155쪽.
4) 『朝鮮總督府 官報』 1912년 3월 25일자, 213쪽.

선불교계를 통합 · 정비 ·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로 '사찰령'과[5] 7월 8일 부령 제84호로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6] 조선총독이 직접 조선불교계를 통제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300여 개의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본말사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 임명은 총독이 직접 이를 승인하며, 그밖의 사찰의 주지들도 지방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병합 폐지는 물론 일체 재산의 처분과 사법(寺法)의 제정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총독부는 조선불교계의 전통적인 자율성을 말살하고 강력한 통제와 전제적 지배권을 확립하여[7] 그들의 식민지 교화기구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였다.[8] 이 규칙은 1911년 10월에 제정한 것을 개악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수 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교육이 그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식민지 교육과 배치되므로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와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가 사립학교규칙 개정의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개정의 2대 요점"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와 교원 자격의 강화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식민지 교육을 총독부가 독점하고, 교원도 일본어에 능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 실시에 적합한 인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칙 개정의 주요한 목적이 기독교계 교육의 탄압과 선교사의 교사 자격 박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9]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일반 종교계에 대해서는 억압 · 통제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신사신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정비를 통하여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제는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를 획득하거나 조차 · 위임통치 등에 의하여 시정권을 얻으면 그 지역에 예외없이 관폐대사(官幣大社)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세운 신사를 그 밑에 두고 현지인의 토속 신앙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른바 '종교적 지배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도 내무국 지방과가 중심이 되어 관립신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12년부터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신사는 경성의 남산 중턱에 2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립하기로 하고, 제신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조회하여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메이지천황(明治天皇)'으로 하였으며, 1918년 12월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를 하여 일본 각의의 결의를 거쳐 1919년 7월 18일자 내각고시 제12호로 조선신사 창립을 확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하였다. 일제가 메이지유신 초기에 강력히 실시하였던 '신도국교화정책'을 그들의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여 일반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신사신앙을 강요하고, 일본 풍속을 이식하여 '동화'시키는 것이 조선통치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조선신사를 건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

5) 『朝鮮總督府 官報』 1911년 6월 3일자.
6) 『朝鮮總督府 官報』 1911년 7월 8일자.
7) 李鴻範, 「韓國で行なわれた日本の植民地宗教政策」, 『新羅佛教研究』, 東京 : 山喜房佛書林, 1973, 681~683쪽.
8) 『朝鮮總督府 官報』 1915년 3월 24일자, 325쪽.
9) 『朝鮮彙報』(1915. 4), 22~27쪽.

조선총독부는 관공립 신사는 물론 민간 신사에 대해서도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신사사원규칙'을 제정·발포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사에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10] 이어서 1917년 3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신사(神祠)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신사(神社)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소사(小社)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11]

신사(神社) 설립에 의한 신사신도(神社神道)의 침투와 함께 일본의 교파신도(教派神道)도 일찍부터 조선에 침투하였다.[12] 일본 교파신도의 일파인 천리교(天理教)는 이미 1893년 사토미 지타로(里見治太郎)가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하였고, 그 후 신리교(神理教)도 1897년경 부산에 포교를 시작했다.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금광교(金光教), 대사교(大社教) 등이 통감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차례로 포교를 개시했다. 이들 교파신도가운데 천리교가 가장 세력이 있어 일제의 조선 병탄 후에는 부산·서울 이외에도 대전·대구 등 전국에 교선(教線)을 확대하고 이어 부산에 있던 조선포교관리소를 서울로 옮겨 조선포교관리소로 개칭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조선인에게까지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폈다.[13] 그러나 이들 교파신도는 치병(治病)을 위한 기복적 기도 등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식계층의 소수의 조선인 신자를 얻을 수 있었을 뿐, 일본적 분위기가 강하여 조선인에게 적극적인 침투·보급은 할 수 없었다.[14] 이러한 교파신도는 1915년 「포교규칙」의 발포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불교와 함께 공인종교로 인정을 받아 총독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조선인 신자 획득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1919년 이후에는 교파신도의 총 신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신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조선인이 3·1운동으로 인한 민족적 자각으로 교파신도에서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이 운동의 주동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기독교·천도교에 대항시키기 위하여 일본 불교·일본조합교회 등과 함께 천리교와 같은 교파신도의 보호 육성책을 검토하였다. 즉 "生來로 朝鮮人은 迷信에 强하고 비교적 종교심이 있으므로 有爲한 宗教家로서 진실로 教勢擴張에 努力하면 目下 外國人이 經營하는 耶蘇教 其他 天道教에 對抗하여 오히려 이를 壓倒할 수 있으며 統治上 有利한 바가 대체로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유위(有爲)한 종교가(宗教家)'로 일본 불교, 일본조합교회와 함께 교파신도의 한 분파인 천리교를 들고 이에 대하여, "教理가 單純하여 鮮人에 理解시키기 쉽고 民度에 適合하다. 宗教家의 活動에 對하여 各 宗教의 現況에 있어서는 有爲한 宗教家로 하여금 充分한 活動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政府 또는 總督府의 後援과 保護를 必要로 한다."[15]고 일본계 종교의 보호 육성책을 건

10) 『朝鮮總督府 官報』 1915년 8월 16일자.

11) 『朝鮮總督府 官報』 1917년 3월 22일자.

12) 교파신도(教派神道)란 국가신도체제(國家神道體制)하의 신도계(神道系) 민간 종교를 총칭하는 것으로 13개 教派神道가 있다. 메이지 초기의 神道國教化 정책이 국내외의 저항에 부딪혀 여의치 않게 되자 메이지 정부는 神社神道를 초종교(超宗教)의 국가제사로 삼고, 神道系 민간 종교를 教派神道(宗派神道 또는 宗教神道라고도 한다)로 편성하여 불교·기독교와 함께 국가신도에 종속된 공인 종교로 하였다. 이렇게 공인된 教派神道로는 神道·黑住教·大社教·扶桑教·神道修成派·實行教·大成教·神習教·御嶽教·神理教·禊 教·金光教 ·天理教 등이 있다.

13) 欄木壽男,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 『海峽』4, 東京 : 朝鮮問題研究會, 1976, 28쪽.

14)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通卷 제4책 朝鮮編 제 3분책, 1947, 65쪽.

의하고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종교행정은 1910년 10월 1일 총독 훈령으로 공포된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중앙에서는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했고, 각 도에서는 내무부 학무계에서 담당했다.[16] 그러다가 1912년 3월 30일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서,[17] 1915년 5월 1일부터는 내무부 제1과에서 담당했다.[18] 1910년대 종교행정을 총독부 내무부에서 담당했다는 것은 종교의 교화기능 이용보다는 종교통제에 그 정책의 중심이 놓여있었음을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에서 조선인들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무단통치'만으로는 계속적인 식민지배가 어렵다고 보고, 1919년 8월 총독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로 교체하여 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 사이토 총독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시정개선을 약속하고 저항 세력에 대한 회유와 분열정책을 써 이른바 '분할통치'라고 하는 보다 지능적인 '식민지배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기도 전인 1919년 8월 20일 우선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내무부 제1과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신사(神社) 및 사원(寺院)에 관한 사항」과 「종교(宗教) 및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전담하게 하였다.[19] 그리고 3·1운동 탄압으로 악화된 국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선교사들을 회유하였다.[20] 그리하여 그동안 선교사들의 불평을 샀던,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 교수와 종교행사를 할 수 없게 규정한 1915년 개정사립학교 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21] 이어서 1920년 4월 포교규칙을 개정하여 교회당 포교소 등을 설치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포교규칙 제12조에 "조선총독은 현재 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류에서 안녕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이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22] 새로운 규정을 두어 총독이 직접 종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독부는 사찰령을 통하여 거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계에 대해서도 일부 각성한 젊은 승려들의 사찰령 폐지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회유·분열정책을 썼다. 승려 2,300여 명이 날인한 사찰령 폐지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찬부를 둘러싼 30본산의 분열을 이용하여, 총독부는 사찰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2년 12월 친일적인 성향을 띤 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불교계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를 꾀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중앙집권화, 친일화 의도는 1920년에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

15) 朝鮮軍參謀部, 朝特報 26號 「騷擾의 原因 및 朝鮮統治上 注意할 件」(1919. 7. 24), 『韓國民族運 動史料』(3·1 運動編 其 2), 208쪽.
16) 『朝鮮總督府 官報』 1910년 10월 1일자.
17) 『朝鮮總督府 官報』 1912년 3월 30일자.
18) 『朝鮮總督府 官報』 1915년 5월 1일자.
19) 『朝鮮總督府 官報 號外』 1919년 8월 20일자,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20) 강동진,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7~114쪽 참조.
21) 『朝鮮總督府 官報』 1920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1호"
22) 『朝鮮總督府 官報』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9호"

서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정책에 따른 교무원이 얼마나 총독부와 유착되어 있었던가는 1923년 30본산주지회의를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고, 총독부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의 훈시를 듣게 되어 있어 불교계 청년들의 비판을 받았던 데서도 확인된다.[24] 총독부는 1929년 6월에도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사찰이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주지가 임의로 재산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다.[25]

1920년 9월『동아일보』가 일본 신도의 3종신기 숭배를 미신적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가 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신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문화정치'기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총독부는 1925년 조선신궁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사참배와 신사신앙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924년 5월 겸이포신사 낙성식에 일반인들로부터 봉축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고, 그 지역 학생들을 참배시킨 것에 대해서『동아일보』가 "맘에 없는 기부, 뜻에 없는 참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신궁대마(神宮大麻) 및 역반포(曆頒布)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이의 보급을 장려한 것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에 대한 학무국장의 통첩에도 신사신도를 초종교적인 위치에 두고 이에 대한 숭경과 참배를 장려하려는 그들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5년 10월 조선신궁의 진좌제(鎭座祭)를 앞두고 이를 공공 기관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학무국장이 그해「생도 아동의 신사참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어 학생들의 동원과 참배를 유도하던 총독부는 기독교계의 학교의 불참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이에 총독부는 이를 강요하면 조선인의 반감만 더 사게 될 것이며, "신사를 통해 사상선도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부 의견도 있어 적극적인 신사정책을 일시 후퇴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쓰고, 정책적인 지원을 원하던 신직(神職)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다. 초대 조선신궁 궁사(宮司)였던 다카마쓰(高松四郎)는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신임 총독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종래 총독부의 神祇에 대하여는 형식에 머물러 精神을 缺하였다."고 비난하면서, "朝鮮神宮 鎭座後 만 3년인 지금까지 前後 17회를 헤아리는 祭儀에 總督, 總監 兩閣下의 參例을 본 일이 없고 勅任官의 參例 역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불만을 늘어 놓고 있다.[26]

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개된 대륙침략 정책으로 일제가 1931년 9월 만주침략을 도발하면서 그들의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정신교화운동(精神敎化運動)'과 종교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기독교계 학교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다시 적극적인 신사정책과 종교 통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931년 6월 17일 제6대 조선총독으

23)『齋藤實文書』제9권, 고려서림, 1990 영인, 143~151쪽 ; 김순석,「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조선독립운동사연구』제13집, 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79쪽에서 거듭 인용.
24)『동아일보』1923년 1월 18일자, "총독부에 주지회의" ; 김광식,『조선근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227쪽.
25) 朝鮮總督府,『施政25年史』, 朝鮮總督府, 1935, 588쪽.
26) 欄木壽男, 앞논문, 32~33쪽.

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는 일본에서 1924년부터 5년 동안이나 다섯 개 내각의 육군대신을 역임한 신흥군벌로서 '쇼와군벌(昭和軍閥)의 시조'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27] 그는 부임에 앞서 일본 천황을 찾은 자리에서 "내지인과 조선인의 융합일치 이른바 내선융화가 더욱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28] 그의 이른바 '내선융화'란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 조화가 아니라 조선인을 보다 더 일본인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동화 내지 일본화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그의 정책발상은 1932년부터는 '정신교화' 운동의 강화로, 1935년 이후에는 '심전개발'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정신교화' 운동 내지 '사회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과를 내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하고, 학무국 종교과 업무를 흡수하여 담당하게 하였다.[29] 그리고 그해에 추가예산으로 '사회교화비(社會敎化費)'를 편성하고, 그해 9월부터 그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보내 긴급히 조사하게 하여, 1933년 2월 이른바 기원절(紀元節)에 "전도(全道)에 걸쳐서 우량부락·지방개량단체·청년단체의 산업시설 및 체육시설, 부인단체의 사업 등에 대하여 장려 조장의 의미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하였다."[30] 그리고 우가키 총독은 1932년 11월 10일 이래 이른바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전국에 걸쳐 거행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교화시설'들을 갖추게 하여 '정신교화운동' 내지 '사회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31]

우가키 총독은 1935년 1월 10일 '부국장회의(部局長會議)'에서 "1. 精神作興, 自力更生 기타 전년래 착수한 일은 신년과 함께 크게 박차를 가하여 촉진을 도모할 것. 2. 겸하여 희구하고 있는 心田開拓에는 금년에는 다시 몇 걸음을 진전시키고 싶다."는 등의 훈시를 하였다.[32] 이로 보아 그는 이른바 '심전개발'을 정신교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전해부터 추진하였으며, 193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관 및 각 방면의 말을 들어보아도 결국은 神(神道)·儒(유교)·佛(불교)·耶(기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感知된다. 敬神崇祖의 高潮, 神社의 建設, 그것의 參拜奬勵, 승려의 소질 개선, 불교의 가두 진출, 사찰재산의 정리, 儒道의 부흥, 명륜학원 및 문묘의 활동 등을 당장 착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억압받아왔던 불교를 정치적으로 살려가는 것이 크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33]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조선군사령관(1929년)과 육군대신(1931년),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1934년)를 역임했던 인물로 조선인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의 극단적인 형태인 '황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가 가진 조선통치의 2대 목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천황'을 내방하도록 하는 것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34] 그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조

27) 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1997, 190쪽.
28) 위의 책, 204쪽.
29) 『朝鮮總督府 官報』 1932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30) 『朝鮮』(1933. 3), 153~154쪽.
31) 『施政25年史』, 891~894쪽.
32)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 2, 東京 :みすず書房, 1970, 990쪽 ; 1935년 1월 16일자 일기.
33) 위의 책, 997쪽 ; 1935년 1월 30일자 일기.

선인을 모두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바로 이 총독의 재임 시기에 극단적인 종교탄압과 통제가 이루어져, 기독교계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되고,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추방되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 및 일반 종교계에 대한 탄압과 함께 신사의 설립과 신사신앙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 신사(神社)·신사(神祠)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신사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참배자 수도 해마다 급증하였다.

총독부는 이러한 신사 숭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36년 8월 1일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신사(神社)·신사(神祠)가 사격(社格)에 따라 도부읍면(道府邑面)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신사에 대해서는 사격을 높여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면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였던 것이다.[35] 뿐만 아니라 파출소, 주재소 등 관공서나 학교에 신궁대마(神宮大麻)를 넣어두는 간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하게 하더니, 마침내 관할 행정 기구들을 통하여 일반 민가에까지 신궁대마를 강매하고, 가미다나를 설치하여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종교계를 더욱 철저히 통제해 전쟁 협력에 이용하고, 이에 거슬리는 종교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탄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는 그 이전까지의 법령이나 종교계 지도층의 회유를 통한 간접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개 종교단체나 개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강압과 통제를 하여 각 교파를 교단으로 통폐합하고, 그 교리와 의식까지 일본화(=神道化)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의 일본 제국의회 보고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당국의 지도로 조선 각 종교단체 및 유사 종교 단체들은 시국의 중대함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신도와 일반 민중을 열심히 지도하고 거국 일치로 후방에 봉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보국의 성의를 보였다. 따라서 황군의 무운장구와 전승기원, 사상자 위령제, 혹은 국방헌금으로 출전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36]

교파신도는 불교, 기독교와 함께 공인종교이기는 하였지만, 총독부의 적극적인 옹호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미약하여, 교파신도 중 교세가 가장 컷던 천리교밖에는 그다지 활발한 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초기부터 조선총독이 장악하였던 불교계는 "사격에 따라 열심히 후방 수호에 전념"하고 "경성에 있는 불교중앙교무원의 통제 아래 활동을 계속해서 일본인 측 불교 각 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일제 당국은 "조선에 있는 불교의 각 종(宗) 연합회에서는 사변

34) 김승태,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183~191쪽 ; 御手洗辰雄 編, 『南次郎』, 東京 : 生活の友社, 1957 참조.

35) 『每日申報』 1936년 8월 2일자, "조선신사제도 개정에 취하야" ; 岩下傳四郎 編, 『大陸神社大觀』,大陸神道聯盟, 1941, 102~154쪽 참조.

36)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51쪽.

직후 경성부에 있는 18개 사찰의 대표자가 협의회를 갖고 총독의 훈시에 따른 일치 협력과 후방 원호를 결의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협력하여 전사자 위령 추조법회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각 사찰에 위문비 건립 헌납을 독려하는 등 시국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각 종파에서도 각각 본산의 유달 훈시를 받들어 사격에 따라 총후의 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만족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1930년대에 총독부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탄압한 종교계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기독교계였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일어난 신사참배 문제를 계기로 기독교계에서 선교사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킨 일제는 기독교계에 대한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통치에 이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친일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소위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라 하여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고 '종교보국'이라하여 전쟁협력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신사참배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8년 2월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였다.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37] 그들의 시책에 순응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국체에 적합한 야소교'를 만들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여 그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40년에 일제 검찰이 마련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으로 보다 강화되었다.[38] 이 두 자료의 내용상 강요나 상세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가 기독교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책은 모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여 서구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고립시켜 일제의 황민화정책 및 침략전쟁 수행에 순응·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일본적 기독교'라 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까지 변질시켜 기독교를 그들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충실히 순응·협력하는 일종의 어용 교화기구로 삼으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심지어 일제의 패전 직전에 일본 군부 지도부는, 연합국군의 공격시 조선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와 줄 것을 두려워하여 조선기독교인들을 1945년 8월 중순경에 학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39]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공인종교라고 하는 일반 종교계에 대해 이러한 탄압·통제·이용 정책을 쓰는 한편, 민족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용가치가 적은 비공인 종교였던 신종교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였다.[40] 총독부가 '종교유사단체'로 지칭한 신종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193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탄압은 주로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와 일제 경찰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5년 6월 10일부터 2일간 '종교유사단체취체회의'를 소집하고 있다.[41]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서도 도미나가 분이치(富永文一) 지사와 사에키 아키라(佐伯顯) 경찰부장 등 10여 명이 회합하여 "총독부 방침에 준하여" 관내 사찰 정화에 관한 대책회의를

37) 위의 책, 390~391쪽.

38) 朝鮮總督府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彙報』 제25호(1940. 12), 81~101쪽.

39) 한석희 저,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기독교문사, 1990, 185쪽.

40) 일제 강점기 경기도 지역 민중종교(신종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해서는 박환, 「민중종교의 현황과 활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323~358쪽 참조.

41) 『每日申報』 1936년 6월 9일자, "社說 宗教類似團體 取締會議"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본토에서도 그 무렵 '종교경찰'을 두고, 대본교 (大本教)탄압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총독부 경찰도 같은 종교단체의 조선 지부 검거 탄압에 착수하였다. 1936년 4월 10일 대본교의 검거에 착수하여 이 단체를 해산시켰던 것이다. 일본 내무성에서 1935년이래 '사교취체에 관한 건'에 의해 '국체명징(國體明徵)'과 '사교일소(邪教一掃)'라는 명분으로 종교탄압을 통하여 국민사상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조선총독부도 그대로, 아니 보다 더 가혹하고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검거와 탄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제는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한 종교 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검거와 처벌 사건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 2월 백백교(白白教) 사건의 피해자 유곤룡(柳崑龍)의 신고로 탄로난 이 사건은 일제의 종교탄압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42]

1937년 5월 3일에 열린 도경찰부장 회의에서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이른바 '치안 확보'가 '조선통치의 근저'라고 하면서 소위 '유사종교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43]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듬해인 1938년 4월에도 보안법위반 혐의로 충남지역에서 정도교(正道教)의 교주가 검거된 것을 비롯해서 같은 해 8월에는 성도교(性道教)와 전북지역의 황극교(黃極教)가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기소되었다.

이 밖에도 수운교(水雲教),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教), 흠치교(吽哆教), 천도교(天道教) 구파, 태극교(太極教) 등이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검거되었다.[44] 이와 같이 그들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물론, 당시 조선 민중의 종교적 정서를 대변하던 신종교 종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을 '국체변혁', '불경',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군형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거하여 처벌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유사종교'라고 하는 비공인 민간 종교계는 조선인의 독립을 염원하는 민중의 심리를 포교와 교세확장에 이용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독립운동 비밀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제 경찰의 단속이 소홀하였던 종교포교를 표방하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기성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제에 '순응'함으로써 조선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자, 독립에 대한 염원을 여러 신흥종교계에서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고 이를 통한 교세확장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황당한 교리와 일부에서 민중의 정서를 이용한 금전적 착취가 수반되어 역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았지만, 기성 종교계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일로 기울고 있을 때, 당시 일반 민중들의 조선 독립에 대한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이

42) 김승태, 「백백교사건」, 『일제침략사65장면』, 가람기획, 1996 ; 박환, 「민중종교의 현황과 활동」, 329~334쪽.
43) 조선총독관방문서과 편, 『諭告訓示演述總攬』, 조선행정학회, 1941, 490~491쪽.
44) 일제 검찰이 이른바 "유사종교 관계 사상사건"이라고 하는 신종교 관련 연도별 입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思想彙報』 제22호(1940. 3), 17~49쪽, "思想犯罪로부터 본 最近의 朝鮮 在來 類似宗教").

연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합계
건수	18	9	5	11	24	41	33	141
인원	59	12	55	138	108	226	243	841

다. 이러한 신흥 종교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 당시 일제 경찰은 가차없는 가혹한 탄압을 하였다. 1940년 10월 당시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이던 마스나가 쇼이치(增永正一)가 사법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훈시' 가운데 「종교단체 단속에 대하여」는 일제 사법 당국의 종교에 대한 시각과 어떤 탄압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45]

2. 기독교계 자료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기본적으로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천황숭배와 신사신앙을 축으로 하는 그들의 정치적 · 문화적 ·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와는 조화 ·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한국교회가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과 깊은 연대를 가진 배일적 세력으로 인식되었으며, 선교사들을 매개로 그들과 경쟁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는 영 · 미 등 서구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어, 통제 내지 예속화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영 · 미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외부의 지지 없이도 식민지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차츰 선교사들을 적대시하여 한국교회와 분리시키려는 분열정책과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기독교계 학교는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개신교에 대한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통치에 이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친일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이른바'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라 하여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고 '종교보국'이라 하여 전쟁협력을 강요했다. 신사참배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8년 2월 총독부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개신교에 대해서 탄압과 회유로 그들의 시책에 순응하게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른바'국체에 적합한 야소교'를 만들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여 그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이용코자 했다. 이러한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40년에 일제 검찰이 마련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정책은 모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여 서구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고립시켜 일제의 황민화정책 및 침략전쟁 수행에 순응 · 협력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따라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1939년 9월 총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을 조직했다. 연맹 이사장은 총회장이 맡고, 각 노회장은 이사로, 나머지 총대들은 평의원을 맡았다. 산하 노회별로도 노회지맹을 결성하게 하고, 각 교회에는 애국반을 조직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0년 8월까지 장로회총회연맹에 보고된 장로교의 친일협력행위는 '전승축하회' 604회, '무운장구기도회' 8,953회, '국방헌금' 15,803원 24전, '휼병금' 1,726원 46전, '유기(鍮器)' 308점, '시국강연' 1,355회, '위문' 181회, '위문대' 1,580개였다. 전국에 26개 노회지맹이 결성되었고, 731개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총독부는 장로회 총회는 1년에 1번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상설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1940년 9월 총회에 상치위원회

45) 『사상휘보』 제25호(1940. 12), 2~3쪽.

를 구성하게 하고, 10월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 요강」을 결의하여 시행케 했다. 1941년 8월 '조선장로교도 애국기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 모금을 시작하여 1942년 2월 "육해군에 애국기 1대와 육전기관총 7정"의 대금으로 15만 317원 50전을 냈으며, 그 후 수입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육군환자용 자동차 2대"의 기금으로 2만 3,221원 28전을 조선군사령부에 냈다.

조선감리교에서는 수장인 양주삼 총리사가 1936년 4월 10일자 『조선감리회보』에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을 게재함으로써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총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순응'하도록 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감리교회도 이른바'시국행사'에 동원되다가, 1938년 10월부터는 일본 메소디스트교회와 연합운동을 벌였다. 감리교회가 본격적으로 친일협력에 나서게 된 것은 1939년 9월 감리회 총리원 이사회에서 정춘수 목사가 감독으로 피선되면서부터였다. 정춘수 목사는 1940년 여름'국민정신총동원 기독교조선감리회 연맹'을 결성하고 이사장을 맡았으며, 10월 2일 감리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결의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1941년 3월 임시특별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교단규칙'을 제정하여 '교단' 체제로 개편하고, '기독교조선감리회'의 명칭도 '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고쳤으며, 감독도 교단통리자로 고쳤다. 1941년 4월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도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교단연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리자인 정춘수 목사가 그대로 이사장을 맡았다. 1941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전시하 황국신민으로써 종교보국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1942년 2월 각 교구장에게 「황군위문 및 철물헌납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회종도 헌납하야 성전(聖戰) 완수에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일제의 '징병제 실시' 예고와 관련해서도 '공시'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참여를 독려했다. 1943년 10월 일본교단 임시총회에서 새로 제정된 교단규칙(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규칙)을 가결하여 실시했다. 1944년 3월에 개최한 교단상임위원회에서는 경성, 제물포, 송도, 해주, 평양, 진남포, 원산, 강릉, 강경 등지에 있는 34개의 교회를 폐쇄하여, 그 재산을 팔아 비행기 3대의 헌납 기금으로 바칠 것을 결의했다. 1944년 4월부터 수천 엔의 돈을 들여 상동교회에 황도문화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회장은 정춘수 통리자, 부회장은 이동욱 목사, 관장은 갈홍기 목사가 맡기로 하여 1944년 9월 개관 특별행사를 열었다.

성결교회가 일제의 어용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단체로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39년 9월 제2회 연회에서였다. 이 결의에 따라 1939년 10월 경성 성서학원 대강당에서'국민정신총동원성결교회연맹 결성식'을 갖고, 박현명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1940년 7월 각 지방구역에 지부장을 두고, 각 교회에도 애국반을 조직하게 했다. 1940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의 개편되자, 성결교회도 10월 22일 임시연회에서 국민총력성결교회연맹으로 개편하고, 이명직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1943년 5월 이른바 기구를 '쇄신'하여 '일본기독교 조선성결교단'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이명직 목사가 통리를 맡았으며, 전국을 6교구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재림 교리의 문제로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아 1943년 12월 교단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구세군에서도 1938년 7월 일주일 동안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황군위문금'을 모금 '헌납'했다. 영국 구세군 본영과 영국인 선교사의 지휘를 받던 구세군 조선본영은 일제가 영국과 적대관계가 됨으로써 1940년 10월 조선본영 사령관 토마스 윌슨 소장이 사령관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한국인 사관 황종률을 대표자로 임명했다. 교단 명칭도 구세군에서 구세단으로 바꾸어 일본인 사

관 사카모토(坂本雷次)가 단장을 맡고 황종률이 총무부장을 맡았다. 이들은 일제 당국의 지도에 순응하여 10월 30일 「조선구세군 혁신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체제 '개혁'과 부일협력에 나섰다.

개신교 각 교파는 1940년 이후 끊임없이 총독부의 교파통합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교파적 특성이 강하여, 1943년 4월 전필순 목사를 통리로 하는 일본기독교 조선혁신교단을 조직했으나 내부의 반발로 실패하고, 교파단위의 개편 변질을 거듭하다가,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1)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朝鮮の統治と基督教)』(1921)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학무국 종교과장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淸)의 명의로 1921년 1월 초판을 일본어로 발행하고, 같은 해 9월 영문 번역판도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hristinaty in Chosen』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보완하여 1923년 3월 65쪽의 4판을 발행했다. 이는 이 자료의 서문과 영문판을 발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 이후 악화된 조선총독부와 기독교 내지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4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병합 전의 기독교', 제2장에서는 '병합 후의 기독교', 제3장에서는 '총독부 제도 개정과 기독교', 제4장에서는 '조선 기독교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하고, 부록으로 「재선 외국 선교사에 바란다」는 시바타(柴田) 학무국장의 담화와 선교사들이 제출한 「전선(全鮮) 선교사연합대회 진정서」를 싣고 있다. 그러나 영문판에서는 부록으로 감리교 웰취 감독이 『코리아 미션 필드(Korea Mission Field)』 1920년 3월호에 발표한 「현재 위기에서 선교사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라는 글과 정무총감 미즈노가 1920년 봄 평양을 방문하여 선교사들 앞에서 한 연설을 싣고 있다.

2) 『기독교세계』의 주요 논설과 기사(1907~1920)

이 자료는 일본에서 발행된 기독교계 언론 『기독교세계』에서 한국관계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기독교세계』는 1883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독교의 전도와 교회 정보 교환, 문화 계몽을 목적으로 도쿄의 경성사(警醒社)가 발행한 『동경매주신보』의 후신이다. 그 후 『동경매주신보』는 1887년 『기독교신문』으로 개제하고, 1900년 『동경매주신지(新誌)』로 개제했다가, 1903년 발행지를 오사카(大阪)로 옮기면서 『기독교세계』로 개제하여 기독교세계사(基督教世界社)에서 주간으로 발행했다. 이 주간신문은 1893년 이래 일본기독전도회사와 일본조합기독교회로부터 발행 경비보조를 받아 그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일본기독전도회사는 1886년 일본조합기독교회의 성립 후 병립하다가 1912년 일본조합기독교회 전도부로 편입되었으므로, 결국 『기독교세계』는 일본조합기독교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본조합기독교회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1899년 일본어학교인 경성학당에 학당장의 자격으로 서울에 건너와 친일적인 인물들을 양성하다가 1907년 조합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온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는 경성학당 출신들을 포섭하고, 일본 본토의 기업인들과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에 호응하여 이른바 '조선인교화(朝鮮人教化)'에 광분(狂奔)했다. 그는 1913년 1월 『조

선교화의 급무』라는 책까지 발행하여 일본조합교회가 조선인 교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6]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한때 200여 교회 2만 신도라고 할 정도로 세력을 넓혔으나, 1919년 3·1운동 후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총독부의 지원도 끊어져 교단을 그의 충복인 유일선에게 인계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위세는 3·1운동이 거의 마무리되던 1919년 7월 19일자로 조선군참모부에서 보고한 「소요의 원인 및 조선통치상 주의할 건 및 군비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서 '종교가의 활동 및 유위한 종교가의 보호'를 논하면서, "일본조합기독교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함을 요한다. 이번 소요에 즈음하여 동(同) 교회에 속한 교도 2만인 중에 소요에 참가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로써 보아도 여하히 종교력이 위대한 가를 알 수 있다"고[47] 하여 조합교회의 보호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자료는 이런한 일본조합기독교회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보도한 것이나, 활동하는 인물들의 보고서와 기고문을 발췌하여 모은 것이다.

3) 『기독신문』 창간호(1938. 8)

이 자료는 『기독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기사와 논설을 모은 것이다. 『기독신문』은 교파연합신문인 『기독신보』가 1937년 폐간되자, 김우현·전영택 등이 1938년 8월 창간하여 1941년 2월까지 발행하다가 각 교파마다 따로 기관지를 발행하므로 유지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4) 『구세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이 자료는 조선구세군 기관지인 『구세신문』에 실린 이른바 '시국관련' 기사를 모은 것이다. 『구세신문』은 1909년 7월부터 발간되어 구세군의 소식지 역할을 하였으나, 1942년 4월 기독교계 언론을 통폐합한 『기독교신문』으로 흡수되었다. 구세군은 1908년 영국인 윌리엄 부드가 한국에 선교를 개시함으로 시작되었는데, 1940년 10월 일제의 압력으로 구세군 조선 사령관 토마스 윌슨이 물러나고, 이른바 '혁신'을 단행하여 명칭도 '조선구세군(朝鮮救世軍)'에서 '조선구세단(朝鮮救世團)'으로 바꾸고 단장으로 일본인 사카모토(坂本雷次)가 취임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7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5) 『장로회보』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이 자료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기관지인 『장로회보』에 실린 친일협력 관계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장로회보』는 오문환·정태희 등이 주로 장로교회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1940년 1월 창간하여 1941년 8월까지 발행된 주간신문이다. 특히 이 신문의 발행자 오문환은 평양기독교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던 인물이었다.

---

46) 渡瀨常吉, 『朝鮮教化の急務』(東京 : 警醒社書店, 1913)참조.
47) 『한국민족운동사료』(삼일운동편 기 2)(국회도서관, 1978), 119~208쪽.

6) 『기독교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2~1944)

이 자료는 『기독교신문』에 실린 친일협력 관계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기독교신문』은 일제 당국의 압력에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단이 각기 교단에서 발행하던 교단 기관지를 모두 폐간하고 연합기관지로 1942년 4월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1938~1940)

(1)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An Account of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eld at Pyengyang from September 9th, 1938 insofar as it relates to Action on the Question or Obeisance at National Shrines 1938」) : 이 자료는 재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이다.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일단락되어 가자 1938년 초부터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장로회 각 노회별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해 9월에 열릴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이를 가결하여 전국적으로 실행케 하려는 계획을 세워 이를 관철했다.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덧붙여진 「신사참배를 찬성하기로 결의한 노회(Presbyteries taking Action in Favor of Obeisance at National Ceremonies, 1938)」는 1938년 9월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전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노회와 그 가결한 연월일을 보여준다.

(2)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1935년에서 1940년까지의 편지들과 조치들로부터 발췌(증거물A)(「Extracts from Actions and Letters 1935~1940 regarding Work in Chosen(ExhibitA)」) : 이 자료는 1935년부터 1940년 사이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부(본부)와 재한 선교부 실행위원회, 한국에 파송한 조사위원, 또는 선교사 개인들이 보낸 보고서, 편지, 전보, 회의록 등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신사참배와 학교 폐교 철수 문제에서 선교사들과 선교부의 시각 차이와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3) 찰스 어드만이 제임스 후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1940.10.29)(Letter from Charles R. Erdman to Rev. James L. Hooper, October 29, 1940」) : 이 자료는 어드만이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후퍼에게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려는 김길창 목사의 방미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청한 편지다.

(4) 해외에서 당신에게 호소하는 목소리(「A Voice from Across the Sea Appeals to You, by Kilsoo K. Haan(May 7, 1940)」) : 이 자료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것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배교적 행위임을 비판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호소한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의 저자 한길수(韓吉洙)는 미국 워싱톤에 거주하던 동포로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 대표로 있었다.

(5) 1940년 10월 3일 조선 경성의 한국감리교회 감독 정춘수가 만들고 한국감리교의 이사회에서 채택된 선언문(「Statement made by Bishop Chung Choon Soo,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Keijo, Chosen, October 2, 1940, and adopted by the General Board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 이 자료는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영역(英譯)한 것이다. 경기도경찰부에서 1940년 9월 26일 조선감리회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이른바 '지도요강'을 지시하여, 10월 2일 경성 기독교회관에서 총리사 정춘수 목사의 사회로 기독교조선감리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발표했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Outline for Guidanc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nofficial Translation from a Chosen Daily Newspaper, November 10, 1940」) : 이 자료는 1940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40년 9월 제29회 총회에서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등이 1940년 10월 3일 장로회 총회의 상치위원 7명 및 경기도 고등경찰과장 등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독부의 이른바 '지도요강'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 장로회 총회 간부들은 10월 말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정하여 각지의 상치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11월 10일 장로회 총회장 곽진근의 담화와 함께 이를 일반 신문에까지 공표했다.

(7) 감리교 이사회에 의해 1940년 10월 2일에 발표된 혁신성명(「Report on Renovation Manifesto issued Oct. 2, 1940 by Church Commission, Chosen Methodist Church, by Archibald M. McMillan, December 23, 1940」) : 이 보고서는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본부를 둔 미국남침례교회 해외선교부 정기간행물 『The Commission』지 편집장인 맥밀란(Archibald M. McMillan)이 1940년 10월 2일 발표된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영역하여 이 잡지 1941년 1월호에 싣고, 그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8) 해외선교부와 조선 문제(「The Board or Foreign Missions and The Chosen Question by the Rev. John A. Mackay, D.D(October 21, 1940. finally approved)」) : 이 자료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메케이 목사가 1940년 9~10월 사이에 선교본부의 여러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10월 21일 선교본부 월례회의에서 채택한 신사참배강요와 교육철수 문제를 비롯한 조선 문제에 대한 문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표한 것이다. 이 문건은 그 채택 시기와 내용으로 보아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조선 문제에 대한 최종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8) 기타 기독교 관계 친일논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조선』, 일본인이 일본어로 발행하던 『경성일보』를 비롯하여 각종 신문, 잡지, 기관지 등에 발표된 기독교계 인물들의 친일협력 논설을 모은 것이다.

3. 천주교계 자료

일제강점기에 조선천주교는 여타 종교에 비해서 총독부와의 관계가 원만했다. 신사참배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 문제도 1932년 요리문답의 수정과 1936년 교황청 포교성의 지시에 순응함

으로써 해결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의 독려에 따라 8월 15일 종현천주교청년회에서 '황군에 대한 무운장구 및 국위선양 기도회'를 열고 고문신부로서 노기남 신부가 참여하여 시국강연을 했다. 이후부터 각종 '시국행사'에 동원되다가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을 조직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가맹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9년 말까지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에 보고된 천주교계의 친일협력 행위는 '시국관련 기원미사' 29,622회, '시국관련 기도회' 55,452회, '국방헌금' 3,624원 23전, '위문금' 932원, 병기헌납 보조금 422원, '위문대' 691개, '시국강연회 및 좌담회' 11,592회, 출정 장병 가족 위문 151회, 부상 장병 위문 37회, 기타 각종 행사 165회에 이르렀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1940년 10월 국민총력연맹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다음 달인 11월 10일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941년 2월호 『경향잡지』를 통해 매월 첫째 주일을 애국주일로 지키며, 애국주일에는 '무운장구기원미사제'를 지내고, 미사 전후에 애국식(연맹 상회-常會)을 거행하며, 미사 중 시국에 대한 강론과 미사 후 신궁 또는 신사참배를 단체로 하도록 지시했다. 지방연맹과 각 본당의 애국반도 개편과 설립을 독려하여 1941년 봄까지는 지방에도 교구별로 교구연맹이 조직되었고, 본당에는 지방교회연맹과 애국반 조직이 완료되었다. 각 지방교회연맹의 이사장은 각 본당 신부들이 맡았다. 1941년 5월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은 총회를 열어 이른바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 확립'과 '신도(臣道)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무렵 경성교구연맹 이사회에서 이른바 '군기헌납운동'을 벌이기로 하여 이를 위하여 매월 1인 1전 헌금을 하게 했다. 1942년 3월 『경향잡지』를 통해 '대동아전쟁기구(祈求)'라는 기도문을 만들어 각 성당에서는 미사 끝에, 각 가정에서는 조과(朝課)나 만과(晩課) 끝에 기도하도록 통지했다. 1942년 9월 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이 노기남 주교에서 남상철로 바뀌고, 1943년 10월 이사장이 직접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주최 징병제 관련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여 장연 · 신천 · 제천 등지에서 강연했다. 노기남 주교는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1943년 11월 6일 임시특별지원병(학병)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인 내선일체 대정익찬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천도교 등 종교단체가 연합하여 조직한 조선종교단체전시보국회에 천주교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 주교는 1944년 12월 8일 정무총감을 총재로 하고, 학무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조선전시종교보국회를 창설할 때 천주공교를 대표해서 이사로 참여했다. 남상철 이사장도 1944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보도특별정신대(報道特別挺身隊)에 참여하여 전라북도 옥구 · 김제 · 부안 등에서 순회 강연을 했고, 1945년 1월에도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주최 시국강연회 연사로 참여하여 경기도 시흥 · 수원 · 평택 · 안성 등지에서 강연했다.

이 책에 수록한 「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은 『경향잡지』에 실린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경향잡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천주공교의 기관지로 월 2회 발행되었으나, 1940년 919호부터 월간으로 바뀌었고, 다시 1944년 970호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하다가 1945년 7월 휴간되었다.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조직 이후 '시국관련' 기사를 첫 면에 배치하여 각종 '시국관련' 지시와 천주교계의 친일협력 상황을 알리고 있다. 「경성교구연맹의 전시총동원 협력」은 『경향잡지』에 실린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주요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4. 불교계 자료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총독부는 분열된 조선불교계를 통합·정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사찰령'과 7월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 조선총독이 직접 조선불교계를 통제·장악했다. 전국 1300여 개의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본말사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 임명은 총독이 직접 이를 승인하며, 그밖의 사찰의 주지들도 지방장관(도지사)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병합 폐지는 물론 일체 재산의 처분과 사법(寺法)의 제정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3·1운동 후 일부 각성한 젊은 승려들이 불교유신회를 조직하고, 중앙총무원을 결성하여 사찰령 폐지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을 벌였으나, 총독부는 사찰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2년 12월 친일적인 성향의 본산 주지들이 중심이 된 중앙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불교계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를 꾀하였다. 이 중앙교무원에는 경남의 3본산과 몇몇 본산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독부의 종용에 따라 1924년 4월 교무원이 총무원을 흡수 통합하여 30본산을 망라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구성했다.

1930년대 초 대륙침략을 재개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종교적 신앙심까지도 식민통치에 이용하려는 정신교화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우가키 총독 시대의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과 '국체명징운동', 미나미 총독 시대의 '황국신민화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심전개발운동은 '정신교화(精神敎化)' 정책 내지 식민지 이데올로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하여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정착을 꾀한 운동이었다. 불교계는 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여 1935년 이후 '심전개발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총본사 건립운동을 병행했다. 불교계의 심전개발 강연회는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1935년 110회, 1936년 290회, 1937년 172회에 이르렀다.[48] 불교계의 신문인 『불교시보』도 심전개발운동의 선전지임을 자처하고, 조선총독부의 이 운동에 관한 지침과 불교계의 강연회를 자세히 보도했다.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부터 심전개발 강연회는 '시국강연회'로 대체되어 정신·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전쟁협력을 독려했다. 이 무렵 불교계는 "사격에 따라 열심히 후방 수호에 전념"하고 "경성에 있는 불교중앙교무원의 통제 아래 활동을 계속해서 일본인측 불교각 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자,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31본산 주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불교계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자 불교계도 전국의 각 교구 본사별로 국민총력조선불교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했다. 금속회수운동에는 불구와 유기는 물론 범종까지 거두어 냈다. 총본사 건립도 마무리되어 1941년 4월부터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종무원 체제가 출범하여 종정과 종무총장이 전국 불교행정을 총괄했다. 총본산은 1941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전승기원 법회를 열었으며, '황도불교(皇道佛敎)'를 주창했다. 총본사는 군용 비행기를 '헌납'하기 위해 전국 각 본사에 분담금을 할당하여 거둔 금액 5만 3천원을 1942년 1월 조선군사령부에 냈고, 1944년 7월에도 전국 사찰에서 모금한 8만원을 해군무관부에 냈다.

48)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경인문화사, 2003), 176쪽.

그 밖에도 해인사·통도사·보현사에서 각 1대의 비행기 대금을 냈다. 총본사에서 발행한 기관지 『조선불교조계종보』는 이러한 불교계의 친일협력의 선전지나 다름이 없었다.

이 자료집에는 이러한 불교계 친일협력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별로 신문 보도 기사나 잡지 기고문 등을 발표 시기 순으로 수록하고, 이어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의 기관지인 『조선불교조계종보』에 실린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회광(李晦光, 1862~1932)은 조선불교의 일본불교 예속화를 추진했던 대표적인 친일 승려다. 여기에 수록된 「운동적 맹약」(1911.4.2)은 1908년 원종(圓宗)을 설립하여 종정(宗正)을 맡고 있던 이회광이 1910년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에게 설득당해 그가 추천하는 일본 조동종의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원종의 고문으로 추대하고, 그와 함께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병합을 추진하여 맺은 약속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1911년 4월 2일자에 보도한 기사다. 이회광은 1910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의 관장(管長) 이시카와 소도우(石川素童)와 회담하고 10월 6일 조선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연합조약을 맺었다. 귀국 후 각 도의 주요 대사찰을 방문해 조약에 찬성한다는 날인을 받고자 했으나 원종 종무원에 의해 조약 전문(7개조)이 통도사 승려들과 전국 승단에 알려지자 '매종역조(賣宗易祖)'의 망동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남 구암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응(陳震應), 범어사의 오성월, 그리고 한용운 등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맹렬하게 규탄했다. 일본 조동종에서도 와코오 구니요시(若生國榮)를 파견해 조선총독부에 원종의 설립인가를 청원했으나, 총독부에서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공포하고, 원종과 임제종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도 그는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합병하려다가 젊은 승려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자, 조선불교총본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교의 친일화를 주동했다. 「조선불교의 각성과 사회사업」(1921.6)과 「조선불교 운동상 이대 조류의 충돌, 강대련 대 이회광,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병합하려는 중대 문제!」(1920.6)는 이에 대한 기사이고, 「간판은 조선불교총본산, 주지는 일선융화와 정교일치」는 이에 대한 1926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비판기사다.

「이세대묘(伊勢大廟)」는 조선불교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겸 통도사 주지로 있던 김구하(金九河)가 해인사 주지 이회광, 용주사 주지 강대련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불교시찰단으로 1917년 8·9월 일본을 시찰하면서, 일본 이세신궁에 갔을 때의 감상을 적어 1917년 11월 『조선불교총보』에 실은 한시(漢詩)다.

「데라우치 수상을 뵈옵고(見寺內首相)」도 용주사(龍珠寺) 주지 강대련(姜大蓮,渭原馨, 1875~1942)이 조선불교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겸 통도사 주지로 있던 김구하, 해인사 주지 이회광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불교시찰단으로 1917년 8·9월 일본을 시찰하면서,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를 면담하고 감상을 적어 1917년 11월 『조선불교총보』에 실은 한시다. 「불교옹호회와 법려(法侶)의 각오」도 강대련이 1917년 9월호 『조선불교총보』에 기고한 글로 그는 1917년 2월 친일 귀족 이완용(李完用)·권중현(權重顯)·한창수(韓昌洙) 등이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를 설립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승려들이 유교와 기독교를 압도할 만한 충효를 내세워 총독부의 체제에 순응할 각오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도 강대련이 1920년 3월호 『조선불교총보』에 기고한 것으로, 그는 1919년 11월 조선민족을 불교로 감화하는 방법(朝鮮民族以佛敎感化), 경성의 중앙불교종무기관, 경성

불교중앙교육기관, 사찰 산림의 국유 및 세가 탈취, 사찰 호수 및 부역의 금지, 승려재산상속의 방편, 승려퇴속 시 소유재산 처분방법, 감옥포교는 마땅히 내선 양 승려를 쓸 것, 불교옹호의 방편 등 9개항에 걸쳐 불교의 진흥과 불교기관의 확장방법을 개진한 이른바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를 총독 이하 총독부 각 기관에 제출하여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의견서 내용이다.

김태흡(金泰洽, 金山泰洽,1899~1989)은 불교계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고 심전개발, 시국강연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28년 3월 니혼(日本)대학교 고등사범부 국한과(國漢科)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중앙포교사에 임명되어 1928년 5월부터 포교활동을 했다. 그는 그 후 봉은사 포교사로 있으면서, 1933년 7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채용되어 사회학개론, 사회사업, 종교학개론 등을 강의했고, 1935년 8월 『불교시보』를 창간하여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월간으로 발행된 『불교시보』는 그 창간사에서 종교부활 · 정신작흥 ·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심전개발운동의 한 팔이 되고자 한다고 하여 그 무렵 조선총독부에서 전개하던 이른바 '심전개발운동'의 선전지 구실을 자임했다. 뿐만 아니라 1935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심전개발과 불교에 관해 강연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심전개발과 불교의 보은 사상', '심전개발과 자력갱생', '심전개발과 자립정신' 등의 제목으로 한 강연 횟수는 『불교시보』에 나타난 것만도 157회에 이른다. 여기에는 중일전쟁 이후에 한 그의 대표적인 친일논설들로 「법려의 자각과 사회교화의 유의」(1939.1),「신동아건설과 내선일체」(1940.1), 「황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1941.1), 「국민정신과 씨 창설」 (1941.6), 「광영의 징병제도 실시」(1942.5) 등을 싣고 있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이 짐작이 가는 것들이다.

허영호(許永鎬, 德光允, 1900~1952)는 1932년 3월 도쿄(東京) 일본 불교계 연합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32년 9월부터 1933년 5월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겸 학감을 지냈다. 1934년 7월 경남 김해의 해은사 주지를 맡고 있으면서, 1937년 2월 31본산지주회의에서 총본산 기초위원에 선출되었으며, 7월 『불교』지를 속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았다. 「황실(皇室)의 어번영(御繁榮)을 축(祝)함」이란 글은 그가 『불교 신』 제19집(1939. 2)에 실은 것이다. 그 밖에도 「황기(皇紀) 2600년을 맞이하여」(1940.1), 「대동아전(大東亞戰) 하의 화제(花祭)를 맞아서」(1942.5) 등 친일논설을 발표했다.

권상로(權相老, 安東相老, 1879~1965)는 1924년 7월 중앙교무원 기관지인 『불교』를 창간하여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고,[49] 1931년 6월부터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있다가, 1934년 4월부터 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교수로 있으면서, 1935년부터 총독부에서 전개하던 심전개발운동에 연사와 필자로 참여하고, 경성방송에도 출연하여 강연했으며, 순회강연도 했다. 그의 친일협력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주관한 순회시국강연 연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를 맡았다. 그는 1940년 4월 『불교시보』 제57호에 「승려지원병에 대하여」라는 글을 실어, 불교계 청년 승려지원병을 격려하고, 그 밖에도 「비상시 반도불교의 임무」(1940.6), 「대동아전쟁과 대승불교」(1942. 2) 등의 친일논설을 발표하여 불교계의 전쟁협력을 독려했다. 더욱이 1943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임전(臨戰)의 조선불교』라는

49)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제1권, 현암사, 2004, 400쪽.

책을 발간하여, 일본이 도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삼도(金三道, 1907~?)는 1936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1939년 3월 도쿄 도요(東洋)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귀국하여 통도사 불교전수학교(佛教專修學校) 교원을 맡았고, 1939년 8월부터 울산 용화사 주지로 있으면서, 1939년 12월, 경상남도 3본산 종무협회 전무이사를 겸했다. 1940년 1월부터 『불교(佛教)』지의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아, 이를 이른바 '총후보국지(銃後報國誌)'로 편집 · 발행했다. 여기에 소개한 「총후(銃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취(就)하야」라는 글은 그가 불교계의 '전시 저축'과 '전도보국'을 독려하기 위해 『불교 신』 제23집(1940. 5)에 발표한 것이다.

이종욱(李鍾郁, 廣田鍾郁, 1884~1969)은 1930년 7월 월정사 주지 취임 인가를 받고 계속 연임하여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월정사 주지를 지냈다. 그는 월정사 주지로 있으면서, 1936년 7월 중앙교무원에서 조선불교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회를 열어 우가키 총독이 주창한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했고,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른바'황기(皇紀) 2600년을 기념식전'에 강대련 · 김법룡 등과 함께 조선불교계를 대표하여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1941년 4월 조선불교 총본산 건설을 완료하여 총본사의 명칭을 태고사(太古寺), 종명(宗名)을 조선불교 조계종(曹溪宗)으로 확정하고 총본산 태고사법을 인가받아 종무총장을 맡아 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종무총장으로 있었다. 그는 종무총장으로서 각종 불교계 시국행사를 주도했으며, 1942년 2월 『불교 신』 제33집에 「종정 유시를 봉(奉)하야」라는 글을 발표하여"위로 황은(皇恩)에 보답하고 아래로 출정 장병에 노고를 위자(慰藉)하는 의미에서" "① 저축 실행의 적극화 ② 필승 기도 법회의 개최 ③ 민중 사상 선도의 적극화 ④ 근로보국의 실행 ⑤ 시국에 순응할 시설의 급속 실현" 등의 전시 실천 요목을 철저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5월 일본 각의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의결하자 전국 사찰에 '조선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한 기원(祈願) 행사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1942년 7월 『불교 신』 제38집에 「징병제 실시의 영(榮)을 예대(譽戴)하고」라는 글을 발표하여 "메이지(明治) 천황의 조서환발 후로 33년을 지나 이제 내선일체, 일시동인이 당초의 성지(聖志)대로 여실이 실현됨은 시이무의(恃而無疑)임은 지명(至明)이였지만, 1944년을 기하여 반도청년을 동일한 병제에 수(收)하게 되는 희열은 실로 공구감격(恐懼感激)하여 불감(不堪)하는 바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여기에는 그 밖에 그가 총본산 설립 운동을 하면서 『불교시보』에 발표했던 「조선 불교도의 새로운 각오」(1940.1),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전체주의로」(1941.1) 등도 수록했다.

박윤진(朴允進/福田允進, 1905~?)은 1931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1934년 3월 도쿄 불교계 다이쇼(大正)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귀국하여 1934년 4월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5월부터 모교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와 봉은사 순회포교사로 있으면서, 1935년 이후부터 심전개발 순회강사와 시국강연 연사로 활동했다. 1939년 12월 중앙불교전문학교 전임강사로 승진했고, 1940년 1월 그 학교 서무주임을 맡았다. 그가 1943년 1월 『춘추』 제14권 제1호에 발표한 「불교의 전쟁관」은 12월 8일 불교의 '성도일(成道日)'과 일제의 태평양전쟁 선전포고일을 연계시켜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자고 하면서, 불교의 교리와 전통을 들어 일제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는 1944년 1월 『불교 신』 제56집에도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문제」라는 제목의 친일협력 논설을 발표하여 학도병으로 지원한 학생들에게 "보천보국(報天報國)의 일념으로 나아가 싸우기를 바란

다"고 했다.

이 책에 수록한 『조선불교조계종보』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의 기관지인 『조선불교조계종보』에 실린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를 시기순으로 발췌한 것이다. 『조선불교조계종보』는 『불교 신』의 부록으로 편집되어 불교 교단의 행정명령, 각종 공문, 인사발령 등을 실었다.

5. 천도교계 자료

천도교는 그 출발인 동학부터 배외적(排外的)인 민족종교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는 공인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와는 거리를 두고 유사종교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특히 기독교와 함께 1919년 3·1운동 주동 세력으로 지목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최린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가 참정권운동 내지 자치운동 노선을 강화하고, 대동방주의를 내세워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특히 신파의 지도자인 최린이 1934년 4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로 참가하고, 같은 해 11월 조기간 정광조 등 천도교 신파 지도자 및 박영철 장직상 등 거물급 친일파들과 함께 시중회(時中會)를 결성하면서 친일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다.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천도교 신파는 중안교단 내에 시국 및 총후군사후원에 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구로 시국대처부를 설치했다. 이 듬해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될 때 최린은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했고, 천도교 구파와 신파도 각각 발기단체로 참여했다. 1939년 6월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여, 경성에 연맹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천도교 지방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여 원연맹(院聯盟)·전교실연맹(傳敎室聯盟)을 설치하도록 했다. 1940년 초부터 천도교 신구파 합동교섭이 본격화되어 같은 해 4월 4일 합동대회를 개최하고 교령에 이종린(구파), 부교령에 최안국(신파)이 선임되었으며, 합동대회를 마치고는 조선신궁에서 합동봉고제(合同奉告祭)를 지냈다. 천도교는 합동성명서와 함께 발표한 3대 강령에서 "아등(我等)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서 동아신질서건설의 성업(聖業)을 익찬(翼贊)함"을 첫째 강령으로 내세웠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자 같은 해 11월 천도교도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 개편했다. 이 연맹은 조선연맹의 지시와 실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성전완수기원기도회'를 갖는 등 천도교의 종교의식을 통하여도 친일협력을 했다. 1941년 7월 6개월 동안 200여 개의 각 군 교구연맹으로부터 수합한 이른바 '국방헌금' 5,287원을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인 이종린이 조선군 사령부에 냈다. 이듬 해 4월에는 군용기 1대(용담호)를 조선군사령부에 냈다.

이 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천도교계 친일협력 관련 자료를 먼저 대표적인 인물별로 시기 순으로 수록하고, 이어서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新人間)』에 실린 중일전쟁 이후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들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돈화(李敦化, 白山一熊, 1884~1950?)는 1926년 4월 천도교 신파가 창간한 『신인간』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약했던 천도교를 대표하는 논객이다. 그는 1934년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부대령(副大領)

에 선출되고, 1936년 4월 대령(大領)에 선출되었다. 1934년 9월 최린(崔麟)을 중심으로 천도교 신파가 친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조직한 시중회에도 참여했다. 그의 친일협력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천도교 교단 내에 시국대처부(時局對處部)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시국대처부 조직에 앞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는 전단과 통문을 작성해, 수만 매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했다. 이 책에 수록된 「시국의 정해(正解)」(1937.9) 와 「전쟁과 평화」(1937.11)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양평화를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하고, 천도교의 교리를 들어 이를 지지하며 천도교도의 협력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친일논설들은 모두 그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던 천도교의 기관지 『신인간』에 발표한 것이다.

백중빈(白重彬/白川豊造 1892~1967)은 1934년 천도교 정주군종리원장으로 있으면서, 천도교청년당 상무위원을 맡았고,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中央宗理院) 대령사(大領司) 전도(典道)에 임명되었다. 1937년 4월 성도관정(誠道觀正)에 선출되었고, 1940년 4월에 천도교 신구파가 합동하면서 천도교총부 감사원 감사를 맡았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천도교 중앙종리원을 대표하는 성도관정으로서 간부 공동명의로 공문을 보내 시국에 대처하는 지시사항을 알렸고, 시국순회강연 연사로도 활동하면서, 친일논설을 주로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1937년 9월호에 발표한 「천도교와 동방(東方)」에서 제국의 신민(臣民)은 동양평화의 천사(天使)라고 하면서, 동양인의 손으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며 동양적 낙원을 건설하자는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주장했다. 1938년 6월호에 발표한 「장기전 하의 가정보국(家庭報國)」에서는 "매일 아침 황궁요배" "황실의 안태(安泰) 기원" 물자절약 등 구체적인 친일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8월호에 발표한 「비상시하의 국민적 각오」에서도 "시국담당의 전투원적 심경을 가지고 총동원 전진"하고, 물자를 절약하여 일제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린(崔麟, 佳山麟, 1878~1958)은 1919년 3월 조선민족대표 33명의 한 사람으로 3·1독립선언에 참여해, 3년간 옥고를 치렀지만, 출옥 후 조선총독부의 회유정책에 말려들어 참정권운동을 하면서 친일협력으로 기울었다. 1922년 9월 천도교 종리사(宗理師)에 임명되었고, 1925년 종법사(宗法師)로 승진했으며, 1929년에 교단 최고직인 도령(道領)에 올랐다. 1931년부터 천도교단 고문을 맡았고, 1934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직후부터 시국강연 순회강사로서 전라도 일대와 평안도 일대를 돌며 시국강연을 했다. 1938년 6월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이사·상무이사로 활동했다. 천도교단 안에서도 상임현법사에 이어, 1940년 천도교중앙총부 장로(長老)에 올라 행방 때까지 장로로 있으면서, 각종 친일협력 단체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시국강연회·국민대회 등에 연사로 참가하는 한편, 많은 친일논설을 신문·잡지에 발표하여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지했다. 이 책에 수록한 「기관교무에 대한 5대 요강」(1938.2)은 그가 그해 천도교 중앙기관의 시무식에서 한 훈화로 "보국(報國)의 신앙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국과 교의」(1939.2)도 그해 정초에 인일(人日)기념 강담회에서 그가 한 연설로 "1. 신앙보국주의 강화, 2. 신동아건설 이상 확지, 3. 총력전의 체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모두가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에 실린 것이다.

조기간(趙基栞, 天谷正, 1892~?)은 1925년 4월 천도교청년당 당두(黨頭)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10월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창립총회에 천도교청년당 대표로 참석해 중앙이사에 선임되었다. 그 후 그는 1939년 4월 천도교청년당이 해산될 때까지 중앙집행위원·학술연구위원·부대표·당두 등을 두루 맡았

고, 조선농민사 중앙이사도 겸했다. 그는 1934년 8월에 시중회 발기인과 회원으로도 참여했다. 그는 1937년 4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총정(總正)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7월 발족한 시국대처부(時局對處部) 부장을 겸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협력 활동했다. 그는 1939년 4월 천도교총부 성도관정(誠道觀正), 1940년 4월 교화관장(敎化觀長), 1944년 부교령(副敎領) 등 중앙교단의 주요 간부로 있으면서 각종 공문과 시국강연회, 친일논설 등을 통해 천도교계의 친일협력을 주도했다. 이 책에 수록된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1940.2), 「분기하자! 분기하자! 국민개로의 대진군으로」(1941.10), 「3백만 동덕에게 읍소」(1941.11), 「징병제 실시와 국어보급」(1942.6), 「성전필승의 3대 요결」(1942.12) 「필승 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1945.1) 등은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에 발표한 그의 친일논설을 발췌한 것이다. 특히 1940년 2월호 『신인간』에 발표한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글에서 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한울님께서 우리 아시아인에게 부여하여 주신 천여(天與)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황도국가주의'의 신앙화를 통한 국민의 정신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린(李鍾麟/瑞原鍾麟, 1883~1950)은 천도교 구파를 대표하는 원로로서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8월 천도교 신파 주도로 열린 각 종교단체 연합 시국대연설회에 참석해 「금일 아등(我等)의 임무」으로 시국연설을 했다. 그 후에도 그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전선(全鮮)순회시국강연반 연사로 참여하여 전라도 일대에서 시국강연을 했고,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을 맡았다. 1940년 4월 천도교 신구파가 합동해 조직한 천도교총부 교령(敎領)에 선임되었고,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을 겸임했다. 그는 이 시기부터 천도교의 교령과 천도교연맹 이사장으로서 각종 친일협력 공문과 지시를 내려보내고, 천도교계의 친일협력을 지휘했다. 그는 교령으로 취임하면서 『신인간』 145호(1940. 5)에 발표한 「취임사」에서 "나는 오직 합동대회로서 성명한 1. 우리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써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익찬(翼贊)함. 1. 우리는 신앙통일 · 규모일치 하에서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생활 확립을 기함. 1. 우리는 교화에 주력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이상실현을 기함 을 향하여 나아갈 뿐의 결심이다."라고 하여 교단적인 친일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신인간』 1942년 1월호에 교령으로서 「급고(急告)」를 발표해, 일제 당국을 절대 신뢰하고, '성전필승(聖戰必勝)'의 신념으로 성전필승을 실행하고, 매일 오후 9시에 성전필승 기도를 드리며, '유사즉응(有事卽應)'할 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박완(朴浣, 鶴川浣, 1896~1961)은 1936년 10월 구파 중앙교회 현기관(玄機觀) 종무원에 선출되어 중앙교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1937년 4월 전제관(典制觀) 종무원, 1938년 4월 현기관 종리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1940년 4월 2차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관장(觀長) 및 사교부장에 선출되고,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의 간부를 새롭게 구성할 때 상무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 재편되면서도 계속하여 상무이사를 맡았다. 여기에 수록된 「동아신질서 건설」(1940.8), 「전시신앙보국」(1941.9), 「결전생활에 철저하자」(1943.8), 「금년은 결전의 해」(1944.1) 등의 글들은 그가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지에 발표한 대표적인 친일협력을 주장하는 글들이다.

최안국(崔安國, 和田欽五, 생몰년 미상)은 1935년 천도교 의주종리원 원장을 맡았고, 1939년 4월 천도교본부 현법사(玄法師) 및 총정(總正)에 선출되고, 6월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를 맡았다. 1940

년 4월 2차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부교령(副敎領)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민총력 천도교연맹으로 재편될 때도 평의원을 맡았다. 그는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 1941년 7월호에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국체를 찬양하며,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해서는 유일생명, 생명의 발전 및 방위, 사상 통일, 적재적소, 직역봉공, 공익우선, 자양분배, 도덕교화" 등이 신체제하에서 실행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에 수록된 「신국신민(神國臣民)의 본무」는 1942년 1월호 『신인간』에 부교령으로서 신년소감을 밝히면서,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신국신민의 임무"를 강조한 친일논설이다.

정광조(鄭廣朝, 川上廣朝, 1883~1951)는 천도교 제3세 교조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의 사위로, 1929년 부도령(副道領)을 거쳐, 1930년 12월 대령(大領)에 오른 후 1944년 4월까지 대도정(大道正)·고문·상임현법사·상주선도사·교령(敎領) 등 천도교단의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교단 내 주요 간부 및 최고책임자로서 「교발(敎發)」 등 천도교 공문과 각종 글·강연 등을 통해 천도교단과 교인의 전시체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1940년 4월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상주선도사(常住宣道師)에 선출된 후 간부 공동명의로 「교발(敎發) 제2호」를 발표하여 친일협력을 공약했고, 1942년 4월 천도교 교령에 선출되어 천도교 최고 지도자로서 교단적 친일협력을 주도했다. 이 책에 수록된 「징병제실시와 아등의 준비」(1942.6)와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1943.4) 등은 교단 최고지도자로서 일제의 조선인 징병제 실시 발표를 지지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천도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병제(金秉濟, 金岡秉濟, 1894~?)는 1928년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지도관서(知道觀書)에 선출되면서 교단 중앙간부로 활동하기 시작해, 1940년대까지 관정(觀正)·관장(觀長) 등을 지냈다. 1937년 4월부터 천도교 기관지 발행사인 신인간사(新人間社)를 책임지게 되면서 주간을 맡았고, 1940년 4월부터 사장을 맡았다. 여기에 실린 「성전결승(聖戰決勝) 기도를 앞두고」(1943.10)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면서, "황군장병의 무운장구를 빌고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아 제국이 최후 완전한 승리를 얻어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를 건설케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내용이다. 「학도제군에게 대하여」(1943.12)와 「군인과 종교」(1943.12)라는 글도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학도지원병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지원병제도는 내선일체의 완성이며, "대동아공영권 내에 있어서 지도자적 중핵민족이 될 만한 희망"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가해 전사하더라도 '호국의 영(靈)'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원병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책에 수록한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37~1944)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에 실린 중일전쟁 이후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6. 시국관련 종교계 연합사업 자료

1) 심전개발

『심전의 개발』(1938. 3)은 이른바 교화자료(敎化資料)로 강원도에서 1938년 3월 발행된 소책자이다. 이 책은 첫 페이지에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心田開發施設ニ關スル件)」이라는 1936년 1월 30일자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을 게재하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라디오에 의한 사회교화를 기획하고 경성 중앙방송국 제1 및 제2 방송에 수양, 부인, 상식의 세 강좌를 설정하고, 해당 방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에게 위탁하여 1937년 1월부터 방송해 온 방송강연의 요강을 수록하고 있다.

「心田開發 및 時局에 關한 巡回講演集」 제1호(1936~1937)는 『불교시보』 발행인으로 불교계의 대표적인 친일논객인 김태흡(金泰洽, 金山泰洽 1899~1989)이 1936년 7월부터 1937년 12월 사이에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 심전개발 강연 및 이른바 '시국강연'을 엮은 것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心田開發に關する 講演集)』(1936)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종교적 심성을 통치에 이용하고자 심전개발운동을 벌이면서, 각 종교계의 지도자나 학계의 전문가에게 강연을 청탁했는데, 이 자료는 그 강연 원고를 편집하여 1936년에 발행한 것이다. 조선사편수회 위원이었던 최남선이나 이능화를 초청하여 심지어는 '조선(朝鮮)의 고유 신앙(固有信仰)'에 대해서도 강연을 듣고 그 이용 방법을 토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종교단체 연합사업

「전시하의 시국연설」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37년 7월 26일 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경성에 있는 각 종교단체가 연합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과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른바 '시국대연설회(時局大演說會)' 강연 내용을 1937년 10월호 『삼천리』에 게재한 것이다. 이 때 윤치호가 개회사를 맡았고, 각 연사(演士)와 연제(演題)는 다음과 같다.

이돈화(李敦化, 天道敎 新派, 中央宗理院) / 동양평화(東洋平和)의 근본책(根本策)
권상로(權相老, 佛敎專門學校 敎授) / 시국각성(時局覺醒)의 필요성
양주삼(梁柱三, 감리교 목사, 총리사) / 오인(吾人)이 취할 태도
이종린(李鍾麟, 天道敎 舊派, 中央敎會) / 금일(今日) 아등(我等)의 임무
안인식(安寅植, 경학원 司成, 명륜학원 강사) / 시국(時局)과 오인(吾人)의 각성(覺醒)
전필순(全弼淳, 『基督申報』 사장, 장로교 목사) / 태양은 창공에 높히 드날닌다

「종교단체 연합집회 보고서」는 경성 각 종교단체연합회에서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의 행사로 1938년 4월 28일 저녁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회관에서 개최한 '시국강연회'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장이 경기도 경찰부장에게 보고한 비밀 보고서이다. 남여 30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사회는 윤치호가 맡았으며,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았다.

이돈화(李敦化, 천도교 신파) / 장기 비상시국과 장기 비상결심
안인식(安寅植, 경학원 간부) / 시국 재인식의 필요
박연서(朴淵緖, 감리교 목사) / 총동원의 정신
박윤진(朴允進, 불교전문학교 강사) / 보국정신(報國精神)
이종린(李種麟, 천도교 구파) / 관념에서 실천으로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찰 단속 상황'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연사들은 모두가 장기전에 걸친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국가주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자로 생각되지만, 부주의하여 단편적 탈선 언행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개최 전 책임자로 하여금 강연원고를 제출받아 일단 주의를 주었다."고 하여 강연원고를 사전 검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논저〉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 천도교 세력의 친일문제」, 『동학연구』 제9·10호, 2001.9.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김승태, 「日帝의 植民地 宗教政策과 韓國 基督教界의 對應, 1931~1945」,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Ⅰ. 기독교

1.『조선의 통치와 기독교』(1921)

서언

조선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의 기독교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일어난 소요사건 이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의할 사안으로서 내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만큼 관찰이 다양한 것은 다른 데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관찰의 차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찰자의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 여러 비평이 나온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여러 관찰 비평이 복잡하게 세간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선의 기독교 활동은 포교의 가면을 쓴 정치운동이고, 외국 선교사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불온한 조선인을 선동하여 우리 국권에 반항하도록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 또는 합병 전의 구한국 시대에 정부의 보호를 받고 기독교가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을 예단하여, 병합 후 총독부 정치는 기독교를 눈앞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벌할 것을 통치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 즉 '조선에서 기독교 박해'라는 말이 표어로 제법 널리 해외에도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원래 비평은 비평하는 사람 마음대로지만, 종종 잘못된 비평으로 인해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 문제, 특히 조선의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사실에 기초하여 확실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 소책자 편찬의 동기이다. 따라서 조선의 기독교의 폐해와 이로운 점을 논평하고, 또는 역사적 고증을 검토하는 일은 이 책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아니고, 조선통치의 표리를 이루며 관련을 맺고 있는 기독교 발달의 경로를 사실에 입각하여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모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을 제공하여 독자의 비평에 맡기려는 데 뜻을 두었다.

꼭 한마디 언급해야 할 것은, 편자는 원래 종교에 관해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과 단기간에 일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정리한 탓에 재료 편집이 불충분하고 기술(記述) 또한 통일되지 않았으며 문장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아서 유감이지만, 조선의 기독교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다.

1920년 9월 학무국에서
나카라이 기요시(半井 清)

목차

제1 병합 전의 기독교
천주교의 입선(入鮮)…제1차 박해…대원군의 학살…신교의 도래…이토 통감의 종교 방침

제2 병합 후의 기독교
포교의 자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의 제정…소요사건
제3 총독부 제도 개정과 기독교
시정의 방침…종교과 신설…외국 선교사와의 양해 친교…시정의 개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 개정…종교법인의 허가…소요사건의 1주년
제4 조선 기독교의 진상
기독교의 활동…'기독교의 박해'…외국인 비평

부록

「재선 외국 선교사에 바란다」 시바타(柴田) 학무국장 담화
「전선(全鮮)선교사연합대회 진정서」

사진 목차

1. 내외인 간담회 및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회장
2. 경성 프랑스 천주공교회당 및 정동 미국 북감리교회 제1예배당
3. 기독교 포교 색별도(외국 선교단 제작)
4. 대원군 학살 순교자(1866년) 및 평양의 대원군 기독교 박해 기념비
5. 이토 통감의 보조로 설립된 평양교회
6.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합기독교회
7. 전주에서의 일본인 · 조선인 및 외국인 간담회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

제1 병합 전의 기독교

천주교의 입선…제1차 박해…대원군의 학살…신교의 도래…이토(伊藤) 통감의 종교방침

조선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언제쯤인지 그 시초는 분명치 않으나, 18세기 중엽 북경(北京)에서 간행된 기독교 서적이 다른 한서류(漢書類)에 섞여 조선에 들어왔을 때 당시의 명유(名儒) 정약용(丁若鏞), 이강환(李康寰),[1] 그리고 그 형제인 이혜환(李惠寰) 등이 이를 읽고 깊이 기독교를 숭상하여 몰래 그 서적을 국왕에게 봉정(奉呈)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양근군(楊根郡 : 경기도 양평군을 중심으로 태안군(泰安郡) 방면에서 전라도로 전파하게 되면서 교세(教勢)는 날로 성대해 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천주교의 교의(教義)가 조상의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정조(正祖) 8년(1784년)에 이르

1) '李康寰'은 '李家煥'의 오류.

러 이를 엄중히 금지하는 동시에, 정(丁) 및 이(李)의 형제 3사람을 체포하여 절해의 고도(孤島)로 유배 보냈고, 그 밖의 많은 혐의자들도 형벌에 처했다. 이것이 조선의 기독교도들이 당한 최초의 박해였다. 그렇지만 교도들은 매우 열심히 여전히 신앙과 포교에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입교(入教)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당시 주로 읽히고 있던 기독교 서적은 주로 중국에서 건너 온 것이었다. 때문에 정조(正祖) 10년에 정부는 대사헌(大司憲) 김이소(金履素)의 말을 받아들여 연경(燕京)으로 내왕하는 사자(使者)들이 서적류를 사오는 것을 금하였다. 5년 뒤에는 이를 한층 더 엄금하였고, 명말(明末)에서부터 청초(淸初)에 걸친 문집이나 패관잡기(稗官雜記), 경서사기(經書史記)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서적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그리고 천주교에 관한 문헌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즉시 관헌에 자수케 하여 그 서적을 몰수하여 소각하고 교도를 붙잡아 설득한 뒤 이교(離教)하도록 촉구하고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죄다 처형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금압(禁壓)의 손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다시 포교를 시작하였으므로 신도의 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순조(純祖) 원년에 이르러 정부는 또다시 대소탕을 감행하여 이들을 용서치 않았으므로 천주교도들 중에 고문과 사형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마침 그 무렵 황사영(黃嗣永, 알렉산더 황)이라는 신도가 중국인 포교자를 숨기고 전도하도록 한 사실이 발각되어 두 사람이 모두 처형되었으나, 그 후 25년이 지난 뒤 다시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 불과 며칠 만에 신도 500여 명이 투옥되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중국과의 관계 밖에 없었으나, 1833년에 이르러 프랑스인 선교사 피에르 모방이 전도(傳道) 본부의 명령으로 조선에 들어왔고, 이어 두 명의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성으로 와서 포교에 종사하였다. 이렇듯 신도의 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더욱 압박을 가하였고, 1839년 7월 새로운 엄령(嚴令)에 따라 신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박되었다. 이를 목격한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세 명의 선교사를 숨겼지만 모방 등은 자기들 때문에 조선인이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고 자수하여 그들의 용서를 빌었으나 정부는 조금의 가차도 없이 130여 명을 사형에 처했다. 그 후에도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 조선에 들어오려 시도하였지만 감시가 너무도 엄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당시 마카오(澳門)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인 포교사 김모(某)는 바다를 통해 귀국하여 황해도에 상륙했으나 곧 체포되어 참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모(某)는 프랑스 선교사를 데리고 육로로 교묘하게 조선에 들어와 경성 및 전라도 방면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구두(口頭)만의 포교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끝에, 특별히 인쇄소를 설치하여 주요 서적을 언문(諺文)으로 번역 출판하기도 하고, 학교를 개설하여 라틴어 학습을 위한 학생을 모집하기도 하고, 혹은 진료소를 설치하여 구제 사업에 힘쓰기도 한 덕분에 철종(哲宗) 말년(1863)에는 그 신도가 1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고 이태왕(李太王)이 즉위하고 생부 대원군이 섭정의 지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당시, 주요 지위에 있던 자로서 천주교도가 된 자가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왕의 유모 박씨(마르다 박), 승지(承旨) 남종삼(南鍾三, 요한 남), 홍봉주(洪鳳周, 토마스 홍), 이신달(李身達) 등은 이 방면의 유력자들이었다. 특히 남종삼은 학식이 풍부하고 정부 내에서도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늘 천주교의 발전을 꾀하고자 고심하였고, 한편 프랑스 선교사 장경일(張敬一, 베르뇌)은 남종삼의 집에 머물면서 성서와 종교 서적의 간행에 노력하고 있었다.

때마침 1866년 정월, 러시아 군함 한 척이 함경남도 원산(元山)에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하고 매우 위협적인 언사를 부렸기 때문에 조정은 크게 놀라 그 전후책을 논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종삼은 이 기회를 타서 기독교의 기반을 다져보려는 의도에서 즉시 상소문을 올려 「영·불 두 나라와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을 방책」을 건의하였던바, 대원군은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명을 내려 때마침 북경으로 여행 중이던 베르뇌를 급히 데려와 러시아인과 교섭을 벌이게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는 날에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기독교 선포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조선 관헌의 태도는 어느 정도 친선적(親善的)이었기 때문에 관민 중에서 나날이 입교(入敎)하는 자가 늘어나 교세는 매우 유망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정의 일각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북경에서 돌아온 사절이 청국에서는 그 정부가 역내(域內) 천주교도들을 몰살했다고 보고하였다. 또 원산에 닻을 내렸던 러시아 함이 닻을 거두어 사라져 버린 사실 등으로 인해 대원군은 심중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를 동기로 차제에 기독교도를 절멸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뀐 사실을 모르는 베르뇌 일행은 북경에서 돌아오자 1월 21일 즉시 참내(參內)하여 알현을 구하였으나 음력 정월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때 이미 금교(禁敎)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2월 20일 밤 대원군의 명을 받은 일대의 병사들이 남종삼의 거처를 습격하여 그와 처자·형제 20여 명을 비롯하여 선교사 장경일, 홍봉주, 이신달과 그 밖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횡포를 휘두르며 도성에 거주하는 천주교도를 색출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살을 자행하였다. 그 포악한 참상은 이 루 말할 수 없었으며 시체는 동대문 밖에 쌀가마니처럼 쌓였고 혈도(血刀)를 휘두르는 병사가 동분서주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지경이었다.

그 당시 학살 광경을 목격한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금교령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무렵에는 이미 감옥은 천주교도들로 넘치고 있었고, 3월 8일에는 종로거리에 형장(刑場)이 설치되어 장경일, 남종삼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우차(牛車) 바퀴에 깔려 죽음을 당했다. 11일에는 홍(洪), 이(李)를 비롯해 그 밖의 주요 교도들이 노량진에서 참수 당했다고 한다. 이어서 대원군은 영을 내려 널리 국내를 수색하여 교도 수천 명을 체포하여, 전후 약 3만 명의 천주교도를 살육했기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가 20여 년간 신고(辛苦) 끝에 경영한 선교사업도 한때 온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게다가 대원군은 이 사건 당시 자못 의기양양하여 평양 모란대(牡丹臺) 밑 부벽루(浮碧樓) 곁에 비를 세워 이 폭거를 기념하였는데, 그 비문의 한 구절이 그의 의도를 추측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지금부터 불과 54년 전의 생생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의 분투·노력의 결정(結晶)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으나 1873년 대원군의 세력이 실추되고 정치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천주교회의 교세도 점차 회복되었다.

조선에 프로테스탄트(신교)가 포교를 시작한 것은 1884년으로, 미국 북장로파(北長老派)의 선교사 언더우드 등이 조선에 들어와[2] 경성과 평양 등지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학교를 세워 조선인 자녀를 훈육

2) 1884년은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해이고, 언더우드는 1885년에 입국했다.

하고, 또 병원을 세워 의료사업을 베푸는 등 각 방면에서 기독교의 부식(扶植)을 꾀하였다. 다음 해에는 미국의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파(미 감리교회)도 일본에 재임 중이던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인의 교화에 종사케 했다. 이리하여 19세기 말까지는 미국 · 호주 · 캐나다의 세 장로파, 영국 성공회(聖公會), 미국 남 메소디스트 파(남감리교회) 등도 연이어 조선의 전도(傳道)에 착수하였다. 선교사들은 열심히 조선어를 배워 포교의 실력을 기르는 한편, 조선인 전도사를 양성하여 포교를 시켜 조선 전체에 걸쳐 교지(教旨)의 선전에 힘썼다.

1906년 2월에 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이 통감(統監)으로 부임하여 열심히 조선반도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고, 당시 일본과 조선감리교회 감독이었던 M. C. 해리스 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어느 날 저녁 해리스와 회담 중 이토 공작이 "정치상의 일체의 사건은 불초 이토가 담당하겠지만, 앞으로 조선에서의 정신적 측면의 계몽과 교화는 바라건대 귀하들이 맡아 달라. 그렇게 해야만 조선 인민의 유도사업(誘導事業)은 비로소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이다. 또한 이토 통감은 평양에 있는 일본 메소디스트 교회의 교회당 건축에 금 1만 원을 기부하여 그 사업을 원조하였다. 그밖에도 경성에 있는 조선인 소속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금 1만 원을 기부하고 장려했다.

제2 병합 후의 기독교

포교의 자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의 제정…소요사건

병합 후에도 종교에 관한 대책은 통감제도의 방침을 계승하여 신교(信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어도 사회의 안녕을 문란케 하고 풍교(風教)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에 대해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포 및 부속 사업은 두드러지게 발달하여 교회당과 사립학교 및 병원이 지방 도처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전도는 주로 외국 선교사 및 그 밑에서 양성된 조선인 목사가 맡았고,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전도에 착수한 것은 단지 조합교회(組合教會)가 있었을 뿐이다.

기존에는 교회당, 사립학교의 숫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교의 절차 및 사립학교의 경영 등에 관한 별다른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교회당과 학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관한 일정한 취급 방법을 제정할 필요를 인정하고 1915년에 포교에 관한 종전의 규칙을 정리하여 포교 규칙을 발포하였다. 1911년에는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은 1915년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기독교는 이상과 같이 순탄한 경로를 밟아 왔으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이 돌발했다. 그것은 1919년 3월에 일어난 이른바 '소요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관해 세간에서는 온갖 비평도 있었으나, 이 비평의 가부에 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지만, 다만 비평의 근저가 되는 사실 그 자체가 세상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을 유감으로 여길 따름이다. 예컨대 수원의 기독교 신자들의 피해는 실로 침소봉대 격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동기는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 경관 두 명이 무참히 그들에게 살육당한 데 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소요사건 관계자 중에 특히 천도교도와 기독교도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건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사법당국이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기록한 판결 이유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고자 한다. 물론 재판소가 제도상 다른 행정관청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임은 말할 것 없다. 판결 이유는 매우 길지만 조선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일 테니 원문에 따라 소개하기로 한다.

전대미문의 대전(大戰)이 종국에 이르러 평화의 서광이 점차 나타나려는 이때, 1918년 1월 상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강화 기초 조건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중 식민지 문제 등 주체에 관한 사항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민족의 독립을 승인하려는 취지와 대소 국가의 정치상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조직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어 연합 각국 강화위원들이 여기에 참집하여 대독(對獨) 강화조항을 심의하였고 미국대통령 윌슨도 프랑스로 건너가 직접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그 주창하는 바를 극력 실현하고자 힘썼다. 여기에서 일찍부터 일한합병의 결과로 조선의 독립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천도교 성사(聖師) 피고 손병희(孫秉熙), 동 교도 중 유력자 보성고등보통학교장 피고 최린(崔麟), 천도교 도사(道師) 피고 권동진(權東鎭), 동 피고 오세창(吳世昌)은 이번 강화회의는 전란의 뒷처리를 수습하는 동시에, 영구평화를 위해 세계를 개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윌슨이 주창하는 민족자결주의는 지난 전란의 격전지가 된 구주(歐洲) 각지의 민족뿐만 아니라, 마땅히 전 세계 일반 민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조선민족도 궐기하여 치열한 독립 욕구를 전 세계에 천명하여 구미 각국의 주목을 끌고, 또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뜻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조선의 독립은 '폴란드' 민족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강화회의의 의제(議題)에 올려 그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히 해외 조선인들 중에는 이미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파리로 건너간 자가 있다는 풍설과 도쿄(東京)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풍설이 국내에 빈번히 전해지고 있다. 한편 상해(上海)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조선의 서쪽 지방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선전하는 자가 있어서 경성을 비롯한 각지의 인심은 동요되어 독립 운동의 조짐이 현저한 이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끝에, 그해 1월 하순 손병희의 주소지에서 수차례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조선을 제국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독립국을 형성할 것을 기도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동지를 규합하고 조선민족 대표자로 손병희 등의 이름으로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조선 전체에 배포하고 민중을 선동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을 벌임으로써 조선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야 하는 한편, 제국 정부,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 및 강화회의에 참석한 열국(列國) 위원들에게 조선 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 독립에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실천은 최린이 맡기로 하고 그해 2월 상순, 최린은 친분이 있던 중앙학교장 피고 송진우(宋鎭禹), 사제관계인 동교 교사 피고 현상윤(玄相允) 및 송진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역사 전공자 최남선(崔南善)과 최린의 주소지에서 만나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자, 이상 3명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다. 그리고 2, 3일 뒤 위의 4명은 야간에 다시 경성

계동(桂洞)의 중앙학교 내 송진우 거실에서 회합하였다. 이때 숙의(熟議) 끝에 박영효(朴泳孝) · 윤용구(尹容求) · 한규설(韓圭卨) · 김윤식(金允植) 등 구한국시대 요로(要路)였던 저명인사 및 기독교도들을 설득하여 동지로 맞이하기로 하였다. 이들과 손병희 휘하의 천도교도(天道教徒) 중에 주요 인사를 조선 민족대표로 삼아 그들의 명의로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명의로 독립선언서 · 의견서 및 청원서를 작성키로 하고 각 서면의 기초(起草)는 최남선이 담당하고, 구시대 인사들과의 접촉은 최린 · 최남선 · 송진우가 맡고 기독교도에 대한 접촉은 최남선이 담당키로 했다. 그 후 최린 · 최남선 · 송진우가 앞서 언급한 윤용구에 대해 각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최남선은 기독교도들 중에 동지를 얻기 위해 우선 지기(知己)인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 기독교 장로파 장로 이승훈(李昇薰), 이인환(李寅煥)과[3] 접촉을 시도하기로 하고 (……중략……) 2월 21일 최남선은 이인환을 위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함께 최린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때 최린은 이인환으로부터 전날 밤 박희도(朴熙道) 집에서 기독교 동지들이 회합을 갖고 기독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독립운동은 민족 전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종교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합동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를 극력 설파하여 합동할 것을 요구하자 이인환은 동지들과 협의한 후 그 가부를 회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운동 비용을 융통하기 위해 최린이 그날 즉시 손병희에게 금 5천 원을 기독교 측에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천도교 대도주(大道主) 피고 박인호(朴寅浩) 및 동교 금융관장(金融觀長) 피고 노헌용(盧憲容)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동 금액의 지출을 부탁하자 이 두 사람도 위의 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동지로 참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천도교 보관금 5천 원의 지출 절차를 마치고 다음날 22일 최린에게 동 금액을 교부하였고 최린은 이인환의 숙소를 찾아가 이인환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이인환은 전날 밤, 즉 그 달 21일 최린과 만나 남대문 밖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있는 피고 이갑성의 거처에서 그와 박희도 · 오기선(吳基善) · 오화영(吳華英) · 신홍식(申洪植) · 함태영(咸台永) · 경기도 수원군 삼일여학교 교사 김세환(金世煥) · 안세환(安世桓) · 현순(玄楯)과 만나 철야로 협의한 끝에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 천도교 측과 합동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천도교 측의 운동방법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인환, 함태영에게 만사 일임키로 했다. 다음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동지를 모집하여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이갑성을 경상남도, 김세환을 충청남도에 파견키로 하였다. 또 파리에서 개최 중인 강화회의의 형세를 탐문하여 보도하는 동시에 유럽 각국에 서면을 발송할 편의를 도모키로 하고 현순을 중국 상해에 파견하기로 했다(그 달 23일 현순은 이 사명을 띠고 경성을 출발하여 상해로 향했다). 다음날 이인환은 최린으로부터 금 5천 원을 받은 후 함태영과 함께 최린의 집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해 천도교의 의향을 확인했다. 최린은 기독교 측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독립청원서 제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독립선언을 하지 않을 바에야 합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인환과 함태영은 당일 오기선 · 박희도 · 안세환과 함태영의 집에서 모여 숙의한 끝에 천도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립선언을 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날 24일 이인환과 함태영이 최린의 집을 찾아가 합동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조선 독립운동에 있어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동이 성립된 것이다(오기선은 독립선언에 반대하여 당일 탈퇴했다). 이로써 이인환과 함태영은 합동 교섭 이래 기독교

3) '이승훈(李昇薰)'은 '이인환(李寅煥)'과 같은 인물임. '이승훈'의 본명은 인환(寅煥), 자는 승훈(昇薰), 호는 남강(南岡).

대표로서 동지들 사이에 인정을 받아 일찍부터 천도교 측의 대표인 최린과 협의한 끝에 독립선언은 국장(國葬)으로 수십만 민중이 경성으로 모여들 국장 전전일(前前日)인 그해 3월 1일 오후 2시로 정하고, 당일 2시를 기해 경성부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선언서를 비밀리에 상당수 인쇄하여 경성에서는 독립선언 당일 대중에게 배부하고 만세를 부르며, 또 이를 각 지방에 분송(分送)하되 경성의 독립선언의 일시(日時) 및 선언서 배부의 차례를 전달하여 각 지방도 경성에 따를 것과, 선언서를 비롯한 기타의 기초(起草) 및 선언서 인쇄는 천도교 측, 선언서의 배부 및 분송은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이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제국정부(帝國政府) 및 귀족원과 중의원, 참의원에 서면을 발송하는 일은 천도교 측, 미국 대통령과 열국 강화위원에 대한 서면 제출은 기독교 측이 담당키로 했다. 그리고 조선민족 대표자로서 각 서류에 서명할 사람을 천도교와 기독교 측에서 각각 10여 명을 선정키로 하고 (……이하 생략……)

본 사건과 관련해 중요 역할을 맡은 48명의 소속 종교를 조사해보면 천도교 19명, 기독교 21명, 기타 8명이다. 직업별로 보면 천도교 도사(道士)와 기타 교직에 있는 자가 14명, 기독교 목사 11명, 사립학교 직원 4명, 기타 19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그 누구도 본 사건이 기독교와 맥이 닿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라 하더라도 이 속에는 영국 성공회, 프랑스 천주교, 구세군에 속하는 신자는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에 걸쳐 이 운동에 참가한 수천 명의 관계자들 중에도 이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바 있다.

예부터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규합은 딱히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는 이 나라의 만성적 고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불교만 보더라도 고려조 시조 왕건(王建)이 정도(定都)의 시초부터 깊이 불교에 귀의하여 안심을 구하고, 숭불존승(崇佛尊僧)을 정치상의 요의(要義)로 삼고 역대의 왕자 또한 조훈(祖訓)을 존중하여 4백 년간 정사(政事)에 있어서 온갖 폐단을 낳게 되어 결국 쇠망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음 왕조 이조(李朝)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깊이 이 점에 유의하여 불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조(前朝) 말기에 대두했던 안유(安裕) 등의 유도존상(儒道尊尙) 사상을 받아들여 불교 세력을 억제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경주하여 끝내 양유억불(揚儒抑佛)을 정치의 근본방침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천도교에서 관찰하건대 정교구합(政教苟合)의 관계는 한층 분명하다. 천도교 그 자체는 종교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백만에 달하는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고,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어쨌거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종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주 사람인 최제우(崔濟愚)라는 사람이 도(道)를 천도(天道)라 칭하고, 학(學)을 동학(東學)이라 불러 교문(教門)을 연 데서 비롯된다. 그 교의는 유불선(儒佛仙) 3교의 장점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포덕천하광제창생(布德天下廣濟蒼生)'의 대 기치를 내걸고 세속 인심을 포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1대 최제우는 좌도혹민(左道惑民)의 죄로 사형을 받았고, 제2대 최시형(崔時亨) 또한 동학당의 소요에 관련된 혐의로 사형을 당하는 등, 교주는 잇달아 정변에 순사(殉死)하고 말았으나 교세는 교주의 죽음과 더불어 점점 더 굳건하게 인심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보더라도 조선에 있어서 정교(政教)의 구합이 이번 소요에 의해 돌발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만성적 고질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순조롭게 발달해온 기독교를 위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포교에 관련된 사람들의 숙고를 바라는 바이다.

제3 총독부 제도 개선과 기독교

시정(施政)의 방침…종교과 신설…외국 선교사와의 양해 친교…시정의 개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 규칙 개정…종교단체의 재단법인 허가…소요사건 1주년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소요사건이 돌발하고 수개월간에 걸쳐 조선 각지에서 불온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략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해 9월에는 총독부 관제(官制)의 개정이 발표되어 총독부 간부의 경질이 단행되었고 총독에 사이토(齋藤) 남작, 정무총감(政務總監)에 미즈노(水野) 박사가 내임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각국(各局) 부장도 경질되었다. 이 제도를 개정한 취지가 무엇인가는 신 총독과 신 총감의 인선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발표된 조서(詔書)에 이 취지를 선명히 드러나 있다. 즉, 조서에는 "조선의 강녕(康寧)을 바라고 그 민중을 애무함에 있어 일시동인(一視同人),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의 차별이 있을 리 없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얻고 그 삶을 누리며 동등하게 관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할 것"이라는 뜻을 드러내어 민중 애무의 대어심(大御心)과 일시동인의 대정신을 엿볼 수 있다.

종교 방면에 관해서는 총독부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먼저 학무국에 종교과(宗教課)라는 과를 신설하여 사무관 1명, 촉탁 1명, 판임관 이하 수명을 두고 종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제반조사를 하게 되었다. 당국은 특별히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여 과원들 중에 두 명의 기독교 신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 영어에 능통한 촉탁은 주로 외국인과의 연락 기관으로서 친절히 외국인과 접촉하고 상호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총독부 정치의 철저를 기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종교과에 속하는 촉탁 및 판임관도 앞으로도 몇 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다. 종교과를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그 취지가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이해됨으로써 단순히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교과를 찾아와 상의하는 등, 점차 이 과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하게 된 것은 서로를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다. 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는 작년 9월 경성에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 연합대회가 열렸을 때 학무국장도 친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종교에 관한 총독부의 방침을 친절히 설명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평소 품고 있던 의견이나 희망 등을 당국에 제시하여 주면 시정의 참고로 삼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선교사연합 명의 하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당국은 이 진정서를 행정상 참고로 삼고 조선의 현 상황에 비추어 온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은 적극 이를 채택하였고, 유감스럽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록으로서 외국인선교사연합대회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학무국장의 의견을 첨부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진정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들의 심중을 엿보는 데도 흥미로운 자료이므로 조선 문제 연구자들은 필히 일독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1919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 경성에 살고 있는 외국인 목사 및 신자들 중 유지들로 조직되어 고등법원장 와타나베(渡邊) 씨가 주재하는 경성기독교연합위원회란 것이 중심이 되어 당국과 외국인 및 신문기자들 사이에 자주 간담회가 열리고, 또 경성의 신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 자주 열렸다. 권두에 게재한 사진은 당시 회합의 기념으로 촬영한 것이다. 당시 사회자인 『경성일보』 사장 가토(加藤)는 인사를 하고, "소요사건 발발 이후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 적잖은 오해를 일으키고 조선 통치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있었고, 조선인들의 사상 유도에 관해서도 역시 상호 오해가 많아서 이따금 서로 반감을 품은 사태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가 녹아들었고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모였다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헤어지면 날로 소원해 진다'는 속담과 같이 서로 서먹서먹해지게 마련이므로 이렇게 오늘 다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노고를 부탁드린 바이다. 아무쪼록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학교장 케이블 씨는 "간담회는 선교사로서도 몹시 바람직한 모임이며, 본인은 조선에 벌써 30년 가까이 머물면서 조선의 정치, 민도(民度) 기타 만반에 변천을 직접 목격하고 연구해 왔지만,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조선 문제에 대해 이것을 공정하게 소개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기애애한 간담회 석상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 그 후 경성의 지식계급을 망라한 국제친화회(國際親和會)라는 것이 조직되어 조선은행 총재 미노베(美濃部) 씨가 회장, 기독교청년회의 니와(丹羽) 씨가 간사장으로 국제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번 미국 의원 시찰단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와 같이 환영접대, 시찰 장소의 안내 등 여러 모로 분주히 뛰어다녔다. 뿐만 아니라 일요학교 세계대회 출석자의 조선 시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특필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모임은 경성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도 열려 당국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각 국장 이하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교제할 기회를 만들어 애써 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 및 외국인의 접촉은 기존에는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던 만큼, 근래 이런 종류의 회합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독부 제도 개정 이래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이지만,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 새 총독이 조선에 부임하자 먼저 총독부 및 소속 관서에 훈령을 내려 새 시정(施政) 방침을 제시하고 가까운 장래에 시설을 개선할 대 항목을 내외에 선명(宣明)하였다. 훈시의 내용인즉 앞서 제시한 조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중의 애무와 일시동인의 취지에 따라 문화정치를 베풀 것을 천명하고 다음 4항목의 개선을 약속했다.

하나, 형식적인 정치의 폐단을 타파하고 법령은 되도록 간략하게 제정함으로써 성의껏 국민을 지원하여 그 정신의 철저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은 사태와 민정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되도록 피처분자의 양해를 얻도록 해야 한다.

하나, 사무 처리를 간결하게 하고, 민중의 편익을 꾀하여 관청의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 언론 · 집회 · 출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 및 공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상당한 고려를 가하고 민의(民意)의 창달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 교육 · 산업 · 교통 · 경찰 · 위생 · 사회구제 기타 제반의 행정에 쇄신을 가하고 국민생

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일반의 복리를 증진함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을 기하고, 특히 지방 민풍(民風)의 함양 및 민력(民力)의 진흥은 지방단체의 힘에 기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장래에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목적하에 신속히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착수하려 한다.

그 이후 총독부는 천명한 위의 사항의 실행에 힘쓰며 1919년 7천만 원의 예산이 1920년에는 일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신규 계획의 경비만도 1920년에는 2천 8백만 원에 달했고, 이를 위해 법령을 개폐한 것도 1백 50건에 이르렀다. 이들 개선사항을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본서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런 점은 총독부 간행 『조선에 있어서의 신시정(施政)』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날까지 실시된 사항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 및 부속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거론한다면, 첫째 각종 규칙의 개정이다. 종래의 규칙은 제정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 사회의 사정도 달라졌고, 또 그 수속 절차가 복잡하여 규칙 그대로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세간에서 당국의 간섭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받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중히 시행하여 법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외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켜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취지로 하여, 우선 1919년 4월에 포교규칙(布教規則)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요점은 교회당, 포교소 등의 설립은 종래 허가를 요하던 것을 금후는 신고만 하면 되게끔 개정하였고, 또 신고 사항은 되도록 간략히 하였다. 그리고 종래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키로 하였다. 이로써 포교 절차의 간소화와 포교자의 편의를 참작한 것이었는데, 만일 종교 선포(宣布)라는 이름 아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회당, 설교소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1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는 종교 선포라는 이름을 이용해 불온한 행동을 감행하는 불령자(不逞者)를 단속하기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조선의 현 정세에서는 부득이한 조처이다. 이어서 그해 3월에는 사립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절차를 매우 간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래의 규칙에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종교에 관한 과목을 학과과정에 첨가할 것을 금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종교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과과정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학교, 즉 이른바 특종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이 허용된 점이다. 종래 조선에 있어서의 교회의 재산은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경질될 때마다 많은 경비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들 교회 재산을 기본으로 종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은 다년간 외국 선교사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바였다. 이번에 당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법인 설립을 인정할 방침을 세우고 그해 4월 프랑스 천주교 경성 지구 유지재단(維持財團) 설립을 허가하였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종류의 법인 설립은 허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도개정 이래 채 1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각 방면에 있어서 시설개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당국은 또 하나 곤란한 사건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소요사건 1주년이었다. 1920년 3월 1일은 마침 작년 경성에서 소요가 발발한 지 1주년이라 하여 갖은 풍설이 나돌고 작년의 소요를 기념한

다는 의미에서 다시 시위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때문에 일부 조선인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자도 있었으나 당국으로서 가장 곤란한 것은 마침 이 3월 1일을 전후하여 조선에서는 기독교 각파가 일제히 해마다 특별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올해 2월 20일이 마침 음력 정월 초하루에 해당하고 조선에서는 아직도 음력 정월에는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일을 쉬고 축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어서 기독교 각 교파는 매년 이 기회를 택해 때로는 사경회(査經會)를 열고 혹은 특별 전도를 행하는 등 포교상 귀중한 시기로 삼고 있었다. 단지 그 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조선에서는 이 포교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있는 불령(不逞) 조선인이 우민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태가 그동안 간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고심은 이 종교 선포의 진지한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를 기회를 이용하려는 불령 조선인을 단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아카이케(赤池) 경무국장, 시바타(柴田) 학무국장 등은 이에 관해 경성의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 두 명과 회견을 갖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각 지방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 각종 오해로 인해 포교자 측과 지방관헌들 사이에서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학무국장은 아직 사상이 굳어지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불령배의 선동에 이끌려 동맹휴교를 하는 일은 장래성 있는 청년의 앞날을 불행하게 하고 학부형을 실망시키고, 나아가 학교의 운명에 관한 사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학교가 이 와중(渦中)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조선에서 별다른 큰 사고 발생하지 않았고 평온하게 지났다. 다만 경성과 평양의 3학교장의 그 직위를 해제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치의 전말에 대해서는 당시 학무국의 상세한 발표가 있었다. 지금 다시 그것을 여기에 게재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진상을 알고 싶은 사람은 꼭 그 전말서를 일독한 뒤 공정한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제4 조선 기독교의 진상(眞相)

기독교의 활동…이른바 '기독교의 박해'…외국인의 비평

조선에 있어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세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많다. 그중에는 조선의 기독교는 죄다 유해무익한 것이고 선교사는 모두 음험한 인물들뿐이고, 종교 선포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가 많다. 신문·잡지에서도 이따금 그러한 난폭한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 피차 난처한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조선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일부 무리들의 오해에 지나지 않다. 조선의 기독교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세력, 그 사회상의 활동 및 기존에 문화적 시설이 충분치 못한 시절에는 외국선교단이 경영하던 경성병원 등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었던가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조선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 각파 및 소속 신자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조사)

교파별	포교소	포교자 (△ 선교사)	일본인 신도	조선인 신도	외국인 신도	신도 총계
일본 메소디스트 교회	11	10(△1)	844	1	2	847
일본기독교회	10	14(△2)	1,087	113	-	1,200
일본조합기독교회	59	80	618	14,387	-	15,005
계	80	104(△3)	2,549	14,501	2	17,052
조선예수교장로회	1,899	1,332(△182)	11	141,044	138	141,193
성공회	71	84(△25)	429	4,264	18	4,711
구세군	97	68(△18)	164	4,725	26	4,915
천주공교(天主公敎)	224	64(△44)	758	81,104	136	81,998
同 성분도회(聖分道會)	1	8(△8)	-	400	-	400
남(南)감리교회	244	153(△33)	-	9,442	18	9,460
미(美)감리교회	564	583(△50)	-	34,414	72	34,486
러시아 정교파	6	5(△1)	-	558	4	562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44	49(△9)	-	839	21	860
동양선교회	16	40(△9)	-	850	-	850
계	3, 166	2,386(△279)	1,362	277,640	433	279,435
합계	3,246	2,490(△382)	3,911	292, 141	435	296,487

위에서 영국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부 중 다음 여섯 파는 서로 포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각 소속 선교사들 가운데서 위원을 선출하여 조선 전체의 전도구역(傳道區域)을 협정하였다(권두 포교색별 지도 참고). 그리고 모든 선교부가 포교 이외에 학교와 병원 등을 경영하여 조선인의 일상생활상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종래 이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대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큰 편리를 보게 된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선교부의 부속사업의 일면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1920년에 발행된 크리스천 무브먼트 조선의 부(部)에 의거해 감리파 및 장로파의 통계를 다음에 소개키로 한다. 물론 기타 천주교 · 성공회 · 구세군 등의 다른 여러 교파의 사회적 활동도 괄목할 만한 것이 많음은 말할 것 없다.

감리파 및 장로파 통계표

[교육사업] 비고(표기 중 기입 없는 것은 미보고)

종별(種別)	미 감리파	남 감리파	캐나다 장로파	미국 북장로파	미국 남장로파	호주 장로파	합계	전년 대비
남자 고등보통학교	3	1	7	7	1	1	22	18
동 재학생	525	145	415	802	85	56	2,028	2,524
동 교사	3	10	25	52	8	3	132	149
여자 고등보통학교	1	2	3	3	1	1	11	13
동 재학생	95	139	20	236	79	9	578	1,291
동 교사	15	15	5	20	18	1	74	110
남자 보통학교	60	12	54	203	55	5	389	556

동 재학생	2,522	909	1,408	7,632	1,358	256	14,085	16,685
동 교사	112	33	95	322	64	16	642	761
여자 보통학교	54	12	24	75	45	3	213	180
동 재학생	2,416	697	678	2,498	408	330	7,027	8,483
동 교사	121	42	38	92	49	15	356	366
신학교	1	-	1	-	-	-	2	2
동 재학생	40	-	-	-	-	-	40	208
성서학교	6	4	6	12	3	1	29	31
동 재학생	155	82	103	744	169	26	1,281	1,624
동 교사	7	-	25	70	20	4	126	110
기타 학교	16	-	6	15	-	-	37	23
동 재학생	420	-	66	440	-	-	926	788
동 교사	-	-	9	22	-	-	31	30

[의료사업]

종별(種別)	미 감리파	남 감리파	캐나다 장로파	미국 북장로파	미국 남장로파	호주 장로파	합계	전년 대비
병원 수	5	3	4	7	5	1	25	23
침대 수	130	78	112	259	205	56	840	439
입원환자	617	1,131	1,257	4, 164	1,000	327	8,496	9, 103
동 연인원	-	11,500	10,400	40, 196	-	4,827	66,922	71,816
시료부(施療部)	5	3	4	9	5	2	25	25
신 환자	13,887	14,246	14,000	41,988	27, 140	4,855	116, 122	108,297
재래환자	-	14,247	75,810	52,691	18,900	9,711	171,352	226,352
왕진환자	132	-	400	3,951	-	-	4,483	4,404
비용 합계(선교사 급여 제외)	-	-	41,260	102,053	9,438	9,438	186,099	177,862
수입 합계	9,625	-	23, 124	101,142	3,089	3,089	164,328	175,98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의 사회적 활동이 종래 조선 문화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조선에 들어왔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왔으나 총독정치는 그 후 자유로운 포교 하에 오늘날과 같이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박해'라는 말이 하나의 표어가 되어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전되고 있는 것은 정말 기괴한 일이다. 도대체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조선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실로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생각건대 이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 규합하기 쉬운 만성적 고질이 있고, 때문에 당국에서도 치안 유지상 필요한 단속을 가하는 것을, 이유 없이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옛날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구한국의 지도에 선교부 각자의 협정에 따라 포교 지역을 구별하던 머리를 갖고, 제국의 영토가 된 조선에 들어와 정부가 제정한 규칙을 일일이 포교를 방해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라고 그릇 억측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으로 유독 이런 표어를 해외에 선전하

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태껏 이 방면의 실정을 사실 그대로 소개한 간편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 이런 종류의 오해와 풍설을 자유로 유포시키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책자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발달해온 과정의 대강의 사실에 기초하여 간단히 기술한 것이므로, 이로써 조선의 과거 및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른바 '기독교의 박해'라는 표어가 과연 얼마만큼 진상을 말해주는가에 대해 공정한 비판을 구하는 바이다.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해외의 신문잡지 등에도 많이 논평되고 있다. 또 이른바 조선통(朝鮮通)이라는 자들의 여러 비평도 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2, 3주일간 기차로 조선을 여행했다는 정도의 시찰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비평의 재료라는 것도 주로 여행자의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 시찰자가 종교 관계자일 경우는 그 지방의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이런 비평을 내리는 식이다. 때문에 사실의 진상을 포착하여 공정한 관찰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애당초 어떤 예단을 갖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위해 그 소재만을 수집하러 조선을 찾아오는 자도 있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다. 최근 여러 조선통이란 자들의 비평을 신문 잡지에서 보는데, 그중에 미국 월간지 『스크리브너』(Scribners' Magazine)의 3월호에 게재된 C. H. 쉐릴(Charles H. Sherrill) 씨의 조선에 관한 비평과 『저팬 어드바이저』(Japan Advertiser)에 게재된 F. H. 스미스(Frank H. Smith) 씨의 「조선 문제의 진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쉐릴 씨는 이전 남미 아르헨티나에 부임한 미국 공사(公使)로서 작년 가을 경성을 방문하여 직접 조선사정을 연구한 사람이다. 또 스미스 씨는 미국 메소디스트 파의 선교사로서 6년간 경성에 거주하면서 많은 일본인 · 조선인과 사귀고 조선의 실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 관찰이 공정하고 조선의 사정을 진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그 기사 중에서 특히 종교에 관한 일부분을 소개하여 조선에서 종교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며 또 세간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초로 삼고 싶다.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비난 공격을 하는 통신이나 논문을 몇 편 읽은 후, 나는 우연히 어떤 사실을 접하고 여기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경성으로 가서 실지 조사를 하였다. 그 사실 중 하나는 조선에서 보내온 미국의 신용 있는 어느 잡지에 게재된 사진에 일본병사가 조선인을 총살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1895년 청일전쟁 때의 군복이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사진은 그 전쟁 중에 조선옷을 입고 있는 중국인 군사 탐정이 처형되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미국으로 보내 발표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잡지 발행자를 통해 미국의 독자를 속이려고 계획하였고, 또 그대로 속였던 것이다. 이렇듯 고의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사기를 치는 일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의 선교사의 상태에 대해 장로파 해외선교 본부의 총무 로버트 스피어 박사는 매우 공평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심히 그를 공격하였다. 내가 이 보고서를 읽고 실지 조사를 해야겠다는 뜻을 품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 자신은 뉴욕의 장로파 교회의 해외선교위원이기 때문에 외국전도 그 자체에 악감정을 품고 있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외국에 있어서의 전도는 그 나라 정부에 대해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행해야 마땅하다고 확신하는 자이다. 경성에 20년간 거주한 미국의 한 선교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기독교 교지(教旨)는 제국정

부의 정책을 문란케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추방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열성적이고 그 직무에 충실한 기독교도임에 틀림없겠지만, 우리의 주님인 예수께서 로마 정부의 과세(課稅)에 대해 '왕의 것은 왕에게 돌려주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국정부의 제도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전도 방식은 기독교의 본의(本義)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경질도 필요하다. 또한 일본 당국이 조선에 있는 미국 선교사에 관해 나에게 말해준 유일한 비평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영토인 조선에 어찌하여 미국은 적어도 1년쯤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본인이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올바른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선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조선을 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떠한 변화나 개선도 반대하는 선교사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서글프기 그지없는 점은 조선의 전도사업이 매우 왕성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여기에 종사하여 30만 이상의 신도가 생겼지만, 그 신도들은 구태의연히 더럽고 또 무지하며 문화의 진보와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불교 또는 신도(神道)의 신자인 일본인들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스피어 박사의 보고를 읽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는 일본에 대한 본국의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의 논의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충실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국제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자격이 없다. 국제문제의 해결에는 냉정한 판단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호의를 증진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

(이상은 『스크리브너』에 실린 쉐릴 씨의 기고)

"도쿄에서 세계 일요학교(日曜學校)대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과 중국에 있는 일본의 친구인 서양 사람들은 조선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그와 같은 야만국의 수도에서 그런 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 만일 일본의 교회동맹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다이어 장군이 인도에서 어떤 학살을 했는지, 미국인이 워싱턴이나 시카고에서 흑인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대회는 아마 남미의 어느 평화적인 문명국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하하)

작년에 일어난 소동 때 조선에서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유혈의 대참사가 일어나 그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인 측에도 허물이 있었다는 점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생각건대 그들의 독립선언은 큰 잘못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역적이 되어 스스로 혹형을 자초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아마 무분별한 행동을 비웃을 것이다. 이에 관해 많은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누구도 현재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옛 조선은 벌써 사라졌고 신조선은 지금 막 탄생했다. 오늘날의 조선이 독립을 외치는 것은 미국의 소년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조선은 건전하고 유망한 소년이다. 따라서 그들 조선인이 그와 같은 엉뚱한 소동을 벌이지 말고 필요한 개혁을 요구했더라면 작년과 같은 비참한 경험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착오는 독립운동에 교회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두 파가 깊이 관계했다고 보는 견해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매우 입장이 난처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저 독립 선언서 서명자 33명 중에 들어 있다. 일류목사로서 바로 사건 전날 이야기를 듣고 조인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자도 있다. 잊을 수 없는 작년 3월 1일 본인도 우연히 그곳에 가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주요 교회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고 이태왕(李太王)의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식이 끝날 무렵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 다음날 2일 본인은 진남포로 갔는데, 거기서도 폭도들은 언제나 그 집합장소를 교회로 삼았다. 그 지방 경찰이 이 사건을 완전히 크리스천의 짓이라고 단정한 것도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경찰과 신문은 선교사가 그 운동의 배후를 조종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인 이 사실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인했다. 그중에는 미리 사건을 예감하고 당국에 조용히 주의를 준 자도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는 이른바 중립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관헌의 태도는 그 중립으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해 동정하는 성질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조선인은 선교사들 중에 그들 편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적어도 경우에 따라 그들은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인은 그들대로 선교사들이 자기들에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 경성에서 신문기자 회합이 있었을 때 모 유력한 선교사는 '나는 친선(親鮮)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배일(排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쨌거나 많은 공격 재료가 본국에 송부되었고 해외의 조선인협회에는 이전에 선교사였던 경력의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선교사의 절대 중립을 말하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이상은『저팬 어드바이저』에 게재된 스미스 씨 기고)

마지막으로 미국 북감리파(北監理派) 감독 허버트 웰치(Herbert Welch) 씨가 1920년 2월 북감리파 대회 석상에서 한「선교사의 태도」란 제목의 담화를 소개하고 붓을 거두려 한다. 웰치 씨가 어떤 사람인가는 조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논할 수가 있다. 즉 선교사는 현재 어떤 태도로 있으며, 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다. 첫째에 대해서는 본인은 상당히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한다. 만일 조선인들이 작년 봄 독립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의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예외 없이 모든 선교사로부터 동일한 충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 충고는 운동을 반대 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틀린 상상이 아니다. 선교사는 진심으로 현존 정부를 승인하고 법칙 및 실행에 있어서 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자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경찰·헌병 또는 병사들에 의해 포악하고 잔인한 학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중세와 같은 폭행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선교사들의 마음은 당연한 결과로 정부의 입장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물론 선교사들은 그러한 추악한 많은 행위가 총독부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급관리 또는 지방관리의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정부가 그들의 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할 의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선교사들의 동정이 정부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본인에 대해 호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박힌 인도적 관념 및 악행에

대한 분노의 정신에서 오는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으로 둘 다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작년 가을까지 형무소에서는 고문이 성행했고 오늘날까지도 태연히 계속되고 수감자 중 병약자에 대한 관심의 소홀 등, 이러한 사실들이 자연히 선교사들 사이에 반대의 기운을 조성해 왔다. 따라서 신 통치에 대해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선교들이 그들의 위와 같은 태도를 바꿔야 할 시기가 과연 왔는지 어떤지를 따져 보는 것도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선교사의 태도는 최선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인애(仁愛)의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태도는 물론 조선인에 대한 인애(仁愛)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선인이 하고 있는 일본인 · 조선인 간의 심리적 상태의 해부가 올바를 것, 또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믿건 아니건 간에 만인이 공정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독립운동 참가자들의 순수한 애국심, 자유에 대한 용기, 기략(機略) 및 희생적 정신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교사의 인애의 태도는 일본인에 대한 인애도 포함하고 있다. 풍문이란 쉽게 일어나서 쉽게 퍼지는 법이다. 그 근원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면 무슨 악의가 있는 듯이 전해져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적응되지 않을뿐더러, 그 사실이 어떻게 즉 어떤 역점(力點)을 가지고, 어떤 색채를 띠고, 어떤 정신으로 진술되고 있는지도 적응되지 않는다. 세간에는 최악을 믿으려는 끊임없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우나 기독교의 의무는 최선을 믿으려는 데 있다. 인간이 만일 남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반성하는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남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공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남이 어떤 동기에서 그와 같이 느끼고 행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공정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라는 문구는 다소 진리를 과장한 경향이 없지 않으나, 그 속에는 중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증명된 악(惡)만을 악이라 믿고, 자신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남을 재단하고, 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선을 크게 늘이는 이 모든 태도는 '악을 책망하지 말고 불선(不善)을 기뻐하지 말 것이며 성실함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사랑의 명백한 증거이다. 노아의 선량한 자손들처럼 우리는 함부로 떠벌이지 말고 모든 것을 감춰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악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다. 사실이 명백하고 시기(時機)에 적당하다면 응당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하자(瑕疵)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빠져 선의(善意)와 성공을 도외시하고 항상 약점과 실패만을 지적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 없이 인애(仁愛)의 기독교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 정부에 대해 선교사들이 희망에 찬 기대를 품어야 할 정당한 시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을까. 물론 정부 시책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대수롭지도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통치도, 그 기도(企圖)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각오하해야 되지 않을까. 철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불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흐지부지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도 작년 8월 이래의 새로운 통치가 실천에 옮긴 업적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의심할 나위 없이 경찰 및 감옥 행정은 인민에게 가장 예리한 인상을 주는 접촉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명 감옥에 들여보내는 옷과 음식을 그냥 받아 챙겨두는 것, 외부로부터의 기독교 전도를 금지하는 것, 한중(寒中)에도 감옥에 불을 피워주지 않는 것, 기타 앞서 열거한 사례 등이 어쩌면 불평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많은 금고자(禁錮者)들은 방면되었고 개인 방문을 허용하고 또 포악한 행동이 있는 관리를 면직하는 등의 일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구인(拘引)이 행해지고 탐정의 활약도 적지 않으며 죄수에 대한 대우 역시 현대문명의 표준에 합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서는 경찰행정에 문인적(文人的) 통치뿐만 아니라 문인적 이상(理想)도 채택하려는 기획도 있고, 일본 내지에서 교육을 받아 친절히 행동하게끔 훈련된 많은 사람을 여기에 참가시켰고, 이전과 같이 헌병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처사로서 근간에 와서는 잔인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들을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관리들 사이에 군국주의적 정신을 고취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은 무수한 제복과 도검(刀劍)이 그 자취를 감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가 고용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봉급이 각 계급에 있어서 동등하게 되고 더욱 많은 조선인을 채용하는 길이 열렸으며, 교육상의 개혁에 있어서도 조선인 친구들의 열렬한 요구사항은 이미 발표되었고, 그 밖의 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순전히 조선인에 의해 발행되는 3개 신문도 이미 그 허가를 준 바 있고, 그 외의 것도 허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리하여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놀랄 만한 진보는 착착 진척되고 있다. 조선 중추원(中樞院)은 복구되어 조선인을 위해 그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임명으로 할 것인지 선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금년 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가 보고 예사롭지 않은 수많은 난점에 대해 취한 상당한 조처가 취해졌고, 별다른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및 자취에 대한 대중의 준비를 위하여 이미 그 단서는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문제에 대한 최대의 희망은 오로지 총독 사이토(齋藤) 남작, 그의 관대하고 민중적이며 성실한 인격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한다. 일본 제국의 기도(企圖)를 완수함에 있어 그의 손에 쥐어진 권력과 정치적으로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 내각 및 그 밖의 원조를 받고 있는 사이토 남작의 존재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단순히 주시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희망에 찬 기대의 태도를 취하기에 충분하다. 미즈노(水野)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바 많지 않으나 적어도 그 역시 사이토 남작과 동일한 정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는 있다.

요컨대 우리 기독교도가 그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일반 일본인에게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이런저런 희망을 하는 정도의 친절하고 성실한 동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종적인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의견의 차가 있을 때 언제나 서양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인 서양적 자존심을 타파해야 한다. 결코 경멸이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 관리를 대할 때 엄숙하고 진지한, 우정에 찬 시선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으며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선한 일(善事)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동을 아끼지 않을 결심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단순한 비평가가 아니고 그들의 조력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선악의 구별을 게을리 말고 감상(感傷)에 흐르지 말고 유약한 자가 되지 말고, 마태복음 제7장을 실행해야 한다. 내가 생각건대 가장 실제적인 인간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남성적이면서 온화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동정적인 정신을 가장 충분하게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감리교회 허버트 웰치 감독 담화, 『코리아 미션필드』 수록)

재선(在鮮) 외국 선교사에게 바란다

시바타(柴田) 학무국장

사회 민심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국은 늘 종교가들과의 사이에서 양해를 구할 필요를 고려해 그동안 기독교, 일본과 조선의 불교, 신도(神道) 각 종파 관계자들과 회담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기독교 포교자는 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성, 제도, 풍습 습관 등이 다른 관계상 종래에는 자칫하면 당국과의 사이에서 양해를 받지 못하는 감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우니, 그런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관제개정과 동시에 학무국(學務局) 내에 특별히 종교과(宗教課)를 설치해 과원들 중에는 종교에 대해 이해심이 있는 사람을 촉탁으로 채용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무릇 이해를 구하는 첫 번째 요건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대개 자신의 입장에 서서는 생각하기 쉬운 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수도 없다. 둘째로 대화가 필요하다. 쓸데없는 배려에서 언제까지나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서 추측을 하거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소원해진 사항이 서로 생각을 기탄없이 피력함으로써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해결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행정에 관해서는 이른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길이 충분히 열릴 필요가 있음은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정치의 요체는 이른바 민정의 밑바닥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시정(施政)의 참고로 삼는 데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치의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널리 각 방면에 접근하여 진정한 호소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경성에서 기독교 각 종파 조선연합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총독의 명을 받아 대회에 임한 선교사 입장에서 각기 바라는 바를 들었다. 다행히 참석자는 열심히 연구한 결과 꾸임 없는 적나라한 많은 희망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다. 그 사항 중에는 총독부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미 현재까지 실행한 것도 매우 많았다. 가령 사립학교규칙의 개정, 포교규칙의 개정, 종교법인의 인가, 태형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당국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게다가 그 사항들은 선교사 측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연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우리가 선교사 측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여 일을 처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측 역시 종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입장도 생각한다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역시 그 소견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고려를 촉구하는 것이 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첩경임을 생각해, 지난달 다시 경성에서 전선(全鮮)선교사연합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요령을 말하였다. 그 이외에도 가령 출판과 언론의 단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다. 병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날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총독의 방침으로서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면서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이미 조선인이 경영하는 언문신문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오늘날 민심의 동요를 피할 수 없는 시기에 있어서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등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

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어'[4]의 문제에 대해 조선으로서 국어를 연습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다. 조선어에 대해서는 결코 금지한 사실은 없으며, 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국어'의 문제를 단지 외국어를 연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것 같은 관념은 통치의 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합혼화(融合渾和)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지는 진정한 융화 결합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조선의 문화를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언어에 대해 충분히 숙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외국어의 연습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사항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종교가가 능히 통치의 정신, 병합의 취지라는 것을 연구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이해받을 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바이다. 내 연설의 신문기사를 읽고 일본에 있는 모 외국 선교사는 크게 공감을 하고 도덕적 용맹자의 개선이라며 널리 세상에 발표할 것을 권하였다. 선교사 여러분과 당국의 회합은 서로 호의적으로 진지하게 개최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점들에 대해 연구를 하면 아마 능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전선(全鮮)선교사연합대회 석상 담화

작년 9월 선교사연합대회에서 총독의 명에 따라 시정(施政)의 방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기탄없는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데, 바로 1년 뒤 다시 연합대회에서 당국의 소견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신 시정의 방침에 대해서는 당국의 천명에 의해 대체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당국은 1년간 그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곧바로 실행해야 할 것은 실행에 옮기고, 법령의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개정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새로이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앞서 선명한 사항 중에서 착수하지 않은 것은 이제 거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19년도에 약 7천만 원의 조선총독부 예산은 1920년도에 무려 1억 2천만 원을 넘게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선명한 사항의 실행에 필요한 신규 계획의 경비만 약 2천 8백만 원에 이르고,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것이 무려 150건에 달한다. 과거 1년간 실행한 시정 개선의 핵심은 『조선의 신 시정(朝鮮における新施政)』이라는 소책자로 정리해 조만간 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이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이 평소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종교, 교육, 의료와 그 밖의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총독부의 시정에 대해 희망하는 바는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번 여러분이 제출한 연합대회의 진정서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가장 숨김없이 진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은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의 대강이 문화정치의 시행, 일본인 · 조선인의 차별 철

4) 당시의 국어는 모두 일본어를 가리킨다.

폐, 민중복리의 증진 및 관청사무의 간소화 등 당국 시정의 방침으로서 이전에 선명한 바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국과 내가 이전부터 바라던 바이다. 그리고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그 진정서를 검토하니 여러분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시설이 개선된 것이 매우 많고, 특히 사립학교 규칙의 개정, 포교규칙의 개정, 종교법인의 허가, 태형의 폐지, 조선어 신문의 발간 등 주요한 사항 대부분이 해결된 것은 당국이 가장 만족하는 바이고, 또 여러분도 분명 당국과 기쁨을 함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들 중에서 온건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극 채용할 것임을 여기서 밝힌다. 그렇지만 많은 희망 사항 중에는 본 총독부가 볼 때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 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및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회에 여러분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당국의 소견과 희망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상호 원만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믿고 다음과 같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첫째로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종종 교회 전도단 및 사립학교에 관해 각종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종교 및 교육을 압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속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잘못된 추측은 여러분이 제출한 진정서의 전후를 통해 일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디 국가는 자국영토 내의 제반 사업이 공공의 질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두고 사업의 내용 운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를 두고 당국이 교회 또는 전도단의 경영에 자유를 주려는 의지가 없다고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속단하는 것은, 함부로 악의적인 추측으로 당국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종래의 규칙은 종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관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정된 것은 이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한다. 여러분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있어 이런 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제국의 국민성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한 탓에 자칫 기독교주의의 국민성 또는 자국의 제도·풍습·습관을 그대로 제국의 영토 내에 적용하려고 해서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았다. 특히 여러분이 폐하의 어진영(御眞影)에 경례하는 것을 일종의 예배로 오인하고 기독교도로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진정서 중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외였는데, 당국은 여러분이 제국의 영토 내에서 포교에 종사할 것을 명기하고 제국의 국민성 및 제도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바라는 바는, 원래 보통교육은 국민교육의 기초이고 관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또 종교단체가 설립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교육의 본뜻에 있어서는 관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교육하는 데 특색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영 교육의 방침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령이 명하는 바에 따라 우리 제국의 국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립학교 당사자 가운데 종종 국민교육의 본뜻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당국이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런 점에 관해 각별히 여러분이 고려하기를 바란다. 마

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정서를 이용해 흉금을 터놓고 평소 생각을 밝히고, 당국 또한 이에 따라 좋은 참고 자료를 얻어 받아들일 만한 의견은 채용하고 불행히도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 하는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신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재고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격의 없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부록

전선(全鮮)선교사대회 진정서

1919년 9월에 개최된 남·북감리교회, 미국 남북 장로파, 캐나다 장로파 및 호주 장로파의 여섯 선교단 연합

조선총독 사이토(齋藤) 남작 각하

재조선 개신교복음선교부연합회의는 여기에 삼가 글을 올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각하의 조람(照覽)을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각하가 조선의 시정(施政)을 개편할 계획이 있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바이다. 한국정부 시절부터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한국병합 이후 일본의 시정이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전국에 무단정치를 실시하여 한국 시절에 우리가 누린 종교 및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선인에 대해 부정한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여 조선인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다룬 결과, 끝내 조선인의 반항을 불러일으켜 올해에 일어난 독립소요를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비무장 조선인은 심한 만행을 당하였고 노인·부녀자 및 가장 품위 있는 조선인도 큰 굴욕을 당해, 이를 보고 듣는 우리는 가슴속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도(人道)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반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반대 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5)]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 시정의 방침을 듣고 크게 만족하고 열심히 개선 계획의 수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각하의 대표자로 파견된 시바타(柴田) 씨가 연합대회에서 밝힌 성의 있고 친절한 말에 기대어 진정으로 종교 및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 긴급 개편의 필요를 느끼는 바, 몇 가지를 정부에 개진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진술서에서 정부의 규칙 및 방침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정치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고 인민의 도덕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방해를 받는 일 없이 발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다고 느끼는 우리 소견을 진술하고자 할 따름이다.

---

5) 이는 당시 일본어로 번역한 역자의 주이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대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의 헌법이 이미 보증한 종교적 자유를 조선에서 실제로 누릴 것을 간절히 바란다.

조선총독부 시정 9년의 경험에 비추어 현행법규 아래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은 명확히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디까지나 상세히 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 선교부, 기독교주의의 학교 및 선교부 경영의 병원에 대해 그렇게 많은 주구적(誅求的)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자유를 부여할 의지가 없고 언제든 마음대로 교회 또는 선교부의 경영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도, 교육 및 의료에 관한 복잡한 규칙, 종교 문학 간행에 관한 검열 및 감쇄, 집회의 자유(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까지)를 제한하는 규칙들은 모두 종교적 자유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경관이 교회 또는 선교부의 사항에 간섭하고 교회에 대해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를 직접 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종교적 자유를 주고 더 관대한 방침을 취할 것을 바라고, 전도사업을 위해 여기에 개편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1 전도사업에 관해 우리는 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1. 교회 및 전도사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것.

복음 선전은 종래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다. 전도사가 거리 또는 시장에서 설교할 경우에는 늘 간섭을 받았고, 또 신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 모일 경우에는 집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교회 또는 전도소를 개설하려고 하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당 건축 또는 모양을 바꾸려고 해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류 혹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 임원의 성서연구회 전도 집회 등도 쓸데없는 제한을 받았고, 불법적인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선교사가 여행할 때는 당국자가 계속 그들을 감시하거나 간섭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의 방문이 있을 때는 24시간 내에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법률이 있어서, 만약 순회 선교사가 헌병대 혹은 우체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숙박할 경우에는 조선인 집주인은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2. 관리의 기독교 및 기독교 신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것.

기독교 신자가 되려고 하는 조선인이 있을 경우 관리는 위협하여 이를 방해하고 관립학교 교사는 학생이 기독교 일요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출석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요로 인해 수많은 포박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에 관해서만 심문을 한 뒤 신도일 경우에는 구류하고 신도가 아닐 경우에는 방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감옥에 들어간 이의 말에 비추어 보건대,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 신자는 다른 수감자보다 한층 더 격렬하게 구타를 당하고, 또 관리는 그들을 조롱하여 기독교 및 선교사에 관해 굴욕적 언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3. 총독부는 청원 및 항고의 권리를 조장할 것.

지방관헌의 처치에 대해 고충이 있을 경우 선교사 및 조선인 기독교 신자는 이를 총독부에 보고할 자유 및 현행법규의 변경 혹은 적용의 완화를 청원할 자유가 있음을 느끼고 싶다. 그들로 하여금 당국

자가 이러한 행위를 반칙으로 간주하거나 청원자에 대해 구적(仇敵)의 태도를 취하려 한다는 공포가 없도록 할 것.

우리는 각하가 위와 같은 자유를 부여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바이다.

제2 교육사업에 관해 우리는 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1. 기독교주의의 사립학교에서 성서 및 종교적 의식을 과목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기독교주의 사립학교의 목적은 기독교에 기초하여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으므로, 성서를 가르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학교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 성서 및 종교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최선의 방편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를 가르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당국자로서는 교회나 선교부가 개정 교육령에 따라 기독교주의 학교의 교과목에서 성서를 제외할 경우에 그 학교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원문에 '항의'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호'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인정을 얻는다는 뜻－일본 역자 주)[6]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공평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조선의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에 있어서 일본 내지와 동일한 자유를 부여받을 것을 희망한다.

2. 조선어 사용 제한을 철폐할 것.

조선학생은 일본어를 학습하고 이를 숙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사람은 본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조선어로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희망한다.

3. 사립학교 경영에 관해 현재 위와 같은 자유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관헌의 간섭을 폐지할 것.

우리는 정부가 사립학교 설립자 및 교장의 경력 자격을 음미하고 또 학교의 실적에 관해 상당한 표준을 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사립학교 교사의 봉급이나 그 밖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교과목을 변경할 경우 일일이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혹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교사의 선택 및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는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는 수업료 변경조차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립학교의 일대 특전인 자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립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선인을 교사와 교장에 채용할 수 있으며, 또 관헌이 학부형들을 위협하여 자녀들을 기독교주의 학교에 보내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4. 학생 및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할 것.

기독교주의 학교의 학생이 일요일에 각종 행렬에 참가하고 또 관리를 마중하는 일에 동원되는 일이 적지 않다. 교사의 시험도 종종 일요일에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기독교주의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예배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들어간 의식에 참가하도록 하고 폐하의 사진에 경례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자 한다. 이 반대를 결코

6) 이는 당시 일본어로 번역한 역자의 주이다.

불충한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왕을 존경하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늘 성서나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도리이다.

폐하를 위해, 또 위정자를 위해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요일 예배의 일부이다. 하지만 폐하를 신(神) 혹은 신과 같은 지고자(至高者)로서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어떤 이는 폐하의 어진영(御眞影)[7]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두고 기독교 신자들은 단지 폐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 일반 사회에 그러한 의식 자체를 예배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참가하는 비기독교 신자 대다수는 예배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은 도저히 기독교 신자 대부분의 양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

5. 조선인에 대해 교육상 일본인과 동일한 기회를 주고 교과서의 선택에는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또 조선사 및 세계사 수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

6.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졸업생은 비슷한 수준의 관립학교 졸업생과 마찬가지의 특전을 줄 것.

예를 들어 총독부 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의사면허증을 받지만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별도로 총독부의 시험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부받고 있다. 또한 총독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은 교원양성소에 입학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립학교 졸업생은 입학 자격이 없다.

전문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관립학교 졸업생은 그 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고 있지만,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있는 평양기독교연합대학(숭실대학) 졸업생은 위와 같은 위치를 얻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7. 사립학교에 대해 과도한 재산상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제3 의료에 관해 우리는 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1. 사립병원 경영상 세부 항목에 관한 것은 병원 직원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

종래 총독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병원 경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할 일까지 개입하여 너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데서 발생한다. 올해 6월 1일부로 실시되는 신 규정에서도 이런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17조 제2항에는 "병원 규칙을 만들거나 이를 변경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의사, 약제사, 산파 또는 간호부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 따르면, 병원의 규칙은 원장 및 직원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규칙은 당시의 사정과 경험에 비추어 종종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어떤 관리(官吏)이든 간에 필요·불필요를 결정할 정도로 병원 사정에 정통한 자가 아니다. 또 의사 및 간호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관헌이 믿을 만하다고 인정한 원장이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간주한 남녀를 채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7) 천황의 초상사진 등을 가리킨다.

제4 종교문학에 관해 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1. 기독교 서류의 검열을 폐지할 것.

2. 교회의 신문·잡지와 그 밖의 출판물은 단지 교회의 일 및 종교에 관한 문학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문학의 출판은 1911년 출판조령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일반적 성질의 신문·잡지의 발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전에 '트랙트'회(Tract Society)가 일반적 성질의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출원했으나 당국은 아무런 이유도 알리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다. 조선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기독신보』)은 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 조선어를 사용하여 일반적 성질의 기사를 게재하는 잡지로서 조선에서 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규칙의 결과 우리 기독교 정기간행물은 종교적 제목 외에 아무런 기사를 게재할 수 없다. 세계적 동향은 국내에 관한 것이든 외국에 관한 것이든 전부 게재가 금지되었다.

조선에서는 기독교 신자 다수가 시사에 관한 지식 및 일반적 보도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기독교 출판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출판물이 어떠한 방면의 기사도 게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을 것을 희망한다.

3. 지방관헌은 성서·소책자와 그 밖의 기독교 문학 판매에 종사하는 행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

행상인은 성서 및 소책자의 판매와 배포에 정규 절차를 밟아 종사하는 자들인데, 지방에서는 종종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대를 받고 또 순사와 헌병은 이를 구매하려고 하는 자를 위협하고 있다.

제5 소유권 및 재산상의 문제에 관해 우리는 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1. 조선인 교회 및 선교부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이를 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

교회를 위해 확실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회 및 선교부를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과거 9년간 노력하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교회에 속하는 거액의 가치 있는 토지 건물은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불필요한 경비가 들었다. 이런 점에 대해 정부가 조선 교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정한 것이라 할 만하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지방관헌이 쉽게 교회 재산에 대해 소송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소유권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교회의 권리는 법률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교회 재산의 명의자가 분쟁을 좋아하거나 혹은 상속인이 비기독교 신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교회 재산을 횡령할 수 있고, 교회는 법률에 의거해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길이 없다.

선교부 역시 법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병합 이래 선교부가 매입한 재산은 모두 선교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선교사가 사망하거나 사직, 또는 휴가로 일시 귀국할 때 각종 분쟁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경비가 들어간다.

우리는 전도 또는 교회의 재산이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료를 요구하지 않고 정당한 소유자인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

2. 병원 · 학교 및 자선사업 기부금 모금 허가에 관한 현행 법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조선인은 위의 법규로 정부가 이러한 기부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조선인을 위해 설립하고 조선인도 현재 이에 상당한 보조를 하고 있으며, 훗날 그들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병원, 학교 혹은 자선사업에 대해 기부를 꺼리게 되면서 우리 사업상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3. 우리는 교회당 및 재산이 정부 관련자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점,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제6 도덕적 개선

우리는 유곽(遊廓) 설립에 관한 법규에 단호한 개선을 할 것을 희망하고 정부의 허가와 보호 아래 조선인의 습관과 감정을 무시하는 현행 유곽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아편 및 '모르핀'의 생산 제조 및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주류(酒類) 판매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고 구한국 시절에 존재한 지방적 선택권을 부흥시켜 촌민의 희망에 따라 주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경찰보호 아래 허가를 주고 인민의 희망에 반하더라도 주점을 개설할 수 있다.

우리는 미성년자 일본인에 대한 금연령을 조선인에게도 실시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어린이 노동을 제한하는 법률 및 공장 및 광산 노동자의 주변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정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간 기독교 신자에 대해 일요일의 노동과 그 밖의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작업을 강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 수감자의 종교적 도덕적 계발에 공헌하는 특전을 부여받기를 희망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 만세 소요를 한 비무장 조선인에 대한 병사 · 헌병 및 순사의 잔인 · 야만 · 부정한 행위에 대해 선교사단체로서 극력 그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인민이 순사의 묵인 아래 그와 같은 만행을 모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리고 관헌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들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관헌이 수감자의 예심에서 그들의 자백을 독려하고 증거를 꾸미기 위해 종종 참혹한 수단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수감자가 예심 전 변호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과 범죄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랫동안 구류할 때 단독(?)으로 유폐(幽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언급한 과실에 책임있는 사람의 일부를 직위해제하고 크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감사하고 있다.

조선인의 분노에 대해 대부분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암살을 저지를 만큼의 죄악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하가 경성에 도착할 때 폭탄 공격을 피한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각하의 포고를 읽고 각하가 총독부의 전 조직을 개편할 의지가 있음을 듣고 기쁨을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동정으로 모든 성의 있는 개선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경찰 방법의 개선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가혹한 체벌로 인해 죽은 자가 있고 평생 불구가 된 자가 있다는 사실 및 그 체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각하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수명의 부상자는 지난주 '세브란스' 병원에 수용되었고, 9월 28일 입원을 신청한 부상자는 6명이다.

우리는 각하가 하루라도 빨리 태형 및 즉결재판에 관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폐지하기를 삼가 간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열심히 각하가 선언한 개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하의 개선 수행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경성 1919년 9월 29일

연합대회 대표자
회장 휴 밀러(Hugh Miller)
총무 B. W. 빌링스(Bliss W. Billings)

〈출전 : 『朝鮮の統治と基督教』, 朝鮮總督府, 京城印刷所, 1921년 8월〉

2. 『기독교세계』의 주요 논설과 기사

1) 한국 상황 및 소식 관계 글

(1) 겐모치(劍特生), 한국통신

[1－1]

▲ 한인 기독교회는 작년 이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여, 각지의 선교사가 서로 기맥(氣脈)을 통해 맹렬하게 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평양(平壤)과 같은 곳은 각파의 선교사, 목사, 신도 모두가 함께 작년 9월 이래 매일 기도회를 열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참회를 하고 교회의 문으로 들어서는 자가 많아졌다. 경성에서도 지난 3월 1일이래 선교사 등이 서로 만나 매일 밤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이른바 양반인 자 중에 정치계와 손을 끊고 전심(專心)으로 교육 전도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있어 한인 교육을

경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한인의 포교전도 역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 전에 만국청년회 총간사 모트(John R. Mott) 씨가 와서 독립관(獨立館)(일진회 연설회장이며, 이른바 국민연설대라고 부른다)에서 두 차례 강연을 하였다. 청중은 거의 3000명 정도로 그중 구도(求道)의 정신을 밝힌 자는 한인만 300여 명. 뒤이어 감독 해리스(Marriman C. Harris) 박사가 방문해 10일간 예정으로 체재하면서 그동안 경성, 평양, 인천 등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일본으로 향하였다. 이어서 래드(George T. Ladd) 박사가 내한하여 현 이토 통감(伊藤統監)의 손님으로서 손탁(Sontag, 孫澤) 저(邸)에 체재하면서 아마 2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으로, 그 동안 한국의 종교 교육, 그밖에 정치상, 사회상에 대해 정밀한 관찰을 하신다고 한다. 박사는 이미 한국 기독교 청년회에서 세 차례의 강연을 하였으며, 또한 명신여학교(왕비의 허가를 받아 후치자와(淵澤)·무라이(村井) 두 여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귀족 여학교)에서 한일부인(韓日婦人)을 위해 강연을 하고, 평양으로 가시며, 귀경한 후 지역 교회, 교육회 경제협회, 애국 부인회, 그밖에 인천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 일본인 기독교회는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왕래거취(往來去就)가 빈번하기 때문에 견실한 발달, 두드러진 운동을 바라는 것은 곤란하다. 미이 교회(美以教會) 는 작년 봄 이래 전도 상의 경영이 좋아져 수원 목사의 감독 하에 평양·인천에 상주 전도자를 두고, 서로 기맥(氣脈)을 통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경성에서는 9,500엔을 투자하여 일대 가옥을 구입해 한국 전도의 본거지로 삼았다. 감독 교회로는 선교사 카트라이트 씨 외에 여교사 두 명이 있다. 오직 일본인 사이에만 전도하고 있어 신자는 몇 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경성기독교회 죽동(竹洞) 한 쪽에 자리해 장소는 매우 불편하여 전도 설교를 하는 데 가장 부적절하지만 40, 50명의 신자·구도자를 보유하고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인천, 군산 등의 전도 지역에는 이상이 없다. 평양 지역은 군대 이동으로 인해 유력한 신자들이 옮겨가 교세(教勢)가 일변하려고 한다. 이러한 때에 부디 상주 전도사가 하루라도 빨리 파견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지난 3일은 제일(祭日)이어서 특히 모국인 도쿄(東京)에서는 기념할 만한 만국기독교 청년대회가 열렸으며, 당일 재경성(在京城) 기독교 신도는 용산의 언덕 위에 모여 일대 친목 운동회를 열어 각 교회위원 여러 명의 알선과 노력으로 제반 준비를 잘 하여, 먼저 도쿄의 만국대회 앞으로 재경성 일본인 기독교 신도 일동의 축전(祝電)을 보냈으며, 미야가와(宮川) 군의 사회로 미즈하라(水原), 겐모치(劍特) 두 목사, 무타(牟田) 군의(軍醫) 그밖에 23명의 5분 연설, 34명의 기도 등 정식 모임을 마치고 여흥·운동 등이 있었다. 일동은 기쁘게 즐기고 반일(半日)의 청유(淸遊)를 거두고 10분의 감사와 찬미를 하고 모임을 마쳤다. 이 모임에 온 남녀 신도는 120여 명, 당 지역의 각 교회연합 친목회는 이로써 효시가 되었다. 우리는 교회 합동된 목소리가 커지는 오늘 당 지역에서도 가능한 한 공동일치하여 신국(神國) 건국에 나서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4일)[겐모치(劍持生)]

〈출전 : 劍特生, 「韓國通信」, 『基督教世界』 제1232호, 1907년 4월 11일〉

[1－2]

◉ 래드 박사의 강연

3월 하순 이래 만주 · 한국 · 중국을 방문 중인 래드(George T. Ladd) 박사는 당 지역에서 각종 집회에 초대되어 유익한 강연을 하시고 계신다. 지난번 미이교회(美以敎會)에서 일본인 기독교도, 그밖에 유지들을 위해 "종교와 사회 개량"이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인천 등에서도 초대를 받아 교육상의 강연을 하였다. 원래 정신상, 사상상의 영양(營養)에 부족한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교훈과 감화를 주고 있다. 또한 현재 교제의 계절에도 여기저기 원유회(園遊會), 야회(夜會) 등을 개최할 때에는 박사와 부인을 항상 귀빈으로 초대하고 있다.

◉ 일본기독청년회(日本基督青年會) 군대 위문부(軍隊慰問部) 일행

이 회(會)의 주사(主事) 이마이(今井), 세키야(關屋) 등 두 사람이 내한하여 위의 위문부 자금 모집을 위해 음악회를 열었다. 당 지역의 여러 교회도 힘을 보태어 며칠간 준비를 한 뒤 개최하였는데, 다행히 성황을 이루어 순수입 580엔 정도를 얻었다.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그 성공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갖는 이도 있으나 의외로 거류민(居留民)의 동정을 받아 스스로 발기인으로 나서는 자도 있을 정도로, 앞에서 언급한 성공을 거두고 이마이 씨 일행은 감사하면서 만주로 향하였다.

◉ 선교사, 이토 통감(伊藤統監)을 방문하다

재한(在韓) 외국 선교사의 심사거동(心事擧動)에 대해 함부로 췌마억측(揣摩臆測)을 하는 자가 있다. 왕왕 내외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오보가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빌고 있다. 마침 재경성(在京城) 선교사 존스, 스크랜튼 등 두 사람이 이토 통감(伊藤統監)을 방문하여 전도사업에 관해 담화를 나누었다. 그때 두 선교사는 통감에게 최근 경성의 모 신문은 재한 예수교 선교사도 통감 및 한국에서의 통감의 정사(政事)를 싫어한다는 뜻의 미국 신문의 기사를 전재(轉載)하였지만, 이는 두 사람의 감상은 물론 동료 선교사의 감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또한 선교사는 한국민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통감의 시책에 성실한 동정(同情)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협력하고자 한다는 점을 통감도 양지하기를 바랬다. 또한 선교사는 국민의 도덕 및 정신적 개발을 이루는 일에 이미 충분한 활동이 천지에 있음으로써 정치상의 일에 관해서는 초연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통감은 앞의 신문 기사에 조금도 괘념치 않는다는 것과 아울러 재한 선교사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없음을 전하였고, 또한 국민의 도덕 및 정신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 사업이 귀중한 일을 인식하고 또한 선교사 여러분의 성공을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고 한다.

(『경성일보(京城日報)』에서)

〈출전 : 劍特生, 「韓國通信」, 『基督敎世界』 제1237호, 1907년 5월 16일〉

[1－3]

▲ 요즘 각 기독교회와도 특별히 전할 만한 통신이 없다. 다만 미이 교회(美以教會)에서는 지난번 일본 신감독(新監督) 혼다(本多) 선생의 순회 강연이 있었다. 일본 기독교회에서는 간사 다카야마(貴山幸次郎) 씨가 내한하여 경성과 인천 사이에서 며칠간 재래하면서 동 교회에 속한 신자와의 회합이 있었다. 조합교회에서는 평양 교회 목사로서 야마다(山田兵助) 씨가 도착하여 자리에 참석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성공회(聖公會)에서는 상주 전도사 1명을 늘리고 새로이 구세군이 전투 개시에 들어갈 것이다.

▲ 경성에서 일본 기독교회에 속한 신도는 다카야마 간사가 내한한 이래, 일요일마다 신자의 자택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어느 전도국에서 상임 목사를 보내어 교회 설립으로 이어져야 하며 인천에도 이 교회에 속한 유력 신자가 2, 3명 있다. 최근 인천의 교세가 가장 강하다. 미이 교회에는 상임 목사가 1명이고 상응한 회당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도하는데 아직 시민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조합교회에서도 출장 전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그리 교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어느 교회이든 지금 유력한 교역자 한 사람이 이 곳에 주재하면서 열심히 포교에 종사한다면 한국 전도의 대세에서 볼 때 반드시 충만한 희망이 자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인천은 가장 구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서있다.

▲ 평양 조합 기독교회는 작년 9월 이후 내가 매달 출장 전도하여, 이곳 전도 회사에서 야마다(山田兵助) 씨를 파견해 이 교회의 목사로서 지난번 도착하였다. 나는 야마다 씨를 소개하는 김에 함께 갔다. 이 지역에 있는 신도 · 전도자가 매우 기뻐하며 희망을 갖고 맞아 주었다. 이틀 동안 밤에 설교회를 열고 하룻밤은 상담회를 개최해 교회의 조직, 집회, 경제 등에 대해 논의하여 이에 임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평양 재주(在住)의 조합교회(組合教會)에 속한 신도는 2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유망한 구도자가 몇 명 있어 야마다 목사도 강한 결심으로 하고 이곳에 왔다. 신자들이 마음을 합쳐 야마다 목사를 맞아 주는 평양 전도의 앞길은 더욱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은 한국 전도의 제2의 본거지로 삼을 만하다. 특히 한 인간의 전도는 동양 최고의 성공을 거두어 교회와 선교사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라면 이곳에 전도자로 오는 자는 많은 고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모국의 제 형제가 야마다 목사에게 이곳 교회와 함께 동정과 기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 한국에 자강회(自强會) · 서우회(西友會) 라는 유지들의 단체가 있다. 그 영수(領袖)를 맡은 자는 대부분 기독교 신자이다. 앞에서 언급한 폭동에도 그 교사자 혹은 주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 대부분 이 단체에 있어 자연히 기독교도는 배일파(排日派)의 주력처럼 받아들여져 미국 선교사가 기독교도를 비호하여 일본에 반대하고, 기독교회는 배일 운동(排日運動)의 책원지(策源地)로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어 미국 선교사를 위해 한국 기독교도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두 세 명의 인물도 있어 전체적으로 파급되어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을 낳고 있다. 원래 사대 사상(事大思想)이 발달한 한국민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 작금 선교사 대(對) 한인 신도 간의 분쟁도 때때로 듣게 되지만, 형세 일변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 전도의 형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우

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나 역시 최근 형세의 추이에 주목을 하고 있으나 상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현해탄 건너 저편으로부터 한민(韓民) 교화의 방책을 알고 있는 여러 현명하신 분들(諸賢)의 가르침(垂敎)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튼 오늘날처럼 미이교회 혹은 일본 기독교회 혹은 조합교회, 성공회 또는 구세군 등 다양하고 잡다한 교회가 제 각각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방책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대합동적(大合同的) 방침을 취해 집중적 대전도를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역시 일시적 조치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되든 영명(令名)이 있고 덕망이 있으며 경륜 있는 유력한 선배 한 사람이 경성에 근거지를 두고 수많은 전도자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맥락 있고 질서 있는 전도 조직을 이룰 수 없을까? 이것이야 말로 교역자가 흔쾌히 가장 잘 일을 하여 눈에 띠는 진보를 보여주게 될 방법이다.

▲ 한일의 오늘날의 형세는 한국 전도에 관해 일본 기독교회의 주의와 분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재한(在韓) 불교도 역시 시세에 따라 지난날 용산 서본원사(西本願寺) 개교(開敎) 총감부(總監部)에서 각 종(宗) 불교연합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우리는 한일의 오늘날의 형세에 비추어, 항상 일치된 행동을 취하여 한인 · 일본인이 우리 불교의 교의(敎義)를 접할 수 있도록 기한다.
2. 위 정신에 따라 한일 불교도 연합회를 조직한다.

한국 개교 총감부 오타니(大谷尊寶) 스님(師)은 오랫동안 영국에 유학하여 세계의 대세에도 능통하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인물이며 오타니 스님의 지도 · 계책을 잘 따르면 한민 교화에 다소간의 공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도, 불교도 모두 함께 한민 교화를 위해 헌신을 다하기를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출전 : 劍特生, 「敎界 韓國通信」, 『基督敎世界』 제1251호, 1907년 8월 22일〉

(2) 한국 경성교회

교세(敎勢)는 점차 진보하고 있다. 일요일 집회를 한번 열리 때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예배 설교에는 항상 40명 이상, 전도 설교에는 30명 정도이고, 아침저녁으로 항상 새로운 구도자가 찾아온다. 성서 강연회는 매달 1회 개회하고, 요네자와(米澤) 목사의 강연은 관심이 있는 구약성서의 해설에 들어가는 회원 이외의 뜻있는 자들도 기쁘게 경청하고 있다. 교회 청년회는 올 2월 교회식을 거행하여 매달 1회 강연회 및 수양회를 개최하여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며 품성 도야에 노력하며 의기(意氣)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첫 번째 일요일에는 정기 세례 · 만찬식이 거행되어 1명이 세례를 받았고 5명의 형제자매가 가입하였다. 회당 신축 계획. 교회 독립과 회당의 건립은 우리 교회의 앞날에 놓인 2대 문제이다. 특히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회당으로, 회당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때문에 기도를 올릴 곳이 없는 것이다. 이 달 1일부터 3일 동안 조천기도회(早天祈禱會)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사람 25명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마침내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임시 총회를 열어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을 선출하여 즉시 성령(聖靈)의 지도에 따름에 모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스스로를 바치고 나아가 일본의 형제자매에게 호소하여 한국 전도를 위해 노력하리라 생각하였다. 선언서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우리 교회의 독립을 완성하고 나아가 한국 전도의 확장을 기한다. 그리고 독립 완성에 앞서 앞으로 1년 동안 필요한 회당을 적당한 장소에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천부(天父)의 가호를 빌며, 모든 극기(克己)와 진력(盡力)을 다할 것이다.

〈출전 : 「韓國京城敎會」, 『基督敎世界』 제1337호, 1909년 4월 22일〉

(3) 우에다(上田義雄), 한국 부산통신

5월 31일부터 우에다(上田) 씨가 마산으로 출장을 가서 교회에서 설교회를 열었다. 이틀 밤 모두 청중 20여 명이 조용히 들었다. 6월 23일 이틀 밤 동안 대구에 출장을 가서 회원 기요미즈(淸水) 씨의 자택에서 설교회를 열어 모인 사람이 13명 정도였으나 경건함으로 충만한 모임이었다. 공소원(控訴院) 원장 도이(土井庸太郎) 씨의 부인이 구도의 길에 들어서 이번부터 출석하기로 하였다. 이 지역의 신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미약하지만, 만약 상주자가 있다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방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6월 9일 다무라(田村直臣) 씨가 부산에 와서 오후 2시 내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부인회가 열려, 다무라 씨가 다년간 경험한 어린이 교육에 대해 관심 있는 흥미로운 강연을 들려주었는데, 참석자 12명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날 밤은 8시부터 행좌(幸座)의 기독교 청년회의 발기에서 연설회를 열었다. 회장 가토(加藤喜造) 씨, 사회는 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다무라 씨 "번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의 강연이 있었고, 모인 사람은 130여 명. 청중들은 마지막까지 정숙하게 들었다. 6월 28일 우에무라(植村正久) 씨가 경성, 군산의 축사 전도 응원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부산에서도의 전도도 승낙하였다. 교회 회원은 이번 운동을 하는데 축복이므로,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용두산에서 조천기도회(早天祈禱會)를 열어 일동은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 28일 밤 이 교회에서 제1회 신도 수양회를 열어 가토 씨가 사회, 우에무라 씨가 '기도'에 대해 7개조의 마음자세를 들어 간절하게 설교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중에 기도를 하게 하였다. 참석자 45명. 29일 아라이(荒井) 호텔에서 부인회를 열어 내가 식을 맡고 우에무라 씨가 "부인에게 미치는 예수의 감화"에 대해 실예를 들어가면서 순수하게 예수의 살아있는 힘에 의지할 것을 권하였다. 참석자 21명,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29일 오후 8시, 아라이 호텔에서 종교 간담회를 열어, 이날 밤 개회한 취지는 부산 유력한 유지들에게 우리의 본심과 기독교 정신을 알릴 목적으로 열렸다. 이 지역 부이사관(副理事官), 민단장(民團長), 각 학교장, 제일 은행 지점장, 세관장(稅關長), 경찰서장, 그밖에 최고 유지들 35명이 발기인이 되어, 개

회 초반에 부산 주이사관 다카세(高瀨經德) 씨의 개회사가 있고 이어서 내 소개 하에 우에무라 씨는 "인생에 놓인 길"에 대해 장장 1시간에 걸쳐 게다가 매우 열성적으로 강연을 해 주었으며, 이 모임에 참석한 150명, 발기인 대다수가 출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 들으러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출전 : 上田義雄, 「韓國釜山通信」, 『基督敎世界』 제1349호, 1909년 7월 15일〉

(4) 한일 기독교신자의 상호 교훈(사설)

지난 날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 목사단은 지난 12일에 무사히 경성에 도착하였다. 즉시 경성 조합 교회(京城組合敎會)에서의 환영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감상, 그리고 며칠 후 일행이 각 교회 목사 및 청년회 이사들을 초대하여 이번 시찰에 관한 보고를 하였을 때의 담화를 종합하여, 그들이 일본에서 받은 가장 강한 인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 대략 다음 4개 조로 정리해 보았다.

1. 일본의 신자, 우정이 두텁다는 것.
2. 일본의 교회, 지식적(智識的)이라는 것.
3. 일본의 기독교, 근저(根底)가 깊고,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력이 충만하다는 것.
4. 일본 교회의 질서가 정연하다는 것.

이상은 본래 다양하고 많았던 감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 감상을 통해 일행 대부분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들의 관찰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일본 기독교가 그들에게 보여준 환영의 성의는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 항목의 우리 우정이 두텁다는 것은 결코 그저 감사치레가 아니다. 우리는 조선과 일본 양 기독교가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 우의를 다질 수 있어 기뻤다. 두 번째 항목의 일본 교회가 지식적임을 간파한 것은 그들이 일본에 와 배운 최대의 교훈이며, 우리는 그들이 자기의 단점을 깨달고 다른 장점을 배우려는 태도를 훌륭하게 여긴다. 일본의 사회 교육 정도는 조선의 그것에 비해 본래 같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지식적으로 발달한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던 것이다. 만약 일본 사회가 지적으로 발달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오류이다. 신앙에 불타는 사람을 움직이면 지식을 경시하는 폐해에 빠진다. 다행히 조선의 목사들이 이러한 편견에 빠지지 않고 일본의 지적 장점으로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것이다. 내조(來朝)한 목사단의 대다수는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였다. 게다가 그들을 교육한 외국 선교사는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고자 기독교에 관한 지식적 방면을 되도록 피하였다. 이른바 민(民)으로서 의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방침을 취하여 옴으로써 그들의 신학 혹은 성서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오늘날까지 조선에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조선 문물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지도자의 대임(大任)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선진적인 기독교회에 지금 지식

적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표적인 목사들이 일찍부터 이 점에 착안하였음을 기뻐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의 일본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근저가 깊어서 현재에 급격한 그 발전을 얻지 못해도, 이 교의 주의(主義)·정신이 알게 모르게 국민 일반의 사상·감정의 근저에 깊이 잠재해 있음으로써, 적당한 기회와 시간이 오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관찰은 더욱 존경할 만한 탁월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 신앙적 정열에 고무되어 일본 전도의 곤란을 헤아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여, 조용히 물러나 서로 사회의 상태, 시대의 차이 등을 대조한다면, 기독교회의 성쇠우열(盛衰優劣)은 반드시 현재의 신도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지금 역사적 기초의 중용한 일을 깨달은 것은 조선 기독교회의 앞길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적어도 양국의 기독교회 사이에는 2, 30년간의 역사적 차이가 있음을 자각함으로써 일반 사항에서 얻게 될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 기독교회도 메이지(明治) 초기에는 오늘날의 조선 기독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교회의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지금 조선의 교회는 전도를 생명으로 하는 창설 시기에 있다. 교회의 제도·기관 및 부속 사업 등에서 일본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앞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조선의 교회가 이른바 질서정연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이식되는 시기를 지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다져지는 시기가 오면, 자연히 만사가 정돈되어 갈 것이다. 자연의 발달상 조선의 기독교회가 완전히 자급 독립을 달성하면 그 질서는 우리를 능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우리 일본의 기독교가 조선의 신도 및 교역자에게 배울 교훈 또한 하나가 아니다. 그들의 일본에 와 있는 동안 도처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 신앙의 단순하며 열정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발랄한 점이다. 그들이 다시 한 번 신의 힘을 믿고 일어나자 눈에 권위도 없고 학식도 없다. 그리고 복음의 승리를 믿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려는 열성으로, 때로 질타를 받을 만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이를 우리 일본의 선배들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종의 열광을 갖고 이른바 때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든 경우에 복음을 선전하여 임무를 다하던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그 신앙상의 용기에 손색이 없다. 일본 신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찌 가장 든든하고 또한 강력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들의 언동으로 좀 꺼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종교적 확신이 조금 궤도이탈을 한데 불과하다. 우리는 오히려 그 치기를 아끼고 그 마음을 꺼려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에게 일단 반성하게 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는 조로(早老)의 폐해에 빠져, 아껴야 할 치기를 잃고, 청춘의 원기가 어느 순간 쇠락해, 노화되고 있지 않은가? 전도의 급한 업무는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헛되이 시대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고 쉽게 세속과 타협하며,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망각하고, 제대로 하는 일 없이날을 보내니, 이 어찌 지금 분개로 가득한 우리 기독교회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어른은 갓난아기의 마음을 잃는다. 오늘날의 우려는 이 단순하고 원기 가득한 갓난아기의 마음을 잃어 가는 것이다. 이해에 민감하고 타산에 밝으며 조화와 타협에 이날도 부족한 것은 전도자의 큰 수치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름지기 조선 기독교신자의 단순·열정적이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기개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종교적 정열에 불타고 심령적(心靈的)이라고 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불러 심령적이라

고 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지식적인 면을 칭찬한다. 우리는 그들의 심령적인 면을 칭찬한다. 다만 우리의 이른바 심령적이라는 것이 지적 요소를 망각한 신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을 믿고 기독교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여 이를 구원하는 데 열광하는 전도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조선의 신자에게 배워 지금 다시 한 번 젊어져 전도에 열광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출전 : 「日鮮基督教の相互的教訓」(社說), 『基督教世界』, 1911년 8월 24일〉

(5) 견문록

◎ 조선에서의 암살 사건도 마침내 공판(公判)이 끝나 일단락이 되었으나, 피고 중에 다수의 기독교도가 있다고 하므로, 미국 선교사는 이를 총독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백방으로 수단을 강구하여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박해를 하려고 했다고 믿지 않지만, 불행히도 다수의 기독교도가 관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외지(外紙)의 여론에는 특별한 주의(注意)를 기울이고 있다.

◎ 최근 재조선(在朝鮮) 선교사 등은 에든버러 선교대회의 계속위원(繼續委員) 앞으로 대대적인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서면의 대체적인 논조는 피고의 다수가 기독교도이므로 그들은 무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토(伊藤) 공작의 암살자가 기독교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의 기독교도는 비교적 교육을 받았고 기개가 있는 국민이라면 잘못된 암살을 기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곧장 기독교도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그러나 예심 법정에서의 그들의 자백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중에 선교사가 암살을 교사하여 악수를 신호로 총을 쏘기로 말을 맞추었다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술이다. 고문(拷問)의 유무는 본래 아는 바 없으나 그런 종류의 자백은 단지 조선인의 엉터리 진술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말하는 가운데 발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판에서 이구동성으로 부인한 것은 분명 이 의문을 뒷받침해 주었다. 평소 건전한 미국의 한 종교 잡지까지 이 사실에는 놀라움을 품고 있다.

◎ 홍콩의 한 외지(外紙)는 판사가 공판정에서 자유롭게 모모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 그 공모 유무를 피고에게 신문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재판법을 모르는 논조라고 저팬메일은 반박하였다. 예심 기록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공판에서 심문할 것이다. 또한 만약 판사가 선교사의 유죄를 믿고 있다면 피고로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예심의 자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선교사에 대해 악의가 없다는 증거이다.

◎ 물론 총독부의 상층부에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충분히 선교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테지만, 다만 하급 관리 중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자가 있어, 그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도 점점 크게 포장된 경향이 없지도 않다. 우리는 외지(外誌)의 비판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국민의 종교에 관한 보수적 편견이 오히려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

〈출전 : 「見聞錄」, 『基督敎世界』 제1511호, 1912년 8월 29일〉

(6) 이노우에(井上良民), 조선의 음모사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각오는 어떤가? 재일 선교사의 태도는 어떤가?

불행한 조선의 음모사건은 지금 세계의 대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황색지(黃色誌)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모든 신문·잡지에서 화제가 되어 배일당(排日黨)에 더 할 바 없는 좋은 기회와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천하의 논의가 마치 들끓는 듯한 양상이다. 그런데 고국에 가보면 때를 만난 비평 논란의 표적이 되어 있는 본존(本尊)의 나라에서는 일반 세인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동안 일간 신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경이 매우 날카로운 천하의 잡지는 왜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여러 신문은 전하기를,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또 말하기를, 이번 123명 음모사건의 혐의자 검거는 즉 기독교 박멸의 첫 번째 책략의 한 증거라고, 나아가 많은 전율할 만한 고문 양상에 대해 써내려가 일본 정부가 얼마나 극악한 야만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개하며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재조(在朝鮮) 선교사를 비롯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전한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일본 정부의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비탄(悲嘆)의 극치이다.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싶은 나는 만주에서 조선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평양에서 다시 경성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조사해 보았다. 대 사건의 공판법정에도 참석하여 처음부터 재판 모습을 지켜본 결과,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의 교화사업에 대해 많은 동정을 갖고 있었으며, 결코 박해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하였다. 특히 이번 음모사건은 단지 정치범 혹은 형사문제여서 모든 재판 역시 그런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결코 종교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불행히도 피고 대다수가 선교사의 교화에 의한 기독교 회원이기 때문에 재조선 선교사들은 이를 종교 박해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이 사건은 세계의 여론을 현혹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미국 수백 수천의 신문·잡지는 모두 기독교의 박해자 야만적인 고문의 시행자로서 우리 정부의 기반의 경중을 세상에 묻고 있다. 배일당에게 이를 능가하는 좋은 재료가 있을까? 나아가 구주(歐洲)에서도 점차 그 반향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일본 기독교 신자는 과연 어떤 조치를 내놓아야 할까? 또한 우리 재일(在日) 선교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나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아니 이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반드시 이 일의 곡직진상(曲直眞相)을 세계에 공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확신하므로 감히 세상에 묻는 바이다.

〈출전 : 井上良民, 「朝鮮の陰謀事件 －我國基督者の覺悟如何? 在日宣教師の態度如何?」, 『基督教世界』 제1513호, 1912년 9월 12일〉

(7) 다카하시(高橋直巖), 조선 장로파 총회 방청기

조선에서의 장로회(長老會) 총회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양 서문(西門) 밖의 신학교(神學校) 누상(樓上)에서 열렸다. 조선에는 개교(開敎) 이래 처음 열리는 총회이다. 계림팔도(鷄林八道)에서 달려온 목사·선교사 및 장로를 세어보면 200여 명, 여기에 방청자 200여 명, 4일간 400여 명의 집회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이 있어 4일째에만 오후 3시부터 총회를 방청하였다. 경성의 언더우드 의장, 평양의 장일현(章壹峴) 교회 목사 길선주(吉善宙) 부의장 처음 20분 동안 기도회를 열었고 이어서 의사(議事)로 이어지기 전에 감리 교회(監理敎會)의 선교사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나는 일본조합교회(組合敎會)를 대표하여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각 도(道)의 교세 보고(敎勢報告)가 있었고, 이어서 중국에 전도하는 건에 대한 건의안을 의논하였는데, 굉장한 논의여서 근본적 반대 의견은 없었다. 길선주 씨는 열심리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였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은 기독교의 구원을 매우 갈구하며 조선인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는 중국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듣고 15, 6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조선 전도의 급무(急務)를 절규하던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중국 전도 건은 위원부탁(委員附托)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내 재주(在住) 조선인에게 전도하기 위해 조선인 목사 한 사람을 파견하는 건은 다양한 토의 끝에 감리파의 미션으로 교섭하여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교회 정치의 수정 문제로 옮겨갔는데, 대의원 한 사람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교회의 집회 때 플랫홈에 오르는 권리(즉 상석에 착석하는 권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에게도 허락해 주는 것은 어떤가 라는 의견이었으나, 일소에 붙여져 그런 규정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다음 의제는 결혼하는 남녀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였다. 재미있는 논의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다. 원안(原案)은 남자 만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이 아니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의원이 말하기를 '만'이란 양력으로 셀 것이냐 음력으로 셀 것이냐 하는 것과, 다른 의원이 말하기를 시골 사람들은 '만'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연령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는 것, 그밖에 웃음을 유발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5시가 되어 나는 중간에 돌아왔으나 나중에 들으니, 그날 밤 12시까지 남은 의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며, 마지막에 메이지 천황의 장례에 대한 봉조문(奉弔文)과 신 황제에 대해 충순(忠順)의 성의(誠意)를 표하는 글을 봉정(奉呈)하는 일에 대해 의결하고 폐회하였다고 한다.

200여 대의원이 자유롭게 착석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번호가 있어서 앉는 순서가 없었다. 그리고 채결(採決)하는 데에도 점검도 아고 거수도 아닌 단지 '예'라는 찬성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을 때에 찬성을

간주하는 식이었다. 회의라기보다 간담회와 같은 분위기로 시비조는 아니었다. 이는 선교사의 감화(感化)일 것이다. 또한 선교사가 약30명 정도 의원으로 자리해 있었으나, 부인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내년에는 경성에서 제2회 총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한다. 매우 웅변을 잘 하는 의원도 있어, 회의장은 매우 활기가 넘쳤다.

〈출전 : 高橋直巖, 「朝鮮長老派總會傍聽記」, 『基督敎世界』 제1514호, 1912년 9월 19일〉

(8) 도미나가(富永德磨), 조선에 관한 견해(1)

1. 공평하게 보자

조선 문제를 지금에 이르러 이것저것 다루는 것은 남이 타고 있는 말을 뒤에서 올라타는 것 같아서 꺼림직함이 없지 않지만,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한 아직 아무도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지금 총독부의 개혁되어야 할 때이고, 조선의 미래가 갈림길에 놓인 때이므로, 우리의 견해와 소망을 기술하는 것도 반드시 6월의 창포(菖蒲)처럼 때지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조선의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세인(世人)들은 두 가지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없다. 하나는 수원사건처럼 잔인무도한 사건이다. 또 하나는 조선 독립을 위한 소요이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같은 문제는 아니다. 수원사건 및 같은 종류의 일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신도 인간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 일본의 대치욕이다. 국민으로서도 회개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규탄 처분해야 한다. 총독의 경질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수원사건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 모든 것이 구 총독부의 실정(失政)·악정(惡政)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조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수원사건은 오히려 결과이며 우발적인 사건이다. 수원사건까지 야기 시킨 정치가 오랫동안 실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사건은 다른 힘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그것은 조선인 일분의 독립운동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수원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호교(護敎)'의 이시자카(石坂) 씨의 보고는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 관민(官民)의 학살 박해는 조선인의 독립 소동이 있기 전이었는데, 독립 소동이 수원사건 및 같은 종류의 사건을 야기한 것인가?, 수원사건 및 같은 종류의 사건이 독립 소동을 유발한 것인가? 이 부분을 거의 알 수가 없다. 시간 착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살 박해가 먼저 있었다면 우리는 구 총독부를 엄벌하여 백배사죄하고 국민의 죄를 천하에 고백하고 고쳐야만 하며, 그렇게 해야만 일이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조선민이 일본 관민의 분노를 도발하여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기독교도로서 공평하게 생각해, 일본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에게, 또한 이에 관련 있는

외국인에게, 비난을 가해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 문제는 일본 및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화기 가까이 다가가면 언제라도 폭발이 일어나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비참함을 안겨줄 것이다.

2. 구 총독부의 정치

구 총독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든 공로가 무의미해졌다. 지금은 세인(世人)이 그 죄악만을 보고 있다. 그러나 구 총독부는 악정만을 펼치지는 않았다. 조선은 구 총독부 아래에서 진보하였는지, 퇴보하였는지, 행복하였는지, 불행하였는지. 대체로 긍정적인 쪽이며, 일본은 반드시 속국 행정에 완패한 것이 아니다.

그 총독부의 정치가 매우 비문명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누구나 조선에 가보고 싶어져서 두 번 다시 갈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여명회(黎明會)의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이다. 이에 덧붙이면, 총독부터 큰 위세를 부리고, 경성을 출입할 때 각 정거장에서 지역 관민의 송영(送迎)을 받으며 기뻐하였다. 만약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총독은 기분이 매우 상해 모 씨는 어떻게 된건가라고 묻는다. (하세카와(長谷川) 총독이 가장 심했다고). 헌병의 횡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이다. 정부가 지방의 보고를 요청하면, 지방관과 헌병 사이에 모순된 점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백이면 백 반드시 헌병의 보고를 채택한다. 지방의 관민은 헌병의 미움을 받으면 끝장이라고 말한다. 심한 경우에는 어느 지방에서 평판이 좋은 관리가 조선민에게 살해당했을 때, 일본인민 사이에서는 그 관리가 헌병을 꺼려했기 때문에 조선민을 선동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는 물론 전해진 말이며 소문이다. 그런 일은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느 도의 도청인지 군서(郡署)인지에 내훈(內訓)이 있어, 여기저기 산에 나무를 심어 달라, 그곳은 다른 곳이이지만, 총독이 기차로 통과할 때 멀리 보이는 토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사가 이러니까 성실한 정치는 어디에서든 제대로 이루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 군벌 정치는 조선인보다도 오히려 일본인에게 절망이다. 관리조차 이를 절망하였다. 아니 군인이라도 생각이 있는 자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구 총독부는 반드시 선정(善政)을 베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다보면, 어디나 산은 푸르다. 인민은 평화적으로 안심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이조 하에서는 볼 수 없었다. 만약 공화국으로 되었다면 더욱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조선에 있으면서 사정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인민의 행불행은 크게 달라져 있다. 중국령은 지금 마적의 약탈로 인해, 관리의 가렴주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령에서는 만사가 안녕하고 행복하다. 저쪽의 이민은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조선민은 이조 시대를 회상한다면 행복이라는 면에서 크게 진보한 것은 사실이다.

〈출전 : 富永德磨, 「朝鮮に關する見解(1)」, 『基督教世界』 제1875호, 1919년 9월 4일〉

(9) 일선(日鮮)사건과 미국교회동맹(기사)

미국 교회 동맹(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동양부 위원의 이름으로, 일선(日鮮) 사건에 관해 동 회보 9월호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대의(大意)를 아래에 초록(抄錄)한다.

올해 3월 초, 상해 및 천진에서 날아온 전보는 조선에서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이 발흥(勃興),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잔인한 진압에 대해 전해 왔다. 4월에 들어가 전보가 사실인지 증명하는 서장(書狀)이 점차 도착하여, 다소 왜곡되었음을 알았다. 이들 서장은 엄중한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각지를 우회하여 조선에 전도지가 있는 각 선교부의 총무 앞으로 온 것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압제로 인해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4월 중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조선에서 뉴욕으로 돌아간, 첫 인물을 맞이하였다. 그는 바로 캐나다 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총무 A. F. 암스트롱 씨로, 암스트롱 씨는 중국, 만주, 조선, 일본 등을 10개월 동안 시찰하였다. 요코하마에서 귀국 길에 오르려고 하였을 때, 다시 조선으로 가야 할 전명(電命)을 받고, 3월 16일 경성에 도착하여, 3일 동안 각 방면의 시찰 연구를 실시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각 방면에 보고한 뒤, 여론은 미국 제 교회 연합의 조치에 일임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연합의 동양부 위원은 4월 16일 이후 몇 차례 회합을 가지고 가장 적당한 조치에 대해 열심히 궁리하였다. 그 회합 중 2회, 뉴욕 재주(在住)의 중요한 일본인 몇몇도 초대되어 출석을 하였다. 이들에 의해 중요한 전보가 일본으로 보내졌다.

위원 등은 진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온하고 우정 어린 방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원 등의 수중에 있는 갖가지 재료를 신문사에게 넘기기 전에 일단 일본인에게 보이고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위원들은 일의 진상을 대중에게 알릴 좋은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당시 위원들의 손에 들어온 각 방면에서 날아든 서장이나 소책자 같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것을 출판하면 천 쪽이 넘는 책이 되고도 남을 정도였다. 어느 보고서처럼 엄중하게 봉해진 114쪽의 것도 있었지만 이때에는 매우 극단적인 보도가 될 우려도 있었다. 과장되게 보도될 우려가 있는 이들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은 그들이 직접 말한 것이다.

위원들은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의 정치적 문제에는 위원으로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처음부터 명백히 해 둔다. 조선의 정치상의 독립이 허락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밝혀야할 문제가 아니다. 위원들은 세상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잔인함, 가혹, 비인도적인 대우, 종교적 박해, 학살 등이 어디에서든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희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에서 이러한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일본을 정당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본은 지금 한편으로 반동적 군벌적 세력과, 한편으로 자유롭고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비평가는 군국주의적 정신과 그 실행은 전 세계를 뒤덮는 불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도 또한 불행한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동시에 일본에는 인도(人道)와 진보, 도(道)라는 자유로운 반군벌적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조선에서

의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는 마음을 동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현재 일본의 내각은 "민중"의 정치가를 총리대신으로 내세웠다. 최초의 내각이지만, 또한 불행한 군벌정치의 세습으로, 전 내각을 답습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시정(施政)의 개혁은 이미 열심히 강구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태는 그 개혁을 서둘러 단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정적(政敵)인 관료군벌의 무리는 매우 많고 강대하여 지금 내각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진보적, 비군벌적인 기운에 대해 가능한 한 유력한 도덕적 원조를 보내고자 한다. 오늘은 이를 실행할 적당한 기회이다. 조선을 위해, 중국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생각하는 것은 각국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일반 서민의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 제 교회 연합 동양부 위원
의장 : 윌리엄 I. 하벤(Wm. I. Haven)
총무 : 시드니 L. 걸릭(Sidney L. Gulick)

또한 동 회보의 별항(別項)에는 조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해 하라(原) 수상이 위원 앞으로 보낸 전문(電文), 그리고 일본의 여론이 이에 관해 크게 건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과 하라 수상 사이에 오고 간 전보(電報)를 제시해 놓았다. 그렇지만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소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전 : 「日鮮事件と米國敎會同盟」(同會報9月號), 『基督敎世界』 제1879호, 1919년 10월 30일〉

(10) 요네자와(米澤生), 교계 각지 한국 경성청년회 개관식

한성(漢城) 시가지 중앙에 워너메이커 씨의 8만 원 기부를 바탕으로 건설된 경성기독교 청년회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그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내빈(內賓)으로 이토(伊藤) 통감, 소네(曾根) 부통감, 각 대신(大臣), 차관, 각국 영사, 그밖에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700여 명이 회당(會堂)을 가득 메워 빈자리가 없었다. 사회자 윤치호(전 외부차관[外部次官])가 영어와 한국어 양국어로 개회사를 알리고, 내외법제국장(內外法制局長) 유성준(俞星濬)의 헌당 기도(獻堂祈禱)에 이어 미국 영사 샘몬스(Thomas Sammons) 씨가 워너메이커 씨를 대신하여 그의 전문(電文)을 낭독하였다. 또한 워너메이커 씨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 수 분간 연설을 하고, 이어서 이토 통감이 일어나 본 회(會)의 사업이 한국 정신계의 목탁이자 광명이라는 연설을 약 15분간 하였고 고쿠분(國分) 비서관이 이를 한국어로 통역하였고, 솔브레이스 주필은 유창한 영어로 통역하였다. 청나라 청년회 대표 리차드 박사는 매우 기발한 쾌변(快辯)을 뿜어 이토

통감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 제도가 있고 또한 한국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언급하였고, 나아가 청년회 사업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유신 전후 일본의 국보(國步)가 어려웠을 때 당시의 정치가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 낸 것은 서양 사상을 배운 청년이며 지금 중국은 그러한 인물이 없어 고심하고 있어 그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깊은 동정을 받아 그 지도를 받는 것은 기뻐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씨는 간단하게 축사를 하고, 윤치호 씨는 특유의 웅변을 통해 한국 청년의 사명을 논하여, 제군은 이 건축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가 하고 외치자, 갑자기 한 한인(韓人)이 일어나 그 사업을 위해 천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속속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속출하여 그 자리에서 5천 백여 원이나 모였고, 전지(田地) 2정보(町步)를 기부하는 자가 있었다. 회당 가득 영감(靈感)이 충만한 가운데 오후 5시에 폐회되었다고 한다.

〈출전 : 米澤生, 「教界, 各地, 韓國京城靑年會開館式」, 『基督教世界』 제1320호, 1908년 12월 17일〉

(11) 무나카타(宗像), 한국 경성교회

10월 중순 요네자와(米澤) 목사를 맞아 우리 교회는 착착 앞으로 나아가, 일요일마다 예배자가 매번 증가하여 지금은 50여 명을 헤아린다. 11월 22일에는 성찬(聖餐) 및 세례식이 거행되어 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밖에 8명의 교회를 옮겨온 자(轉會者)가 있어 한꺼번에 12명의 교우를 맞이하였다. 교회 회원이 일요 예배에서 서로 만날 뿐만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하여 서로 영성(靈性)을 닦으려 하는 것은 예전보다 희망적인데, 이번에 시내를 6조로 나누어 조회(組會)를 조직하여 매월 1회 각 조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열게 되어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28일, 29일 3일간의 밤에는 성서에 대한 취미를 심화하여 연구하려는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강연회를 교회당에서 열었다. 연제(演題)는 27일에 "성서의 주의(主意)"[기타하라(北原利男)], "성서의 감화"(요네자와 목사), 28일에 "성서의 권위"[마츠모토(松本雅太郎)], "성서의 연구"(요네자와 목사), 29일에 "성서의 윤리"[무나카타(宗像鴨四郎)], "성서의 조직"(요네자와 목사)로 하여, 청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 목적인 성서 연구의 취미는 충분히 고양시켰음에 틀림없다. 특히 요네자와 목사의 신약·구약을 넘나드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일동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결과, 오는 봄에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종류의 회합을 갖기로 하고 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출전 : 宗像, 「韓國京城教會」, 『基督教世界』 제1320호, 1908년 12월 17일〉

(12) 한국 경성 일본기독교회

신임 목사 이시하라(石原) 씨는 10월 말일 도착. 11월 1일 예배에는 27명이 출석하였다. 오후 7시의

설교회에는 17명이 참석하였다. 이시하라 목사 내임(來任) 전에는 오전에 14명, 밤에 7, 8명밖에 없어, 본 교회는 아직 정식 교회가 아니어서, 이날 밤 설교 후 와타나베(渡邊), 하라다(原田), 하시모토(橋本), 오타니(大谷) 등의 제씨(諸氏)와 앞날의 방침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따라 총회를 열어 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부인회는 11월 13일에 창립하였다. 이 회당(會堂)은 10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집회소이다. 현재 재류 일본인은 약 2만 5천 명으로, 교회는 미이파(美以派)가 제일 많아 회원 70여 명. 다음은 조합파(組合派)로 50여 명이다. 우리 교회는 약 40여 명을 헤아린다.

〈출전 : 「韓國京城日本基督敎會」, 『基督敎世界』 제1320호, 1908년 12월 17일〉

(13) 한국 평양교회 확장 전도

◉ 4월 4일

열성적인 기도로 갈망하는 에비나(海老名), 와타세 두 목사가 예정대로 오후 4시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오후 6시부터는 새로운 회당(會堂)에서 환영회를 열었다. 모임은 히라노(平野武吉) 형제가 맡았으며, 야마다(山田) 목사의 환영 기도, 무라카미(村上唯吉) 형제의 환영사, 이어서 와타세 목사는 고통스런 인후통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사를 겸하여 이 지역 교세의 발전을 축하는 말을 남겼으며, 이어서 에비나 목사는 요한복음 15장을 인용하여 열심히 일장 연설을 하였다. 참석자는 영기(靈氣)가 충만하여 돌아갔다.

◉ 4월 5일

오전 중에는 세 목사가 함께 관헌(官憲)과 유지 구도자를 방문하였다. 오후 2시부터는 새로운 회당에서 봉당식(捧堂式)을 거행하였다. 사회는 야마다 목사가 맡고 예정대로 와타세 목사가 간단하게 축사를 하고, 이어서 에비나 목사가 단상에 올라 구미 선진국이 그 식민지에 이주하여 무엇보다 먼저 건축한 것이 회당이라는 것, 도랑이 말라버린 황량한 신개지에서도 먼저 신을 예배하고 심령의 위안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회당을 건설한 것은 실로 감동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신축을 축하하는 뜻을 전하였다. 무엇보다 건축위원인 츠보카와(坪川寅次郎) 씨, 아마야(天谷熊太) 씨의 보고가 있었고,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각지에서 온 축전을 야마다 목사가 대독하였고 에비나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다과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해산하였다.

오후 7시 반부터 기양구락부(箕陽俱樂部)에서 대연설회를 열었다. 정각이 되자 한인과 일본인으로 꽉 차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약 2백 5, 60명이 자리하였다. 야마다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와타세 목사는 "기독교의 사명"의 제목으로, 무라카미(村上) 공소원(控訴院) 서기장(書記長)의 통역으로 연설을 하였다. 이어서 에비나 목사가 "신의 나라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원 통역관 후카에(深江) 씨의 통

역으로 연설을 하였다. 매우 성황을 이룬 연설이었는데, 특히 한인들이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연설이 끝나자 몇 명의 유지는 특히 에비나 목사에게 가서 아수를 청하기도 하였으며 11시 경에 산회(散會)하였다.

◉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이사청루(理事廳樓) 위에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의 주최로 부인 대회가 열렸다. 두 목사가 모두 "가정과 기독교"에 관해 부인의 책무를 깊이 있게 말씀하여 매우 유익한 집회가 되었다. 오후 4시 무렵에 폐회하였다. 이날 에비나 목사는 오후 4시부터 와카마츠(若松) 이사관(理事官)의 소개로 한국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였다. 청중은 백 수십 명. 와타세 목사는 우주를 신의 가정으로 보고 인류가 그 가족이라는 내용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영기(靈氣)로 가득한 설교를 하였다. 이어서 에비나 목사는 "천부(天父)에 대한 효도"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순수하게 기독교의 각오를 설교하여 영기(靈氣)가 회당에 넘쳐 청중이 모두 감동하여 결심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즉시 야마다 목사의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에비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후 11시 반에 산회하였다.

◉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신 회당에서 2대 예전(禮典)을 집행하여, 야마다 목사에 의해 세례를 받는 8명, 전입회자(轉入會者) 2명이 있었다. 이를 마치고 에비나 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전후 15명의 신입 형제가 가입하자 감사로 가득하였으며 에비나 목사의 기도로 폐회한 것이 오후 1시 반. 에비나 목사는 한국 방문하여 기후의 변화에게 전혀 작은 피로감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와타세 목사는 감기로 인해 인후통을 앓았으나 이 역시 가벼워서 예정대로 일정을 충분히 소화하여, 이번 활동을 무사히 마친 것은 모두 신의 끝없는 보호 덕분이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두 목사는 경성 교회의 확장 전도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51분 열차로 출발하였다.

〈출전 : 同教會 書記報告, 教界, 「韓國平壤教會擴傳概況」, 『基督教世界』 제1390호, 1910년 4월 28일〉

(14) 다카하시, 조선교회 참배기

장남이 이번에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한 번 순수하게 조선인 교회의 예배를 보여 주려는 생각에서, 평양의 중앙교회(장대현교회)에 데려간 온 것은 10월 8일 오후 1시였다. 예배는 정각 2시에 시작되었으므로 회당(會堂) 근처를 산책하던 중에 마침 고루(高樓)에 달린 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가 몹시 맑게 평양부(平壤府) 10만인의 고막에 닿을 듯 울려 퍼졌다. 이때가 1시 반이었다. 깨끗이 빨아 잘 다린 백의(白衣) 복장을 한 조선인 남녀가 회당을 향해 오는 모습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아이와 함께 남자석에 들어가 창 쪽 의자에 앉았다. 경건한 선남선녀 모두 각각 서로 볼 수 없는 자리에 앉았

다. 그런 가운데 제일 앞에 앉은 소년들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개회 전에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 모두가 따라 부르는 것이 조선 교회의 일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회당에 사람이 90% 정도 모였다. 강단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 내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함을 내밀자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길선주(吉善宙)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사와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 강단은 매우 넓어서 그날도 설교자 뒤에 12명 정도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남녀의 두 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1,300, 1,400명 정도의 신자, 특히 여자석은 모두 백의에 흰 천을 머리에 둘러 마치 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다. 2시가 되자 길 목사가 개회 기도를 올리고, 이어서 찬송가를 두 번(1절씩) 남녀 각각 불렀다. 길 목사가 직접 선창한다. 성서는 요한복음 16장 8~13절을 낭독하였다. 이어 다른 목사가 기도를 올리고, 또 다른 목사가 헌금할 것을 고하고 남자석에 4명, 여자석에 4명 긴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를 들고 돌자 8개의 바구니는 금방 무거워져 강단 쪽에 놓여졌다. 게 중에 동전이 없는 자는 종이에 금액을 적어 놓는 경우도 많았다. 간단하게 감사 인사가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어서 길선주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제목은 "보혜사(保惠師)"라는 것이었다. 남자석과 여자석으로 번갈아 얼굴을 돌리며 통속적으로 설교를 하여 매우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약 30분간 설교를 하고난 다음, 기도, 찬송, 마지막으로 선교사 베어드 씨가 축도(祝禱)를 올리고 잠시 묵도(默禱)하고 산회(散會)한 것이 3시 30분이었다. 이 1시간 반에 걸친 예배는 참으로 정숙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300, 1,400명의 선남선녀는 경건한 태도로 시선을 목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청중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였다. 이날 오사카(大阪)의 나카하루병원장(長春病院長) 테일러 씨도 와 있었다. 조선의 시골에서 온 선교사인줄 알고 인사를 하였는데, 일본에 30년간이나 살고 있다고 일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머쓱해졌다. 어쨌든 나는 참으로 성대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적지 않지만 자극과 교훈을 얻고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직 조선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길선주 목사의 설교 내용을 소개할 수 없어 유감이다.)

〈출전 : 高橋鷹藏, 見聞錄 教界「朝鮮教會參拜の記」,『基督教世界』제1471호, 1911년 11월 23일〉

(15) 와타세, 조선의 크리스마스

◉ 경성교회(京城教會)

경성 교회는 신축 후 첫 크리스마스가 되어, 회원 모두가 의기 왕성하여, 각 위원이 그 담당한 임무에 전력을 쏟았으며, 이에 24일 밤 축회(祝會)를 개최하게 되었다. 마츠모토(松本) 씨가 사회를 맡고 무나카타(宗像) 씨가 성서기도로 개회를 하였으며 와타세(渡瀨) 목사가 축사를 하고 찬미기도로 제1부를 마쳤다. 제2부에 들어가 일요학교 학생의 축문, 연설, 대화, 암송, 창가 등이 있은 뒤, "저녁의 기원" "마리아의 암시" 등의 활인극(活人劇)이 있었다. 그 맑은 분위기에 진정 와 닿는 것이 있어 모두가 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제3부에 들어가 성년부의 축회가 있어 각종 여흥이 펼쳐져 산회(散會)한 것은 11시 무

렵. 참석자 300여 명이 회당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루었다.

◉ 한양교회(漢陽教會)

올해 조선 동포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크리스마스도 거행하게 되었으며 언어풍속의 차이를 고려한 축회를 연다는 보도는 매우 유쾌하고도 축하할 일이다. 한양교회 회원은 25일 경성교회에서 축회를 개최하고 장식은 경성교회의 것을 그대로 빌려오고, 다만 입구에 횡행등(横行燈)을 달아 조선풍으로 오린 금지(金紙)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오후 7시 정각에 홍병선(洪秉璇) 씨의 사회, 유일선(柳一宣) 씨의 성서 기도로 개회, 와타세(渡瀨) 목사의 설교, 이은덕(李殷德), 유일선 씨의 감화 등이 있고 나서 제2부로 들어가 유일선 씨의 사회로 해학적인 이야기 몇 편이 이어지고 제비뽑기 등으로 흥을 돋우었으며 과자를 나누어주고 산회(散會)하였는데, 참석자는 남자 60명, 여자 70명으로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제비뽑기 중에는 비둘기라는 1번이 있었는데 과연 비둘기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비(빗) 둘(두 개) 기(깃발) 즉 빗 두 개와 깃발 하나를 타게 되어 모두 한바탕 웃었다. 이를 일본인은 통역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지만 조선인 형제자매들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한양 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의 성일(聖日)에 8명(그중 1명은 여자)이 세례를 받았고 6명이 전입회자(轉入會者)가 되었다. 이는 우리 한양 교회의 기초이며 또한 우리 조합 교회 창설 이래 이 이상의 세례자가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 다음날 18일부터 신학회(神學會)를 개시하여 20여 명의 학생은 매일 밤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 조합 교회는 착착 나아가고 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 평양조합교회(平壤組合教會)

24일 오후 6시 반부터 집행. 교외인(教外人, 교인이 아닌 사람들) 200여 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두어서 시각 전에 입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벤치를 제외하고 앉도록 해 놓았지만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

아마야(天谷) 집사의 사회로 개회, 찬미기도 후, 목사의 간단한 축사, 오제키(大關) 집사의 인사, 그리고 일요학교 학생의 연설, 대화, 창가, 암송이 끝나고 선물, 다과에 이어 여흥을 즐겼다. 참석자는 다른 교회에서 20명, 조선인 30명, 그밖에 일요학교 학부형 합쳐서 250여 명이었다.

◉ 기성교회(箕城教會)

이는 평양에 있는 우리 조선인 조합 교회이다. 26일 평양 교회에서 성탄을 축하였다. 이날 와타세 목사는 경성에서 왔다. 회원 일동은 배우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오후 7시 정각에는 회원 및 내빈으로 가득 찼다. 남자 120, 130명, 여자 100명 안팎으로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기쁜 것은 이 230, 240명의 남녀 가운데 평양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입회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조합 교회이 평양에서 견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나일봉(羅一鳳) 씨 사회로, 선우순(鮮于鐄) 씨의 성서, 곽주영(郭周永) 씨의 기도가 있고, 와타세 목사는 무라카미(村上) 집사의 통역으로 연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우봉룡(禹鳳龍) 교회 목사의 감화, 무라카미 씨의 내빈에 대한 인사가 있고, 제2부로 들어가 선물 배포, 제비뽑기, 과자 분배 등이 있어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아이들의 찬미 성구 등도 있었는데, 그중에 소년의 "여보세요, 거북아, 거북님아"라는 조선어를 사용하여 약간의 재미를 주었다. 그 한 구절을 아래에 옮겨 적어 독자에게 소개하면,

여보 여보, 거북아, 거북님아
세계에서 너만큼 느리게 걷는 것은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내빈도 회원도 기쁨이 가득 하였고, 찬미, 축도(祝禱)를 하며 산회(散會)한 것은 11시 무렵이었다.

〈출전 : 渡瀨常吉, 教界, 「朝鮮のクリスマス」, 『基督教世界』 제1478호, 1912년 1월 11일〉

2) 한국 전도에 관한 글

(1) 히사키 신지로(久木辰次郎), 한국전도사견(韓國傳道私見)

헤이그 밀사 파견(密使派遣) 사건을 통해 한국의 흑막 교사자는 우민(愚民)을 선동하여 도처에 폭도의 봉기, 인심의 소요를 초래하여 외국 선교사들은 모름지기 이들 폭도를 위유진무(慰諭鎭撫)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선동·도발하는 행적을 보이는 것은 당국(當國) 제 신문이 탐지한 바이다. 그 진위는 한동안 묻지 않고, 이러한 풍평(風評)이 이는 까닭을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한국의 정변은 수습되어, 우리 대한 정책(對韓政策)은 일대 발전을 이루어 한국 정치의 열매를 착착 거두려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이른바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이에 우리 동지(我黨) 역시 한국 전도의 근본정책(本是)을 수립해야 할 좋은 기회를 맞이 하였다. 원래 한국 전도는 한국민의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파들은 한국에 온 것도 단지 일본인 기독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오직 재류(在留) 일본인 사이의 전도만을 행하고, 전혀 한인 전도에 힘을 쏟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해당 파의 여러 인사는 한인 전도가 이미 수년간 외국 선교사가 열심히 종사를 하여 이미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았는데도 지금이야 말로 외국 선교사와 경쟁하여 한인 전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펴고자 하는 이도 없다고 단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다. 풍속·인정·습관을 달리 하는 외국 선교사가 아무리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인들과 접촉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서양인이다. 동양인 고유의 사상·인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코 인심의 기미를 잘 알아차리고 그 정신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동양인의 교화는 동양인 스스로 담당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더 유효한 전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반해, 외국 선교사의 하는 바를 보면, 지방의 경우에는 한인 신도이면서 진정 기독교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독교회는 이들 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 외국 선교사는 이들 비행의 보호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한국에 3년간 머물면서 많이 목격한 바이다. 이번 봄 모 파의 한 감독은 한국의 소도시 사람 대략 4만 여 명 가운데 이미 만 여 명이 신도라고 보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숫자상 인구의 4분의 1이 신도인 것은 전도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공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답사한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 도시의 기독교 신도는 사회에서 전혀 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라고 할 만한 품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모두 유명무실한 신도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렇다면 시 전체에서 기독교 신도라고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히려 기독교의 영광을 더럽히는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의 한인 교회 회원(대략 1,000명)의 경우는 선교사의 관리 하에 있어, 모든 권리가 선교사의 수중에 있음으로 해서, 간혹 전제 압박의 폐해를 낳았고, 의식 있는 신도는 그 폐해에 견디지 못하고 몇 몇 유지(有志)가 우거(寓居)를 방문한 나에게 우리 일본의 독립 교회의 조직 등에 대해 몰래 질문을 한 일이 있다. 다행히 내가 소속된 교회는 일본 최초의 독립교회여서 나는 그 교회의 조직·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다. 나중에 외국 선교사는 제 마음대로 판단하여 이들 몇 몇의 신도를 방출하였고, 이들은 마침내 뜻을 결집하여 독립을 꾀해 반석 교회(磐石敎會)인 작은 교회를 창설하였으나, 한인들의 생활 정도는 매우 낮아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반년 정도 뒤에 결국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로 눈으로 본 사실이다. 외국 선교사의 전도는 대부분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 전도의 본의(本義)인 한인 간의 전도는 이러한 외국 선교사에게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화의 대임(大任)은 우리 일본인의 두 어깨에 걸려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 하나는 예전 일본 문명의 지도자였던 한국의 은혜를 갚고, 하나는 오늘날 한반도의 개발계영(開發計營)을 받아들인 일본 민족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며, 풍속·인정이 서로 많이 닮은 일본 민족이 모든 어려움을 배척하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어찌 이를 구미 선교사의 하는 대로 일임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일본은 정치적으로 한국 통치의 임무를 맡고 한국민은 곧 일본 국민의 일부로 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랴. 아무리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해도 인민 교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입으로 평화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양의 화근을 양생하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서둘러 한국 전도의 본의(本義)가 재류 일본인의 전도에 있는지 또한 한국민의 전도에 있는지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이 어찌 근본 문제가 아니겠는가? 만약 한국 전도의 근본정책(本是)이 한인 본위(韓人本位)에 있다면 한국에 파견될 우리 일본의 전도자는 우선 먼저 한국어 연습을 열심히 하여 스스로 한국어로 직접 한국민의 골수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가 단지 신도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눈에 보이는 성공에 득의 양양하는 데 반해, 우리 전도자는 한국민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독립 교회를 창립하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대정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한인의 마음에 뿌려 기독교의 왕궁을 한반도에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독립 신흥 국민을 만들어 일본과 서로 제휴하여 동양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도의 일대 책임임과 동시에 일찍부터 독립주의를 제창하였으며 또한 이를 실행해 오

고 있는 우리 조합교회의 진정 큰 임무로서 일으켜야 하는 사업이다. 한인에게 독립 교회를 창설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주의를 표방하는 조합 교회를 두고 달리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선교사에게서 찾을 수 없음은 물론, 지금 선교사의 보조를 받는 다른 파 교회에서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한국 전도는 우리 조합파 세력 범위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저 메소티스트파에서는 일본인 기독교회를 표방하고 오직 재한(在韓) 일본인의 전도에 종사하고 있어, 일본인 전도는 협의를 거쳐 해당 파에 양보할 수도 있다. 다만 한인전도 사업은 우리 동지 조합파 외에 다른 곳에 위임하지 말고 또한 다른 협력을 받지 말고 맡겨 주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변 후, 우리 통감부의 대한 정책도 확립하여 일본인을 한국 고등관에 임명하는 규정을 체결하여 정신적 교화 측면에서도 일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는 기운이 마침내 눈앞에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를 맞아 우리 조합교회의 세력 범위로서 경성, 개성, 평양 세 도시 및 원산, 인천, 대구, 공주 및 부산 등의 요지에 일본인 선교사의 스테이션을 서둘러 설립하여 앞으로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 일본의 도처에서 행해지는 집중 전도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다. 이는 본래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 전도의 일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오늘 그 대방침을 수립하고 적당한 경륜(經綸)을 실시하도록 초미(焦眉)의 급선무로, 한 번 오늘의 기회를 놓치면 다른 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어,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접 국민의 생활을 알게 되어 그 가련한 영육(靈肉) 상태를 목격하여 한조각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 경애하는 일본의 제 형제에게 한국 전도가 얼마나 급한지 알리고 이때에 적절한 시책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바람이라면 한국민의 평안과 근심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출전 : 久木辰次郎, 教界時論, 「韓國傳道私見」, 『基督教世界』 제1251호, 1907년 8월 22일〉

(2) 니시우치 덴코(西内天行), 한국 기독교도에게 보내는 글

한반도 국민이여!

그대들의 머리 위에 드리운 역사적 운명은 일찍이 세계 최대의 성자(聖者)를 낳은 유태국민처럼, 한 때 국민의 종조(宗祖)가 고통에 빠지자 이윽고 대 모세의 생애를 통해 공전절후(空前絕後)의 대광채를 발휘하였고, 이집트 근대처럼, 지금도 또한 혁명의 피에 목말라하는 파란이 그와 비슷하다. 적멸위락(寂滅爲樂)하는 애상(哀象)의 목소리를 후세에 영원히 전한 석가문불(釋迦文佛)의 향토(鄕土)조차, 이 철칙을 유린할 수 없다. 그리스도, 헝가리도, 하와이도 필리핀도 보아의 백성도 모두 이 고통스런 철칙으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국민이여. 그대들을 지배하려는 철칙은 단지 그대들처럼 약한 국민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미 문명의 모태인 이집트의 강대함도, 그 아버지인 그리스의 활약도, 그 특색을 쳐서 둥글게 만든 로마의 강장(剛壯)함도, 모두 동일한 철칙에 희롱당하는 것을 보면 움직이는 하늘은 약한 자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자에게까지도 많은 고통을 주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헛되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운명의 격변에 직면하여 함부로 날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에 유태국민에게 가한 잔혹함은 참혹함의 극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토 통감(伊藤統監)으로 대표되는 일본이 열강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그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의(主義)·방침(方針)은 매우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20세기 문물은 진화의 선물이다. 따라서 귀국(貴國) 국민의 정화(精華)라고 할 기독교도는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처할 각오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基督)가 마치 자칭 애국자이자 비가강개격월(悲歌慷慨激越)하는 무리가 성지(錦地)의 도처에서 발흥하고 있어, 현명한 기독교도의 사려 깊은 태도를 비난 공격하였던 것 같이, 동일한 경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자칭 애국자인 군소(群小) 무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국민적 독립당의 수령(首領)을 얻은 양, 그와 손을 잡고 그의 감정을 움직이려하고 있으나, 이미 '광야의 시험'에서 국가의 독립과 더불어 유태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정복의 어리석음을 단념하여 그가 독립당의 수령에 추대 받지 않았다. 그가 천지를 꿰뚫는 대식견을 가졌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자칭 애국자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식견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유다의 무리는 석기죽창(蓆旗竹槍)을 들고 직접 로마 제국에 반항하여 가슴 속의 울분을 터뜨리면 족하다고 믿은 것과 비슷하다. 마치 귀국의 폭도가 각지에서 봉기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경안(警眼)은 이들과 도저히 제휴할 수 없는 것임을 간파하였다. 이들이 생각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부화뇌동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수령(首領)을 맡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창(矛)을 거꾸로 하여 압박해 왔다. 이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애국을 표방하고, 오히려 국가를 완전히 파멸할 것을 생각하여, 대담하게 갈파하여 선언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하였다. 이는 그들이 국가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잊고 상도(常道)로 나아가지 않고 권도(權道)로 나아감을 계칙(戒飭)하신 것이다. 원래 유태국민은 신을 믿고 신의 성지(聖旨)를 받들었고, 신은 유태국민의 목자이자 유태국민의 옹호자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아무리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더라도 역경 속에 신의(神意)가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여, 죄를 회개하고 뜻을 세워 크게 정신적 생명을 충실히 기하여, 국가의 후운(厚運)을 만회하기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온유(柔和)한 자는 복을 받아 그는 땅을 계승해 갈 수 있다." 유화(柔和)한 정신은 원대한 사려(思慮)에서 솟아 나오는 것으로, 정신적 생명의 충실은 이 유화한 정신의 보답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입각지(立脚地)를 명백히 하여 이르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나는 유태국민이 그리스도의 "풍요롭게 하는 생명"에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을 가장 한스러운 일(恨事)로 본다. 나는 이 "생명의 풍요"를 통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종교적 실력을 기르고 끝없는 죄악과 싸워 개가를 올릴 것이다. 유태국민의 정신적 기초는 여기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 정신적 기초를 확립한 다음 문학, 철학이 생기고, 식산(殖産), 흥업(興業) 역시 여기에서 발전해 오는 것이다.

나는 후세에 철인 스피노자를 낳고, 시인 하이네를 낳고, 비스마르크의 머리 위로 발을 날린 페르디

난도 라셀을 낳고, 유럽 경제계의 명맥을 장악한 수많은 부호를 낳은 유태국민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대식견을 영해(領解)할 수 없어 결국 소인국의 진상을 폭로하기에 이르러서는 천추에 참으로 몇 줄기 눈물이 없을 수 없다. 나는 한반도 국민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생명"의 충실을 갖추고 유태국민의 우를 재연하지 않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만약 끝없이 폭도를 일으켜, 유태국민이 속국 상태에서 일변하여 망국(亡國)으로 떨어진 것처럼 같은 운명은 귀국(貴國)의 머리 위에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대들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신을 믿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식견의 광명을 받아, 유화(柔和), 겸손, 인내의 미덕을 통해 살아있는 신의 섭리를 맛보고, 일본이 귀국을 포용할 두 어깨에는 하늘의 심원정대(深遠正大)한 성지(聖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귀국의 문명은 오늘 이후 비로소 충분히 언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귀국 국민을 지도하는데 하늘의 공도(公道)에 의거하지 않고 폭도의 방법에 따르는 자는 귀국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자 몸 속의 벌레이다. 달리 말하면, 즉 도적이자 강도이다. 귀국 국민 가운데 가장 현명한 기독교도는 적어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개발 · 지도해야 한다. 만약 귀국 국민이 이렇게 충실하게 생명을 기르고 자중자임(自重自任)하여 나아가면 앞 길에 광명이 빛날 것이다. 즉 귀국의 문학 · 기예는 그 특색을 발휘하고 귀국의 식산 · 공업은 그 부력(富力)을 강화하고, 귀국의 도덕(道德) · 품성(品性)은 동아시아의 빛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동포여. 부질없이 실망을 말라. 부질없이 비관하지 말라. 살아있는 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앞날의 승리는 확신 있는 크리스천의 손안에 있다.

〈출전 : 西內天行, 「韓國基督敎徒に贈るの書」, 『基督敎世界』 제1252호, 1907년 8월 29일〉

(3) 한인 전도자를 양성하라(사설)

한국전도라는 것은 재한(在韓) 일본인의 전도를 본위(本位)로 하지 않고 한국민의 교화를 본위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움직일 수 없는 여론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중요한 본위여야 할 한인 전도는 외국 선교사에게 일임하고, 제2위의 재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겨우 전도를 전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과거에 어쩔 수 없던 것도 앞으로는 언제까지나 이처럼 주객전도의 방침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지금은 한국 전도의 일신기원(一新紀元)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말로만 하는 전도의 시기를 벗어나 그야말로 필사적인 새로운 시기로 진입해야 하는 때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귀착한다. 한국민의 교화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전도자가 서둘러 한국어를 숙달하여 한인에게 자국 언어로 복음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전도자가 자유롭게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수 년 뒤에 이러한 전도자를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에서 행하는 외국 선교사의 일본어 연설 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에 대해 직접 전도보다 오히려 간접적인 조력을 많이 요구된다는 같은 이유를 통해 스스로 한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민의 교화는 한국민에게 맡기는 방침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질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인 중에서 활용 가능한 전도자를 찾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한인 전도자의 양성은 오늘날 바로 착수해야 할 근본 사업일 것이다. 일본 종교계의 가장 건전하고 진보를 이룬 종교 사상을 접하고, 동시에 자급독립(自給獨立)을 씩씩한 정신에 담은 한인 교역자(韓人 敎役者)를 양성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른바 한국 추요지(韓國樞要地)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학교(神學校)를 설립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쓸 만한 한인 전도자를 일본에 유학시켜 그 사상과 신념을 키우는 것이 그 둘이다. 그리고 전자(前者)는 오늘날 쉽게 실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는 잠시 후자(後者)의 실행을 통해 만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교적 쉬운 사업임과 동시에 가장 유효한 방법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국민 중에 어찌 소수의 유망한 청년 교역자가 없겠는가? 만약 당장 이를 이루려면 우선 먼저 이를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 체류하는 전도자들이 이 점에 유의하여 한국 청년의 일본 유학을 장려하기를 간절히 바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회 또는 유지가 재력(財力)이나 노력(勞力)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이에 찬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한국 전도의 새로운 경지는 이로써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출전 : 「韓人傳道者を養成せよ」(社說), 『基督敎世界』 제1253호, 1907년 9월 5일〉

(4) 만한(滿韓) 전도회사를 만들어야 한다(사설)

동양의 교화는 동양인 스스로 이를 맡아야 한다는 요청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배외적(排外的) 사상을 떨쳐버리고 국민적 자부심을 배제한 가장 공평한 견지에서 이를 생각해 보아도, 동양 교화의 대책임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도의 두 어깨에 내려진 하늘의 사명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외국 선교사들이라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소리라고 인정하며, 움직일 수 없는 근본주의(根本主義)라고 믿고 진심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기도 한다. 이 주의(主義)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주의를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 하는 한 가지이다. 막연히 동양 전도라고 하는, 기분 좋은 것은 기분 좋은 것이지만 일본의 기독교계가 오늘날의 실력을 통해 어떻게 인도, 중국 수 억 인민들에게 유효하게 반응할 전도적 활동을 연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이다. 단지 하나의 의문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기 어려운 하나의 공상(空想)에 있지 않을까?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희망을 외치는 것은 이른바 대언장어(大言壯語)로 식자들이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착실하게 진지하게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대언장어(大言壯語)하여 실제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공론자(空論者)로 질타를 받거나 혹은 자부적(自負的) 배외심(排外心)에 빠진 편견자(偏見者)로 매도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이에 답할 수 있겠는

가? 이름은 가령 중국의 판도에 속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세력 범위 내에 있는 만주 일부와, 명의상은 독립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판도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한국 전 국토는 이어찌 우리 일본의 기독교도가 당연히 직접 맡아야 할 전도 교구가 아니라는 것은 왠 말인가? 만주와 한국 땅에는 이미 수 백 만의 우리 동포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과 노력은 해마다 여기에 투입되어 일본의 문명은 시시각각 이 땅에 이식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외국으로 그 땅을 볼 수 없다. 이를 제2의 일본이라고 칭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 국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전도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 땅의 전도를 늦추려고 하는 언사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일본 전도에 대한 것과 동일한 열성과 관심을 갖고 만주와 한국 두 나라의 전도를 경영하고 확장하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기독교도로서 부담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말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난문제로서 물러나야 할지 어떨지, 일본 전도를 통해 자기의 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에게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 전도 교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면 다시 한 걸음 물러난다. 앞길에 가로놓인 자가당안(自家當眼)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결코 이미 얻은 입각지(立脚地)까지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주와 한국 전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는 사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대체로 주의(主義)의 위에서 논하든, 이를 사실의 효력 위에서 논하든, 만주와 한국의 전도는 모름지기 일본 기독교회 각 파의 합동사업으로서 실행해야 한다는 믿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주와 한국의 전도는 일본 기독교도 전체의 책임이며 한 교파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해 말할 필요가 없는 바이다. 그리고 이 일대 교구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게 이른바 반응 있는 전도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일본 현재의 교세(教勢)로 보든, 인물 결여의 현황으로 보든 이를 한 교파 각자의 경영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각 교파의 연합 사업으로서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실역 있는 일대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는 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자세히 말해 첫째 인물의 경제상으로 보든, 둘째 자금의 모집으로 보든, 셋째 재력(財力)의 선용(善用)으로 보든, 넷째 규모의 광대함으로 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영(計營)으로 보든, 공동 연합의 이익으로 시세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라면 이를 구구한 각 교파 단독 운동에 비하여 본래 같은 날 논의할 일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전국 각 교파가 합동으로 이룰 만국 전도회사 창립을 열망해 마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도가 이 대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이 밖에도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혹은 신학상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경쟁 필요론의 어리석은 주장(愚論)을 제창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합동 성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회와 그중견 지도자인 교역자(教役者)·평신도가 이처럼 진부한 우론(愚論)으로 자기 눈앞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착오적 상태에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물며 만주와 한국의 전도는 지금 오히려 창업(創業)의 시대에 속하고, 각 파가 연합절충을 하여 곤란해질 어떤 분쟁을 일으킬 만한 실정이 얽혀있는 것도 아님에랴.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가 억울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각 교파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숙의 협동하여 서둘러 일대 용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도쿄 통신(東京通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교계(教界) 각 파의 평신도들은 곧 한국 종교교육 문제

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해, 무엇인가를 계획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쁘기 그지없어 괄목(刮目)하여 그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

〈출전 : 「滿韓傳道會社を興すべし」(社說), 『基督教世界』 제1257호, 1907년 10월 3일〉

(5) 경성교회 집중전도(기사)

우리 경성에서의 집중 전도는 지난달 24일에 시작하여 29일에 마쳤다. 그 활동은 불과 5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적막한 경성의 영계(靈界)에 일대 각성을 주고 27명의 세례를 받은 자와 다수의 구도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교회원의 신앙이 발연하여 불꽃으로, 밖으로는 여론의 반향이 커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백척간두(百尺竿頭) 일보(一步)를 옮기게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심으로 천부(天父)의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집중 전도의 소식이 본부(本部)를 통해 한번 전해지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영계(靈界)의 전장으로 달려가려고 일어섰다. 14일 선발로 요네자와(米澤) 목사가 도착하자 우리는 바로 목사를 불러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서를 정해, 준비를 시작하였다. 작전 계획을 세워 연설·설교 광고는 시 안팎으로 곳곳에 미쳤으며, 신문 기사는 집중 전도를 보도하여 경성 사회는 우리가 어떤 활극(活劇)을 연출할지 주목하였다. 우리는 그저 아침에 천우(天祐)의 우악(優渥)을 기도하였다. 또한 준비를 하면서 전혀 싫증나지 않았다. 이렇게 미야가와(宮川)·와타세(渡瀨) 두 목사는 18일 밤 9시에 경성에 도착, 모두 기뻐하며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갔다. 이튿날 19일 밤에 세 목사의 환영회를 겸해 집중 전도 개회식을 열었다. 두 목사의 독려가 있어 장내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다음날 20일 두 목사는 평양으로 출발하였고, 23일 밤에 귀경, 이 이틀 동안에는 무장적(武裝的) 준비를 위해 회원들은 매우 열심히 집중하였다. 24일 오후 8시 공개 연설회를 본정좌(本町座)에서 열었다. 장내가 넓지 않았으나 600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다. 정각이 되기 전에 이미 만석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개회 전 20분에 입장을 사절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자인 요네자와 목사는 엄숙하게 기도를 올렸으며, 회원인 오카다(岡田榮) 씨는 개회의 주의(注意)에 대해 말하고 세 강사를 소개하였다. 먼저 와타세 목사는 박수 속에 입장하였다. 와타세 목사가 8년 동안 한국인 교육에 전력을 바쳐 그 명성이 지역에 자자하다는 말에 청중의 주의가 크게 집중되었다. 와타세 목사는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일본 국민의 요구를 묻고 나아가 국민사상의 요구는 구미 문명의 정수를 취해 오늘에 이른 점에 대해 설파하였고, 불교·유교가 우리 국민에게 소화된 점을 인용해 이를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현대의 요구는 인격 있는 인물에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품위 있는 국민이게 하는 데 유감없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오해는 이미 다 풀렸고 사회는 그 진수를 보게 되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의 대세에 비추어 국민적 자각 위에 섰으며, 원래 우리 국민에게 적합한 종교임을 논단(論斷)하고, 성서를 인용해 기독교의 성격,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수많은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단상을 내려왔다. 두 번째로 미야가와 목사는 "기독교의 대사명"을 제목으로 먼저 기독교의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세 명에 대해 이

야기 하고, 특히 바울을 빌어 신사론(紳士論)을 피력해 고상한 이상에 가치를 두었으며, 자기가 원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등의 여러 덕(德)은 바울의 특성으로 신사가 갖춰야만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나아가 기독교가 이러한 대인물을 양성한 것은 그가 신의 완전함처럼 완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세계 만민의 구주(救主)라는 것, 특히 힘껏 제자 등에게 설법하는 하늘에 유일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 등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죽은 지 2000년, 어떤 때, 어떤 나라에서도 살아있는 인물을 낳는 것은 하나같이 이 대주의(大主義)에 입각한다고 설파하고, 직접 사랑의 대의(大義)를 논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설파하였으며, 순수하게 기독교의 대사명이 있음을 밝히는 그 열성적인 태도와 장엄한 웅변은 청중들의 옷깃을 가다듬게 하였다. 두 강사의 연설은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600명의 청중은 장내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히 많은 감동 속에 들었다. 요네자와 목사의 감사 기도에 따라 10시가 지나 끝이 났다.

25일 오후 2시부터 부인대회(婦人大會)를 열었다. 50여 명이 모였으며, 와타세 목사는 "이상생활(理想生活)", 미야가와 목사는 "부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이 있었다. 4시에 끝이 났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한편에서는 상동(尙洞) 기독교회에서 경성학당(京城學堂) 동창회가 주최하는 한인 측 대연설회가 있었다. 두 목사는 부인회의 강연을 마치고 곧장 이 연설회로 달려가 두 모임의 강연을 맡았다. 와타세 목사는 "국민생활과 기독교", 미야가와 목사는 "기독교의 본지(本旨)"를 제목으로, 와타세 목사의 제자(弟子)인 유일선(柳一宣) 씨가 이를 통역하여 천 몇 백 명의 한인(韓人)이 경청하였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성학당이란 일찍이 8년 여 동안 와타세 목사가 주재(主宰)해 온 학교로, 와타세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오늘날 각각 도처에 자리를 잡았으며, 많은 인재를 요로(要路)에 배출하였다. 와타세 목사를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와타세 목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기뻐하였다. 전날에는 와타세 목사와 미야가와 목사를 맞아 성대한 환영회를 열었으며, 게다가 각 학교에 연락해 이 대연설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밤 8시 제1회 연설회를 교회당에서 열었다. 교회당이 좁아 10분도 안 되어 청중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다. 정각이 되기 전에 이미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교회당 안에 160, 170명이, 밖에서도 방청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와타세 목사는 "종교적 수양과 취미", 미야가와 목사는 "기독교의 신관(神觀)"이라는 제목으로 열성적인 설교를 하였다. 설교가 끝나고 신앙을 결심한 자가 20명. 회원은 이날 밤의 감동에 감사하며 앞날의 가호를 기도하였다. 즉시 부서를 정해 신앙 결심자 방문에 착수하였다.

26일 세 목사진은 방문과 손님 맞기에 바빴으며, 회원은 지난 밤의 결심자와 구도자를 방문하였다. 이날 밤에 "신앙의 묘취(妙趣)"(요네자와 목사), "건전한 사상과 주의(主義)"(와타세 목사) 연설이 있었다. 청중을 교회당을 가득 메웠으며, 결심자가 7명 있었다. 이날 밤 미야가와 목사는 경성 교육회(京城敎育會)에 초대되어 "심전(心田)의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강연을 지역 교육자 단체에서 하였으며, 돌아와 전날 밤의 결심자와 신자를 독려하였다.

27일 목사진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밤에는 "죄악의 뜻과 그 구제(救濟)"(와타세 목사), "종교 문제의 해결"(미야가와 목사)라는 설교가 있었고 청중은 지난밤과 같았고 결심자가 3명 있었다.

28일 이날은 결전의 날이다. 신자는 동분서주 구도자를 방문하고, 세 목사는 늘 하던 대로 손님을 맞느라 바빴으며, 밤에는 "신자(神子)의 자각"(와타세 목사), "기도의 대정신(大精神)"(미야가와 목사)의 설

교가 있었다. 마지막 연설이어서 청중은 첫날보다 많았다. 설교가 끝나고 10명의 결심자가 나왔다. 이에 결심자는 모두 4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남아서 신자들과 함께 세 목사를 모시고 신앙상 의문점을 질문하고 자기의 생각을 토로하면서 날이 새는 지도 몰랐다. 이리하여 결심자 중 20명에 대해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사람들은 잠시 수양을 하게 되었다. 이날 한편에서는 지역의 제일, 십팔, 오십팔 등 세 은행 및 미츠이 물산(三井物産)의 점원 몇 명은 강연을 들으려고 제일은행 사택 합숙소에 모여 두 목사를 초대하였다. 두 목사는 흔쾌히 초대에 응하였으며, 와타세 목사는 "일본에서의 무의식적 사회의 변화", 미야가와 목사는 "일본 실업가의 지위"를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청중은 약 60명, 일동은 열심히 경청하였으며 3시에 시작하여 5시에 끝났다.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세례, 만찬의 대례(大禮)를 거행하였다. 세례 받는 자는 신자에 앞서 모임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렸다. 식순에 따라 미야가와 목사의 세례 받는 자에 대한 독려가 있었다. 요네자와 목사는 세례 받을 자 2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것이 끝나고 미야가와 목사의 "기독교의 근본의(根本義)"를 제목으로 하는 설교가 있었다. 만찬식은 와타세 목사에 의해 진행되어 정오에 삼엄한 성식(聖式)이 끝나, 5일간의 전도운동은 영광스런 결과를 낳으며 종결되었다. 밤에는 새로운 회원의 환영회와 미야가와 · 와타세 두 목사의 송별회를 열었다. 신구(新舊) 회원이 서로 교류하며 이미 알던 사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하였다. 송별 · 환영 인사 · 답사를 하자는 미야가와 목사의 제안으로 돌아가면서 3분 연설을 하였다. 일동은 감상을 토로하였으며 짤막한 인사말 속에 큰 의기(意氣)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임시 총회를 열어 교회조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임원 선출을 마치고 밤이 깊어 마침내 모임을 해산하였다.

30일 오전 8시 50분발로 미야가와 · 와타세 두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곳을 떠났다.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두 목사를 보내드렸다. 요네자와 목사는 2개월간 우리 교회를 응원해 줄 것이다.

〈출전 : 京城教會院報, 「京城教會集中傳道」, 『基督教世界』 제1284호, 1908년 4월 9일〉

(6) 한국전도의 진일보(경성 · 평양 두 교회의 회당 신축)

한국 전도의 미래, 희망, 급선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지면에서 논하여 이에 덧붙일 필요는 없지만, 하얼빈의 이토 공작의 선혈(鮮血)이 한일조약(韓日條約)의 마지막 봉인이 되어, 조선 팔도 천만 창생의 영적 존망은 마침내 우리 일본 기독교도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일합방(韓日合邦)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 정도로, 두 나라 국민의 동화 · 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한(在韓) 일본인의 수가 무려 십 수 만 명, 그중 약 4만 명은 경성 및 용산에 거주한다. 그리고 일본인 기독교회의 현황을 보면, 불과 경성에 세 교회, 용산에 1, 2강의소(講義所)가 있을 뿐, 그 회원 수는 겨우 300여 명에 불과하다. 재한 선교사의 수는 300여 명, 신도의 수 약 16만 명에 비하면, 그 차이가 현격하다. 한반도 영화(靈化)는 이 선교사에게 일임해 두면 일본의 전도는 일본인 스스로 맡아야 하는 원리에 따라 한국 천 만 동포의 교화에 천래(天來)의 사명을 느끼는 자, 누구든 분개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민 전도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재한 일본인의 교화에 힘써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 조합교회의 교회 전도지인 경성기독교회는 먼저 회당 신축 계획을 세우고, 소수 회원 사이에 이미 천 수 백을 모았으며, 스스로 2,000여 원의 헌금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아가 3,000여 원의 부족액은 일본의 제 교회 및 신도 유지에게 지원받기로 결정하여 이를 기획해 번성해 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한국 전도의 진일보로 보고, 천은(天恩) 아래 하루라도 빨리 예정된 회당을 건축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는 실로 이 교회가 독립 자급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재한 동포의 교화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민(韓民) 전도의 아성(牙城)이 되어 한반도 영화(靈化)의 대업을 성취할 책원지(策源地)가 이에 비로소 확립되려고 한다. 일본 전도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에, 동시에 한국 전도의 새로운 경지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약동한다. 밤낮으로 전국 전도를 생각하는 독자 제군, 이러한 때에 다행히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제2의 전도지인 평양교회 역시 회당 신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에 기재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는 부지를 영구히 빌려준 독지가가 있어, 일본에서 모금할 액수가 크게 줄었으나 이에 필요한 우리의 열의는 오직 한 가지이다. 우리가 한국 교세 일대 발전을 보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출전 : 「韓國傳道の一進步」(京城 · 平壤二教會の會堂新築), 『基督教世界』 제1378호, 1910년 2월 3일〉

(7) 미야가와(宮川經輝), 한국 확장 전도 특별광고

삼가 아룁니다. 본년도 거행지(擧行地)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는 마침내 오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평양, 경성 두 교회에서 확장 전도를 거행하여, 한반도 교화 사업을 위해 진일보를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사카(大阪) 확장 전도를 위해 열의를 갖고 원조를 해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이 운동을 위해서도 특히 가호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조합교회(日本組合教會) 회장
3월 31일 미야가와 (宮川經輝)

전국 조합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께.

〈출전 : 宮川經輝, 「韓國擴張傳道特別廣告」 『基督教世界』 제1386호, 1910년 3월 31일〉

(8) 조선의 백만인 운동(사설)

광대한 규모와 주도면밀한 계산과 열렬한 기도 정신으로, 지금 현재 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백만인 운동은 그 후 정보에 따르면 착착 실효를 거두고, 구도자(求道者)와 결심자(決心者)를 합쳐 무려 수 만 명의 많은 신자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새로운 동포 국민 사이에 이렇게도 눈부신 종교적 대운동이 착착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침과 동시에, 이 대 전도를 위해 시간과 금전과 힘을 바치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외국 선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의 전도는 언제까지나 외국 선교사에게 일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밝혀온 바이지만, 일본의 교회가 아직 이 대사업에 즉각 착수할 여력이 없음에, 그 여력이 있는 선교사들을 번거롭게 하고,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내의 전도는 여러 사정으로 아직 뜻대로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선 종교계의 상황에 비유하면, 하나는 난공불발(難攻不拔)의 여순(旅順)과 같고, 하나는 무인지경을 가는 추격의 첩군(捷軍)과 같아 그 어렵고 쉬움이 같은 날 논할 일이 아니다. 정신계의 일은 본래 눈에 보이는 성공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제국 판도내의 한 지방에 성령(聖靈)의 은혜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종교계의 기운이 마치 오순절 날처럼 숙성되어 오고 있음을 보고, 냉정하게 이를 강 건너 불보 듯하는 것은 신국 건설(神國建設)에 충심으로 다하는 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외국 선교사에 의해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장로교, 감리교 등 다른 종파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 상황을 생각도 하지 않는 속 좁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힘은 미치지 않지만 적어도 정성이 담긴 기도로 이 영계(靈界)의 대사업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백만인 운동의 전도 방법과 같은 방법을 우리도 찬동을 아끼지 않는 바이다. 어쨌든 이는 우리 조합 교회(組合敎會)의 연내 행하게 될 확장 전도를 대규모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확장 전도를 냉혹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만 명을 교화하는 대성자(大聖者)가 아닌 이상, 정신계의 대운동을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자일 따름이다. 영계(靈界) 사업이 춘풍을 만나 만물을 향기롭게 한다. 때로는 폭풍부는 천지를 석권하는 것과 같다. 때와 경우에 따라 각각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따름이다. 조선의 국토 인민에 대해서는 이 백만인 운동이 가장 적절한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사의 백만인 운동이 충분한 성공을 거두어 어서 조선 민족을 교화하고 우리 일본 국민 사이에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백만의 기독교 신자를 일으키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그렇다면 조합 교회의 조선 전도에서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호리라도 선교사의 이러한 운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서로 제휴하여 신국 발전의 성업(聖業)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의 전도사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본인의 책임은 더욱 중대해진다. 누가 이 책임을 자각하지 않겠는가?

〈출전 : 「朝鮮に於ける百萬人運動」(社說), 『基督敎世界』 제1420호, 1910년 11월 24일〉

(9) 조선전도기도일(사설)

조합교회(組合敎會) 간부는 전국의 조합 교회 및 교역자들에게 호소하여, 오는 6월 18일 일요일을 조

선 전도 기도일로서 성별(聖別)하려고 한다는 것을 장려하였다고 들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다년간의 대문제는 잘 해결되어 마침내 신 동포 교화의 대사업에 착수하려는 시기에, 한 성일(聖日)을 성별(聖別)하여 전국의 교단에서 일제히 목소리를 합쳐 조선 전도의 의의를 알리고 2만 신도의 마음을 합쳐 그 성공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은 지난 해 우리 조합 교회가 독립자급을 결행한 일을 능가하는 대사(大事)이며, 이처럼 중대한 교회 사업은 기도와 단식을 통해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볼 때, 우리 교회의 자급 독립을 단행한 것도 실은 오늘의 일에 대한 준비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먼저 안을 다지고 그런 다음에 외부를 향해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을까? 기도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다. 주임자(主任者)가 이미 정한 자금모집 역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식뿐이다. 극기(克己)뿐이다. 희생적 행위가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기도와 단식을 통해 영적 준비를 시작함에 천부(天父)의 은총이 이 새로운 사업 위에 내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날을 기념하여 교회 역사의 신기원을 그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출전 : 「朝鮮傳道祈禱日」(社說), 『基督敎世界』, 1911년 6월 8일〉

(10) 모두 조선전도를 지원하자(기사)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자 미국민은 솔선하여 모금을 시작하였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기부자가 될 기회라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액도 겨우 1달러로 정하고 대통령 부인을 필두로 첫 1달러 기부가 시작되었다. 이 어찌 이상적인 모금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번 조합 교회(組合敎會)는 별항 기재(別項記載)의 조선 전도 현황 보고에 입각하여, 제1기 3만 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사람 3엔 이상이라는 소액의 기부금을 교회 회원들로부터 모으고자 한다. 2만 신도 연(年) 1엔을 기부하면 오늘날의 전도와 3배로 만들 수 있다. 회원은 아이든 노인이든 모두 이 작은 선행으로 이 대업을 지원하자.

〈출전 : 「擧つて朝鮮傳道を援けよ」, 『基督敎世界』 제45호, 1912년 11월 7일〉

3) 배일문제에 관한 글

(1) 미야가와(宮川經輝), 배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각오(시론)

나는 4년 전에 초대를 받고 도미(渡美)하여 태평양 연안 일대에 있는 동포에게 전도를 한 일이 있다. 그때에 재미 동포의 의기(意氣), 사업 및 생활 등을 직접 보고 들었으므로, 캘리포니아의 배일(排日) 문제가 일어난 지금 그들에 대해 동정의 염(念)을 금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본래 캘리포니아의 배일 문제는 단지 인종 문제가 아니라 그 최대 이유 중 하나는 생존경쟁이라는 점이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우리 동포는 백인의 이민에 비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백인 및 캘리포니아 정부의 압박에도 그 사업을 착착 성공시켜, 이 지역의 동포 중에는 감자왕이 있고, 화훼왕(花卉王)이 있고, 포도왕이 있어, 그들은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각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부자로 백인으로부터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 밖의 사업에서도 점차 발전·확장하여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의 직업을 그들 손에서 탈취하는 모습도 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동포 청년의 의기(意氣)는 실로 칭찬할 만한 것이어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다. 이 패왕(覇王)과 같은 성공과 청년 동포의 건강한 의기는 로키 산맥 서쪽의 백인이 선망하는 대상이자, 깊은 우려를 그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표출되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배일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태평양 연안 백인의 근성은 이처럼 열등하고 천박한 점이 있다. 그들은 황색 인종이라고 하여 멸시하는 일본인과 함께 경쟁 속에 있을 수 없는 겁쟁이 무리이다. 그렇다면 백인은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로키 산맥을 넘으면 미국의 중심, 중추인 뉴욕, 시카고, 피츠버그 등의 도시에는 실로 우리 야마토 민족(大和民族)의 안색을 변하게 하는 훌륭한 백인이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열등한 백인을 생각할 때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는 깊은 동정으로 그 땅에 사는 우리 동포를 만났으나, 그들 중에 2대 결점이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 하나는 이 건아(健兒) 중 대부분은 수 많은 부를 얻은 후에 노후를 고향 땅에서 지내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섬나라 근성에서 나온 것으로 도저히 세계적인 오늘날의 사회적 생명으로서 매우 슬픈 일이므로, 나는 그들에게 태평양 연안을 그들의 제단으로 만들 것을 독려하였다.

일본인은 언제 어떠한 땅에서도 일본인이라는 성격을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다. 고향을 그리는 정은 그런 것이며 그들을 진정한 애국자일 수 있게 한다면,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미합중국 인구 9천만 명 중 유색인(흑인, 아메리칸 인디오 등) 약 1천만 명, 독일계 미국인 약 3천만 명 있는데, 흑인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독일인은 대학에서도, 관헌(官憲)으로서도 또한 그밖에 여러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 있어 모두 자리를 잡았고 그 역량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재미 동포도 미대륙에서 모름지기 독일인처럼 확호불발(確乎不拔)의 대정신을 가지고 이곳에 뼈를 묻고 선조 대대로 연마해 온 야마토혼(大和魂)의 세계적 위대함을 일으켜야 한다. 외국의 시민권을 얻어 귀화하더라도 애국심이 없지는 않다. 일본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이다. 귀화한다고 해도 일본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재미 이민 동포는 귀화하여 일본혼이 살아 있는 미국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명의 선구인 피안(彼岸)의 천지(天地)에서 그들이 세계 최고의 일본혼을 품고 세계 최고의 사업을 이루는, 이것이 세계적 기운이 도도하게 흘러 들어오는 오늘날 그들 재미동포가 특히 취해야 할 방침이다. 그들이 모국의 현상에 비추어도 취해야 할 애국의 충정이다.

둘째로 그 땅에서 특히 내 주의를 끈 것은 11월 3일(선제[先帝]의 천장절(天長節)]에 장소에 상관없이 일장기를 내걸고 연화(煙花)를 올리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인의 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본국에서조차 피하여 그들 백인에게는 일종의 악감(惡感)을 품게 할

것이다. 그 나라로 건너가면 조금은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 곳에 있는 동포들이 한 개인 또한 그들 백인과 융화하는 데에서도 천지만물을 만드신 주(主) 아버지 신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백인과 함께 세계적 종교의 견지를 세우고, 동포주의의 대정신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비로소 그들 백인이 일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건전한 국민(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백인이 아니다)으로 동화할 수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일본은 도저히 세계의 특종 부락(特種部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배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건전한 미국인을 움직여 정의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동포주의의 입각지(立脚地)를 통해 그들의 본심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 일찍이 영국과 트랜스벌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나는 영국의 수도 런던 퀸스홀에서의 조합파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한 목사는 기도하였다. 이 기도는 실로 영국이 트랜스벌과의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우리 영국인의 탐욕스런 마음 때문이다. 이 탐욕심이 강한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그 탐욕에서 구원되기를 빌었던 것이다. 과연 양심에 민감한 영국민이다. 그 3천 명의 참석자는 눈물을 흘렸다. 매우 훌륭한 국민이다. 정의·인도의 대의(大義)를 50년 전에 우리 국민은 미국인에게 배웠다. 그러면 저희의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 씨, 국무장관 브라이언 씨 등의 정치 중심 사상 정의는 국민의 각성을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 국민의 건전한 분자를 향해 정의를 외치고 중앙 정부를 움직여 여론을 모음으로써 이 비인도적(배일) 행위를 진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포에게 세계 동포주의 및 미국 시민권 획득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모든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출전 : 宮川經輝, 「排日問題に對する基督者の覺悟」(時論), 『基督教世界』 제1544호, 1913년 4월 24일〉

(2) 기독교에 미치는 배일문제의 영향(사설)

캘리포니아에서의 배일적 토지 법안은 모든 일본인의 항의와 미국 중앙 정부의모든 노력과 전 미국민 여론의 모든 반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최대 다수로 캘리포니아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다.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다수당이 노동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정략에서 나왔으며, 또한 반대당인 중앙 정부를 괴롭히는 당쟁의 재료를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방명으로부터의 반대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캘리포니아 양원은 마침내 의지를 굳히게 되었고, 결국 이치에 맞지 않는 가장 가혹한 배일적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에 본 문제는 슬프게도 일단락을 고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외교상의 문제가 되어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 사이의 절충에 따라 선후책(善後策)을 강구하게 되었다. 다행히 윌슨 내각은 우리나라 주장에 대해 호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외 전 미국민의 여론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번 분쟁이 오히려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러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은 더욱 온건하게 공정한 여론을 모아, 우리 외교가를 후원하고 독려해야 하는데, 그러나 태평양 연안 일본인회장의 조리 있는 전보(電報)에도 있듯이, 이러한 때에 과격한 언동이 나와, 미국민 전체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다시 한 번 전 미국민의 동정을 잃으면 만사가 멈추고 사태가 결국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여도 항상 화(禍)를 복(福)으로 바꾸는 것은 기독교 신자의 각오이다. 이번 문제는 상대가 이른바 기독교국인 미국이라는 점도 일본의 전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도에게 더한 고통을 주었다. 만약 이 문제가 만족스런 해결을 보이지 않았다면 일본의 기독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도도한 속론(俗論)은 이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좋은 재료로 삼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자도 세속에 기대어 기독교의 험담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관찰자로서 볼 때, 이번 문제는 일본에서의 기독교 전도에 대한 큰 타격이기도 하며, 특히 법안의 통과는 우리를 더욱 비탄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는 아주 피상적인 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앞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래에 그 이유를 몇 가지 간단히 서술하겠다.

(1) 일본의 기독교로 하여금 독립의 기상을 발휘하게 한다. 일본의 신자에는 외국의 기독교 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약점이 있다. 구미의 기독교를 거의 유일한 모범 및 후원력이라고 믿고 장점·미덕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심하게는 그 결점이나 단점까지도 모방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필경 기독교의 위대한 생명력을 자각하기에 부족함을 바탕에 두고 있다. 세계의 종교인 기독교는 기독교화하는 국민의 문명 및 성질에 따라 각각 가치 있는 특색을 발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교화는 국민 스스로 그 지도자가 되어야만 건전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을 본국으로 하는 기독교는 아직 일본의 기독교가 아니다. 외국을 믿고 있는 교회는 그 외국과의 국제 관계에 따라 항상 동요하게 된다. 복음의 씨앗을 외국으로부터 받았으나 이미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국과 영구히 친구로서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제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화할 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 자치의 교회를 발달시켜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우리 기독교계에 독립 및 자치의 정신을 발휘하는 커다란 자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기독교인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기독교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매우 공명정대하여 온건하고 착실하였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기독교 신자 눈 속에는 정의·인도만이 있을 뿐. 이른바 기독교국이라 칭하는 구미 제국이라고 해도 적어도 우리 눈에 부정불의로 비친 행동을 보인 점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 이를 나무라는 데 주저할 자는 없다. 즉 신의(神意)를 따르는 일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동시에 동포 국민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로 나가, 미국의 곳곳에 발신한 전문(電文)이 얼마나 그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힘이 있었는지는 역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 공평한 국민은 우리 기독교를 덕(德)으로 삼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3) 일본국민에게 미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시킨다. 한편으로 사려 없는 국민은 미국 공격에 대해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일본의 여론은 모두 전 미국민의 정의·인도 정신에 호소하고 그 여론의 힘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모순이지 않은가? 이 모순의 배후에는 일본인이 여전히 미국민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나라의 인심(人心)을 지배하고 있는 정의·인도 세력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제휴·협력하여 이 난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인은 미국민의 기독교적 양심을 이해하고 이를 묵계(黙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로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한 미국에서의 기독교의 힘은 지금이야 말로 우리 국민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세계적 정신의 발휘에 이점이 있다. 귀화권의 획득으로 유일한 근본적 해결로 삼는 것은 일본 국민의 현재의 여론이다. 고집스런 보수적 애국심에 대한 일대 통봉(痛棒)이어서, 우리는 매우 통쾌하다. 일본 국민은 세계를 집으로 여기는 홍량관도(洪量寬度)로 지구 도처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외국에 귀화하는 자를 애국심 없는 자로 여기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국민적 자부심을 포기하고 광활한 세계적 정신을 발휘해야 할 전 국민에게 살아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 정신은 곧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다. 인류 동포의 대의(大義)로 꼽히는 위치에 자리해 있다. 귀화권의 획득은 국민의 최대 요망이며 보수적 사상을 일소하여 기독교적 동포주의를 국민의 뇌리에 심는데 뜻밖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5) 식민지의 덕교(德敎) 문제를 환기한다. 일본 국민의 세계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식민지의 정신적 교화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고, 남미에서 그렇고, 만한(滿韓)에서 그렇다. 우리 지식인이 이민의 정신적 교육, 사회적 개선, 그중에서도 재미 동포의 기독교 교화가 급선무임을 깨달아, 기독교가 국민적 발전의 최대 요소임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은 많지만 지금은 단지 암시하는 정도로 그치겠다.

〈출전 : 「基督敎に及ぼす排日問題の影響」(社說), 『基督敎世界』 제1546호, 1913년 5월 8일〉

(3) 어느 기자, 배일문제에 관한 그린 박사의 의견

D. C. 그린 박사는 근간 『미션 뉴스』지상(誌上)에, 『캘리포니아 토지 소유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기술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는 그 배일안(排日案)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인에게 이번 일이 비인도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듣기에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무조건 영대 차지권(永代借地權)을 주지 않고, 또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은 실제로 99년간에 걸쳐 지상

권(地上權)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소유하는 토지는 거주, 상업 및 공업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업 목적을 위해서는 50년간에 한해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 이름으로 조직되는 재단 법인은 일본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특권을 가진다. 다만 다소 다른 점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일본에서의 미션 소유의 거의 모든 부동산은 이처럼 재단 법인에 의해 소유할 수 있다. 무조건적 토지 소유권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이번 캘리포니아의 배일적 토지안과 비교하면 도저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이로써 자기 행위의 잘못을 가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일본인은 다른 구주 이민과 달리 쉽게 미국의 국민성에 동화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방임하면 결국 미국 안에 나라가 세워지는 화를 부를 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역시 결코 일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나는 1869년 이후 44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을 알고 있지만, 내가 확신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적당한 인내로 취급되는 점에서는 국어의 근본적 차이라는 가장 큰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구주 제국의 이민 동기는 충분하며 유용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민은 태평양 연안의 노동계를 교란하고 백인의 임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오늘날처럼 양국 간에 이민 제한에 관한 내약(內約)이 있어, 이는 일본 정부에 의해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재미 이민의 수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이 내약을 지키기 위해 쉽게 학생의 도미조차 허가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상기의 제 항목은 배일안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재일본(在日本) 미국인은 선교사든 실업가든 모두 캘리포니아의 입법에 반대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는 미국의 건전한 여론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움직임에 반대하였고 즉각 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판 『아웃 룩』은 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일국은 그 나라의 법률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어떠한 상대국이라고 해도 일국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힘은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가 현재 주고 있는 소유권을 취소하고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여 화(禍)를 미합중국 전체의 국교에 미치는 것은 결코 불가하며 중앙 정부의 조약 체결권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법문(法文)에 상관없이, 그 정신은 분명히 조약 위반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때에는 반성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월 10일 발행의 『아웃 룩』은 태평양 연안의 한 유력 잡지 『선셋』 기자 워터 웰케이 씨가 "캘리포니아의 황(黃)과 백(白)"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오늘까지 발표된 가장 공평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웰케이 씨의 대의(大意)를 말하면, 캘리포니아의 배일안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도쿄(東京)에서의 격앙된 분위기가 너무나도 위협적이어서,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파나마 기념 박람회의 성공에 유해할 정도라는 이유로 이 법안은 철회되었을 것이다. 불씨의 근원은 본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있지만, 이를 부채질하고 큰 일로 만든 것은 일본의 세간의 소란스런 태도이다. 그리고 근

본에는 더 깊은 배일의 원인이 있다. 다름 아닌 일본인의 나라 자랑, 국민 의식, 미소 뒤에 숨겨진 오만, 눈꼬리를 올리며 어깨를 치켜세우며 백인과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태도, 표면적으로는 동화하였어도 내심은 언제까지나 "우리는 일본인이다"라는 의식을 잃지 않는 애국심,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미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결국 인종적 반감이 드러나 여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 의식이 누구보다 왕성한 일본인에게 이를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본래부터 무리한 일이지만 국가 발전상으로 보면 세계를 집으로 도처에 유형 및 무형의 동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적 기우(氣宇)를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한 그린 박사의 의견은 일본인에게 동화력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인이 그 편협한 애국심을 버리고 지금 한층 세계적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충분한 동화력이 일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출전 : 一記者, 「排日問題に關するグリーン博士の意見」, 『基督教世界』 제1550호, 1913년 6월 5일〉

(4) 새로운 시국의 진전과 기독교

인류가 등장한 이래 오늘날처럼 그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본성으로서 목표로 한 자유의 이상에 도달하기에는 또한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는 그의 대저(大著) 민약론(民約論)의 권두(卷頭)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지만, 그들은 도처에 쇠사슬로 묶여 있지는 않다"라고 갈파하였다. 사람은 자연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무지에 묶여 있고, 정에 묶여 있고, 의력(意力)에 묶여 있고, 경우에 묶여 있고, 금은에 묶여 있고, 유행에 묶여 있고, 죄악에 묶여 있어, 실로 옛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결박 속에 있으나, 또한 그 천부(天賦)의 자유의 날개를 펼치고 이상의 나라로 날아가, 대환각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꿈 속, 죽음 속에 있어도 또한 하늘을 향해 외친다.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4년 여 시간에 걸친 유럽 대란은 인류 등장 이래의 일대 묘지를 한순간에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묘지에 가기 전에 많은 용사들이 하늘을 향해 외치며 그 신앙과 이상을 동경하고 영원의 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영원의 품으로 들어간 수 백 만의 애국 용사가 동경하던 신앙과 이상은 그대로 그들과 함께 묘지에 묻혀버리는 것일까? 그들이 고통 받고 찢긴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의 천지로 들어간 그 자유에 대한 노력은 그들의 육체와 함께 죽음의 그늘에서 썩어가는 것일까? 그들의 자유와 이상과 신앙을 동경한 양심의 빛은 그들의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만약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도 사라져 흔적도 없는 것이리라. 그러나 인생에는 믿을 수 있는 영원한 근저(根底)가 있다. 이 근저가 있는 한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면, 이번 유럽 대전쟁으로 인해 야산에 그 죽음을 맞은 희생자의 동경한 정과 신앙과 그들의 양심을 비춘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에 비해 의미가 있고 또한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에 큰 의미가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쟁만큼 인류가 위대한 포부와 이상과 신앙과 동경으로 갖고 싸운 전쟁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어서, 전후에 어떤 위대한 시대가 올지 상상해 본다. 이처럼 근저가 깊은 의의 있는 전쟁을 출발점으로 지금부터 세계에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것이다. 이 새로운 시국은 이미 기술한 것처럼 인류의 이상, 포부, 신앙, 동경을 근저로 하여 왕성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국 발전의 요소는 결코 과거 시대의 의미, 정신, 신앙 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국면은 저 멀리 저기에 보이는 이상과 환각의 힘에 이끌려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그 예를 하나 들면, 국제연맹 문제는 확실히 2, 3개월 전까지는 단순한 이상 또는 사상 위의 사실(혹자는 이를 공상이라고 하였다)에 불과하였으나, 이에 관한 이상이나 사상이 새로운 시국의 전개에 어떻게 작용할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세계 교화, 국민 교화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이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과연 우리 크리스천은 새로운 시국에 대해 그것을 지도할 정도의 힘이 충분한가? 도도한 시국은 우리를 저버리고 가지는 않을까?

지나치게 실제주의(實際主義)에 편중된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일대 변혁을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새로운 시국에 대해 오늘날 교회의 주장은 '봉사'이다. 이 주장은 실로 시의 적절한 주장이다.

〈출전 : 「新時局の進展と基督教」, 『基督教世界』, 1919년 3월 13일〉

4) 에비나 목사의 한국 시찰담(상 · 하)

1910년 4월 21일

에비나(海老名) 목사의 한국 시찰담(상)

(이는 지난 15일 한국 전도에서 돌아와, 오사카(大阪)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행한 에비나 목사의 '한국의 장래'란 제목의 연설 개요이다.)

◉ 그리스도(基督)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국에 가면 도처에 우리 이웃인 동포 형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은 5천 만 동포 외에 한국에 1천 5백만 동포형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한국에 가는 자는 반드시 이 나라의 민둥산에 대해 말한다. 나는 작년 미국에 가서 다른 나라의 산에 있는 삼림을 보고 그 풍부함에 놀랐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동서 두 나라의 차이에 놀랐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 생산력은 결코 척박하지 않다. 나는 앞으로 2, 30년 내에 한국의 도처에서 울창한 삼림을 보게 되리라 믿는다.

◉ 한국의 민둥산은 학정(虐政)의 결과이다. 즉 대대로 정부가 인민을 압박하여 인민은 토지를 압박한 결과가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민둥산은 노인의 대머리가 아니다. 열병으로 쓰러진 청년의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벗겨진 것과 비슷하다. 잘 먹고 쉬면 반드시 되살아 날 수 있다.

◉ 농업도 매우 발달해 있어, 우리 오카야마(岡山)·히로시마(廣島) 두 현(縣)의 경작에 뒤처지지 않는다. 배, 사과 및 포도 등의 과수(果樹)는 지금 활발히 재배되고 있는데, 매우 토지 생산력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놀랄 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 식산(殖産)에서만 미래가 유망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엇보다 미래가 있는 민족이라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인을 멸시하는 것은 현재의 한인만을 보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인은 결코 멸시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루 동안 마차를 몰아 교외에 나가 보았는데, 한국의 부형(父兄)들은 긴 담뱃대를 물고 신기한 듯이 쳐다본다. 참으로 멍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과거 또는 현재의 한인이다. 미래의 한인은 우리의 마차와 앞을 다투며 두 구간 세 구간이라도 달려오는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이다. 우리는 한국에 이러한 활발한 소년소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교육 측면에서 말하면, 오늘날 한국에서의 학교 발흥은 아마 내가 청년 시절의 일본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베(神戶) 교회의 와타세(渡瀨) 목사가 10 수년 전 경성에서 경성학당(京城學堂)이라는 학교를 세워 수백 명의 청년을 교육하였는데, 이들 청년은 지금 모두 한 자리를 하는 인물로 성장해 모두 훌륭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일선(柳一宣) 씨는 현재 경성 6개 학교에서 12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수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아마 한국에 있는 일본인 가운데 그와 견줄자가 없을 것이다. 실로 비상한 정력가로 하루에 4시간씩 가르치는 데 추호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 사람 역시 물론 뛰어난 준재(俊才)이지만, 와타세 씨의 문하생에서 배출된 인물 가운데 지금 주임관(奏任官) 등에 자리한 인물도 매우 많다.

◉ 유일선 씨와 관련된 기염을 토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일본에 와 있는 한국의 유학생 이야기가 나와, 일본의 모 신학교에 다니는 이 청년이 우등생이어서 크게 촉망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일선 씨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가 일본에서 우등생입니까, 그러면 일본의 종교계도 좀 불안하군요." 라고 하였다. 듣자 하니 그 청년은 그들 동료들 사이에서 2, 3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한인의 미래는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여자 교육에 대해서는 실로 장족의 진보를 보였다. 3, 4년 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고등 여학교(高等女學校)가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일찍이 집안에 갇혀 있던 부녀자들은 지금 이들 여학교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나는 유희(遊戲) 시간에 많은 여학생이 프랑스 숨바꼭질이나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유일선 씨는 한국에서의 여성의 진보가 남자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실로 그의 말 대로였다.

◉ 한국의 문명도 앞으로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대저 한국에는 볼 만한 문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오랜 문물은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에게 고유의 문명이 없으니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우환은 어떤 형태로든 문명이 있는 것이다. 일본 고유의 문명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 가옥(家屋)의 도코노마(床の間)와 같은 것은 훌륭한 하나의 문명이 낳은 산물이다. 일본의 가옥을 통해 이 미술적인 도코노마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부인의 복장과 같은 것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복장이므로, 쉽게 양복으로 변할 수가 없다. 여성의 머리 모양 역시 미술상 가장 발달한 형태이므로 이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볼 만한 가옥도, 복장도 없고, 여성의 머리 역시 그저 묶어 놓은 형태 그대로인 것이다. 만사를 파괴하는 데 곤란을 느끼지 않으니 건설하기도 쉽다.

◉ 서양의 물질적 문명도 최신식의 것이 한국에 들어온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철도는 광궤철도(廣軌鐵道)로써 일본의 협궤철도(挾軌鐵道)보다 상당히 진보되어 있다. 일본은 일단 서양의 구식문명을 수입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신식으로 개량하는 일이 몹시 어렵다. 일본은 지금 쉽게 광궤철도를 부설할 수가 없다. 이점에서 한국은 일본 이상의 문명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두려운 것이 한국의 장래의 문명이라 할 것이다.

◉ 새로운 경성인 용산의 광대한 규모는 실로 쾌감을 준다. 구 경성에는 이상(理想)이 없지만, 용산에는 충분한 이상이 있다. 도로든 건축이든 일본에서는 도쿄(東京)의 바바사키몬(馬場先門) 부근이 이에 필적할 만한 곳이다. 새로운 한국은 이렇게 건설되고 있다.

◉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군에게 크게 주의(注意)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의 신문이 한국의 기독교도를 보고 배일주의자(排日主義者)로 단정하는 커다란 편견이다. 크리스천도 선교사도 결코 배일주의의 선동자가 아니다. 한국의 외국 선교사는 배일주의를 교사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들이 만약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일본에 있는 수백 수천의 외국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같은 나라에 파견되는 외국 선교사가 서로에게 이득이 없는 행동을 취할 리가 없다. 이를 고려해 보면 한국의 선교사가 단체로 배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 물론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에 한하지 않고, 크리스천에 한하지 않고, 한국에 배일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한국인이 앞으로 자치민(自治民)으로서 기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내가 보기에 오히려 아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1천 5백만 한인(韓人)이 모두 일본의 노예라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자주·자립의 정신이 자연 배일 행동이 된다고 하면 배일은 굳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다. 하물며 배일은 결코 한국 기독교도의 여론도 아니고 선교사의 태도도 아니니 말이다. 일본의 경찰관 등의 오해는 지나친 감이 있다. 기도회를 비밀회라고 보고하거나, 성서 배부를 격문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밖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나는 선교사 등이 친일(親日)을 주장하는 지

어떤지 잘 모른다. 다만 그들은 열심히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위대한 정신적 세력이다. 지금 한국의 교육과 종교가 협력하여 점점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명을 발휘해 가고 있다. 한국인은 지금 아마도 그리스도 당시의 유태 국민과 많은 점에서 닮은 위치에 있다. 이들은 정치상 그리고 경제상 그런 세력에 저항할 힘이 없으므로, 그저 하나의 활로를 종교 도덕에서 찾을 뿐이다. 이들은 국민으로서 독립을 잃어도 신국(神國)의 주민으로서 우수한 일본인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기독교의 주의(主義)는 어디까지나 애타적(愛他的)이다.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도 내주라는 유순한 도덕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산상수훈(山上垂訓)은 오늘날 한국인에게 적합하다. 한국이 만약 기독교화되면 그들은 국민 이상의 대사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의 운명은 오히려 종교 도덕의 세계에서 그 입각지(立脚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유망한 진로가 열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 혹은 일본인을 능가하는 자가 없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자칫하면 도덕상, 종교상 이들 한국인에게 질 수 있다. 기독교는 실로 한국의 미래를 만들 위대한 세력이다. (이하 다음 호에)

1910년 4월 28일

에비나 목사의 한국 시찰담 (하)

◉ 경성(京城)에는 한인(韓人)의 2대 교회가 있다. 하나는 장로파(長老派)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리파에 속하는 것이다. 모두 외국 선교사의 힘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 1,000명 정도의 한인 교회 회원을 보유한 훌륭한 대교회이다. 나는 일본에 있을 때 한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보았는데, 가보고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다.

◉ 한인의 교회는 남녀별석(男女別席)으로 서로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다고 들었는데, 감리교회는 이미 그중앙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일본 교회와 다를 게 없었다. 이는 놀라 만한 진보로, 한국의 기독교회는 남녀 간의 극단적인 차별을 제거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고등 여학교(高等女學校)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 기독교회가 여성의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교육과 종교가 서로 얽혀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는 한 예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경성의 한인 교회에서 1,000명의 남녀가 목소리를 합쳐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 나는 조합 교회(組合教會)의 확장 전도로 갔던 것이지만, 한인에게도 나의 소신을 호소해 보고 싶어 학무국장(學務局長) 윤치오(允致伍) 등의 알선으로 하루 저녁 청년회에서 700명 정도 모인 한인에게 연설을 하였는데 실로 반응이 뜨거웠다. 간담상조(肝膽相照)라는 말은 실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내가 기독교 혼(魂)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같은 혼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다.

이른바 영혼의 공명(共鳴)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한인 측의 기쁨도 매우 컸다고 한다. 사실 나 역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 이 연설의 통역은 현순(玄楯)이라는 한인 신도가 해주었는데 실로 그의 웅변에는 놀랐다. 일반 통역사처럼 의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을 제대로 전해 주었다. 나 역시 그의 통역에 고무되어 일종의 웅변을 토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신자가 한인 중에 많이 있다면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국이 30년 전의 구마모토 양학교(熊本洋學校) 시대보다 어느 정도 더 유망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나의 한국 체재 중 실로 감사해야 할 일은 단 한번도 일본이 한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수 년 전부터 살펴보면 매우 진보한 듯하다. 5천 만 동포 외에 1천 5백 만의 새로운 동포 형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인이 해야 할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의무 관념이나 정략상으로 행하면 안 된다. 진정 같은 천부(天父)를 믿는 형제자매라고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평양에서 연설을 한 뒤에 한인과 악수를 교환하였을 때, 한 유망한 한인 청년이 나에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므로, 내가 그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가 된다고 답하자, 그는 아! 하고 소리치며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 이 청년의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선하다. 정략상의 회유 수단이나 국민 도덕의 관념 정도인 그런 종류로 양 국민의 악수가 가능할 리가 없다. 한인 · 일본인의 진정한 접촉은 종교를 두고 달리 바람직한 방법이 없다.

◉ 지금 일본인은 한국에서 위대한 도덕적 시련을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과연 이방인을 정신적으로 동화할 힘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알 수 있다. 만약 진심으로 우리를 형제로 여길 정도의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일본의 한국 경영은 필경 실패이다. 고(故) 이토(伊藤) 공작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점일 것이다. 오늘날 통감 정치는 그 조직과 제도에서 물론 이 주의(主義)에 입각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단지 형식만으로는 이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도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인의 손에 의한 한국의 기독교화는 일본의 국시(國是)를 성취하는 데에도 최대 급선무이다.

◉ 나는 과거는 물론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 관민이 보여주는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래의 한국인 · 일본인의 원만한 관계는 양 국민이 종교 세계에서 진정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한국민은 앞에서 언급한 사정처럼 대단한 기세로 기독교를 찾고 있다. 곧 국민 모두가 이를 신봉할 것 같은 기세이다. 그런데 일본인 측은 과연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잘못하면 도덕 종교 방면에서 일본인은 미래의 한국인에게 지고 말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신천지(新天地)는 이 신앙에 의해서만 양 국민의 융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에는 기독교 외에 종교가 없다. 있더라도 미래를 기대할 만한 힘을 가진 종교로서의 힘이 없으므로, 오늘날 한국민의 종교라고 하면 다시 말해 기독교뿐이다. 그러나 한인은 아직 기독교라고 하면 구미(歐美)의 종교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한인에게는 이 종교가 일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불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앞으로 일심동체가 될 일본인과 같은 신앙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없는 감동일 것이다. 그들은 국민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기독교는 주가 가진 동정을 쏟아 그들과 이 십자가의 무게를 나누어 져야만 한다. 진정 고락(苦樂)을 함께하는 영혼은 모두 천부(天父)의 자녀라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 요컨대 오늘날 한인은 이른바 망국의 국민으로, 예를 들면 집을 잃은 미아와 같다. 세계 어느 국민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른바 at home(집에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일본 기독교도가 하늘에게 부여받은 사명이다. 한국인도 또한 이로써 비로써 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조선의 새로운 생명이 그들 국민 사이에 발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일 양 국민의 완전한 융화·포옹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극동(極東)에 신의 나라의 신천지가 건설될 것이다.

◉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이중의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교화를 맡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교화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이 큰 책임이 있는 곳이야 말로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완결)

(이는 4월 15일 한국에서 돌아와, 오사카(大阪) 청년회관에서 이루어진 연설의 개요이다. 문책(文責)은 기자에게 있다)

〈출전 : 「海老名牧師の韓國視察談」(上/下), 『基督教世界』 제1389호, 1910년 4월 21일/28일〉

5) 츠나시마(綱嶋一山), 조선에서 만주로(1~3)

조선에서 만주로(1)

나는 올 초에 조선에서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북경, 천진, 한구(漢口), 상해 등을 시찰하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이 희망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러나 7월에 들어와 경성에서 조선조합교회(組合教會)의 대회가 있어서 출석을 요청받으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재촉에 결국 뜻을 굳히고 7월 29일 오전 8시 급행으로 신바시(新橋)를 출발하였다. 8월 23일에 귀경할 때까지 26일 동안, 그중 7일은 경성, 평양 및 대련(大連)에서 병으로 쓰러져 연설도 강연도 시찰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맹 유감스러웠다. 이제 도처에서 본 것 및 소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 경성(京城)의 별천지(別天地)

내가 경성에 간 것은 7년 전의 일이다. 인간의 몸은 7년마다 일변(一變)한다고 하는데, 경성 땅도 과거 7년 동안 완전히 일변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내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인물의 변화이다. 당시 통감부에 있던 이토(伊藤) 공작과 소네(曾彌) 자작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또한 당시 유능하기로 이름 높던 츠루하라(鶴原), 기노우치(木內), 마츠이(松井) 등도 여기에 없다. 내가 통감부를 방문하였을 때 고다마(兒玉) 총무국장이 말하기를, 이토 공작 시대 사람은 이제 나 한 사람 정도입니다라고 한다. 경성의 시가지도 실로 크게 변하였다. 남대문 정거장을 나오면 눈에 띠는 것이 개량된 도로와 시가지의 신축 가옥이어서 참으로 멋지다. 특히 도로는 도쿄를 능가하는 감이 있다.

이상은 시가지의 모습인데,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경성 거리에서 조선인을 보면 일종의 적개심이 흘렀으며, 일본인이 그들을 모욕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없지 않았으며, 서로가 질시·반목하는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서로 화목한 모습이다. 이는 첫째 정치의 감화이고 총독부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내가 놀란 것은 총독부 병원이다. 이 병원은 군의 총감(軍醫總監) 후지타(藤田嗣章) 씨가 원장으로 있는 곳인데, 그 건축과 설비 등 모든 것, 의사, 간호사 등의 정돈된 모습은 일본에서조차 볼 수 없다. 이 병원은 조선 팔도에 걸쳐 15개 지부를 갖고 있다고 한다. 후지타 씨는 군의 중 정치가로 활약하는 사람인데, 그 착안점이 훌륭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지타 씨가 말하기를, "조선인을 계도(啓導)하는데 실물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정치, 교육, 실업(實業), 도덕 모두 실물로 해야 한다. 나는 의사의 입장에서 실물교육을 한다."고 한다. 분명 조선경영책을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은 그들을 개발하는 데 열쇠인 것이다.

▲ 조선 전도(朝鮮傳道)

조선인 전도는 지금까지 외국 선교사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회, 조합(組合) 교회, 미이(美以) 교회, 성공회(聖公會) 등 제 교파는 재류 일본인의 전도에 종사할 뿐이었다. 그런데 조합 교회는 지난 1911년에 조선인 전도에 착수하여 이후 조선인 신도를 우리 교회에 가입시켜 수천 명에 이르고 있고, 마침내 지난 8월에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 상황은 와타세(渡瀨常吉) 군이 보고한 대로이므로, 여기서 또 다시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선인 전도를 일본인 손에서 경영하여 일본인의 정신으로 하는 것은 오늘날 매우 필요한 일이다. 내 생각을 기탄없이 기술하다면, 일본의 전도지 한 두 군데를 폐쇄하더라도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외국 선교사는 일본인이 조선인 전도에 종사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꺼리고 심한 경우에는 방해를 하려는 자도 있는데, 조선이 독립국이었던 시대에는 모르지만, 지금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된 이상, 일본의 전도는 일본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의(主義)로 조선인 전도에 응용해 가야 한다. 따라서 재조선(在朝鮮) 의 선교사는 일본 내의 선교사가 일본의 전도에 일본인의 의견을 듣고 일본인의 정신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일본인과 상의하고 일본인의 생각에 따라야 할 것이다. 조일 동화(朝日同化)의 대사명은 양국 기독교도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데 충분히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선교사에게만 조선인 전도를 맡기는 것은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인 전도는 우리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 신자가 담당해야 한다. 외국 선교사는 우리 조합 교회와 아메리칸보드 선교사의 관계처럼 일본·조선 기독교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결코 외국 선교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완성해 가는 길이다. (이하 다음 호에)

조선에서 만주로(2)

▲ 평양 소견(所見)

8월 7일 평양에 들어갔다. 이날 밤 교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다음날 8일 아침 격렬한 신경통이 도져 몸져눕고 말아 이틀간 병상에 누워있는 바람에 시찰도 다른 일도 할 수 없었다. 다만 10일 성일(聖日) 아침에 예배 설교를 하고 밤에는 "배일(排日) 문제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조선 제일이라는 유명한 장로교회의 집회에 가 보았다. 이 교회는 평일에 항상 1,000명 참석자가 모여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성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세 차례의 예배 설교가 있어서 모든 집회에 항상 1,000명은 참석한다. 내가 간 것은 오후 집회로, 아주 무더운 날이었다. 남자석에는 아직 2, 30명밖에 오지 않았으나 잠시 후 만석이 되었고, 중앙을 중심으로 남녀 석으로 나뉘어 있어 부인의 수는 알 수 없었으나, 남자는 400명, 부인은 50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 900명 정도의 신자가 모인 셈이다. 이날은 목사가 다른 일로 설교를 하지 않고 7명의 장로가 모두 단상 위에 착석하여 성서를 낭독하거나 기도를 올리거나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장로 한 사람이 설교를 하였다. 하루에 세 번 집회에 매번 1,000명 이상이나 모이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로, 일본 내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작년 조선 목사 관광단이 일본에 왔다가 돌아갈 때, 일본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진보해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특히 기독교 분야는 미미하여 조선의 기독교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측면을 보면 분명 조선의 기독교는 활발하다. 그러나 그 안은 과연 이에 상응할까? 이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외형상의 성대함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혁신되고, 치열한 이상의 불을 바라며 인격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들의 영적 생명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장춘(長春)의 반나절

만주는 꼭 한 번 가보고 싶던 곳이어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8월 11일 오전 12시 반 급행으로 평양을 출발해 장춘으로 향하였다. "장춘을 보지 않고 만주를 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安東縣)에 들어가면 이미 중국의 영토이며, 자연의 풍물 등의 모습도 점점 달라진다. 주민의 생활 상태, 가옥의 모양 등 언뜻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안동현에서 봉황성(鳳凰城), 마천령(摩天嶺) 등을 거쳐 봉천에 이르는 동안에, 산은 점점 멀어지고 낮아지며 시야가 점점 트이며, 마침내 봉천에 들어서면 눈앞을 가리는 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봉천 이북의 장춘까지 전망은 실로 옥야천리(沃野千里), 보이는 것은 고량대두(高粱大豆) 밭으로, 장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장춘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12일 오전 7시로, 곧장 만철(滿鐵)의 사택 독신자 기숙사에 있는 이노우에(井上良民) 군을 찾아가, 이노우에 군의 호의로 아침식사를 먹고 이노우에 군과 함께 마차를 몇 시간 달려 중국인 시가지에서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시가지를 둘러보았다. 본래 장춘은 남만철도(南滿鐵道)의 종점이자, 러시아 동청철도(東淸鐵道)의 기점이며, 그쪽에는 러시아 수비병이 위협적으로 군영을 기키고 있고, 이쪽에는 일본병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저쪽에는 중국의 경비대도 있어, 모든 것이 외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할 만한 느낌이 들기까지 하였다. 장춘은 56년 전까지는 농가가 띄엄띄엄 있는 촌락이었으나, 만철이 150만 평의 논밭을 사들여 시가지를 만들고 각종 공공 설비를 갖추어서 이후 나날이 발전하여 오늘날에 인구 약 1만 명을 헤아리는 곳이 되었으며, 중부 만주에서 농산물의 대집산지가 되고 있다. 송화강(松花江) 유역이나 그밖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두처럼, 초겨울부터 늦봄까지 모여드는 농산물이 100만 석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 눈부신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봉천(奉天)의 감회

장춘에 겨우 5시간 정도 머물다가 이날 12시 반에 떠나 오후 8시 반에 봉천에 도착하여 대성(大星) 호텔에 투숙하였다. 이날 밤 재봉천(在奉川) 만철위문부(滿鐵慰問部) 주임 니이타(新田義正) 씨의 방문을 받고 다음날의 프로그램을 정하였다.

다음날 아침, 우리 번정(番町) 교회 회원으로 봉천에 있는 사람이 있어, 또한 다른 지인도 있어 이들을 방문하였고, 또한 방문을 받았다. 다만 시간이 없어 봉천에서도 장춘에서도 강연이나 연설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오후 니이타 씨와 마차를 타고 먼저 금란전(金鑾殿)으로 향하였다. 이곳은 청(淸) 나라의 태조 고황제(高皇帝) 및 태종 문황제(文皇帝)의 궁전이었던 곳으로, 금은주옥(金銀珠玉), 보검(寶劍), 명화(名畵) 및 태조의 갑옷, 금강석으로 된 소도(小刀), 황금으로 된 황종(黃鐘), 그밖에 수천 점, 광채를 띠고 있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이를 보면 군침을 삼킬 것 같다. 다시 북쪽으로 더 가보았다. 북쪽은 시가지를 벗어나 몇 리 정도 가니, 청 황제의 선조 즉 태종 문황제를 기리는 곳으로,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진무 천황(神武天皇)의 우네비능(畝傍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위는 풀만 자라 황량하기 그지없고 건물은 벽이 무너지고 입구가 부서져 세계 여행객이 발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유적도, 참으로 보기에 안타깝다. 이는 중국 모두가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국가적 공곡심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일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월 10일에는 우리 육군의 기념일로 우리 군대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즉 러일 전쟁의 세키하라(關原)라고도 할 수 있는 대전(大戰)에서 우리 군이 승리를 거두어 러시아군을 제압한 날이기 때문이다. 본래 봉천 전투는 전선이 40리에 걸쳐 일본과 러시아 양군 70만의 대군이 승패를 다툰 전투로, 1905년 3월 7일에 시작되어 전후 4일 밤낮으로 싸워 3월 10일에 마침내 러시아군이 패주(敗走)하여 우리 군이 개가를 올렸다. 실로 세계전사(世界戰史)에 대전 중 하나로, 병력수에서 나폴레옹의 워터루전쟁보다 많아야 15만이다.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러시아병은 2만 명, 사상자 헤아

릴 수 없는 싸움이었다. 오늘날 그 기념비 아래에 서서 광활한 들판을 보니 "하초(夏草)야 한낱 꿈의 흔적"이라는 구절도 생각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하 다음 호에)

조선에서 만주로(3)

▲ 대련(大連)의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나는 대련, 여순을 보고 다시 남하하여 먼저 대련에 도착하였다. 대련은 원래 러시아가 경영하던 곳으로, 해륙(海陸) 모두 제반 설비를 매우 잘 갖추었고 규모도 매우 광대하다. 여기에는 남만철도회사(南滿鐵道會社)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위문부 본부도 여기에 있고 그 주임으로 오츠카(大塚素) 군이 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또 다시 건강이 나빠져 약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어 단 한 번의 연설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유감이었다. 나는 잠시 만철회사에서의 느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당시 나카무라(中村) 총재는 부재중이어서 나는 구니사와(國澤) 부총재 등을 만났다. 나처럼 문외한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영리 사업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와 보니 뜻밖에도 이 회사는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만주의 개발이었다. 이 회사는 1906년 6월 7일의 칙령(勅令)에 입각하여 창설된 회사로, 자본금 2억 엔, 그 가운데 1억 엔은 정부의 출자로, 나머지 1억 엔은 일본과 중국 두 나라 국민에게서 모집하는 규정이 있어, 모집액이 이미 2천 만 엔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업은 단지 운수 및 창고업에만 머물지 않으며, 사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 각종 공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도(沿道)의 주요 장소에 시가지를 조성하고, 도로 축조, 수도 정비, 공원묘지 경영 등을 하며, 그밖에 소학교 및 공학당(公學堂)을 설립하여, 소학교에서는 일본인의 자제를 교육하고, 공학당에서는 중국인의 자제를 교육한다. 또한 병원을 설립하여 널리 공중(公衆)의 치료를 담당하고, 후생 시험소(厚生試驗所) 및 소방 야경(消防夜警)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밖에 전기, 등열(燈熱) 및 동력(動力)을 제공하고, 여관을 개장해 안팎에서 오는 여행객의 숙박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나는 만철의 경영 모습을 보고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연상하였다. 그러니 만철은 일본의 동인도회사이다.

대련은 만주 각 화물의 집합장인데, 이 항구가 얼마나 중요한 항구인가 하면, 겨울철부터 봄에 걸쳐 각지에서 대두, 콩깻묵 등 수백 만 가마니가 모여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계절에는 하루 1천 명 이상의 고력(苦力, 중국인 노동자)이 들어와 그 운반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이 일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략)

▲ 무순탄광(撫順炭鑛)

다음날 18일 오전 중에 대련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여행 짐을 정리하여 봉천으로 가서 무여(撫旅)로 행하였다. 무여는 탄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본래 러시아인이 경영하던 곳인데, 러일전쟁의 결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처음에는 육군성(陸軍省)의 직할이었으나, 4년 전에 만철(滿鐵)이 경영하게 되면서 착실히 발전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출전 : 綱嶋一山, 「朝鮮より滿洲へ(1~3)」, 『基督教世界』 제1565~1567호, 1913년 9월 18일/10월 2일/11월 25일〉

6) 가토(加藤直士), 만선순유(滿鮮巡遊)엽서통신(3~4)

만선순유 엽서통신(3)

○

오전 8시 12분 봉천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향하였다. 철령(鐵嶺), 창원(昌圓), 개원(開原)을 거쳐 공주령(公主嶺)에 가까워질 무렵, 이나바(稻葉好正) 씨가 모 역까지 마중을 나와 주어 동승을 하고 오후 5시 장춘에 도착하였다. 이 지역의 정거장은 러시아가 건설한 대로 중국풍의 옛 형태를 갖고 있었고, 연도(沿道)의 감시가옥에는 포대가 있었다. 전시(戰時)에는 초병을 두고 평상시에는 마적(馬賊)에 대비한다. 이날 비가 조금 내려 기온이 매우 차가웠다. 겨울 외투를 걸치고 겨울 바람을 견뎠다. 광활한 들판, 해는 고량(高粱)에서 솟아 고량으로 진다는 만주의 장관을 여기서 처음으로 보았다. 장춘은 만철의 최종역으로, 러시아 경영 동청철도(東淸鐵道)의 연결지점이다. 러시아의 관성자(寬城子)에 대해 일본이 새로이 경영하게 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본의 창의(創意)에서 나오고 남만철도 인재를 이 지역에 파견해 예의일진(銳意日進) 설비를 마련하여 앞으로 그 발전을 기대한다. 이노우에(井上良民) 씨와 오랫만에 악수(久闊握手)하고 러시아풍의 마차를 타고 곧장 그가 감독하는 독신자 숙사에 투숙하였다. 만철의원(滿鐵醫院)의 야마이(山井) 씨, 역장 이와나가(岩永) 법학사(法學士) 등과 함께 정중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구두가 빠지는 진흙탕을 지나 공동 사무소 누상(樓上)의 강연회에 가서 "예술적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9월 13일)

○

아침 일찍 일어나 이노우에 씨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렸다. 먼저 공동 사무소의 고루(高樓)에 올라 전경을 내려다보며 장춘의 현재 및 미래의 계획을 보았다. 마차를 달려 성 밖의 중국 소학교를 둘러보고 만철이 경영하는 중국인 교육소인 공학당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본래 우리 영사관이 있다가 그 뒤 호텔이 자리하여 이토(伊藤) 공작이 하얼빈으로 갈 때 전후하여 마지막으로 숙박하였다는 방이 있는 한 모옥(茅屋)을 두어 이토 공작의 성충(誠忠)을 기린다. 정거장에서 핸드카를 타고 러시아의 관성자(寬城子) 역에 도착해 역장 사코로프 씨와 악수를 나누고 함께 촬영을 하였다. 돌아와 마트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12시 열차로 장춘을 떠나 공주령으로 향하였다. 1시 30분, 이나바 씨의 마중을 받으며 하차

하여 곧장 여기 저기를 보며 산책을 하고 환복(丸福) 여관에서 휴식과 목욕을 하였다. 오코히라(大河平) 경리주임 및 이나바 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7시 30분에 소학교(원래 그리키 교회당) 강당에서 "사업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모임 후 한 청년이 만주에서의 청년의 마음 및 생활 상태를 고백하여 매우 통절(痛切)함을 느꼈다. 위문부(慰問部)는 일개 사회사업으로 아직 충분히 그들의 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는 듯하다. 즉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전도가 있어야만 한다. 다만 종파를 전하지 않고 종교를 전할 필요가 있다.

(9월 14일)

○

차 안에서 꿈속을 헤매는 와중에 아침 8시 50분, 봉천에 도착하였다. 안봉선(安奉線)을 타고 마침내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대련에서 장춘까지 440리, 봉천에서 안동현까지 170리, 철도는 사람 인(人)자형을 그리며 만주의 들판을 종횡단한다. 그리고 오늘 여행은 그 사람 인자의 북선(北線)을 통과하는 것이다. 안봉선의 풍경은 만철 본선(滿鐵本線)과 전혀 분위기가 다르며, 조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이 더해간다. 본계호(本溪湖), 계관산(鷄冠山), 봉황성 등의 명소를 지나, 저녁 5시 15분에 안동현에 도착하였다. 나카에(中江汪) 씨의 마중을 받으며 곧장 건물 뒤의 심강산(沈江山)에 올라 절경을 감상하였다. 중추 십오야(中秋十五夜)는 내 생일이다. 드넓은 압록강을 사리에 두고 백마산상(白馬山上)에서 커다란 명월(明月)이 뜬다. 만주와 조선의 경계에서 지금 달과 밤을 맞이하는 마음, 살며시 쾌재를 불러온다. 오늘밤은 월식이 있어 잠시 처절함을 즐긴다. 나카에 가족과 근처 사람들을 모아 아라비안나이트의 옛날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내 생일을 축하하였다.

(9월 15일)

만선순유 엽서통신(4)

○

아침 7시 20분, 안동현(安東縣)을 출발해, 유명한 압록강의 대철교를 차창 밖으로 보며 신의주에서 마침내 조선의 영토로 들어간다.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것은 국토 산천이 일본과 흡사하다는 것. 각 역에 많은 일본인을 볼 수 있는 것. 농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 백의(白衣)의 신동포의 가련함 그리고 사랑스러움 등등이다. 선천(宣川), 정주(定州), 신안주(新安州) 등을 거쳐 오후 1시 반 평양에 도착하여 다카하시(高橋) 군 등 몇 명이 마중을 나와주어 여장을 풀지 않고 곧장 기자묘(箕子廟)를 참배하고 현무문(玄武門)에서 모란대(牡丹臺)에 올라 부벽루(浮碧樓)의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배로 대동강을 타고 내려왔다. 백의흑관(白衣黑冠)을 한 사람, 배를 절벽 아래로 몰아 배를 탄 손님들에게 태고(太古) 사람들을 느껴보게 한다. 숙소에 돌아와 목욕을 하였다. 밤에 평양 조합교회에서 "인생의 최대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9월 16일)

○

아침식사 후, 다카하시 씨와 함께 먼저 마츠나가(松永) 도 장관(道長官)을 도청에서 만나 20분 정도 간담을 나누었으며, 선교사가 경영하는 중학교를 참관하고 유니온 컬리지(숭실대학) 등을 보고 어제부터 여학교 구 교사(舊校舍) 내에서 열리고 있는 장로파 선교사 연회를 방문하였다. 연회 의장 웰버른 씨의 소개로 영어로 인사를 하였다. 커다란 갈채 속에 산회(散會) 한 뒤에 많은 선교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웰스 박사의 초대를 받고 몇 명의 선교사와 함께 오찬을 하였다. 하라다(原 田) 씨로부터 온 게일 씨와 언더우드 씨의 초대장은 이 곳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 안타까웠다. 연회 중에 시간이 없는 나는 여러 분들과 헤어져 내일 평양을 떠나야 하였다. 마지막에 간담을 나눌 수 있는 행운을 얻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였다. 오후 4시 20분 열차로 다카하시 씨와 함께 진남포(鎭南浦)에 도착하였다. 가와모토(川本)·시마무라(嶋村) 씨들의 마중을 받으며 곧장 축항(築港) 공사를 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밤에 강의소(講義所)에서 "문명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가와모토 씨의 손님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9월 17일)

○

아침 일찍 진남포를 출발하여 먼저 평양으로 돌아가 오후 1시 반 출발 열차로 경성으로 향하였다. 감리 교회 목사 현순(玄楯) 씨와 같은 차를 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 7시 반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와타세(渡瀨) 씨가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와 주었고 남대문 정거장에서는 일본과 조선 양 교회 회원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와타세 씨의 후의로 그의 집 손님이 되었다. 이번 여행을 오직 시찰 관광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막상 와 보니 강연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밤 9시 광남 교회(廣南敎會)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들에게 설교를 하였다. 홍병선(洪秉璇) 씨가 통역하였고, 참석한 남녀로 회당이 가득 메우고 기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유쾌하다 할 수 있다. 경성의 첫인상은 이처럼 좋은 것이었다.

(9월 18일)

○

오전에는 집에 있었다. 이원긍(李源兢), 니와(丹羽淸次郎), 김린(金麟) 씨 등의 내방을 받았다. 오후 3시 와타세(渡瀨), 야마모토(山本) 두 사람과 함께 비를 맞으며 데라우치(寺內) 총독을 그의 관저에서 만났다. 달리 내방객이 있었음에도 총독은 우리를 객실(客室)로 안내하였다. 한 두 문제에 대해 약 20분 동안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인사를 마치고, 총독부에 우사미(宇佐美) 장관, 고바시(小橋) 국장 등을 만났으며, 그리고 나서 솔브레이크사에서 야마가타(山縣) 주필을 방문하였고, 밤에 일본 기독교회당 내에서 경성기독교 청년회 주최 가족회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렇게 경성 체재 두 번째 날을 보냈다.

(9월 19일)

○

오전에 니와, 와타세, 야마모토, 후루야(古屋)(미국 로스엔젤레스 일본인 조합교회 목사) 등 4명과 함께 창덕궁(昌德宮) 관람의 영광을 얻어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비원(秘苑) 안의 가을풍경을 감상하였다. 주회루(宙會樓)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와타세가 시를 지었다. "일찍이 유유자적의 흔적 들려주는 홍엽(紅葉)", 식물원과 동물원을 보고 야마모토 씨의 새 집에서 오찬을 들었다. 박물관을 보고 조선 옛 시 문명을 감상하고, 오후 5시부터 조선인 측 주최의 만찬회에 초대를 받아 마침내 조선 요리의 좋은 맛을 알았다. 오후 8시 상생정(相生頂) 경성 교회에서의 첫 번째 강연회에서 "근대 사상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9월 20일)

○

일요일, 아침 경성 교회에서 "기독교 생활의 광영"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상동 감리 교회 및 게일 박사의 장로회의 성황을 보았고, 부인의 안내로 그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박사는 아직 평양의 모임에서 돌아오지 않아 결국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무라카미(村上) 씨의 호의로 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일본 메소디스트 목회에서의 경성 일요학교 연합회 주최 강연회에 가서 "종교 교육의 본의(本義)"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와타나베(渡邊) 씨, 모리(森重作) 씨, 그 밖의 지인을 방문하여 모리 씨의 초대로 은행집회소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밤 경성 교회에서 "신앙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을 하였다.

(9월 21일)

○

아침 일찍 야마모토 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용산으로 놀러갔으며, 철도 청년회 및 한 두 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업 전습소(工業傳習所)를 참관하고 조선 산업계의 일부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복궁을 보고 그 광대한 규모가 봉천궁(奉天宮)을 능가함을 보았으며, 유명한 경회루(慶會樓)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숙명 고등여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후치사와(淵澤) 씨로부터 오찬을 대접받고 꽃과 같은 300명의 조선 여학생에게 짧은 인사말을 하였다. 오후 2시부터 경성 교회 부인회를 위해 "기독교에 존재하는 새로운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니와 씨, 김린(金麟) 씨가 조직한 다화회(茶話會)에 갔다. 이 모임은 3년 전에 우리가 오사카(大阪)에서 조선 목사 관광단을 환영해준 데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개최된 것이다. 모임 장소는 안순환(安淳煥) 씨의 저택으로, 귀족의 생활모습으로 그 안방의 모양까지 보고 조선 요리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밤에 한양 교회에서의 조선인측 세 교회 연합의 설교회에 가서 홍병선의 통역으로 "기독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자리를 가득 메운 조선인은 기쁜 얼굴로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은 나에게 더 없는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나는 경성 체재 5일간의 프로그램을 마쳤다.

(9월 22일)

○

아침 8시 30분 열차로 경성을 떠나 귀도에 올랐다. 시간을 잘못 알아 열차가 발차하기 1분 전에 플랫폼에 도착해 황급히 승차하였다. 수많은 일본과 조선의 형제자매들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인사를 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후루야 씨와 평양의 사이토(齋藤) 부인과 동승하였다. 차 안에서 환담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수원, 대전, 대구를 지나 7시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밤이 늦었음에도 시내를 산책하고 8시 연락선 고려호를 타고 9시 기적이 울리고 마침내 조선 땅을 떠나왔다.

(9월 23일)

○

배는 현해(玄海)의 꿈을 실고 아침 8시 시모노세키(下之關)에 도착하였다. 9시 50분의 급행열차를 타서 오후 10시 30분에 고베(神戶)에 도착하였다. 이번 여행은 9월 9일 밤 고베를 출발해 24일 밤 고베로 돌아왔다. 여행 기간은 20일, 여비는 겨우 100여 엔(단 숙박은 대부분 여러 친구의 후의에 힘입었다). 그리고 육로 2,100리, 해로 3일 밤낮, 경연회수 18회, 그 동안에 견문 시찰한 곳이 적지 않다. 나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이렇게 짧은 기간과 비용으로 만주와 조선 순유(巡遊)를 기획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기후는 초여름 및 초가을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내가 쓴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 내지는 참고가 된다면 아주 다행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 도처에서 환대와 융숭한 대접을 주신 여러 형제자매께 더 없는 감사를 드린다.

(9월 24일)

〈출전 : 加藤直士, 「滿鮮巡遊葉書通信」(三/四), 『基督敎世界』 제1567호/제1568호, 1913년 10월 2일/9일〉

7)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의 글

(1) 조선 영계(靈界)의 새로운 기운

◉ 제1회 집중전도(集傳) 후의 형세

조선 중앙 기독교 청년회 개혁운동이 모트 박사 일행을 맞이하여 해결의 서광을 본 무렵에 우리 제1회 집중전도가 거행되어, 고자키(小崎) 목사는 모트 박사의 협의회 중반에, 조선으로 건너왔다. 고자키 · 사와무라(澤村) 두 목사의 활동은 일본 측에 감흥을 일으켜 어느 정도 편중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조선 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회 운동과 연계된 기미가 있어, 한편으로는 각 교회가 묘하게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신자 중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미증유의 참석자가 회당을 가득 메워,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운동을 마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이에 경성의 인심(人

心)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여, 고자키 씨가 돌아갔으며, 이어서 사와무라 씨를 배웅하자 갑자기 회심(回心)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발단을 이루었다.

◉ 새로운 기운의 도래

우리가 2년 전에 경성에 전도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도 들어가지 않을 상황이었으나, 인내는 참으로 희망을 낳았다. 지금 새로운 기운과 함께 경성의 각 방면에 교회 혹은 강의소(講義所)를 만들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대세를 이루었다.

그 요구 중에는 한 유지가 관련되어 있는 구도자 단체도 있고, 10년을 하루같이 독립 자유 교회를 창도하여 때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유지로 협력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 특히 유교(儒敎)에 따라 그 정신을 닦아 왔기에 10여 년 국가 문제에 열중하여 불휘(不諱)를 한 자도 있다. 이 사람들의 회심(回心)은 조선에서는 멋진 일이 되어, 종래의 전도가 쉽게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을 저주하고 일본인을 저주하며 완강하던 사람들이 교심분투(苦心奮鬪)한 결과 마침내 우리에게 가슴을 열고 들어오기에 이른 것은 참으로 모두의 행복이며, 나는 이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전하고 싶었다.

◉ 회고와 희망

앞의 유교계의 유지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경력이 있다. 나는 그들의 대표자 3명과 각각 다른 날에 만나 회견을 하였는데, 3시간 혹은 6시간에 걸쳐 서로 흉중을 피력하였다. 최근에 없었던 쾌감을 맛보았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부자 사별(父子死別) 때에 국가일을 유명(遺命)으로 남기듯이, 처자이산(妻子離散) 때 실로 고초를 겪으며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혹은 북간도의 달을 보고 울고, 혹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로서 마음을 뛰게 하여 마음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 국가 흥망의 문제가 인심에 미치는 영향의 심대침통(深大沈痛)하여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울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한 노인은 일찍이 투옥되었을 때에 두 뺨을 강하게 맞았을 때 치아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18개의 이가 빠져서 피와 함께 손바닥에 뱉어 창으로 던져버리고 태연하게 심문에 응한 호걸도 있다. 이들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는 지금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신 앞에 이마를 대고 서로 함께 새로운 희망을 좇음으로써 마음을 토로하고 진심으로 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 지를 찬탄(讚嘆)하며, 그들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형제교회(兄弟敎會)의 협력

이들이 동지와 함께 집합하기 위해 내게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여 설치한 것이 한성 교회(漢城敎會)이며, 한양과 나란히 하는 형제 교회로, 한양 교회는 비로소 동생을 갖게 되었다. 유교계 사람들은 연조비가(燕趙悲歌)의 분위기가 있지만 성실하다. 대쪽 같은 면이 있다. 조선에도 남아(男兒)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일 것이다. 이들이 지금 유순하게 희망 아래에 성서를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찬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이 교회를 설립한 것은 20일 전으로, 제2회 집중전도 준비 기도회를 27일에는 한양에서, 28일에는 한성에서 개최하는데 분위기는 의기양양하며, 집회의 공기가 긴장감이 돌아 어딘지 탄력도 느껴지며, 모든 것에 대만족을 하며 헤어졌다. 협력의 힘에 감사, 세상에 형제를 갖게 된 기쁨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두 교회가 지금은 하라다(原田)·니시오(西尾)·다카기(高木) 등 세 형제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경성 교회를 더하면, 경성에는 세 교회가 있는 셈이다. 또한 달리 발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있다. 하늘이 만약 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경성에는 4개 또는 5개의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의 사업을 힘써 행할 수 있어, 결국 청출어람(靑出於藍)의 금언(金言)을 사실로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다.

◉ 지방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

이것이 3개월 뒤에는 지방에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한 번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라는 점은 지금 단언할 수 있다. 즉 급전직하(急轉直下)의 대세를 이루면 1년도 안 되어 수만의 신도를 얻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오순절 날에 3천 명이 회개하였다. 신이 그 살아 있는 힘을 보여주실 때에 3천 명이나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전라북도 화호(禾湖)라는 지방에는 이미 일맥(一脈)의 피가 통하였는데 이미 그 조짐을 나타내어 80명의 구도자가 일어나 예배를 시작하고 회당까지 지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오늘날 한꺼번에 일어나려는 대세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 9월 이후를 기해 일본에서 교회 외부 인사에게 부탁해, 국민적 운동으로서 조선 교화를 상하를 이해시켜, 열심히 모금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대모집에는 우리 조합 교회의 형제자매가 전력으로 협력해 주셔야 한다. 나는 이미 결심하였다. 신은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 후고(後顧)의 우(憂)

그러나 이 대운동으로 얼마간 자금을 얻을 때까지는 내게 후고(後顧)의 우(憂)가 없기를 바란다. 전쟁터에 나가 승리의 기미가 눈앞에 왔을 때에 대부분 탄환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미 승리는 눈앞에 보인다. 이 3, 4개월이 중요하다. 이때에 탄환이 떨어져서 상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선 야전대(野戰隊)이다. 쓰러질 때까지 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뒤돌아 볼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분명히 고백한다. 나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신의 도움을 믿는 우리 2만 형제자매를 믿고 우리 100여 개의 교회를 믿는다. 제군이 반드시 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승리를 얻지 못하고 퇴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2회 집전은 그 돌격의 개시이다. 하라다(原田) 박사는 학문 시찰을 하는 김에 우리를 적극 도와 줄 것이다. 니시오(西尾), 다카기(高木) 두 사람은 이를 위해 분발해 준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기운의 시대에 신이 이 활동을 이루어 줄 것이므로, 앞으로 갈 일도(一道)의 광휘(光輝)는 결코 작지 않다. 신의 살아 있는 은혜의 힘은 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실제로 생각 밖이다.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이번 제2회 집중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해지고 있는 새로운 기운의 발흥에 대해 더욱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출전 : 渡瀨生, 「朝鮮靈界の新機運」, 『基督敎世界』 제1551호, 1913년 6월 12일〉

(2) 조선교화와 조합교회의 사명(1~3)

우리는 종래 몇 번이나 우리 조선 교화의 정신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번 대소요가 있은 뒤를 이어, 현재 조선에 관한 주의가 다소 진지해진 부분이 있어, 이 기회에 평생의 가슴속 말을 밝히고, 우리 여러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고백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동정을 가진 여러 유지에게 참고로 제공할 생각이다. 이러한 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짧은 시간에 논하는 것은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다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몇 개 항으로 나누어 나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하므로, 독자 여러분의 인내를 구하는 바이다. (1) 일반적 교화의 확신, (2) 조선 교화의 방침, (3) 내선일체의 이상, (4) 순정(醇正)한 신앙의 승리, (5) 창조적 생명의 힘, (6) 재선(在鮮) 선교사와 조합교회(組合敎會), (7) 관헌(官憲)과 조합교회, (8) 조합교회의 신학상의 입장, (9) 다른 비평에 답하다, (10) 세계적 봉사의 대정신과 시국 제 문제의 해결. 이러한 여러 문제 외에 또한 기술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보충할 생각이다.

(1) 일반적 교화의 확신

우리는 일본의 교화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가 "만국의 국민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로 삼고 또한 우리 모든 자에게 명한 말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라는 말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의 교화에서 시작하여 조선 · 중국에도 나서고, 나아가 타이완 · 남양(南洋) 등을 향해서도 힘이 닿는 한 복음 선교를 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급하는 정신이다. 교화라는 것은 그 개인의 신앙의 확립에서 나와야 한다. 개인의 신앙은 기독교가 선언하였듯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 정신의 태도를 통해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일대 변화에 기초한다. 성령에 의한 신인격의 탄생이다. 즉 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아니, 신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생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신의 자식인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 혹은 신생이라는 경험 없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말하고, 자기를 버리고 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경험에 들어가면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도 만약 영(靈)을 통해 신체의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신인격의 탄생을 보면, 국민의 교화는 도저히 실현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신앙의 눈을 갖지 않은 자가 보기에 이는 황당무계한 일이며,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이만큼 명확한 일은 없다. 신앙은 창조하며 나아가는 것이므로, 신앙 앞에는 천하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따라서 바울은 믿는 자에게 기독교는 신의 능력, 신의 지혜라고 한 것이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를 통해 우리 국민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매우 더디지만, 이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기독교의 사업으로, 신의 사업이다. 100년, 200년, 300년 내지 1천년이 걸려도, 결국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본의 교화가 세계의 전도사에 가장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서도 실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착실하게 1년 또 1년 나아가고 있다. 지금 한층 대규모의 운동도 시작할 수 있고, 지금 철저하게 동포의 영혼으로 다가갈 때도 온다. 우리는 우리 일본의 교화에 대해 더욱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일찍부터 단념하고 교화의 어려움을 토하는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일반적 교화의 확신은 다른 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근저가 되어야 한다. 즉, 중국의 교화(가령 이를 실행한다는 것으로서) 에서도, 타이완의 교화에서도, 남양의 교화에서도, 특히 우리 조선의 교화에서는 한층 이를 확신해야 한다. (이상 1)

(3)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상[8]

우리는 내선일체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내선일체의 이상은 다만 교화운동을 내선인이 하나가 되어 수행하고, 그 내부에서 각 방면의 과실을 거두는 것만 바라지는 않는다. 지금 좀 큰 입장에서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하나가 되어 대륙문화의 근저를 마련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이 없이 내선인이 서로 반목하고 배척하고 소원해진다면, 대륙에 문화를 열고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양 민족의 결합 일체 융화 협동은 양 민족의 앞으로의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조선 반도 동포에게도 우리 일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일본국 자체에도 행복과 진보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내선일체의 이상은 기독교의 것만은 물론 아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 생기는 자연의 열매이다. 신을 믿고 기독교를 진심으로 믿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여 영적 실험에 나선다면, 자연히 이르게 될 결론이다. 우리가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신앙상 실험에 기반을 둔 자연의 귀결이다. 어쩌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신의 아들 즉 천부(天父)의 완전함처럼 완전해지라고 욕구하는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의 내용은 지금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을 실행하고 그 완전함을 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을 믿고 그 영(靈)의 감화를 받은 자는 그 과거를 버리는 일은

8) 원문에 (2)가 누락되었는데, 오류로 보인다.

결코 어렵지 않다. 이른바 신생(新生)의 실험(實驗, 실재 체험)에 의하면 적을 사랑하고 그 형제로 삼고 이를 자매로 삼는 일은 그리 신기할 것이 없다. 기독교로서는 당연한 실험이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그 인격에 달려 있는데, 적어도 가지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감사와 은총의 생애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실험은 일반 신도에게 주는 은혜이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에 대한 강한 부정의 실험을 거쳐, 그 실험 속에 과거를 버리고 그 안에 과거 현재의 원한도 증오도 다른 죄악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으므로, 박해나 학대를 감사하 듯,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의 생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는 종래 생긴 내선인 사이의 악감정도 증오, 원한도 의심과 배척도 일소하여, 양자의 영적 능력이 서로 통할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실험하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여 유태인과 이방인의 일체화를 주장하였다. 유태 민족과 그리스 민족은 당시 2대 문화의 대표자로서, 세계 도처에서 충돌하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 사실 인류의 불행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양 민족을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자로 만들어 화(和)를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바울 개인의 기대가 아니라, 사실 신의 영(靈)으로 느낀 그의 가장 공명한 마음이다. (이상 2)

(4) 내선일체의 이상

내선일체의 이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 자연의 귀결임과 동시에, 이는 실로 세계적 정신 · 인류 동포주의의 근저이다. 만약 우리가 구미 제국들과 제휴하여 세계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내선인(內鮮人)의 융화 협력을 진정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간과하고 세계적 정신을 말하고 인류 동포를 외치는 것은 필결 공허한 함성일 것이다. 우리는 내선인의 차별적 사고를 타파하고 평등한 동포주의를 통해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구미인과 반드시 대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동양은 동양인의 힘만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구미가 우리에게 문호를 닫고 일체의 유색인종을 배척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상 ·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양에서 구미인을 배제하려는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죄악이다. 우리는 모든 배타적 사상 · 행동을 피해야 한다.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것은 죄악의, 정신적 죄악의 행동이다. 이는 세계의 선의지(善意志)와 협력함으로써 점차 감화하여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죄악을 행하는 인류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죄악은 인류 공통의 적이다. 구미인이 죄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처럼 우리가 죄악을 국제 간에 강행하려고 하면 이는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말 것이다. 죄악의 행동이 없는 한 우리는 세계에 아무 것도 배척할 수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해도 그를 구원하도록 해야 한

다. 우리는 구미 선진국의 말이 미치지 않는 세계 어느 민족과도 함께 생존을 즐기고, 함께 광영을 나누며, 함께 진보에 공헌하며,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내선일체를 이루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세계와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아니, 내선일체의 이상은 세계 동포주의로서 발달해야 하는 것, 세계 동포주의는 내선일체를 시인하고 그 실현에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내선일체의 이상이 배외(排外) 정신을 품고 세계 동포주의가 내선일체의 이상을 배척하는 일 같은 것이 있다면, 양자 모두가 각각 자기 자신이 이상한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 관념을 타파하여 진정 기독교를 통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서로 융화 협력하기를 기대하므로 이러한 정신을 다른 일반 동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한다. 그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일본 동포와 비교해 아무런 차별이 없고, 세계의 공인(公人)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정도의 지식 인격을 양성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 박사도 나오고 학사도 나오고 정치가로서도 실업가로서도, 진정 우수한 인물을 배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에 대해 일본 내의 인물과 동등한 존경과 대우를 해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지도하는 일도, 그 사람을 교훈으로 삼는 일도 전혀 꺼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사람 아래에 설 각오이다. 다만 한 조건이랄까 희망이랄까, 어디까지나 국가로서는 이 양국민을 통해 경영되는 독립된 대일본제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민은 하나가 되어 영구불변 대일본제국을 경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충실한 신민(臣民)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국의 정당한 공권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

이 일만 확호불발(確乎不拔)이라면, 양 민족은 하나가 되어 가장 이상에 가까운 정치상의 개혁도 기획하고, 가장 진보된 사상의 보급도 도모하고, 가장 확실한 사회정책도 실행하고, 대학도 고등학교도 전문학교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설립하고, 철도도 항만도 하천도 대규모 계획을 세워 착착 개척 발전의 공을 세우고, 내선인의 힘을 하나로 묶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대륙 발전의 근저를 마련하고 대륙에서의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이상 3)

〈출전 : 渡瀬常吉, 「朝鮮教化と組合教會の使命(1~3)」, 『基督教世界』, 1919년 8월 14일/21일/28일〉

(3) 조선 소요사건의 진상과 그 선후책(잡록, 시론)

조선 소요사건의 진상과 그 선후책(잡록)

1

(1) 소요사건의 발발

지난 3월 1일에 발발한 조선의 소요사건은 실로 미증유의 속력으로 지방에까지 파급하여, 경성 및

지방 시장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자도 적지 않았고, 지방에서는 내선인 양측에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났으며,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어떤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세간에서는 이번 소요를 매우 가볍게 간과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는 그 진상을 알아야 하는 사건이다. 이번의 소요는 앞으로 가장 현명하게 또한 유원(悠遠)한 사고에 기초하여 근본부터 고쳐야 하며,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선후책(善後策)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과연 현재의 진정 방침으로 진정되어 선후책 수립의 여유를 금방 얻을 수 있을지, 날로 사태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결국 잠깐 진정시키고자 서둘러, 영구적인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일대 용단을 내려, 그리고 사상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선후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요의 원인(遠因) 및 근인(近因)

이번 소요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융화, 상호 화친, 화목이라는 방향으로, 내선인이 진정 힘을 쏟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심각한 원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소요는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선일체의 이상은 나날이 성장하여 영원한 협력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각한 원인이 있어, 조선 내에서는 병합 이후 일본에 반항하는 일파가 있어, 병합 후에 잠시 이를 제압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각 방면의 생각 없는 불평 반항이 합체하여 폭발하게 되어, 크게는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강화의 대회가 열려 민족 자결이 제창되어 데모크라시 사조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고, 작게는 이태왕(李太王) 전하의 서거로, 인심이 회고석일(回顧昔日)하는 미묘한 기회를 이용하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화(大禍)를 야기한 것이다.

2

(3) 소요의 주모자인 천도교의 성격

병합 이후 주로 해외에 있으면서 선동의 중심에 있던 배일(排日) 무리들은 미국에, 하와이에, 중국에, 만주에, 포항(浦港)에, 간도(間島)에 흩어져 일본 및 조선의 동지와 연락을 통하면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좋은 기회를 잡아 조선에서의 주모자 자리에 서있던 것이 천도교이다.

3

(5) 천도교와 장로·감리 양 교파의 연합

천도교의 정치적 미신단과 장로·감리 두 교파와의 연합을 이룬 것은 일본 유학생과 경성 학생 사이에 일종의 세력을 가진 신사상단(新思想團)이다. 장로·감리의 중심자와 천도교 사이에 그 연락을 위한 것은 이 무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천도교와 장로·감리와 학생단이 대등하게 손을 잡게 된 것이다. (중략)

(8) 소요사건의 진인(眞因)(1)

우리는 위에서 소요사건의 계통과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이 소요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소요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였다는 '병합' 그 자체에 대한 반항일까? 만약 '병합'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병합 당시에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발발해야 한다. 병합 후 약 10년 나날이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실제로 세상 평가에는 선의(善意)의 악정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역사적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도 '병합' 그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본래부터 일본의 기반(羈絆)을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자 그들이 바라는 바더라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 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병합되기보다 일본에 병합되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번 소요를 보고 '병합' 그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총독부의 학정횡포에 대한 혁명적 반항인가 살펴보면, 총독부 창설 이래 하나에서 열까지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있을 수 없는 학정을 견뎌야 하는 횡포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본래 부분적으로 총독 정치라는 위세 부리는 정치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든가, 헌병제도가 좋지 않았다든가, 관리의 대우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지나치지 않았나든가, 재정의 독립이 좀 이르지 않았나 든가, 교육자의 친절이 부족하지 않았나 든가, 하급 일본인 관리가 불손하게 허세를 부렸다 든가 등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견디기 어려운 학정, 참기 어려운 횡포 때문에 일어난 소요사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만약 그렇다면 백성이나 지주나 종래의 여객(旅客)이나 실업가가 중견이 되어 일을 도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소요사건의 발기인은 천도교와 예수회 일부와 청년 학생과 불교의 승려이므로, 조선 반도 민족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민에서는 민란과 같은 면이 있으나 대체로 양상이 좀 다르다.

(9) 소요사건의 진인(2)

그러면 그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한 교파는 그 형식적인 면에서 주체이고, 그 정신은 신사상단의 무리에게 물든 자들이 아니었을까? 또한 조선에 큰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선교사 및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장로 · 감리 두 교파의 교사 및 신도가 중심에 있지만, 이 양자에 근세적 사상의 색채를 주어, 이에 따라 이번 운동의 내용을 이룬 것은 신사상단 일파가 아닐까?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운동의 내용은 신사상단의 주의(主義)이지 않았을까? 본래 이 일파가 전한 내용이라는 것도 일반 사상 ·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독립 하에 자주적 민족의 문화를 수립하여 일본의 기반(羈絆)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10) 독립운동자의 약점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대과(大過)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운동의 강점도 약점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두려워해야 할 점은 천도교의 뿌리 깊은 미신단이 조선 각도에 산재해 있다는 것, 또한 장

로 · 감리 두 교파가 지방에 만만치 않은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 배경이 참으로 강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강점에는 몇 가지 약점이 동반된다. 다시 말해, 천도교도는 완강하지만 무지하여 도저히 근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장로 · 감리의 목사 · 전도사 및 그 학생 등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미국 선교사과 함께 공공연하게 일단을 만들었으며, 또한 미 본국까지 움직여 일본에 대항할 정도로 연락 연계가 없다. 그리고 그 신도도 의외로 지식이 저급하여 근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학생단의 진보한 사상이 과연 제대로 이들을 이해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운동이 가능하였을까? 이미 그들은 평화적 방법을 취한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폭민(暴民)으로 변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생단의 진보 사상은 도저히 전체를 하나로 묶을 정도로 강하고 철저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이 소요사건의 최대 약점이어서, 결국 중도에 좌절할지도 모르는 점이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은 세력이 모여서, 그것을 통일하는 중심력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제각각인 운동이 되어 당초의 목적을 잃고 그저 소요로 끝날 것이다.

〈출전 : 渡瀨常吉, 「朝鮮騷擾事件の眞相と其善後策」(雜錄), 『基督敎世界』 제1851호, 1919년 4월 10일〉

조선소요사건의 진상과 그 선후책(시론)

5

(11) 소요사건의 피해

우리는 이번 소요사건이 결국 진정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미 많은 피해를 남긴 점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청년 학생이 학업을 중지하고 유태방일(遊惰放逸)에 빠졌듯이, 분리 독립의 외침으로 병합 이래 융화의 정신을 잃었고 안타깝게도 배타적으로 되어, 소극적으로 변해 경성 및 지방에서의 점포가 문을 닫고 그 영향은 커서 경제상 중대하다 하겠다.

(12) 우리의 소견

우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독립의 기치는 조선에서는 마치 훌륭한 깃발인 양 아무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 열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지성으로 독립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그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오랫동안의 불공평과 그 하는 일이 막히자 그것을 타개하고자 소요를 일으킨 천도교(天道敎)와 같은 무리도 있다. 그 운동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비장하게 근세적 사상의 흐름을 주장하는 것에 심각한 점이 있어 동정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의식에서 볼 때, 신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는 그 형제이므로 한층 포용

적으로 내선(內鮮)을 크게 이루는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 조선은 조선인을 위한 조선이라 외치고, 조선 재주의 일본인과 외국인까지 배척할지, 실로 독립의 미명 아래 쇄국주의를 행하려는 자, 이른바 독립자는 조선을 세계의 대세에서 역행시키고, 독립을 위한 단독의 세계적 포부도 없이 은둔국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이번 운동에 이미 역역하게 나타나, 지도자의 오류를 슬퍼한다.

만약 기독교의 주된 목사 · 전도사가 이번 사건에 참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마약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신을 배신하고 기독교의 사명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이미 기독교도가 아니다. 기원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직접 무기를 들고 로마에 항거한 것은 그 의기가 장대하기는 하지만, 결국 유태 민족은 오늘날과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았는가? 당시 로마에 대항한 유태인은 모두 유태교이지 기독교도는 아니었다. 당시 기독교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적국인 로마를 저주하기 않고 그를 위해 축복을 기원할 만큼 초월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로 · 감리의 신도가 그 이름은 기독교도이지만, 사실은 유태교도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적을 위해 복음을 기원할 만큼의 수양과 신앙이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심을 버렸으므로 결국 조선 민족이 신의 성지에 돌아올 것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미숙함과 불철저함을 슬퍼하는 것이다.

(13) 일본조합교회 신도의 태도

같은 기독교도이지만, 우리 일본조합교회 회원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일본조합교회는 일본인과 협력하여 포교 전도에 종사하고 있는 일단으로, 이번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조선을 사랑하는 점에서는 다른 조선인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독립이라는 일을 특별히 꺼리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유태교적인 입장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적을 위해 기도하는 아량을 갖고 신의 완전함처럼 완전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조선을 작은 쇄국적 상태로 이끌고 싶지 않으며, 대일본제국 안에서 커다란 요소로서 대륙 발전의 대이상을 가지고 천부(天父)에 의해 양 민족이 새로운 영적 일치의 행동을 취하여 진정한 형제자매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이 양 민족이 결합하면 세계 진보에 크게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 일본조합교회에 속한 200여 교회, 2만여 신도가 의연하게 13개 도의 대소요 속에서 우뚝 솟아, 공공연히 그 주장을 내걸고 나아가는 이유이다.

6

(14) 선후책(善後策)

이번 소요가 일본인에게 뼈아픈 반성을 안겨준 점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이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그들에게 군림하는, 그리고 세계의 반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일본인의 반성과 같은 개혁은 안중에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일본인의 정신적 진보는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부도 조선의 미래를 고려해 대개혁을 실시하고, 조선인이 희망하는 참정권, 언론출판의 자유, 내선인의 절대 평등한 대우,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개선을 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에서는 내선인 융화 기

관을 설립하여 되도록 서로 협력일치의 미풍양속을 조장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길을 강구한다면, 적당한 선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소요가 독립의 표방으로 시작되어 과격한 파괴로 끝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동맹파업처럼 전후 고려 없이 하는 동맹파업이 앞으로 만연하고 결국 중대한 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나, 어쨌든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느낌도 든다. 원래 민주 사상과 과격 사상은 아주 작은 차이만이 있어, 자칫하면 조선 2천만 동포를 잘못되게 하고, 일본에 피해를 주는 일도 생각할 수 없으나, 이는 다소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

만약 이번 불행을 크게 바꿔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병합의 대목적을 달성하여 조선 동포의 진보와 행복을 위해 가급적 노력과 시책을 펼치며, 앞으로 양 민족의 결합일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우리 일본의 동포도 이 일을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또한 이를 경솔한 백성의 난으로 보는 일 없이, 이 또한 세계 대전란에 따르는 파란으로, 그 안에는 근세 사상의 발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공명하고 동정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조장·제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근세 사상이 매우 편협한 분리 독립으로 나아가고, 게다가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면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건전한 사상의 발달을 꾀해야 한다.

우리 일본조합교회 회원의 행동에 비추어 건전한 사상의 배양이 얼마나 긴요한지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사상은 건전한 신앙에 입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업이 오늘날 3배 혹은 5배의 영역에 달하는 오늘의 화(禍)를 지금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근본 선후책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전도사업을 철저하게 확장하여 국가의 영원한 대계(大計)를 완수하는 것 외에 없다고 본다.

〈출전 : 渡瀬常吉, 「朝鮮騒擾事件の眞相と其善後策」(時論), 『基督教世界』 제1852호, 1919년 4월 17일〉

(4) 이른바 한국전도의 성공에 대하여

프랑스 몽토방 신학교 교장 보어 박사의 담화를 통해 복음신보(福音新報) 기자가 쓴 한 구절에,

"한국 전도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것입니다. 인구 45만의 도시에 만 명 이상 즉 인구의 3분의 1이 모두 기독교 신도가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중략) 더구나 이는 불과 7, 8년 동안의 수확이라는 점에는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보어 박사처럼 여행적 관찰을 하는 인사가 한국 전도의 성공에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를 일본 아울러 구미 제국(諸國)에서 보는 듯한 기독교도와 동일시

한다면 그 관찰의 오류에 슬프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국민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시켰고 한국 국민의 도덕적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실망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전도의 효과라고 할 만한 신도가 전도상의 새 경지를 개척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종교상의 성공 역시 매우 미심쩍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 전도의 효과도 특히 국민 생활에 반영되지 않고 도덕상의 진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항상 보고 있어 유감스럽다. 만약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도가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동시에 일본의 불교계가 한국에서의 포교 역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특권을 낳을까 우려된다. 불교도의 포교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종파(宗派)처럼 내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모은 학생 260~270명에 대해 동일한 시간을 들여 약 30배의 신도 즉 6,000명 이상의 신도를 명부에 올려, 집회 때에는 강당에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 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로 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거의 몇 천 명의 남녀가 참가하는 성황을 이룬다. 내 사업의 진보를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그들 사업의 진보를 눈부시다고 하는 것은 종종 미심쩍은 생각을 낳기도 한다. 그리고 이 종파의 전국 신도 수는 수 만 명을 꼽으며, 한때에는 일진회(一進會)의 지도에 대항하여 세간의 이목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불교 신도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불교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감화를 그들의 덕성에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우리는 그 신도라는 자들이 사실 오합지졸로 도덕상 단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포교의 성공으로 보는 승려도, 또한 이를 성공한 사업으로 보는 세인들의 천박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독교의 전도 결과인 이른바 신도의 품성 · 도덕을 살펴보면 불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대체로 접근하는 자들은 50보 100보의 차이는 아니더라도 40보와 50보의 차이 정도는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재한(在韓)하면서 직접 목격하고 마음 아파하였다. 보어 박사의 말을 듣고 주로 그 결과에 따라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려 한국 신도에 대한 통절한 철안(鐵案)임을 알았다. 한국 전도가 지금 한층 실질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신도의 불행임과 동시에 동양의 기독교 그 자체의 불행일 것이다. 한국 전도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분려(奮勵)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主) 사업에 충(忠)한 이유의 일단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재한(在韓) 전도에 종사하는 제형(諸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출전 : 渡瀨常吉, 「所謂韓國傳道の成功に就て」(教界 時論), 『基督教世界』 제1241호, 1907년 6월 13일〉

(5) 한국전도론

여기서 말하는 한국 전도란 한국인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한(在韓) 일본인의 전도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론에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이미 한국에는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착착 성공을 거두고 있

다는 소문이며, 지금 일본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한국 전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일본인이 전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일본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기독교 측에서 보아도 불행한 일이며, 한일(韓日) 관계, 나아가 일본의 동양에 부여된 천직(天職) 측면에서 더 없는 불행일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의 대한책(對韓策)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밀사사건(密使事件) 이후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어이없는 형세로, 표면적으로는 한일합병(韓日合併)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거의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신조약(新條約)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우리도 이를 의심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정치상의 성공은 사실상의 효과로 충분하며, 전도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이다. 일국(一國)을 요리하여 그것을 안배(案排)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화란(禍亂)을 막는 것은 본래 정치가나 군인의 임무이다. 아울러 그 정치적·군사적 성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위복(威服) 상태를 일변(一變)하여 열복(悅服) 상태로 만들어, 고압위억(高壓威抑) 아래에서 원한을 가진 인심(人心)을 다독이고, 고압위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 정사가(政事家)·군인이 할 수 없는 인심 회유(人心懷柔)의 도(道), 온유위무(溫柔慰撫)의 도(道)로 그들을 안도시키는 일은 종교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써 비로소 정사도 군인도 그 훈공(勳功)을 보전(保全)하고 또한 그 시책의 효과를 영원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치국(治國)의 요도(要道)는 문무양가(文武兩家)에 덕교(德敎)의 임무를 가진 자를 더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함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서의 성공은 다른 열강의 야만국 혹은 미개국과 비교하면, 결코 동일하다고 논할 수 없다. 거친 치료(荒療治, 거친 개혁)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한국인 측에서 보면 매우 고압적 수단이며 거친 개혁일 것이다. 그러나 일국(一國)의 화란(禍亂)을 끝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시대든 다소 거친 치료 방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방식에 다소 논쟁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는 시책이며 오히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가 오늘날까지 해 온 정치적 행동을 계속하고 혹은 신 한일조약을 활용해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도덕이든 종교든 필요가 없다. 교육이든 전도든 해가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든 상관없다. 지금처럼 밀고 나가면 한국은 일본 것이 된다. 일본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이와 같은 논조(論鋒)로 좋다면, 이는 매우 사려가 부족한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사려가 부족한 정치의 종국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고 고금(古今)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심(人心)의 이반이다. 인심의 이반이라는 것은 실로 미묘한 인간 마음의 움직이라면, 사려(思慮) 있는 정치가나 군인은 결코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반드시 이를 방지할 길을 미리 강구해 놓는다. 그리고 이를 강구하는데 반드시 그 요령(要)을 얻는다. 그 길을 강구하여 사랑을 얻지 못하면 그 길을 강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길이 정치가·군인이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이 보다 더 나은 것은 이를 덕교(德敎)의 인사에게 맡겨, 도에 통달한 사람을 도와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정치가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대한(對韓) 사업을 단지 우리 문무관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일본

제국의 대사업, 우리 일본 국민의 대사업이라고 여기고, 정치가나 군인의 표면적 훈공을 조성하기 위해 이면에서 활동을 하여, 이들의 손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길이라고 믿고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이를 탓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모두 일어나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국민을 대표하여 제국의 의지를 대표하여 스스로 임무를 맡을 인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 전도해야할 사람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의 대표적 감정 · 이상을 가진 종교가이다.

왜 이러한 종교가의 전도가 필요한가는, 바꿔 말하면 왜 한국에 일본인 전도자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영국과 미국의 전도자라도 단순한 기독교의 전도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잡다한 자나 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국 전도가 단순한 복음만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연유가 있다. 이는 외부가 아니라 한국인의 지식을 이끌고 또한 한편으로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서로 통하는 이해 관념을 갖게 하고, 서로 인류로서의 동정 동감을 갖고 함께 동양의 문명을 개척하는 자로서 동료 동감의 염(念)을 갖게 해야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퍼져있는 종래의 악감정 혹은 그 오해를 융해소산(融解消散)시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상 · 감정을 가짐과 함께 세계의 대세를 결합(合點)하여, 세계 인문(人文)의 발달에도 통효(通曉)해 그들 사이에 복음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상 · 감정은 종교상의 신념을 서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사상 · 감정을 갖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의 경문(經文)을 강독하고 신앙에 이끌려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의 실현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욕(利慾)의 염(念)이나 이달심(利達心)이 복음과 함께 작용하는 것은 본래 동화할 수 없는 것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므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애국심이나 동정심은 원래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를 복음과 함께 작동시키는 것은 이것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며 또한 신이 그 사람을 복음화하는 증거이며 영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으로서 진정한 복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가나 군인과 암묵적으로 제휴하여 이 대사업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본 제국의 동양, 특히 한국에 대한 국책이 결코 한두 명의 우리 정치가의 사심(私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는 일본이 세계의 대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의(天意)였다고 생각한다. 이 국시(國是) · 국책(國策)을 잘 결합하고 또한 그 뜻을 지켜 이것이 자못된 길(邪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 진정 한일동화(韓日同化) 동양 문명을 위해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정치가, 특히 총명한 이토 후작(伊藤侯爵)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그런 인물을 환영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도자는 반드시 정치가의 환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일본인인 우리가 한국에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졌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만이 한국에 전도를 하고 일본의 전도자가 일체 관계하지 않을 때, 정치 · 경제 · 법률 · 문학 · 교육 등에서 직접 일본의 지도 · 감화를 받으면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만은 외국인만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이들 간의 연락

이 불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밤낮으로 진보·발전하고 있는 종교 사상 및 일본인의 가장 진지한 신념에 접할 기회를 잃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측면을 보아도 한국민 사이의 전도가 일본인을 기다리고 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한인(韓人)은 매우 제도(濟度)하기 어려운 자이며 교화 가망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쟁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 대응할 가치도 없기는 하지만, 이는 본래 인류가 어떤 자라도 교화를 이겨낸 자는 없다고 하는 근본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전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을 미리 계산하고 전도를 취사한다는 것은 전도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또는 한인이 도저히 교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 일본의 정치가는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개선도, 재정 개량도, 교육 보급도 사실 표면적 장식이라도 이는 마음에도 없는 겉치레 사업이라고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가령 한인의 교화가 쉽지 않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각종 좋은 시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치나 교육은 한인 교화의 한 방법이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전도적 교화는 분명 가능하다. 세간의 일이 무엇이든 그 사람을 기다려 비로소 행해지는 것이라면, 정치적 일이나 정부의 사업으로서의 교육이 실패하더라도 이때문에 종교적 전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하물며 정치·교육·경제·법률 등의 방면에도 점점 성공한다고 보면 오늘날의 종교적 방면의 성공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는 10년간에 걸친 교육 실험상 반드시 일본인의 한인 전도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그(적합한) 사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바람은 우리 전도 당국의 인사도 더욱 생각을 거듭하여 한국 전도에 착수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회가 무르익고 있는 오늘이므로 식자(識者)가 이 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전 : 渡瀨常吉, 「韓國傳道論」(教界時論), 『基督教世界』 제1250호, 1907년 8월 15일〉

(6)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읽는다(논설)

7월 17일의 복음신보(福音新報)는 사토(佐藤繁彦) 씨의 「조선인 전도의 위기」라는 제목을 단 글을 하나 게재하였다. 사토 씨는 오사카(大阪)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실린 무라카미(村上唯吉) 씨의 담화를 바탕으로 입론(立論)하였다. 7월 1일 아사히신문에 기재된 무라카미 씨의 담화가 노골적인 조심성이 없는 글이라는 점은 나 역시 느꼈다. 무라카미 씨가 조합 교회(組合教會)의 한 회원으로 참사(參事)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합 교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취해 놓았다. 그러나 이 기사는 신문기자의 악랄한 폭로적인 면이 있어 무라카미 씨의 부주의가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이는 무라카미 씨를 동정하는 개인적 관계상 그렇다는 것이고, 무라카미 씨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하든 그것은 무라카미 씨의 자유이고, 그것은 저어도 우리 조합교회와 관계는 없다. 사토 씨의 복음신보에 실린 글은 무라카미 씨의 담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조합 교회에 경고를 한 것이리라. 이 점 사토 씨의 친절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토 씨의 친절이 지금 한층 철저하여 무라카미 씨의 담화에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당장 취해 재료로 삼아

조합 교회의 전도사업을 비판한 것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의심스럽지 않은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 주를 믿는 형제로서, 또한 조선인 전도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친절이 있다면, 신문기사들에는 다소 의문을 갖고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토 씨는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한 신문 기사를 포착해 곧장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주장한다. 게다가 그 문의(問議)는 반드시 우리 조합 교회에 경고를 하려는 친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썼는지, 이 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사토 씨는 무라카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이름을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조합교회 조선전도 본부 참사인 사람으로 의심의 여지 없는 종교가이다. 그런데 사토 씨는 무라카미 씨를 모르듯이, 참사라는 직책에 대해서도 모르는 듯하다. 모른다면 이단 무라카미 씨가 어떤 사람이고, 참사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 물어본 다음에 글을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모르고 그 대표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고 종교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 상상에 따라 과장되게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주장한다. 종교가라는 의미가 단지 일개 기독교 신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토 씨의 추측은 맞다. 그러나 사토 씨의 글에 의거하면 종교가라는 의미는 불교도가 왕왕 우리 기독교의 목사·전도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의미와 비슷하다. 즉, 사토 씨는 무라카미 씨가 참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 교회의 교사라고 보고 입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라는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7, 8명으로 특별히 구성된 자문기관의 일원으로, 이는 전도 주임이 편의상 설치해 놓은 교무(敎務) 책임이 전혀 없는 명예직일 뿐이다. 그저 한 신도로서 참사라고 부르는 명예직에 있지만 조합 교회의 교무나 전도에 책임이 없는, 한 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즉각 포착해 위기라고 부르며 재료로 삼는 것은 사토 씨가 한 교회의 목사라는 중책인 자리에 있어 지나치게 경솔하지 않았는가, 사토 씨가 무라카미 씨의 인물 및 참사라는 직책에 대해 알고자 했으면 엽서 한 장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사토 씨는 이를 하지 않고 곧장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주장한 것이다. 무라카미 씨와 참사의 직책을 중대하게 봄과 동시에 우리 조합 교회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친절에 불탔던 것인지. 조합 교회에 대한 어떤 재료를 찾고 있고 취사선택할 사이도 없이 이를 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도, 사토 씨가 일본 기독교회의 목사라는 지위에서 매우 경솔하지 않았는가,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어쨌든 우리는 거듭 말하는데, 무라카미 씨는 참사임에는 틀림없다. 지금은 사임하였으며 우리 조합 교회의 업무 또는 전도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사토 씨가 이러한 사람의 언행을 지적하여 우리 조합 교회를 이것저것 비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일찍이 사토 씨가 일하는 교회의 장로 모 씨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오사카의 한 신문에서 갖가지 공격을 받은 일을 알고 있다. 이때문에 큰 치욕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단 한 줄의 비평도 내지 않고 모 씨의 입장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토 씨 식으로 말하면, 일본 기독교회의 장로로서 유명한 모 씨의 비행에 관한 기사는 교계(敎界)의 일대 중대사이며, 이를 바라봄에 그 부덕비륜(不德非倫)을 생각하게 하므로, 교계의 위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친분 있는 교회의 장로에 관한 기사임과 동시에, 신문기사에는 반드시 오류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급

하게 비평에 나서는 것을 피하였던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취한 조치의 경로인데, 지금 사토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의 행동이 신문에 실리자 허둥지둥 이를 재료로 삼아 즉각 우리 조합 교회의 행동을 비판하고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라카미 씨가 한 개인으로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의 양심에 따르면 되는 그의 자유가 아닌가. 그런 것을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고명(高名)한 종교적 경건한 염(念)으로 지적하니 과연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다소 의문이 든다. 사토 씨는 또한 "조합 교회의 전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 씨와 접촉한 결과, 그가 조합 교회의 전도사로서 부지불식 조선인에 대한 인격 · 감정을 잃고 조선인을 멸시하고 관리가 일본 인민에게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 교회는 평민적으로, 특히 조선에서는 관리와 인연이 적은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 조합 교회의 목사 · 전도사로 관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가 실제로 있겠는가.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러한 점에서는 사토 씨의 교파야 말로 그러한 일이 많고 또한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이 곧 조선인 전도의 위기라니 무슨 이유인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병이나 순사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조합 교회에 가라 고 조선인에게 권장하고 있다는 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당 헌병이나 순사의 마음이고, 이 소문의 진위여부도 알 수 없다.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총독부의 고등관이 연판장을 돌려 일본 기독교회의 집회에 사람을 초대하였다고 하는 소문과 비슷하므로, 이 역시 조선인 전도의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사토 씨는 "나는 조선인 전도에는 관련 없는 위치에 있지만 조선인 전도는 일본인의 전도자가 생각하듯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전도자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며, 앞의 문의(文意)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이는 우리 조합 교회의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전도는 결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만사가 어려움 투성이다. 중상모략도 있고 칭찬도 있다. 그 안에는 준비부족한 면이 많다. 어떻게 제대로 가겠는가. 이는 사토 씨가 믿는 그대로 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의 은혜가 충만함에 감사한다. 어려움 속에도 축복은 있다. 고통에도 감사는 있다. 다행히 신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사면하고 조선 반도의 동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의 전도는 결코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일상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우리에게 기개가 없어 더욱 분발하면서 신의 구원을 기원하고 있다. 이 작은 움직임이지만 지금 조선 반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 되었다. 제대로 가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마지막의 수확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사토 씨에게 심판받는 일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지만, 조선인 전도와 관계없는 일을 전제로 하면서 초창기의 우리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혼자서 믿으면 그것은 사토 씨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천하에 드러내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지 않은가. "일본인 전도사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라는 부분을 보면 사토 씨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억측하여 제대로 가고 있다던가, 그렇지 않다던가 단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토 씨의 추리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아닐까. 사토 씨는 "선교사는 일본에 와서 전도하였다. 많은 선배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그 선배들은 일본의 청년을 사랑하고 일본인을 사랑하였다."고 선교사를 찬미하였다. 이는 일본인의 조

선인 전도자와 대비를 한 것이지만, 이 구절만은 사토 씨의 글에 이상한 정채(精彩)가 있다. 사토 씨는 진심으로 일본의 선교사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토 씨의 선교사의 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은 없다. 다만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토 씨의 찬미는 과연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사토 씨는 또한 "일본인의 조선인 전도자는 과연 얼마나 선교사에 뒤지지 않는 사랑을 조선인에게 갖고 있을까"라고 탄식한다. 재일(在日) 선교사나 재조선(在朝鮮) 선교사가 사랑이 넘치고, 우리 일본인인 전도자가 의심스러운지 폭로하여, 우리도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사토 씨 자신이 그 전도사업에 종사하고 우리 동포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고 있는지, 또한 일본 기독교회의 목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품고 전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재조선 선교사나 재일 선교사가 품고 있는 사랑에 비해 어떤가? 만약 여러분의 품고 있는 사랑이 재일, 재조선 선교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사토 씨의 말은 선교사에 대한 죄 없는 찬미로, 이를 취해 이것저것 말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일본 및 조선의 전도사에 눈이 있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 기독교회의 교사 여러분은 과연 사토 씨를 따라 이렇게 찬미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조선 반도 동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토 씨의 말에 비추어 크게 노력을 하겠지만, 사토 씨의 조선인 전도 위기라는 것은 막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근거도 없는 것을 제목으로 게재하여 주장을 펼친 것이다. 즉, "잘 모르지만" "이렇게 믿는다" 라는 것에 불과하다.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일이 아닌가? 우리의 사업은 조선 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사실에 비추어 정확하게 비판하고 경고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토 씨의 주관적인 독단으로 다른 자를 심판하는 것은 교계의 평화를 해칠 뿐, 기독교의 복음 선전을 위해 아무런 이득도 없다.

〈출전 : 渡瀬常吉, 「'朝鮮人傳道の危機'を讀む」(論說) 『基督敎世界』 제1867호, 1913년 7월 31일〉

(7) 조선 전도에 대해 가시와기(柏木) 군에게 답하다(논설)

지난 11월 발행한 조모월보(上毛月報)에, 가시와기(柏木義圓) 씨는 조선 전도에 대해 나에게 몇 가지 공개 질문을 하였는데, 나는 12월에 이에 대한 답문을 작성해 기독교 세계에 투고하였다. 그런데 기자에게 일이 생겨, 게재가 늦어져서 지금 다소 단축하여 게재하게 되었다. 가시와기 군에게 지체되어 사과하고 이에 미충한 점을 밝히는 바이다.

가시와기 씨의 첫 번째 질문은 한일병합에 관한 것인데, 가시와기 씨는 졸저 중의 글을 발췌하여 질문을 하였다. 나는 가시와기 씨에게 한일병합에 관한 나의 논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정신을 보아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시와기 씨와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시와기 씨는 "조선 병합은 제국주의자의 성급함으로 이루어진 짧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한일합병이 두, 셋 정치가의 손에 의해 성취된 천박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세계 열강의 승인과 그 배후에 있는 수천 년 동안의 준비와 나아가 정치가들을 초월한 신의 위대한 경륜에 기초한 믿음인 것이다. 가시와기 씨는 한일병합을 제국주의자의 짧은 생각의 결과로 보고 있어, 병합에 의해 오게 될 어떤 새로운 사명의 자각도

없음에, 우리는 당사자가 의식할 수 없는 신의 경륜에 기초한 이를 의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대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 자각은 내가 자꾸 말하는 내선인의 일체적 융합의 대정신에 따라 동양에 태어날 새로운 문화의 수립이다. 그러나 이는 신앙의 법위에 속하므로, 가시와기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과 다투더라도 보람 없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로, 가시와기 씨는 내가 주장하는 내선일체의 이상에는 독립 정신도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질문이다. 만약 내선일체의 이상을 파괴하지 않는, 아니 그 사상과 병행할 수 있는 독립 사상이라면 엄격히 말해 독립 사상이 아니다. 또한 독립 사상이라고 해도 내선일체의 이상을 시인한다면, 이 역시 엄격히 말해 독립 사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선일체의 이상을 파괴하야 한일 대치 행동에 빠진 사상은 본래부터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포함하는 내선일체의 이상이라면 그 이상의 통일은 어디에 있어야. 가시와기 씨의 질문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시와기 씨의 질문에 대답함에 한, 두 가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 마디 해 두겠다.

그 하나는 가시와기 씨가 한일 병합에서 우리 일본을 " 타인의 아내를 탈취하여 내가 전 남편보다 좋고 너를 사랑하며 전 남편의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간부(姦夫)에 비유하고, 조선을 "정조가 있는" 부인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비유로 한일병합을 관찰하는 것이 근본적 오류가 아닐까? 국가의 병합이 정치상의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도덕 ·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단지 육욕(肉慾)의 충동으로 앞뒤 생각 없이 난행(亂行)을 저지른 간부(姦夫)와 마찬가지로 실행된 것이라는 시각은 과연 역사를 아는 식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식으로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역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러한 태도로 조선을 정부(貞婦) 대접을 하면 과연 조선의 생각 있는 인사가 수긍하겠는가? 그 배경에는 엄숙한 섭리의 손이 있어, 한일병합과 같은 대사(大事)를 간부간부(姦夫姦婦)가 한 것으로 일반화하면 가시와기 씨의 역사관도 너무 저급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와기 씨가 문천상(文天祥), 육수부(陸秀夫), 방효유(方孝孺) 등 중국 송나라, 명나라 말의 지사들이 귀신도 울릴 기개와 절개를 가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과 같다고 비유하며 한 가닥 빛줄기 같은 기운을 느낀다. 이 지사들의 정신을 멋없다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지사의 기개와 절개를 녹슬어 사라지게 할 것인가? 당장의 전도 목적인가?라고 묻고 있다.

나는 기독교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가시와기 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만약 조선에 있다면, 아니 진정 기독교의 참 정신이 신약성서를 통해 조선에서 작용하고 있다면, 과연 가시와기 씨와 동일한 경로를 취할 것인가? 기독교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고 말한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복음에 따라 우리는 신 앞에 나아가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그런데 가시와기 씨는 문천상, 육수부, 방효유를 그대로 기독교의 모범이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조선인이 그것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인을 신의 나라에 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양 구래의 복수의 정신,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이러한 정신을 버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 내어 신의 아들에 되기를 권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주장하는 가시와기 씨의 태도로서 어떨까?

세 번째로, 가시와기 씨는 소요의 원인에 대해 묻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총독부의 종래의 시책도 그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원인도 있다. 각종 선동도 있다. 세계적 분위기가 이를 부채질하기도 하였다. 다만 우리는 사실에 상당히 근접해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가시와기 씨는 수원사건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해당 사관(士官)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대죄를 범하게 된 원인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관이 함부로 대죄악을 범하고 고의로 학살을 범한 것처럼 보도하고, 이를 통해 상사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그리고 일본 국민의 태도인 것처럼 비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시와기 씨가 이렇게 비난하는 점에 이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범죄자를 낳은 원인을 간과해서는 일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목소리만을 높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 자들의 심사를 천박하게 여길 뿐이다.

다섯 번째로, 가시와기 씨는 익명기부에 대해 물었다. 이는 총독부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혀 조건이 없었다. 가시와기 씨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미 잘못된 지적인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신교(信教)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소란을 피울 정도의 일이 아니다. 왜 전혀 조건 없는 기부를 받는 것이 신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일까? 이로 인해 조합교회는 얼마나 위신을 실추하였는가?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상처 입히고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 · 주장을 믿고 우리의 인격 · 신앙을 신뢰하여 우리에게 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전도 성업에 활용할 수 있다. 동산장(東山莊)에 모인 사람들의 결의가 우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는 완전히 빗나간 결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 조선의 교회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단지 교회의 조직을 되도록 조선에 적절하도록 다소 구습(舊習)에 따른 데 불과하다. 이를 가리켜 특별한 취급이라고 하여 암암리에 특수부락 취급을 한 것처럼 연상을 하고 있는데, 가시와기 씨야 말로 조선의 기독교 신자를 문천상이나 육수부, 방효유로 하려고 권하고 있으므로 특별 취급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일곱 번째로, 가시와기 씨는 우리가 한편으로 조선의 교화를 일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느끼고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왜 양립하지 않는가. 미국인이 자국의 영토에 전도할 때 다소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배척할 것인가? 영국인이 그 영토 내의 전도에 대해 다소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그것을 비난할 것인가? 우리는 조선이 우리와 병합하기 전부터 활동하였다. 병합으로 조선을 더욱 관찰하고 동정하며 신뢰하게 되어, 일본을 사랑하기에 더욱 조선의 동포도 사랑한다는 생각이 깊어져, 복음 선전을 위해 활약하는 일이 왜 부적절하다는 지. 가시와기 씨처럼 일본을 간부(姦夫)로 비하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며, 일본을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자로 이해하는 우리는 일본인이기에 더욱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상 충분치 않은 점도 있으나, 가시와기 씨가 공평하고 동정 어린 태도로 보아주면 내 진의를 짐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출전 : 渡瀬常吉, 「朝鮮傳道に就て柏木君に答ふ」(論說), 『基督教世界』 제1896호, 1920년 3월 4일〉

(8) 조선전도 일진전기(一進轉機)(논설)

(1) 회고와 감사

우리 조합 교회가 조선 전도에 착수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나는 그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이 사업에 종사해 온 일본과 조선의 여러 교사(教師)들의 10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보내며, 우리 교회 형제들의 동정과 교회 밖 여러 유지들의 후원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다행히 신의 큰 은혜를 입어 내와 여러 유지들의 아름다운 뜻을 져버리지 않고 오늘을 맞은 것은 후원자 여러분의 관대함과 신뢰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더 한층 노력하여 초기의 대목적을 이룰 것이다.

우리 조합 교회의 조선에서의 사업 성적은 물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겨자씨는 성장하고 있다. 곧 작은 새들이 날아들 것이다.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조합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 목사·전도사의 신앙과 인격 향상에 유의하였다. 동시에 교회의 안에 기독교 정수(精髓)·본령(本領)이 서도록, 나아가 바울의 이른바 "기독교의 상(像)"이 회원 각자의 진심이 되도록 주의하였다. 이 역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의 은혜가 있어, 우리 여러 동료는 그 인격이 눈에 띠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늠름하게 누구 앞에라도 설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교회 내에도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 감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미의 가장 진보한 사상이 조선에서는 직접 조선의 역사, 문화, 윤리의 배경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점에서는 어떤 신사상에 나와도 현혹되거나 당황하거나 신앙을 실추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회 그 자체는 다소 성공을 거두었으나 각성한 자를 불만에 빠지게 하고 회원을 신사상과 만나 회의에 빠지게 하여, 결국 신앙을 잃도록 배양(培養)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2) 겨자씨는 성장하였다

겨자씨 하나의 성장은 단순하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이 겨자씨 안에 작용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겨자씨 하나의 성장 법칙이나 생명력 그 자체의 연구가 충분하면, 모든 생물의 성장 법칙이나 생명의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겨자씨 하나도 우주의 대관섭(大關涉)이 있으며, 용이한 부분에서는 이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조선에서 영계(靈界)의 겨자씨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한 우리 교회도 보기에 단순한 한 단체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특히 그 종교적·정신적 방면의 복잡함은 모든 영적 현상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어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가볍게 지적하거나 평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복잡한 정신 현상도 자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조합 교회의 교사 및 신도도 이러한 자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0년간의 진보·발전은 서서히 그들을 자각시켰으며, 지금 이 자각에 기초하여 행동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오늘날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교사 및 신도가 자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渡瀨常吉, 「朝鮮傳道一進轉機」(論說), 『基督教世界』 제1910호, 1920년 6월 10일〉

3.『기독신문』창간호

1) 발간사(1938)

1. 개신교 그리스도교가 반도(半島)에 선교된 지 이제 반세기가 되어, 그 발전상은 참으로 놀라운 바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조선 기독교의 발전은 대개 양적 발전이어서 마치 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음식물을 얻은 것처럼, 우선 받아들여 섭취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받아들인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도의 기독교도가 크게 각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들의 철저한 자각으로 더 큰 혁신이 일어나 아직 보지 못한 신천지가 전개될 것이라 믿는다.

2. 이번 사변이 발발한 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해 우리 국민은 거국일치(擧國一致)하여 국가적 대경륜(大經綸)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총후(銃後)의 적성(赤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도요원한 장래를 위해, 또 국민정신총동원의 목표 아래 인내하고 견디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역사적 비상시국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도에게도 현재 그야말로 비상시기인 것이다.

오늘날의 시국이 조선반도 민중들에게 큰 각성을 준 동시에 기독교도도 홀연히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아시아적, 대국가적 이상, 즉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그 사명 수행에 희생적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기꺼이 국민적 본무(本務)를 다해야 한다. 한편, 선교사가 전하는 그대로의 종교를 조선화하고, 아니 일본화하고 동양화하여 찬란한 정신적 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러한 때에『기독신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황도정신(皇道精神)이 동양 민중을 인도함으로써 항구적인 복조(福祚)를 주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에게 광명과 평화를 주려는 것은 신세계사적 창조의 위대한 이상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 인류의 갱생을 도모하고 그 영원한 행복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치하여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 건국적 이상을 실현하는 도중에 정치, 경제, 문화라는 세 방면의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류의 신생운동인 기독교는 문화운동을 조성하는 중심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4. 오늘날의 비상시국은 일반 국민의 견고한 단결을 강조하고, 특히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고조(高調)하여 그 결실을 거두는 일에 만전을 기할 때이니 만큼, 특히 반도에 새로운 기독교운동을 일으키려 하는 우리는 글자 그대로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앙 속에서 과거의 모든 편견과 오해를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과거의 조선반도 기독교 교회에서의 언론기관으로서 처음에는『예수교 회보』와『그리스도교 회보』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합병하여『기독신보(基督申報)』가 되어 오랜 동안 그 역할을 맡아왔지만, 그것은 선교사의 사업기관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크게 각성해야 할 역사적 시기를 계기로 태어난『기독신문』은 반도에서 각파의 기독교회의 공정한 기관인 동시에, 전 기독교 신자들의 공기(公器)와 눈과 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형제자매는 우리의 이러한 진심에 찬동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애호와 편달을 하고, 본지를 통해 반도의 기독교회와 민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국가에 조금이나마 공헌하는 바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출전 :「發刊の辭」,『基督新聞』제1호, 1938년 8월 16일〉

2) 조선의 기독교 개황, 사고(社告)

기독교가 처음 반도에 전래된 것은 멀리 18세기 중엽, 조선에서 청국에 사신으로 간 자가 베이징(北京)에서 천주공교의 성서를 구입해서 들어온 데서 시작되었다.

최초 경기도 양평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전라도 방면에까지 확산되었는데, 조선 고유의 조상숭배의 풍습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이조시대의 정조 8년에 정부의 금지령으로 인해 신도들은 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서적은 몰수되었다.

그 뒤 헌종 2년,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에 포르투갈 선교사 피에르 모방이 먼저 입국하고 이어서 2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순식간에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 전도를 하였지만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에 힘을 기울였고 점차 교세도 다시 확장되기 시작하던 차에, 이태왕(李太王) 초년 대원군의 대박해가 있었다. 그 뒤 이태왕 10년, 대원군이 세력을 잃고 정치적인 관계를 끊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단속도 점차 관대해졌고, 이태왕 19년 이후 유럽 각국과의 외교관계 성립과 더불어 각 거류지의 포교를 공인하였다. 또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묵인한 결과 천주교는 다시 기세를 회복하여 융성의 길을 걷고 있다.

개신교의 선교는 이태왕 21년경(1884년) 메소디스트파의 메클레이, 북장로파의 알렌 등이 조선에 들어왔고, 이어서 장로파의 H. G. 언더우드, 메소디스트파의 H. G. 아펜젤러, W. B. 스크랜튼이 입국하여 경성과 평양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또 학교와 병원 등의 경영에 착수하였다. 그 이후 선교사 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교세는 날로 발전하여 1912년경에는 이미 신도 수가 10만 명에 달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두 파 이외에 각파의 선교가가 건너와 현재 외국 선교사와 관계가 있는 교파는 성공회, 안식일파, 동양선교회, 구세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순절교회 등 8개 파이다. 조선인 측에서는 1918년 전 장로파 목사 김장호(金庄鎬)가 별도로 황해도 봉산군에 조선기독교회(朝鮮基督敎會)를 조직하였고, 아울러 1922년 유일선(柳一宣)을 중심으로 조합교회계의 조선회중교회(朝鮮會衆敎會)가 설립되었다. 그 밖의 하나님의 교회, 예수교회, 복음교회 등이 있다.

일본인 측에서는 1904년 일기전도국(日基傳道局)에서 아키모토 시게오(秋元茂雄) 씨를 파견하여 같은 해 메소디스트, 조합파가 건너왔고, 또 홀리네스, 기독동신회 등이 있다.

각파의 개황을 숫자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문주(李文主) 목사
   1) 교회 수 3,326
   2) 신도 수 304,230
   3) 교역자 수 1,865
   4) 선교사 수 208
   5) 일요학교 학생 수 365,494
2.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사(總理師)(감독) 양주삼(梁柱三) 목사
   1) 교회 수 905
   2) 신도 수 58,583
   3) 교역자 수 435
   4) 선교사 수 91
   5) 일요학교 학생 수 48,737
3.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총리(總理) 길보륜(吉寶倫, E. A. Kilbourne)
   1) 교회 수 208
   2) 시도 수 15,661
   3) 교역자 수 239
   4) 일요학교 학생 수 10,682
4.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관리자 오벽(吳璧, Harold. A. Oberg)
   1) 교회 수 157
   2) 신도 수 5,096
   3) 교역자 수 59
   4) 선교사 수 9
5. 구세군
   사령관(司令官) 위일선(魏一善, Thomas E. Wilson)
   1) 교회 수 119
   2) 신도 수 6,387
   3) 교역자 수 167
   4) 선교사 수 19

6. 성공회

관리자 쿠퍼(具世實, Alfred C. Cooper)

1) 교회 수 116

2) 신도 수 8,688

3) 교역자 수 100

4) 선교사 수 27

조선기독교회(朝鮮基督敎會)

관리자 김장호(金庄鎬)

1) 교회 수 1

2) 신도 수 41

3) 교역자 수 1

조선회중교회(朝鮮會中敎會)

관리자 양재기(梁在璣)

1) 교회 수 2

2) 신도 수 3, 132

3) 교역자 수 10

기독교회 조선선교회(基督敎會朝鮮宣敎會)

관리자 이인범(李寅範)

1) 교회 수 3

2) 신도 수 214

3) 교역자 수 4

예수교회

관리자 이호빈(李浩彬)

1) 교회 수 25

2) 신도 수 1,350

3) 교역자 수 20

하나님의 교회

관리자 송태용(宋台用)

1) 교회 수 17

2) 신도 수 670

3) 교역자 수 19

기독교 오순절교회(基督敎五旬節敎會)

관리자 박성산(朴聖山)

1) 교회 수 3

2) 신도 수 130

3) 교역자 수 9
4) 선교사 수 3
기타
조선복음교회(朝鮮福音教會)
감독 최태용(崔泰鎔)
조선예수교회(朝鮮耶蘇教會)
관리자 이만집(李萬集)
기독교회(基督教會)
기독의 교회
나사렛교회
형제동신회(兄弟同信會)
순복음교회(純福音教會)
일치교회(一致教會)
동아기독교회(東亞基督教會)
조선기독교회(朝鮮基督教會)

사고(社告)

본지는 지난 7월 8일자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을 인가받아 여기에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본래 취의(趣意)도 당국의 요망도, 본지는 조선에서의 각파 기독교회계(界)의 공기(公器)가 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큰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독신문사

〈출전 : 「半島に於ける基督教の概況, 社告」, 『基督新聞』 제1호, 1938년 8월 16일〉

3) 각지 명사들의 축사

(1) 강필성(姜弼成), 시국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정신계의 목탁이라는 사명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여기에 조선 『기독신문』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국의 동양평화 확보라는 목적 아래 단호히 횡포한 중국을 응징하는 행동을 일으킨 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우리 충용무비(忠勇無比)한 황군의 과감한 활약과 총후(銃後) 국민의 강력한 일치단결로 착실히 미중유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달성을 하기에는 아직 전도양양(前途洋洋)하고 우리 총후 국민은 한층 더 거국일치하여 인내심을 길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국가 비상시국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온건한 보도기관으로서 국가 사회의 목탁인 언론기관으로서 창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크고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시국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협심육력하여 총후의 종교보국에 정진하여 국운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사운(社運)의 융창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창간을 맞이하여 짧은 소감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姜弼成, 「時局の重大さに鑑み國民精神界の木鐸たるの使命の完うを望む」, 황해도지사)

(2) 김동훈(金東勳), 사십만 신도의 계발기관으로서 노력하라

조선의 기독교가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한편, 교육 교화, 의료 등 각 방면에서 반도의 문운(文運)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늘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인데, 일부 신도들 중에 자칫 그 '하나님의 계율'이라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민으로서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에 머리를 숙이는 것과 기독을 예배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과거의 잘못된 태도를 청산하고 황국 비상시의 파도를 타고 총후보국의 각종 사업에 정진하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해, 나아가 기독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기독교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큰 비약을 하려고 하는 바로 지금, 전 조선의 40만 신도들의 계발 기관으로서 『기독신문』이 발행된 것은 진심으로 경축할 일이고, 시국이 더욱 중대해지고 있는 관계상 크게 분투하고 노력할 것을 염원해마지 않는다.

(金東勳, 「四十萬信徒の啓發機關とらて努力せよ」, 충청북도지사)

(3) 김대우(金大羽), 국민의식의 계발에 보탬이 되라

작금의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건국의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방면에 걸쳐 이른바 국가총력 기능을 발휘하여 성전(聖戰)의 궁극 목적 달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래 각종 보도기관이 온전하고 중립적인 논지를 펴면서 사회 교화에 있어서 보탬(裨益)이 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보도는 더욱 공고한 국민적 의식 위에 서서 신속하고 정확하며, 아울러 보편적이자 교화적인 부분은 필요불가결의 요건이다. 이태리 및 독일에서는 선전성이라는 성(省)이 설치되어 국책의 수행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주 내각정보국에서 『주보』를 발행하여 국책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본 총독부에서도 통보를 발행하여 민중들이 시국을 정당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국책 수행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기독교에서는 각파의 합동 이상 아래 새로이 신문지법에 따라 『기독신문』을 발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다. 종래 조선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교세가 크고 신도 수도 가장 많으며

또 근래 국민적 의식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본지의 발행으로 이러한 방면의 계발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창간을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발전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金大羽,「國民意識の啓發に裨益おれ」,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장)

(4) 김시권(金時權), 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도보국에 매진하라

이번 사변 발발한 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거국일치하여 더욱 총후(銃後)의 단결을 견고히 하고 성업(聖業)의 목적 달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랜 시간 반도의 종교계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계자가 진정으로 일본정신에 입각한 전도보국(傳道報國)을 다짐하고 참으로 전선기독교연합회(全鮮基督敎聯合會)의 발회(發會)가 있었고, 더 나아가 이번에『기독신문』이 창간된 것은 진심으로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의 기독교 포교는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보였고, 도시와 농촌을 통틀어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일반 민중에 접촉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저한 특색은 신도(信徒)에 상당히, 게다가 비교적 지식계급의 남녀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런 점에 조선반도의 기독교가 종교를 통해 사회의 사상 선도에 공헌하는 바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변의 진전에 따라 국가총동원의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모든 기관을 통해 국민의 강고한 단결이 기도(企圖)되어 오는 바 우리와 같은 조선의 기독교 관계자도 이에 홀연히 일어나 진정으로 황국신민으로서 전도보국의 적성(赤誠)을 다하기 위하여 각파가 협력하여 시국에 대처하게 된 것은 자못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 시국하에 놓여 있는 신문의 중대한 사명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의 대정신을 널리 민중에게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총후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한 동아의 평화 달성을 목표로 한 이번 성전(聖戰)의 목적 달성에 협력하는 데 있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명 수행을 근간으로 하여 앞으로 조직 내용의 강화를 도모하고 신문을 통한 민중의 정신생활의 충실, 총후의 단결 강화에 기여하여 전도보국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감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金時權,「日本精神に立脚して傳道報國に邁進せよ」, 강원도지사)

(5) 김활란(金活蘭), 기독교의 재건 공작의 사명을 다하라

암흑의 어둠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귀보(貴報)의 발간을 맞이하여 기쁨을 금할 수 없다.『기독신문』의 출현은 갈등과 분규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반도의 기독교계에 명성(明星)이 나타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매호(每號) 평화로운 복음의 진리를 가득 게재하여 기독교인의 모든 가정에 전하기를. 그리고 기독교의 재건 공작에 그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金活蘭,「基督敎の再建工作の使命を盡せ」, 이화여자전문학교 부교장)

(6) 니와 세이지로(丹羽淸次郎), 조선반도교도의 사상지도자가 되라

이번 신문법에 따라『기독신문』발행의 허가를 총독부에서 받아 8월 초순 창간호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반도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경축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동안 발간된 주보를 출판법에 의해 발간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지만,『기독신문』은 신문지법에 따른 것이라 하니 기사 보도에 있어서 운용상 매우 간편해집니다. 이제 시국은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보국의 정성을 다해야 할 때이니 만큼, 이 기관을 바탕으로 반도 기독교인의 사상을 이끌고 감정을 정화시키고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전도보국(傳道報國)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반도 13도에 걸쳐 여러 도시에서 기독교연합회를 설립하여 앞으로 이를 통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한층 더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참여하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신적 총동원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기독신문』의 창간은 이를 달성하는 의의를 갖고 있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경축하는 동시에, 김우현(金禹鉉) 사장을 비롯해 여기에 참가한 제군들의 책임이 중대함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분투(奮鬪), 용약(勇躍)하여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짧은 한 마디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丹羽淸次郎,「半島敎徒の思想指導者たれ」, 조선기독교연합회 위원장)

(7) 미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공헌하라

이번에 새로『기독신문』이 발행 허가를 받고 오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의 큰 이상을 현현(顯現)시키기 위해 정의응징(正義膺懲)의 군대를 움직인 이래 벌써 1년여가 지나면서 우리 충용(忠勇)한 황국장병들은 온갖 어려움과 결핍을 견디며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총후(銃後) 국민들 또한 일치단결하여 애국의 지성(至誠)을 바침으로써 성전(聖戰)의 목적 달성에 불굴의 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에서는 사변 발발 이래 내선일체, 모든 계층의 총동원 아래 총후 보국의 적성(赤誠)을 다해 전쟁터의 장병들로 하여금 뒷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전황은 중국 전체로 확대되어, 진정 사변의 종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내포한 소련 · 만주 국경의 풍운과 국제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움직임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전쟁 승리에 도취하는 일 없이 더욱 긴장을 새롭게 하고 작금의 황국의 중대한 시국에 대처하는 각오가 가장 긴요합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도의 언론기관인 본 신문이 발간된 것은 시의 적절한 기도(企圖)입니다. 그 의의와 사명은 무겁고 일반 민중의 기대도 참으로 클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건대 종래 기독교도들 중 일부에는 자칫 국체(國體)관념의 인식이 결여된 탓에 사상과 치안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사태를 야기한 사례도 있어서 실로 유감스러웠습니다만, 이러한 중대 시국에 있어서 모두 황국신민으로서의 적성에 불타고 내선일체, 물심일여(物心一如), 자진해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 참여하여 총후 보국의 체제에 한층 더

빛을 더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귀 신문의 지도에 따라 기독교도에 대한 황도정신(皇道精神)의 앙양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최선의 공헌을 다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독신문』 발간을 맞이하여 한마디 소감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三橋孝一郎, 「東洋永遠の平和の爲め貢獻せょ」,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8) 방응모(方應謨), 문화의 일대진전

이번에 귀보(貴報)가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종교·문화의 진수로서 그것을 선전하고 보급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와 같은 처지에서는 귀보의 사명이 한층 더 클 것으로 믿습니다.

(方應謨, 「文化の一大進展」, 조선일보사장)

(9) 백관수(白寬洙), 기독교의 약진

이번에 『기독신문』이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은 우리 신문사 역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것으로 경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와 조선민중의 관계는 매우 큰 만큼, 귀 신문의 사명 또한 클 것이다.

귀보(貴報)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기독교의 일대 약진이 있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귀 신문의 발전을 기원한다.

(白寬洙, 「督敎の躍進」, 동아일보사장)

(10) 사메지마 모리타카(鮫島盛隆), 섭리의 성업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올 봄 이래로 우리가 반도의 기독교계에 일어난 획기적 대사건인 '조선기독교연합회'가 결성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이라 믿고 있다.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인간의 움직임, 생각, 계획,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필요한 인간이 움직인 것뿐이다. 결코 한두 사람이 이룩한 일이 아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조선의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을 뜻(御旨)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이끄신 것이다.

이러한 대사건이 그리도 신속하고 순조롭게 성립되었다는 것은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돌이켜 보건대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하나님은 일치의 영(靈)을 우리 일동에게 내리신 것이다.

우리 일본 기독교도는 명실 공히 일본과 조선이라는 구별이나 편견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민중교화의 성업(聖業)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연합회가 만들어진 뒤 어떻게 반도의 전체 기독교인이 일치하여 전도보국(傳道報國)에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가슴속을 파고든 문제이었다. 단순히 건축물의 구도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때에 연합회의 기관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신문』이 발간되었다. 게다가 신문지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당당히 매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 사업을 맡은 사람은 연합회 탄생에 최대의 공헌을 한 김우현(金禹鉉) 목사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통감한다. 하나님은 이 기관과 기관을 움직이는 인물을 준비해 두시고 이를 세우신 것이다. 김 목사는 이 사업에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김 목사를 절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황국의 기독교도의 진로가 진실로 열릴 것을 기원한다. 성실하고 간절한 기원이 담긴 사업으로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鮫島盛隆, 「攝理の聖業」, 일본 메소디스트교회 조선부장)

(11) 언더우드(H · H · アンダーウト),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영어 '컨그래추레이션(Congratulation)'이라는 말에는 감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반도의 민중을 위해 기독교의 신문이 발행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유년시절에 시내의 정동정(貞洞町)에 있었던 우리 집 부근의 작은 건물에 최초의 기독교 신문의 사무실이 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문이 수많은 변천과 역운(逆運)에 조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끝내 최후의 운명을 거두는 것을 보고 매우 슬펐다. 그런 귀한 사업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사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H·H·アンダーウト, 「神の視福を祈る」, 연희전문학교장)

(12)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 심령의 교육적 사명을 완성하라

이번에 『기독신문』이 발간된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는 간절히 그 앞날의 축복을 기원하고 건전한 발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무릇 인류문화의 발달은 그 문헌의 진보와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문예부흥은 문운(文運)의 진보를

의미한다. 생각컨대 문헌은 사람의 영(靈)에 그 사료(飼料)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광명을 비추어 성스러운 복음의 축복을 전하고 인간세상을 명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적 문헌이어야 한다. 그 건건한 발달에 의해 진정한 정신문화가 건설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기독신문』은 기독교 문헌의 발달을 조장해야 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기독교계의 뉴스를 다룸으로써 종교운동을 촉진하는 하나의 기관이 될 터인데, 그 문자 배후에 담겨 있는 기도와 사랑은 문자 이상의 생명의 흐름을 사람들의 영혼에 깃들게 할 것이다. 이러한 청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본지는 늘 불편부당(不偏不黨), 공정무사(公正無私), 세속의 저널리즘에 지배받는 일 없이 세상 모든 것을 벗으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바라기는 이를 손에 넣는 사람들, 여기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사람의 사랑에 친근해지기를 바라고, 또 단지 사회의 목탁에 그치지 않고 인심의 개척과 영혼과 정신(靈精)의 교양에 대해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바라건대 안으로는 교계에서 지도 능력을 발휘하고, 밖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도 정신을 고양시키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깨끗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원하고, 점차 내선일체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지를 통해 일본과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상과 신념의 긴밀한 교류를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海老澤亮,「心靈の教育的使命を全うせよ」, 일본기독교연맹 간사)

(13) 오긍선(吳兢善), 불편부당으로 선전하라

나는 조선 40만 기독교도의 종교·문화사업의 하나로 탄생한 귀 신문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되돌아보면, 귀 신문과 마찬가지 사명으로 띠고 태어난 신문이 세 종류 정도 있었지만 모두 수년간의 노력 끝에 병마에 걸려 불귀(不歸)의 객이 되었는데, 귀 신문은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것을 간절히 바란다.

5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반도 기독교계의 중요한 언론보도기관이 외국인 명의로 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귀 신문은 시국을 인식하고 자신의 힘 자신의 이름(自力自名)으로 발행하는 것은 반도 기독교계를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귀보는 교파를 뛰어넘어 불편부당하고 약간의 간난(艱難)이 있어도 인내하고 자중하여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 산상(山上)의 성(城)이 되기를 바란다.

(吳兢善,「不偏夫黨以て善き戰を戰へ」, 세브란스의전 교장)

(14) 유각경(俞珏卿), 신국면 타개의 역할을 하라

귀보(貴報)가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은 조선 전체의 기독교계와 사회를 위해 경축할 일이다. 바라건대 귀보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비상시국에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하고, 앞 길이 막힌 교계의 경종이 되어 각 교회가 부흥되고 지도자가 협동심과 열성에 불타올라, 이 새로운 발걸음을 통해 신국면을 타개하고 지상에 천국 건설의 사명을 다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俞珏卿, 「新局面打開の役割をなせ」,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총무)

(15) 유형기(柳瀅基), 조선반도 교계의 전체적 기관으로서

조선의 각 교파를 망라한 전체적인 공평한 기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이 허가를 받은 『기독신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축할 일이다.

지금부터 『기독신문』이 중심이 되어 그간의 침체되어 있던 수많은 연맹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하길 바란다.

(柳瀅基, 「半島交界の全體的機關として」, 조선기독교 감리교회 총리원 교육국 총무)

(16) 윤치소(尹致昭), 경세종과 광명탑이 되라

종교계의 적막(寂寞)을 명파(鳴破)하는 경세종(經世鐘), 사회상(社會相)의 혼미(昏迷)를 타개하는 광명촉(光明燭).

이 보(報)는 곧 그 종성(鐘聲)이오 그 촉광(燭光)이다.

그 책무가 이같이 중차대함은 그 자체도 각오하였을 것이며 대중도 신인(信認)하는 바이다. 삼분사열(三分四裂)하려는 종교현상을 인애(仁愛)로 융합하게 하고 칠령팔락(七零八落)하려는 사회 실정을 정의로 부지하여서 그 자체의 각오를 실행하고 대중(大衆) 신인(信認)에 필합(必合)되기를 기도한다.

(尹致昭, 「警世鍾과 光明塔이 되라」, 경성 안동교회 장로)

(17) 윤치호(尹致昊), 여론의 중심 시대의 지도자가 되라

이번에 『기독신문』이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된다는 길보(吉報)를 접하고 나는 참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의 40만 신도는 『기독신보(基督申報)』의 폐간 이래 잃어버린 눈과 귀를 되찾은 느낌이 듭니다. 바라건대 귀 신문은 가장 공정한 언론을 통해 반도 교계의 올바른 여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상시국에 있어서 가장 철저한 인식을 주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그리고 장래 조선의 기독교도로 하여금 크게 각성하고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경종이 되기를.

(尹致昊,「輿論の中心時代の指導者たれ」,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장)

(18) 이명직(李明稙), 시시비비 춘추직필

『기독신문』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는다. 우리 교계가 그간 너무 적막한 감이 없지 않던 시기에 『기독신문』의 사명은 실로 중대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입장에서 교계의 시시비비를 춘추직필(春秋直筆)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진리를 선양하여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독신문』의 사명이라고 본다.

『기독신문』은 반도 기독교계에 유일한 언론기관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건하게 발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李明稙,「是是非非, 春秋直筆」,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장)

(19) 이문주(李文主), 물심양면으로 완벽을 기하라

귀보(貴報)가 반도 기독교계의 경종과 목탁(警鐸)으로서 신문법에 따라 당당히 탄생한 것은 단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일대 경사로서, 참으로 경축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창건된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2천년 미만인 오늘날 이미 지구 끝까지 편만(遍滿)한 것은 종교사에 있어서의 특수한 발전이다. 따라서 그 커다란 사업과 임무는 만천하 교도들의 신앙과 협력으로 충분히 담당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반도에서의 그 임무 또한 중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명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신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귀보의 책임이다. 이에 귀보의 장래의 노력과 발전을 축하하는 동시에 반도 교계는 명실공히 협력하는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李文主,「物心兩面の完璧を期せよ」, 장로교회 총회장)

(20) 히다카 젠이치(日高善一), 잃어버린 영혼을 탈환하는 폭격기

기독교의 전도는 자주 전쟁에 비유된다. 악풍(惡風)과 모든 죄에 물든 사회, 개개의 영혼을 하나님께 탈환하는 사력을 다하고 전신을 쏟아야 할 사업으로서 분명 전도는 전쟁 이상이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세간에서 신문지는 이미 인간의 일용 필수품이 되었다. 그것은 모든 생활상의 문제에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심할 수 없는 전투에서 사회 각인의 두뇌 혹은 생활의 양식인 신문지를 기독교인에게는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실전에 비유하면 교회원(敎會員), 교직의 전도는 백병전이다. 그 개개의 영혼을 교회에서 끌어안기 위해서는 물론 이와 같이 백병전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지만 사단도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교인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려면 그와 동일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즉 거포, 폭격기로 백병전을 엄호한다. 시설이 필요한 신문지는 그 폭격기이다. 이로써 악마가 각 사람에게 압박하는 사조(思潮)로부터의 공격을 분쇄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을 탈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이 우리 외우(畏友), 아니 가장 친애하는 조선의 형제 교회들 사이에 『기독신문』이 발행된 것은 더 없는 기쁨이다. 그 건전한 진보 발전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

(日高善一, 「失へる魂を奪還する爆撃機」, 복음신보 주필)

〈출전 : 「本報發刊に際して各地名士の祝辭」, 『基督新聞』 제1호, 1938년 8월 16일〉

4. 『구세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1) 경향각지에 성황 이룬 30주년 기념대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성대하게 개최

우리 구세군이 조선에 들어와 혈화의 깃발을 날리며 복음을 전파하기에 악전고투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과거 30년간 계속하여 내려오다가 만 3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이 빛나는 30주년을 기념하기로 되어 먼저는 우리 구세군의 기관지인 『구세신문』 10월호를 발행한 바, 그 기념호에 이미 발표한 바 경성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는 연대급 각 대대본부 소재지에서 기념 축하회를 개(開)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토요) 오후 7시 반에 사관학교 대강당에서 축하회를 개한바 개회한 후 국가봉창과 황거요배를 엄숙하게 봉행한 후 개회 군가와 성서낭독과 기도가 있은 후 사령관께서 개회사를 간단히 진술하시고 조선기독교연합회 위원정 단우청차랑(丹羽淸次郎)선생을 사회자로 소개하시니 나와서 회중에 대하여 인사의 말을 고한 후 순서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염원시삼랑(鹽原時三郎)각하와 (각하의 축사는 본면 하단에 기재 되었으니 독(讀)하시오)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회장 윤치호(尹致昊)선생과 조선감리교 총이사 김종우(金鍾宇)선생의 의미심장한 축사가 있은 후 서기장관 중좌 설보덕 씨와 경동연대장 황종률 씨의 간단한 인사의 말이 있은 후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그 익일 주일 오전성별회는 시내 각 소대가 연합하여 사관학교 강당에서 사령관의 인도로 개한바 이 회의 특색은 30년 동안 조선에서 전사(戰死)한 내외국 사관의 씨명을 □명한 후 일분간 묵도한 추도식과 영동병원에 장치할 엑스관선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헌금한 것이었다. 오후에 개(開)한 청소년대회는 씩씩한 청년과 천진난만한 남녀유년들이 사관학교 대강당에 가득히 모여서 때 아닌 꽃동산이 전개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남녀 청소년들의 간증 혹 축사와 기타 여러 가지를 행한 후 사령관의 권사로 폐회하였는데, 그 회는 구세군의 장래여하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그 익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는 구세군의 역사프레젠테이션를 개한바 그날 일기(日氣)는 비록 좋지 못하였으나 사관학교 대강당은 대만원을 이룬 가운데 구세군이 조선에서 30년 동안 사업한 것을 산그림으로 실지로 보인바 여러 가지 가운데 20년 전에 사관학교 제1회 사관학생이 짚신신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러백리를 도보로 걸어서 사관학교에 오는 그때 그 현상 그대로 보인 그것이 일반 회중에 많은 흥미를 주는 동시에 20년 전 사람의 생활상태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경성에서 개한 축하회에는 연대장급 각대대장들도 출석한바 23일간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대장회의 및 사관회가 열렸는데 30년을 지내고 새 년기(年紀)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사업의 각 부문을 과거 30년에 한 것보다 더 속히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들어 사령관께서 훈시하시는 한편으로는 신령상생명과 능력을 다시 이어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토요)

11월 5일에는 사령관 동부인께서 전장서기관 중좌 황종률 씨와 문학거기관 소좌 리건영 씨와 재산서기관 중교판 본뢰차 씨를 대동하시고 해주로 가셔서 30주년 기념회를 인도하였는데 그날 오후 7시 반에 해주 소대에 개하였는데 먼저는 국가복창과 황거요배와 황국신민서사제창이 있은 후, 조선 총독부 도시학과 이창건(伊倉健) 선생과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 오세호(吳世皓) 선생과 조선아소교 장로교회 김응순(金應珣) 목사의 의미심장한 축사의 말씀이 이 있은 후, 전장서기관과 대대장 중교 허권만 씨의 인사의 말이 있었고 사령관 부인의 축도가 있은 후,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그 익일 주일 □□ 온종일 해주 소대에서 집회를 일으켰는데 오전 성별회에서 2명 □□□ 간 구령회에서 6명 도합 구원을 받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

그 익일 월요일에는 삼차의 사관회를 인도하신바 오전에는 봉사적 정신이라는 문제를 가지시고 장시간 말씀하셨고 오후에는 전장서기관이 시국에 관한 것과 또 30주년 기념합전에 대하여 말하였고 재산서기관은 자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가운데 내지소대에서 어떻게 하는 그 방식을 들어 말하였고 야간에는 사령관께서 또다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여 일반사관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도움과 복을 끼쳐 주신 후 폐회하였다.

11월 12일(토요)에는 홍성으로 가서 충남대대 30주년 기념회를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도례에 의하여 국가봉창과 황거요배와 황국신민서사 제창을 먼저 봉행한 후 개회한 후 사회자인 전장서기관이 사령관을 소개하여 사령관의 인사의 말씀이 있은 후 홍성군수 리영태(李榮泰) 씨와 충청남도회의원 유정식(俞廷植) 씨와 홍성경찰서 길강(吉江) 서장과 신승우(辛承祐) 선생과 조선 감리교 전재풍(全在豊) 목사의 구세군을 찬사하는 좋은 축사의 말씀이 있은 후 전장서기관의 답사가 있은 후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에는 성별회를 인도□□□□ 그저께 각 소대에서 들어온 하사관과 소대 학생대회를 인도하신바 특히 하사관들이 이행할 바 직무에 대하여 장신간 말씀하시어 저희들이 새로 배우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주셨다.

그 익일 월요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사관회를 인도하시고 6시반 출발열차로 떠나 귀경하셨다.

11월 19일에는 대구에서 경동연대와 경상대대연합 30주년 기념 축하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날 밤에는

환영회급실극회를 개한바 개회한 후 사령관의 간단한 말씀이 있은 후 구세군이 조선에 오게 된 동기와 개척선교사관이 처음으로 조선에 온 것과 제1회 사관학생 양성과 남녀육아원 시작과 구제사업과 자선냄비로 동정금 모집시작과 부산에 려각지우의 사업시작을 실제로 보이는 소년의 실극이 있어 회중에 많은 흥미와 충동을 준 후 서기장관의 설교로 폐회하였다.

그 익일 오전에는 성별회를 인도하신바 기시대구소대의 추석감사제 헌금식도 있었으며 남자 유아원 악대의 주악은 금상첨화격으로 회중에는 많은 취미를 주게 되었다. 폐회하기 전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오후 2시 반에는 기념 축하회를 개한바 례에 의하여 국가봉창과 황거요배의식을 봉행한 후 순서에 의하여 서기장관이 사령관을 회중에 소개하니 나아가 개회사를 간단히 진술하셨고 그 후 경상북도지사 상롱기(上瀧基) 각하와 대구부윤 고시진전(古市進殿) 씨와 장로교회 이문주(李文主) 목사와 일본 기독교회 좌등신오랑(佐藤新五郎) 목사의 의미심장하고도 여러 가지 찬사의 말씀인 축사가 있었고 육아 원 악대의 주악이 있은 후 경상대대장 중교 성락철 씨와 경동연대장 소좌 허곤 씨의 인사의 말이 있었고 이어서 축도가 있은 후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야간 구령회는 몇 사람의 간증과 음악으로 회중은 기쁨에 잠긴 가운데 서기장관의 설교로 폐회하였는데 여덟 사람이 구원을 받은바 그날의 수확은 도합 10명이였다.

그 익일 월요일에는 오전·오후 야간 삼차의 사관회를 인도하시고 밤차로 떠나 귀경하셨다. 금번에 경성에서 시작하여 각지에서 개한 30주년 기념회에 하나님의 신이 림하여 아무 지장이 없이 진행하여 성황으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나이다.

〈출전 : 「京鄕各地에 盛況이룬 三十週年記念大會」, 『救世新聞』, 1938년 12월 1일〉

2) 토머스 윌슨, 퇴선(退鮮)의 성명·선언·지도기구

퇴선 성명

구세군 조선사령관, 구세군 소장 토머스 윌슨

1. 조선 구세군은 구세군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전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19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조선 구세군은 총독정치 초기부터 그 시정(施政) 방침에 순응하여 국민이 그 본분을 완수하도록 교화하고, 오늘날까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구제사업에 전력을 쏟아왔다.
3. 조선 구세군은 재정적, 인적으로 자급을 원칙으로 삼는 구세군 주의(主義)에 상응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나 가능한 자급하려고 생각 하고 있다.
4. 때마침 황기 260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시기에 즈음하여 대일본제국 국체(國體)의 본의(本義)를 받들어 만국본영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자주(自主)·자치(自治)·자급성(自給性)을 확립하는 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5. 나는 구세군 총독의 양해 하에 구세군 사령관 직을 사임하고 조선에서 물러난다.
6. 금후 조선구세군의 혁신은 히와라 마사요시(檜原正義)와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두 사람의 협력과 지도하에 신속하게 새로운 기구(機構)를 조성(助成)하여 군국(君國)에 충절을 다하고 동포구제에 힘쓰는 구세군의 대 목적을 견실, 적확하게 달성하기를 바란다.

－1940년 11월 10일－

선언

1. 조선구세군을 조선구세단으로 개칭한다.
2. 조선구세단은 일본구세단과 긴밀한 제휴와 협력을 유지하며 활동한다.
3. 조선구세단은 구세군 만국본영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4. 조선구세단은 구세군 만국본영의 보조금을 거절하고 재정의 자급을 도모한다.
5. 구세단은 군대적 호칭 및 계급의 사용을 금한다.
6. 순일본적 지도이념 및 기구를 확립하고 그 외 혁신적 실천강령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7. 종래의 구세군 군령 및 군율 중 혁신에 저촉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개변(改變)해야 한다.

지도기구

1. 조선구세단의 통솔자를 '단장(團長)'으로 칭하며, 단장은 일본제국 신민(臣民)이어야 한다.
2. 단장은 구세단의 사업을 지휘감독하고 직원의 임명과 해임을 주관한다.
3. 단장은 구세단위원회 과반수 결의와 조선총독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4. 단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5. 단에 고문을 두고, 고문은 일본구세단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 구세단위원회는 고문, 단장, 총무부장, 전도부장, 재무부장 다섯 명으로 조직하고 수시 로 단장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7. 고문을 의원회의 의장으로 삼고, 부재 시에는 단장 또는 총무부장이 이를 대신한다.

〈출전 : トーマス,ウイルソン(救世軍朝鮮司令官, 救世軍少將), 「退鮮ノ聲明」, 『救世新聞』, 1940년 12월 30일〉

3)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조선구세단의 신기원을 만들다

총무부장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동해에서 해가 뜰 때 신에게 기도를 드리다.－

일군만민(一君萬民)이 서로 협심하여 변함없이 2600년의 황통을 이어왔다. 군은 인(仁)과 자(慈)로 만

민은 충절로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해서 오늘날 모두에게 미치니 세계의 경이(驚異)이며 인류의 광채이다. 이 동서에 비교할 수 없는 황운을 축복하며 마련된 2600년 식전(式典) 당일, 즉 1940년 11월 10일을 기해 조선구세군이 혁신을 발표하고 그 이름도 조선구세단으로 개칭되어서 그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 이번의 대혁신이 각 방면의 적극적인 양해 하에 극히 원만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다. 우리들은 그 모든 일이 신의 섭리라 생각한다.

1. 윌슨 구세군 소장의 탁견

그는 이미 일본의 의지를 잘 이해하고 조선구세군통솔자리를 물러났다. 이 자리를 일본국민에게 계승하기 위해 올해 봄부터 교섭을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 별항(別項)과 같이 때늦은 퇴선성명서를 내게 되었다.

2. 구세군 만국본영(萬國本營)[9]

우□(友□)카펜더 총재(전 세계 구세군의 대표자)는 흔쾌히 윌슨 소장의 제의에 찬성하고 해외사관을 다른 나라로 전임시켰다. 또한 조선구세군이 유지하고 있는 재단법인 소유 재산 백 수십만 원은 원래부터 조선을 위해 기부한 것이므로 "……(판독불가)……"

3. 관계관청의 이해

조선총독부 및 군부 당국의 여러분께서 양해와 원조를 해주셨다. 상경 중 문부성 헌병사령부에서 보여준 호의도 고마웠다. 이 혁신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장점(을 더 알게 되었고) 일본에 태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했다.

4. 사회의 호의적 태도

일반의 두터운 이해와 신임을 얻었다. 특히 당국의 지도와 언론계의 협력이 많았다.

5. 구세군인의 임무와 협력

이 대혁신에 즈음해 구세군 중 그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전원이 하나가 되어 책임자의지도에 따라 행동을 같이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구세군인의 축복과 우정으로 시작되어 봉사의 확충을 지속해온 조선구세군의 사업은 완전히 일본 국민에게 계승되었고 그 이름도 조선구세단으로 개칭되어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며 자치자급(自治自給)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종래의 전 세계에서 기부 된 인적협력과 재적호조(財的互助)를 거절하고 비상(非常)한 결의를 다지며 시작한 것이다.

구세단이 지향하는 교화대조는 하층동포의 향상에 있다. 이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 구한다. 우리들은 전 세계 구세군인을 대신해 일본 전 국민의 축복과 "……(판독불가)……"

〈출전 : 坂木雷次(總務部長), 「朝鮮救世團の新紀元を造る」, 『救世新聞』, 1940년 12월 31일〉

9) 만국본영(萬國本營) : 영국 런던.

4)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총력봉사

단장 사카모토 라이지

신세기 제1년, 황기(皇紀) 2600년 첫 해의 신춘을 삼가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세계의 여 명을 밝히는 새로운 아침의 태양은 동쪽의 하늘에서 떠오른다, 동아공영권 확립은 물질과 무력의 힘뿐만 아니라 정신(마음)의 힘, 품성력(品性力)의 총화(總和)로 가능하다. 일본은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동아의 지도적 중심세력다운 (자질이) 요망된다. 이는 국민력의 총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판독불가)……" 모든 정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힘을 이 대목적을 위해 쏟아 붓고 모두 일어나 □할 때이다.

이 회천(回天)의 대업이 진행되는 때에 우리 구세단원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때의 움직임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구세단원은 민중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며, 또 그 직역(職域)반경에 □의 종을 울릴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원제군은 이 일년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가. 구세단은 단과 동포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 원망(願望)과 힘의 단결인 □□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단원을 동원해 이 보람 있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활동체이다. □□ □□ 단원이 이 봉사를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은 신의 힘을 얻어 유력(有力)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에 의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으며 거점이 있다. 공장의 기계가 움직이는 것은 전기의 힘으로 기계에는 힘이 없다. 우리에게도 힘은 없다. 신의 힘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약해도 신은 위대하다. 우리는 항상 신을 우러러 받들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신을 받들어 모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할 만한 일은 힘이 닿는 한 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다해 이루라'고 명하셨다. 전력(電力)이 들어와도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구세단원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봉사하기 위해, 구세단 본부는 자신의 총력을 바쳐 봉사하기 위해, 구세단 전체는 자신의 총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는 것은 신이 명하셨고 또 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출전 : 坂木雷次, 「總力奉仕」, 『救世新聞』, 1941년 1월 25일〉

5) 황종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회원(檜原, 히하라)[10] 총무

기독의 성탄을 맞으면서 나의 존경하는 단원과 독자 여러분에게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본 단체가

10) 黃鐘律의 창씨명.

제2주년을 당하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인의 심령에 넘치는 기쁨은 비당시라도 누릴 것입니다 예수성체가 세상에 나타났듯 관계는 실로 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오인은 주예수의 은혜로써 갱생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는 입니다. 그가 베들레헴 성내에서 한 말 구유에 누었든 것을 보아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을 구원키 위하야 아니 약자를 돕기 위하야 죄인 있는 곳 불결한 곳으로 빈민굴로 가서 그들을 위로도 하여 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배합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와서 주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을 보고 오인도 주께 나아가 귀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바칠 것 뿐 이니라. 주께서 귀하신 생명이 되심과 같이 오인도 귀한 생명으로 살아야하겠나이다. 각 지부에서 금번 성탄에 절약하야 황군위문금으로 헌금하게 되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금번에 총후에 있는 황국신민의 성의를 발군할 것입니다. 성탄에 황국을 위하야 아니 동아공영권을 위하야 성전에서 충의를 다하시는 황군장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장병의 무운장구를 기원하사이다. 오인의 성탄의 대한 기쁨이 지나 대륙 벌판에 황군장사에게까지 있게 하사이다. 구주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널리 전하사이다. 이 성탄을 노래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옆에 있는 이에게 주사이다. 개인으로도 무슨 좋은 일을 받아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아무 의미없이 지내시면 이는 유감이외다. 선한 일을 할 시기는 이 성탄 때보다 더 적절한 때는 없나이다. 많은 기쁨을 장만해서 돌아오는 새해에 주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사이다. (예수님 나신(이 기쁜) 소식을 만인에게 알리여라)

〈출전 : 檜原正義, 「크리스마스를 祝賀하면서」, 『救世新聞』, 1941년 12월 1일〉

6) 나가카와 겐조(永川源藏), 성지부여에 근로봉사(보고)

감사(監師) 나가카와 겐조(永川源藏)

부여신궁어조영(扶餘神宮御造營)에 근로봉사하기 위하여 판본(板本)단장 우시(羽柴, 하시바) 감사 필자와는 10월 22일 밤 11시 20분 경성발 목포행 열차로 부여를 향하였다. 다음날 아침 5시경에 논산에 내려서 부여연락자동차를 찾은 즉 8시라 하므로 대합소에서 날을 새웠다. 그리고 전야에 전주서 전라지방 교사 일동을 인솔하고 떠난 회원(檜原)총무부장은 7시 50분경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역에 나가서 기쁘게 맞아서 합계하니 11명의 단체가 되었더라.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자동차에 올랐다. 9시 넘어 부여에 도착하자 엄숙하게 행렬을 지어서 안내를 받아 반월요로 가서 작업복을 참착하고 신사참배 어봉사원(神社參拜御奉仕願)을 맹세한 후 어봉사(御奉仕)작업을 개시하였다. 거룩한 신성에서 봉사 작업을 하게 된 것이 감사에 넘치고 넘쳐서 감개무량하였다. 경건하고 진지한 정신으로 힘을 모으고 땀을 흘리면서 흙을 운반하였다. 잠시 쉬는 동안에 지도원이 친절하게도 상세한 설명으로 신엄장체(神嚴蔣體)한 신도계획을 배견하였는데 크게 감격하였다. 정오 묵□(默□)로 작업을 마치고 반월요(半月寮)에 다시 돌아와서 주반식□(晝飯食□)을 대할 때 성사(聖辭)의 합당(合堂)을 함께 하는데 판본단장이 지도하셨다. 그 주반은 참 맛있게 먹었다. 오후에 사적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부여사적 현창회(夫餘史蹟顯彰

會)의 고창선생이 열심히 하신 강연을 하여주시면서 일행을 인도까지 해주었다. 감사해 마지아니한다. 부여는 성지이다. 백문불여일견이라더니 과연 그러하다. 지처에 내선일체의 사실과 사적은 일필난기(一筆難記)이다. 크게 감격하였다. 1300년 전에 아름답게 되었던 내선일체의 결실로 오늘날 성지에다가 신도를 건설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없이 가슴에 차고 넘쳐 감개무량하였다. 청순한 혼(魂)에 깨끗한 심(心)으로 비록 하루 동안 봉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와 은혜가 무량하였다. 밤에는 백강요(白江寮)에서 친절하게 재워주었다. 아침조회시간에는 국기게양(國旗揭揚)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제창이 있은 후 판본단장의 답례의 인사가 있은 후 조반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왔다. 과연 부여는 실로 훌륭한 곳이라 할 만한 곳이다. 정(靜)하고 순박하고 산엽수명(山葉水明)하고 풍광명미(風光明媚) 한 곳이다. 제일 귀한 것은 내선일체 사실이 당당한 곳이다. 어조영완요(御造營完了)의 날에 영광을 기대하오며 성은성덕(聖恩聖德)을 찬송합니다.

〈출전 : 永川源藏, 「聖地扶餘에 勤勞奉仕」(報告), 『救世新聞』, 1941년 12월 1일〉

7) 구세단 유신 1주년 감사기념회 –신의 성호(聖號)를 찬송할진저

기원 2600년 11월 10일을 기하여 혁신한 구세단유신일주년 감사기념회(救世團維新一週年. 感謝紀念會)는 경성으로부터 전체 각 지부 일제히 기대와 충분한 준비로써 맞이하게 되어 11월 9일 주일 오전 10시 반하현(半何峴)지부 회관에서 시내 각 지부와 지방지부대표의 연합으로 초만 원리에 회원(檜原)총무의 사회로 시작하다. 첫째로 궁성요배와 묵도황국신민서사제창이 끝난 후 단가(團歌) 제창으로 시작하여 기도와 성서강독(요[11] 140－110－末)과 성악대의 합창이 끝난 후 회원총무께서는, 유신 1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과거를 회고하여 감사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희망의 불타는 동시에 오늘 이 모임에 신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여 사회사를 진술하신 다음 판본원장을 소개하다. 원장은 강당 박수 속에 기쁨으로써 유신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신은 명랑한 일기(日氣)를 주셨고 초만 원의 성황을 이루게 되었음을 중심 감사한다하며 후일의 기념회는 더 넓은 강당에서 모이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개회사로 대하고 상경한 교사와 단원을 우레 같은 박수와 할렐루야로 감격하였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하는 성구를 인용하여 과거 1주년에 많은 파란(波瀾)과 역경을 돌파하고 금일에 이르렀다. 앞으로 더욱 신과 동행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전진하자고하여 격려하신 후 경성 각지부와 지방으로 상경한 단원 중에서 일제히 중견단원입단식을 신전에 나열하고 단 깃발 아래에서 엄숙히 거행하고 회원총무의 기도와 단장의 경고로 마치다.

이어 성악대의 합창과 광고헌금이 끝난 후 단장께서는 기립하여 낭독한 성구를 들어 성화를 던졌다니 유신 최초부터의 곤란을 돌파하고 1주년 우리를 가호(加護)부조(扶助)하여주셨으며 미래의 성공봉을 전망하게 하여주신 신께 영광을 돌린다하시고 중견단원서약서를 기본하여서 (1) 집회출석 (2) 헌금 (3)

11) '요'는 '요한복음'을 의미한다.

기도강독 (4) 제복착용의 4조항을 들어 열혈에 넘치는 설교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시금 헌신하고 무사히 폐회한 후 일동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당일 하오 2시 30분 정각이 가까움에 희열과 소망에 빛나는 얼굴을 가진 신앙의 용사들은 잠시간(暫時間)에[12] 입추의 여지없이 만 원을 이루었다. 영천부장의 총지휘하에 일동은 기립하여 국가의식을 거한 후에 단가 81장을 극히 화합적 기운 중에서 힘차게 부르고 순서는 진행되어 옥산전도부장은 기립하여 홍해바다가 감람나무 잎사귀 우거진 언덕에서 미리암의 손소고쇼래를 따라 과거를 회고하고 감사에 넘쳐 뛰고 환호하던 이스라엘백성(以色列百姓)의 찬미 소리 그대로가 오늘 모임 중에 나타나 할렐루야 박수소리로 진천동지(辰天動地)하게 되었음은 진실로 감사에 부족하다하여 위로 신의 지도하심과 당국의 관대하신 원조와 격려로 이번 봄 극기운동에 언급하여 획기적 성과를 얻었음에 대해 감사로 개회사를 하고 혜천 원(惠泉園)아동들의 유창한 합창이 있은 후 평산성동지부장(平山城東支部長)을 소개하다. 만면에 기쁨과 어깨를 으쓱하시면서 강당에 나타난 평산교사는 첫째가 할렐루야요 모두가 할렐루야다. 주의 지도하심과 섭리로 과거를 회고하여 감사하고 미래를 찬미하며 지부에서 되어가는 여러 가지 실황을 들어 口味에 넘치는 산 증언으로 경이적 감화력을 거치고 후생학원악대(厚生學院樂隊)의 주악(奏樂)이 끝난 후 원산지부 주영애단사(朱永愛團司)가 등단하여 감사에 넘치는 어조로써 기대하였던 그대로 감사기념회에 참석하여 과거에 느끼지 못한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고 앞으로 더욱 구세단을 위하여 충실된 단원이 되는 동시에 진심을 다하겠다하여 소회를 증언한 다음 서대문 지부 주일 학생들의 청아한 합창이 끝난 다음에 송강(松岡)지방부장이 소개되어 기립하다. 기독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후 과거의 생애를 청창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사명하에 봉사케 됨이 감사하다고 하여 내 이름이 하늘위에 기록됨을 기뻐하라는 성구를 인용하여 감명에 깊은 증언으로 청중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혜천 원동후생학원(惠泉 園同厚生學院)아동들의 제창이 끝난 후 판본(坂本)단장께서는 기립하여 일억국민은 일심으로 비상한 난국을 돌파하고 신동아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내선일체로부터 구세단원에 언급하여 훌륭한 구세단원은 국가의 중책이요 또 신국에 큰 보배이며 금후로 중견단원이 일가월증(日加月增)하여서 국가에 공헌(貢獻)됨과 동포형제에게 더욱 축복을 끼치는 단체가 되어야 하겠다고 열과 힘과 자애에 넘치는 말씀으로 인사하셨다.

그리고 천정[川井(金化)]교사의 독창과 헌금이 있은 후 박수하는 가운데 회원총무께서 기립하여 (출[13]150장~ 213장의 17절) 본 성구를 통하여 30여 년간 닦아둔 터 위에 세워졌던 구세군이 구세단으로 유신된 과거 1년을 회고하고 감개에 넘치시는 말씀으로써 (여호수아 10과 베드로후서 30장18절) 본 성구를 인용하여 신간된 단칙을 중심하고 강력한 결합으로 과거와 현재에 포착되지 말고 열철일환이 되어 미래의 승리로 향해 매진하자고 고조하신 다음 (1) 성결(점화) 3조를 열거하여 열렬하신 설교로서 청중에게 자각과 아울러 각오를 가지게 하였다.

근년에 드문 구세단원의 대행진은 송강지방부장의 총지휘하에 하오 6시 30분 서대문회관을 출발하여 악대를 선두로 서대문 통을 거쳐 광화문통을 지나 전동아일보사 옆 광장에서 구령의 의기 높여 가로전도를 시작하여 평산고 교양교사의 경고로 마친 후 회관에 돌아오매 벌써 만 원이었다. 정각 7시

12) '잠시간(暫時間)에'는 '순식간에'를 의미한다.
13) '출'은 '출애굽기'를 의미한다.

30분 일동은 기립하여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회원총무의 개회단가로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판본단장의 개회사에 이르렀다. 먼저 내지구세단장 (조선구세단고문)을 소개함에 이르러 조선구세단을 위하여 다각적 방면으로 지도하여 주심과 환산, 고목, 유전, 우시와 같으신 유명한 교사를 파송하심에 대한 열에 넘치고 감사에 넘치는 말로 결언하고 도변단장을 소개하매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환호 박수 속에 도변단장은 기립하여 먼저 판본단장의 소개사에 대한 답사를 하시고 조선구세단 유신1주년을 맞이하여 청중을 각 방면으로 격려한 후 실천요강 그대로 실행에 매진해 달라고 간절 또 간절히 경고하시다.

입신의 동기와 주의 사명감에 대한 고목부장의 증언과 입신부랑배와 더불어 화항의 우이를 잡고 사기에 가까운 일과 수많은 오락에 침륜되어 인간의 폐물이었던 자신이 파고다 공원 뒤에 구세단의 노상전도에 인연되어 통회입신 이래 13년간 신인물이 되어 가정상 축복사업상 축복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있는 한(限)주를 위하여 활동한다고 성동지부 서총사의 생수가 흐르는 증언이 있은 후 본부성악대의 합창이 있었다. 도변단장은 재차 기립하여 (마가 10장15절)를 인용하여 기약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성구로써 구령의 필요를 고조하시는 중 (1) 기독신도는 주안에서 형제된 것 (2) 기독교의 복음은 천부를 인간에게 소개하는 것 (3) 기독의 복음은 사람을 죄중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3조목을 열거하여 입신의 도리를 역설하시고 회개를 최촉하매 초만원의 회중에서 7명이 자진하여 회개석에 꿇어 엎드렸다. 유신 1주년인 11월 10일 9시에 교사와 단원 일동은 조선신궁 앞에 집합하여 참배한 후 기념촬영을 마치고 서대문지부에 회합하여 9시 40분에 국민작흥소서봉독식을 회원총무의 집행 하에 종료하다. 이어 전원은 기도한 후 2반으로 나뉘어 1반은 춘천지부장 평산교사의 지휘 하에 파고다 공원입구와 성서공회전에서 악대의 후원을 얻어 열렬히 복음을 외쳤고 2반은 우시(羽柴)총력주임의 지휘 하에서 광화문통과 본정입구에서 악대의 지원 하에 수많은 청중에게 젖과 꿀이 넘치는 생명의 복음을 역설하여 구세단의 의기를 고양하고 대성과를 거둔 후 수 천개의 삐라를 배부한 후 광영을 주께 돌리며 산회하다.

하오 7시 감사강연회공개집회는 경성중앙에 설립한 부민관중강당에서 개최됨에 수 주간 민활한 활동으로 만도인사의 인기와 주목의 적(的)이 되어 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만큼 개회 전 30분 미만에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었음은 근래에 보기 드문 집회였다고 한다. 오로지 위로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이다. 정각 7시가 되자 내빈과 간부제씨의 등단을 따라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한다. 회원총무의 사회 하에 일동은 기립하여 궁성요배 국가봉창 황군무운장구와 영령을 위한 묵도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 구세단가 (ススタツソモノ)를 왕산부장이 인도하고 기도와 성서낭독이 끝난 후 판본국장은 기립하여 기원 2천 6백년 11월 10일 봉축일을 기하여 구세군이 구세단으로 단호히 일본적 기독교로 전환 대혁신한 후 과거 1년간의 신의 섭리와 당국의 관대하옵신 원조와 격려 또는 각계인사들의 원만우의적 협조 하에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금일에 이르러 유신 1주년감사강연회를 공개하게 됨에 중심으로 기쁨을 마지않는다. 하여 개회사로 대하신 다음 조선총독 남차랑(南次郎)[14] 각하의 고사(告辭)를 본부 계 사회교육과장이 대독하시고 국민총력사무국총장 천안문삼랑각하께서 뇌성 같은 만당의 박수 환호 속에 기립하여 극히 자애에 넘치시는 말씀으로 축사를 친히 진술하시고 회중을 향하여 비상시총후국민의

14) '남차랑'은 제7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를 의미한다.

각성과 오늘밤 본 회합에 공중도덕이 철저함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칭찬하셨다. 그리고 조선구세단 고문이신 도변단장께옵서 기립하여 구세군이 구세단으로 유신함에 대하여 다각적 방면으로 격려하시고 구세단의 사명과 정신계의 웅물(玄住土勿)이 되어달라고 종횡으로 의미심장히 열에 끓는 축사를 진술하시다. 구세단창가대의 합창이 산전재무총장의 지휘 하에 끝난 후 판본단장의 소개를 따라 이(伊)동치호 선생은 열광적 박수 속에 기립하여 구세군이 이 땅에 창설된 30여 년 전부터 구세단으로 유신된 1주년 된 지금까지 인연이 깊으시게 지내심을 말씀하신 후 성구를 인용하여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으로써 구세단은 이 땅에서 성구 그대로 실천해 온 단체임을 말씀하시고 칭찬과 격려하셨다. 그리고 구세단 후생학원동혜천 원아동들의 제창이 끝난 다음 단우청차랑선생의 강연에 이르렀다. 단우선생께옵서는 구세군으로부터 구세단의 내력과 사명에 대하여 직재간명히 말씀하시고 정심계의 위대고산실군평□□선생의 신앙과 인격에 언급하와 조선구세단원중에서 제2제3의 산실군평씨가 걸출되기를 바란다하여 가지가지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일단 청중을 향하여 기독교 구원의 진수를 들어 큰 감화력을 끼치시고 헌금한 후 이어 판본단장께서는 구세단의 근본목적과 사명을 고조하시고 죄에서 갱생한 단원들의 실천신앙과 그 생애를 들어 만당청중의 흉중설박(舌迫)하여 기독진리의 성화를 던져 사사로 하시고 산전부장의 '실천요강' 선언 및 우시(羽柴)감사의 기도가 끝난 후 이동치호선생의 제창으로 성수만세를 3창하고 원만리에 폐회하니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다.

〈출전 : 「救世團維新一週年 感謝紀念會－神의 聖號를 讚頌할진저」, 『救世新聞』, 1941년 12월 1일〉

8) 명치절의 연합봉축식

황기 2601년 훈방(薰芳)한 국화서리 와다로는 11월 3일 명치가절(明治佳節)을 마지하여 일억국민의 감격이 일층 더 깊어짐을 깨달았다. 당일 오전 9시 40분 구세단 서대문지부에서 단장 이하 다수 출석하여 엄숙히 시내 각 지부연합 봉축식을 거행하다.

궁성요배 전선장사(前線將士)호국영령에 대한 감사묵희, 국가봉창으로 시작하여 옥산전도(玉山傳道)부장의 황실의 강녕하심과 국운의 융창을 받들어 봉축기희(奉祝祈禧)를 드렸다. 이어 성서(聖書)낭독이 있은 후 명치절가를 봉창하고 판본(坂本)께서 기립하여 명치천황의 어홍업어성덕(御鴻業御聖德)을 받들어 근화(謹話)를 진술하신 후, 생명의 주(主)를 굳게 의지하고 비상시국에 제(際)하여 구세단의 사명수행에 대한 간곡한 권사(勸辭)가 있었다. 이여 회원(檜原)총무의 인도로 황국신민 서사를 제송(齊誦)하고 고목(高木)부장의 기희후 만세삼창으로 식을 마쳤다.

〈출전 : 「明治節의 聯合奉祝式」, 『救世新聞』 1941년 12월1일〉

9) 인왕산인(仁旺山人), 애국일 노방(路傍) 강연회

전시국민생활강조를 실천한 이래 제4회째인 애국일을 당하여 구세단총력연맹의 주최 하에 경성시내 각 교사연합으로 제3회로 애국일노방전도강연회를 11월 1일 하오 7시 30분에 파고다공원 입구에서 개최하였다. 우시(羽柴)총력주임의 사회하에 궁성요배와 황군의 무운장구를 묵도한 후 애국행진가(ミオトカイノソラアケテ)를 합송하고 평산(平山,히라야마)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다. 이어 우시(羽柴)주임은 생활신체제의 실천항목인 개로운동식량정책의 순응 허례개선 국어(日本語)사용 저축려행 등 5항목을 열거하여 사회로 하고 환산(丸山, 마루야마)부장을 소개하매 환산연사는 "시국에 적합한 예화로써 생활신체제에 언급하여 독특한 열변으로써 수백인 청중에게 직사하여 폐부를 어이게 하고 기독의 구원의 도리를 증거한 후 결언하였다. 이어 목원(牧原, 마키하라)특무부장을 소개하매 목원연사는 "개로(皆勞)운동은 이제야 전선 각지에서 신규의 전개를 보이고 있고 풍량(穰)의 가을을 노래하는 이때에 식량국책의 중대성을 깊이 폐부에 명심하여 혼식 실행에 매진하자고 강조하였으며 성전의 산야에도 엄한은 방문하였으나 전선장병에게는 스토브(スト－ブ)[15]가 없다. 총후오일억국민은 풍렬한 혹한에 대하여 저온생활로써 견인구력(堅忍久力)으로써 절대 실행에 웅진하자고 하여 명쾌 또 간절하신 말씀으로 청중의 심리를 사로잡아서 대자각(大自覺)을 던지고 폐회하니 하오 9시였다.

〈출전 : 仁旺山人, 「愛國日路傍講演會」, 파고다公園入口에서, 『救世新聞』, 1941년 12월〉

5. 『장로회보』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1) 정오묵도(正午默禱) 실시에 관한 건

총련발 제83호
1940년 11월 29일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이사장
각 노회 연맹장
각 교회 애국반장 전(殿)

흥아건설의 초석이 되어 성전에 존귀한 생명을 봉헌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감사하며 출정황군의 무운장구 기원을 위하여 전선 일제히 매일 정오를 기하여 묵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각 애국반원은 지성을 다하여 총후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며 남녀노유(男女老幼)가 다－정오에 적당한 장소에서 묵도하도록 각 노회연맹장은 이 뜻을 각 애국반장에게 통첩하여 즉시 실행하도록 하시옵.

15) '스토브', '난로'를 의미.

조훈연(朝訓聯) 제1호

1940년 11월 27일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국민총력 각 도연맹회장, 각 참가단체의 장 전(殿)

정오묵도 실시에 관한 건

출정황군의 무운장구 기원 및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 위해 앞으로 정오를 기해 조선 전체에서 일제히 반드시 묵도를 실시함으로써 총후(銃後) 국민의 성의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민의 총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매일 아침 궁성요배(宮城遙拜)의 실행 철저와 마찬가지로 일반 연맹원에게 이에 관한 실시를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통첩하는 바이다.

추신

본 건은 이미 실시 중에 있으니 이번에 조선 전체에서 빠지는 곳이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지시키는 동시에, 한층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

기(記)

1. 묵도 : 시각 및 시간. 매일 정오를 기해 각자 위치한 곳에서 1분간 실행할 것.
2. 묵도의 신호
   1) 사이렌(號笛), 시종(時鐘) 등의 설비가 있는 지방에서는 1분간 이를 울리는 동안 실행할 것.
   2) 위의 설비가 없는 지방에서는 시계에 맞추어 이를 실행할 것.
   3) 시계가 없을 때 또는 야외 등에 있어서 시각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점심 전 적당한 시간에 실행할 것.
3. 행동 중 묵도
   1) 산책, 자전거로 거리를 통행자는 자는 도중에 멈추어 이를 실행할 것.
   2) 자동차로 통행 중인 자는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실행할 것.
   3) 기차, 전차, 승합자동차 등에서는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실행할 것. 이 경우 차장이 승합객에게 주의를 주고 승객이 일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은행, 회사, 공장, 백화점, 식당, 영화관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들 중에서 사이렌(號笛) 등을 각지(覺知)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신호를 보내 해당 시각에 집합한 자들이 일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집합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간의 회를 중지하고 이를 실행한 뒤 계속해서 진행할 것.
4. 실행의 추진 : 국민총력추진대, 청년단 총력추진부, 경방단, 부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반 민중들

에게 실행의 추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 학교연맹을 통한 추진 : 각 학교연맹에서는 생도 아동을 통해 각 가정에 이에 관한 철저를 도모할 것.
6. 선전 방법 :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것.
   1) 게시도(揭示圖) 표시

예 :

아침 궁성요배 정오의 묵도	○ ○ ○

   2) 무선방송
   3) 선전 전단 배포
   4) 신문 관계 기관과 협력

〈출전 : 「正午黙禱實施ニ關スル件」(總聯發 제83호), 『長老會報』, 1940년 11월 27일〉

2) 애국부인회, '해의 황자 축일(日之皇子の祝ひ日)' 실시에 관한 건

지난 12월 23일 황태자 전하의 8세 탄생일을 맞이하여 올해는 특히 빛나는 기원 2600년임을 고려해 1935년 이래 본회가 제창한 '해의 황자 축일'을 더욱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황실이 더욱 번영(彌榮)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그 기념일의 기쁨을 소국민에게 나누어 비상시 하의 국민정신 작흥의 일조로 삼는 데 대해서는 별지의 실시 요항 및 전년도의 시설 사례 및 지방의 실정 등을 참조한 뒤 관련 방면의 협력을 구해 관내에 널리 실시하도록 배려하길 바란다.

황태자 전하 강탄(降誕) 기념
12월 23일 해의 황자 축일

이날은 황송하게도 우리 '해의 황자'가 강탄(降誕)하신 날입니다. 세상에도 싹이 나오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 국민이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입니다. 천지가 계속되는 한 면면히 더욱 번영하는 황실 아래 저 먼 신대(神代)부터 수만 대에 걸쳐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광대무변(廣大無邊)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민초들의 기쁨은 일본인의 만방에 비할 바 없는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매년 이 축일에 감격을 새로이 하고 황실의 은총을 보답할 각오를 굳게 다짐하는 것은 이른바 충군애국의 근본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 매우 의의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머니로서, 또 미래의 어머니인 여성 입장에서 소국민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 함께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고 철이 들 때부터 무궁한 황은(皇恩)에 응답하는 신념을 기르는 일은 우리 일본 부인들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기념일을 온 나라의 봉축일로 하여, 아동 중심의 각종 행사를 개

최해 왔습니다만, 특별히 올해는 빛나는 황기(皇紀) 2600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층 더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안팎의 정세가 매우 중대하고 온 나라가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간소하면서도 봉축의 적성(赤誠)을 바쳐 우리나라 소국민이 더욱 충성봉공의 마음을 깊게 갖고 국민총력운동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실시 요항

1. 국기를 게양할 것.
2. 안태기원제(御安泰祈願祭)를 거행할 것(각 부인단체, 교화단체, 아동 중심 시설 단체, 애국여자단체) 및 여학교 대표자의 참가를 구할 것.
3. 축의(祝意)를 표하는 포스터, 현수막 걸기, 입간판, 선전탑 등의 건립, 전단 배포, 영화관에서의 봉축 자막 영사, 스탬프 낙인 등, 취지 보급 및 그 방법을 강구할 것.
4. 방송국에 의뢰하여 봉축에 관련한 일화, 봉축가, 동요 등을 방송할 것,
5. 신문지와 그 밖의 보도기관에 '해의 황자 축일'에 관한 기사 게재를 의뢰할 것.
6. 백화점, 상점 등에 봉축 점두 장식을 의뢰할 것.
7.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시설 및 애국여자단체 및 여학교에서는 합동 혹은 각각 별도로 봉축식전을 일제히 거행하고, 또 탁아소, 육아원 등에서는 위안회(慰安會)를 개최하여 축하과자, 국기 등을 보낼 것.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봉축글짓기, 작문, 동요 등을 과제로 하거나 혹은 성적품(成績品), 전람회, 학예회, 합동봉축아동대회를 개최할 것.
8. 이번 지나사변에 대한 전병사(戰病死) 군인 유가족 및 출정군인 가족의 아동에 대해 위안회를 개최하고, 혹은 가정에 위문하여 기념품, 축하 과자 등을 보낼 것.
9. 각 가정에서는 봉축 찰밥 등 간소한 봉축요리, 식단, 그 밖의 아동 중심의 봉축 위안 행사를 개최하여 봉축의 가정화를 도모할 것.
10. 아동을 위해 이날을 기념하여 애국저금을 시작하도록 일반 가정에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애국저금, 또 '지나사변' 국채 구입자금으로 할 것.
11. 기타 검소한 적당 시설을 고안하여 실시할 것.

1940년 12월
주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은사재단 애육회(恩賜財團愛育會)
후원 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

〈출전 : 愛國婦人會, 「日之皇子の祝ひ日」(朝愛收 제1677호), 『長老會報』, 1940년 12월 4일〉

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 식사 및 개회사

식사(式辭)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총감 각하 및 여러 귀빈들이 참석해 주셔서 본 연맹은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지나사변 발발 이래 3년여 반 동안 국민은 상하 일치단결하여 능히 총후(銃後)의 정성을 다하고, 충용의열(忠勇義烈)한 황군병사들은 능히 적들을 격파하여 중국의 400여개 주를 석권하였고, 육해공 무위(武威)는 이제 동아의 천지를 위압하고 마침내 동아공영권을 만들고 있다. 나아가 일 · 독 · 이 3국간의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를 주축으로 수많은 열강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려는 제국의 위무(威武)는 실로 찬란하여 세계에 빛난다. 이는 오로지 높으신 지존의 능위(稜威)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 일억 신민들은 모두 감격을 금할 수 없다.

당초 제국의 부동의 방침은 이미 우리 정부가 밝힌 것처럼 건국의 대정신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을 현양(顯揚)하여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승리의 획득은 물론이겠지만, 광대한 중국 점거지역의 전후 경영에 의해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의 확보, 중국 왕(汪) 정권을 바꾼 일 · 만 · 중 협동체의 완전한 생성 등 앞으로 시책 경영에 기다리는 수많은 중대 문제가 있는 동시에, 사변은 앞으로도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태평양을 중심으로 적성열국(敵性列國)의 도발도 있고 해서 이들 사병의 수습과 처리 및 세계의 새로운 사태에 대해 실로 국가의 모든 능력을 경주해야 할 국가총력전의 전개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시국을 맞이하여 대륙의 병참기지라는 중요 사명을 담당한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내선일체, 거국일치를 지표로 삼아 국민정신총동원을 목적으로 한 조선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세계의 정세에 조응하여 이번에 새로이 신체제 수립을 도모하면서 국민총력전을 목적으로 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탄생하였다. 이는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또한 벌써 정동조선연맹(精動朝鮮聯盟)에 가맹하여 본 운동의 실천궁행에 노력하고 있지만, 동아의 신질서 건설을 위해 국가총력전, 신체제의 확립 · 강화가 기요한 시기에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를 고려해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전체 3천여 교회, 36만의 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 단결하여 여기에 성명을 밝혀 일본적 기독교의 완성을 기함으로써 조선반도가 떠맡은 사명의 달성에 공헌하고자 한다.

당초 본 장로회총회연맹 운동의 목적 달성은 무엇보다 이를 지도하는 자의 진지하고 민첩한 기백과 신도 각자의 뜨거운 적성(赤誠)에 있다. 그런데 일반 민심의 동향은 사변을 계기로 크게 혁신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개의 일상생활을 볼 때는 구태의연한 경우가 적지 않고, 신생활의 개척은 아직 요원한 실정을 고려해 연맹은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 각위(各位)는 본 연맹의 취지를 잘 체득하여 중대 시국에 당면하여 영광스러운 황국의 간난(艱難)을 분담하는 자부심과 열렬한 마음가짐으로 본 운동의 철저 · 강화에 노력하여 건국의 대의를 현양함으로써 천양무궁(天壤無窮)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기를 바란다. 이로써 식사를 마친다.

1940년 12월 6일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이사장 곽진근(牧野道雄)

개회사

빛나는 기원 2600년은 세계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을 세계의 역사상에 보내고 참으로 전고(前古) 미증유의 대어대(大御代)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웃나라 중화민국과의 기본조약이 성립되었고, 안으로는 일억일심(一億一心) 만민익찬(萬民翼贊) 총력(總力)을 발휘하는 신체제를 정비해 거국일치하여 신일본 건설을 위해 발족하였습니다. 올해야말로 흥아유신(興亞維新)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시국은 다사다난하지만 다행히 세계의 희망은 이미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몰락도 이제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흥아대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40만 신도들이 있는 우리 장로회도 조선반도의 황민(皇民)임을 기뻐하고, 나를 버리고 천황께 귀일(歸一)하여 모든 나(全我)를 들어 국가에 봉사하고, 신도(臣道) 실천의 철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을 결성한 까닭입니다. 특히 오늘은 다망한 중에도 불구하고 정무총감 각하를 비롯하여 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본 장로회로서는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개회사를 마칩니다.

1940년 12월 6일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기관지『장로회보』편집부장 오문환(松浦文雄)

〈출전 : 「式辭」「開會辭」,『長老會報』제47호, 1940년 12월 6일〉

4) 고사(告辭) 및 축사

(1) 미나미 지로(南次郎), 고사(告辭)

오늘 여기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신도대회를 개최하여 기원 2600년을 기념하고 국민총력장로회연맹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어 참으로 경축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조선의 예수교는 원래 구미인의 포교와 관련 있고 인심의 순화(醇化) 및 교육, 의료 등의 방면에 놀라운 성적을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일본 국체의 본원(本源)에 대해 인식을 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사상의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번 사변의 발발로 우리 성전(聖戰)의 진의(眞意)를 크게 현양

(顯揚)한 이래 신도들 사이에 황국신민(皇國臣民)인 본연의 자각 기운이 크게 일어나 일반 민중의 애국 행동과 조화를 이루고 크게 국민적 적성(赤誠)을 발로시키게 된 동향에 대해서는 일찍이 본인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정세가 급변하여 국제정세가 더욱 중대성을 더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제국의 태세 또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크게 국민정신을 강화하고 고도국방국가체제 완성에 거국(擧國)의 전력을 다해 우리 조선 관민 또한 결속 · 일치하여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에, 장로회와 그 신도들을 규합하여 연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대 운동의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황국신민인 본래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일어난 것은, 그 건전한 신조를 표명하는 까닭인 동시에 총력운동이 더욱 중요한 분야에서 더 신장하게 되는 까닭임을 믿으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나(本職)는 여러분(各位)이 황국 일본의 정신계의 한 부분의 개척자로서 더욱 자중하고 흥아(興亞) 성전(聖戰)의 도의적 의의에 감철(感徹)하고 인심 계도에 만전을 기해 능히 직역봉공(職域奉公)을 완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간단한 한 마디로 고사를 마친다.

1940년 12월 6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2)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축사

조선예수교장로회는 황기(皇紀) 2600년 봉축을 위해 전 조선의 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회에 종래의 기구를 일신하고 여기에 국민총력운동의 일익(一翼)으로서 참가하기 위해 종교계 신체제 확립에 앞장 서 오늘 연맹 결성식을 거행하게 된 의의는 참으로 크고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건대 본회는 이미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의 취지를 체득하고 교도의 계발 유도에 노력하여 능히 시난(時難)의 돌파에 매진해 왔으나, 이제 시국은 더욱 복잡하고, 세상은 더욱 심각 · 긴박해져 종교자의 분기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사변은 이제 3년여 반이 지났다고 하지만, 제국의 사명인 동아 신질서건설의 앞날은 여전히 수많은 파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를 돌파 · 극복함으로써 성업(聖業)의 완수를 기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구체제에 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제국 정부가 대정익찬(大政翼贊) 운동을 일으켜 국내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조선에서는 총력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성취를 기하려는 까닭이다.

이런 때에, 본회가 신체제에 부응하고 기구를 새로이 함으로써 전 조선의 교도들에 임하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국가를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바이다. 협심 · 협력 ·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소감으로 축사를 마친다.

1940년 12월 6일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가와키시 분자부로(川岸文三郎)

(3) 쿠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축사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에서 한마디 소감을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본디 황국의 종교는 천황에게서 시작되어 천황에게 귀일(歸一)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기독교, 특히 장로파에서는 이런 정신을 결여한 자가 많았다는 점은 자타 공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뜻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를 고려해 과거를 청산하고 순정황국적(純正皇國的) 종교의 확립을 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총력연맹에 참가하게 된 것은 시국 하 참으로 적절한 행동(美擧)으로 경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생각건대 본 장거(壯擧)는 황국신민으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여러 인사들이 적절이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서 협력 · 일치하여 박지(薄志) · 약행(弱行)을 경계하고 구폐를 파타하여 아침저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고도국방국가의 완수에 매진한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확신해마지 않는다.

1940년 12월 6일

조선군 보도부장 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4)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南), 축사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의 결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축사를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나(本職)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3년 반 정도, 큰 위엄(大稜威) 아래 황군의 위무(威武)는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석권하여 그 위대한 전과는 혁혁한 무훈과 함께 세계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입니다. 이는 오직 위로는 큰 위엄 아래 제일선 장병들의 용맹하고 과감한 눈물겨운 건투 덕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래로 국민들이 능히 성지(聖旨)를 체득하여 거국일치, 명사봉공의 정성을 다한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장제스 정권은 지금도 여전히 장기 항전을 외치고 있어서 사변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 전황의 변화에 따라 국제정세는 더욱 긴박해지고 있으며, 이제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국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 세계 신질서 건설을 지표로 이미 우방 독일과 이탈리아와 맹약을 체결하였고 또 근래에는 일 · 중 조약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이번 사변 발발 이래 시국의 추이를 잘 인식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기독교를 진정 우리 국체와 합치하는 종교로 만들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신사 불참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가맹하는 등 나날이 황국신민적 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지난 11월 10일 궁성 외원에서 거행한 황기 2600년 식전 당일에는 과거의 구미 의존 관념을 청산하고 순정일본적 기독교로의 획기적 혁신 신안을 결의하여 천명하였고, 아울러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을 결성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참으로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국민총력 운동은 국체의 본의(本意)에 기초하여 일억 일심 고도국방의 확립을 위해 공익우선, 멸사봉공, 각자 그 직역(職域)에서 성업(聖業)을 익찬(翼贊)함으로써 황모(皇謨)를 부익(扶翼)하는 데 있습니다.

부디 장로회 각 교역자 및 신자 일동은 작금의 세계 신정세를 잘 살피어 상하 일체가 되어 종교를 통해 신도(臣道)를 실천함으로써 천황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용맹하게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40년 12월 6일

경기도지사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男)

(5) 정춘수(禾谷春洙), 축사

금일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에 참여하여 일언의 축사를 드리는 특권을 얻은 것은 본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아(東亞)의 화근(禍根)인 항일정권을 타도하고 광휘(光輝) 있는 황도(皇道)정신을 앙양(昻揚)하여 동양 내지 세계 평화를 확립하려는 것이 이번 성전(聖戰)의 궁극적 이상임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총후국민(銃後國民)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우리 국체관념(國體觀念)의 명징(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실현, 직역봉공(職域奉公), 사회풍조의 쇄신, 신앙생활의 심화, 비상시 경제정책에 협력, 일상생활의 개선, 신체제에 순응함으로써 총후국민의 임무를 감당하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도를 봉행(奉行)할 확고한 결심과 철저한 노력을 아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귀 연맹 결성을 축하하는 동시에 귀 연맹의 지도하에 귀 교회 신도 대중의 황국신민으로서의 활동이 배전(倍前)[16] 활발하여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 말씀으로써 축사를 드립니다.

1940년 12월 6일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

이사장 화곡춘수(禾谷春洙)[17]

5) 여신도대회 식사, 고사, 축사

식사(式辭)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 결성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총독 각하 및 다수의 고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본 연맹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16) 이전의 갑절이라는 뜻.

17) 정춘수의 창씨명.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성전(聖戰)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상하가 일치단결하여 총후(銃後)의 정성을 다하고, 또한 충용무비(忠勇無比)한 황군 장병들의 투전역투(鬪戰力鬪) 덕분에 연전연승을 하고, 어디에도 대적할 적이 없고 파죽지세로 유사 이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일·중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을 만들었고, 이어서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을 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세계의 수많은 강국들을 여기에 참여시켰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일·소 중립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제국의 국위는 그야말로 찬란히 전 세계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첫째로, 천황폐하의 위엄(稜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감격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원래 제국의 부동의 국시(國是)는 건국의 대정신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 이상을 실현하고,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사·외교·정치·경제·문화, 그 밖의 모든 시책 경영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사변은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대 전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전 세계가 거의 그 와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태평양 방면에는 음험한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서 풍파는 더욱 커지려고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국가총력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우리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여기에 일본 기독교에 대한 혁신적 요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을 결성하여 신체제에 부응하여 신앙보국(信仰報國)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 신도들은 아직 여 명기에 있고, 그 대부분은 무학(無學)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옛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여전히 구미 의존 사상으로 인해 요상한 행동을 취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명랑하게 하여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것은 현재 가장 긴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를 결성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은 본 연맹의 취지(趣意)를 잘 이해하고 안으로는 근면착실, 친절정숙, 여자의 무육(撫育), 가정의 정제(整齊) 등의 본분을 다하고, 밖으로는 순후중정(醇厚中正), 신애협동(信愛協同), 동포집목(同胞輯睦), 사회교화의 극치를 도모하면서 서서히 본 운동의 철저·강화에 노력하여 능히 신도(臣道) 실천, 건국의 대의(大義)를 현양(顯揚)함으로써, 성려(聖慮)를 안심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식사(式辭)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941년 4월 29일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장 이순남(李順南)

고사(告辭)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의 결성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본직(本職)은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반도의 기독교는 수십 년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구미 선교사에 의해 열심히 선포(宣布)되어 교세가 날로 커져 지금은 신도 수 약 50만에 이르는, 참으로 번성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교와 동시에 교육, 의료기관 등을 설치하고, 또 양로원 및 빈민구휼 등을 실시하여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일부 불순한 무리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칫 우리 국체의 본의(本意)와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함부로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획책함으로써 인심을 순화(醇化)를 해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정황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변을 계기로 강토 안(疆內)의 신도들 대다수는 국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성전(聖戰)의 의의를 인식하여 일반 민중과 동조하면서 하나가 되어 총후의 적성(赤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경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다기하고 유럽의 전화(戰禍)는 앞으로 전 세계에 파급되려 하고, 동아의 지도자인 제국의 사명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는 이때,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다른 파에 앞서 국민총력연맹에 참가하고 또 지금 여기에 천장절(天長節)[18]을 맞이하여 여자부를 결성하여 과거의 구미 의존주의에서 탈피함으로써 일본정신의 작흥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부디 시정(施政)의 방침을 잘 이해하고 늘 황도정신(皇道精神)을 파악하여 협심하여 노력하고, 신도 실천(臣道實踐),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정성을 다함으로써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기를 희망한다.

이로써 고사(告辭)를 마친다.

1941년 4월 29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축사(祝辭)

오늘 천장절(天長節)을 맞이하여 국민총력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 결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고, 또한 시의적절한 시설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국은 이제 미증유의 위업인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조일석(一朝一夕)의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게다가 쉽사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제의 실시도 총력운동의 전개도 요는 이 시간극복(時艱克服), 국위선양의 한 과정에 다름 아닙니다.

종래 우리 반도 부인들이 자칫 시국에 관한 의식이 희박하고 또한 적극적 활동에 결여된 자들이 많았지만, 시세(時勢)는 이러한 퇴영적 태도 경향으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총후(銃後) 부인으로서 그 발랄한 마음가짐과 견실한 각오를 갖고 정진할 것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로회총회연맹이 시세를 깊이 고려하는 바가 있어서 부녀자 신도들의 분기(奮起)와 활약을 기대하고 여기에 새로이 여자부를 결성한 것은 반도 부인운동의 새로운 전개의 단초를 여를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두 손 들고 찬성하는 동시에 그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활약에 절대

18) 천황 생일.

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체제운동은 남성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전 여성들의 협력을 요망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총력 태세를 갖추고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의식주의 개선도, 아이들의 교육도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국가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의 부인들에게 내선일체, 나라를 위해 꼭 생활의 간소화와 건강생활과 훈련의 실천을 바랍니다.

또한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조선인 가정에서도 가족 일동이 협력 · 일치하여 일하고, 간소한 예정(豫定) 생활을 함으로써 물자의 애호 · 절약을 하고, 건강생활을 위해서는 위생사상의 철저를 도모하여 가정 내는 물론 문밖에서도 활동하여 심신의 연마를 하고, 나아가 국방사상의 보급, 방공방호의 훈련에도 더욱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여성은 이전과 같은 화미(華美)한 생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입각하여 생활의 재건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대적인 생활로 바꿀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부인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소중히 여기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各位)은 애국반상회 등에서 구체적인 것을 거론해 진지하게 실행하여 총력운동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생각건대 총후 부인들의 활동 분야는 상당히 다기다단(多岐多端),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게다가 창의성 발휘와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요는 부인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런 점을 잘 새기고 본 여자부 결성의 취지 관철에 더욱 정진과 노력을 다하길.

한 마디 소감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1941년 4월 29일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가와키시 분자부로(川岸文三郎)

축사(祝辭)

오늘 여기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 결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사변' 발발한 지 4주년, 큰 위엄(大稜威) 아래 충용무비(忠勇無比)한 황군장병들의 고군분투로 세계사에 있어서 공전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국민 또한 거국일치로 총후 의 진을 견고히 하고 있는 이때, 일 · 중 기본조약의 체결 및 일본 · 만주 · 중국 공동선언을 하게 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은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국의 대정신에 기초하여 진정한 세계 평화를 건설할 목적으로 우방 독일 · 이탈리아 사이에 맹약(盟約)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일 · 소 중립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아 전체의 화평에 기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제스 정권은 지금도 여전히 민족협화(民族協和)의 대도(大道)를 깨닫지 못하고

구국(救國)의 대사(大事)를 오직 항전에서만 찾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새로운 사태를 보지 못하고 적성(敵性) 제3국의 공리적 책동 또한 작렬해지고 있으며, 국제관계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동아 신질서 건설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케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진정 국제 정의를 주장하고 소기의 목적인 대동아의 안정을 확립하고, 아울러 세계평화의 극복(克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억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그 직역(職域)에 있어서 멸사봉공함으로써 고도국방국가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파에서는 193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다년간 문제시된 신사 참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솔선하여 국민총력예수교장로회연맹을 결성하여 과거의 구미 의존 관념을 청산함으로써 오직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을 지향하고, 혁신운동에 정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신도들의 70%를 차지하는 여자 신도들이 국민총력예수교 장로회총회연맹 여자부를 결성하여 종래에는 거의 문밖으로 나서는 일이 없었던 부인들이 총력운동에 한층 더 노력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가정에 경축할 일입니다. 부디 신도들 각위(各位)는 시국의 중대성을 재인식하고 작금의 난관을 돌파 전진함으로써 빛나는 거대한 광명의 경지에 도달하고, 나아가 각오를 새로이 하여 내선일체의 신념을 굳게 하여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갖고 진정으로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으로서 대정익찬(大政翼贊)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소감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1941년 4월 29일

국민총력경기도연맹 이사장 경기도지사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男)

〈출전 : 「女信徒大會續 式辭, 告辭, 祝辭」, 『長老會報』 제66호, 1941년 4월 30일〉

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

본 총회는 여기에 성명과 혁신 요항을 발표하여 40만 교도들이 나아갈 바를 명시한다.

이로써 지난해 황기(皇紀) 2600년 봉축신도대회를 개최한 동시에 국민총력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을 결성, 국민총력조선연맹에 가맹하였고, 지난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에 본 총회연맹 여자부를 결성하여 교회 헌법개정의 사업도 시작되고 있는 등, 순조롭게 혁신의 결실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국의 간절한 지도와 우리 40만 교우들의 동심협력의 덕분이라 믿는다.

작금의 시국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제정서는 크게 변전(變轉)하고 있으며, 치근에는 영국과 미국 등 적성국가의 제국에 대한 도전적 태도는 더욱 노골화하고 제국의 부동의 국시(國是)인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확립 방해에 광분하고 있다. 이런 때에 복잡 미묘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초지일관 국책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퇴전(不退轉)의 결의와 당국에 대한 절대적 신뢰 아래 임전태세를 실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총회는 우리 40만 교우들의 분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체제에 부응한 교양과 훈련과 봉사의 길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제2차 성명과 실천 사항을 선언한다.

경애하는 우리 교우들은 반드시 이 중대한 시국을 감안해 물심양면으로 국민적 총력을 기울여 정신보국(挺身報國)으로 성지(聖旨)를 따를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1941년 8월 14일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중앙상치위원회(中央常置委員會)

실천사항

1. 정신생활의 앙양
   1) 황도정신(皇道精神)의 체득
   2)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완수
   3) 시국 정해(正解)의 강화
   4) 난국 타개 극복 신념의 강화
   5) 당국 지도 절대 신뢰
2. 일상생활의 혁신
   1) 사생활의 순화
      ① 위생 확보 ② 체위 향상 ③ 연단(鍊鍛) 실천
   2) 전시생활의 실천
      ① 총력 발휘, 총훈련 ② 사기진작 ③ 물자애호 ④ 방공방첩 관념 철저
   3) 시국 경제체제의 실천
      ① 국채 소화 ② 저축 장려 ③ 생산 확충 ④ 거래 명랑
3. 시국봉공(時局奉公)의 실천
   1) 애국기(愛國機) 헌납
   2) 금속품 공출
   3) 폐품 회수
4. 교제(敎制) 혁신의 단행
   1) 일본적 기독교 건설
   2) 구미 의존 구태 잔영의 청산
   3) 구미인 선교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배격
   4) 교역자의 재연수
   5) 지방 강습회 개최
   6) 일본과 조선의 조선인 학생 지도

(이상)

중앙상치위원회 부의(附議) 사항

1941년 8월 14일 오전 9시

1. 성명서 가결
2. 총회 개최에 관한 건
    1. 가능한 9월 12일 개최 예정의 총회를 중지하고, 중앙상치위원회를 실제적 총회 대행 기관으로 한다.
    2.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장소는 경성으로 변경할 것.
    3. 성명서가 가결되면 애국기(愛國機) 헌납운동은 기성회가 맡기로 한다.
        1. 명칭 : 조선장로교도 애국기 헌납기성회로 한다.
        2. 목적 : 장로교도들 중 유지들로부터 15만 원의 기금을 모집하고 당국의 지도 아래 적당한 숫자의 애국기를 헌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 : 장로교도로 기금 헌납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4. 회비 :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애국열에 의한 기금 헌납을 할 필요가 있다.
        5. 기간 : 1941년 말까지로 한다. 단 최단기간을 요한다.
        6. 사무소 : 경성부 서대문정 2−89 총회연맹 사무소.
        7.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간사 1명, 간사 약간 명, 회계 1명, 실행위원 약간 명.
        8. 고문 :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육군 중장 가와키시 분자부로(川岸文三郎).
        9. 발기인 : 별지에 있는 바와 같이 발기인을 승인하고 발기인들은 다른 적당한 시기에 기성회를 조직하고 발표한다.

〈출전 : 「戰時體制實踐聲明書」, 『長老會報』 號外 82호, 1941년 8월 15일〉

7) 전시체제 신앙활동 −40만 장로교도 실천을 결의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서대문정(西大門町) 2정목의 장로회 총회 사무소에서 중앙상치위원회(中央常置委員會)를 열고 별항과 같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전시체제실천성명서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결정 발표하는 동시에 교도들로부터 정성스러운 헌금 15만 원을 모아 가지고 애국기(愛國機)를 헌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간 장로회에서는 작년 11월에는 혁신요강(革新要綱)을 발표한 이래 일본정신에 돌아가 '신앙보국'에 전력을 하도록 여러 가지로 신체제 운동을 일으켜 오던 중 이번에 일반 교도의 일생 생활상 실천사항을 발표하는 동시에 애국기, 금속품등의 헌납 등 총후전사로 일층 분발하게 된 것은 시국이 더욱 중대화하고 있는 오늘에 일반의 주의를 크게 새롭게 하는 바 있다.

애국기 헌납계획은 교도들로부터 15만 원의 현금을 거두어 금년 안으로 헌금하게 할 예정인데 총회 종교교육부 총무 덕천인과(德川仁果)[19] 씨가 발기 위원장이 되어 기성회도 불일중에 조직하고 여기서 뜻 깊은 헌납 운동을 전선적(全鮮的)으로 일으킬 작정이다. 그리고 장로회의 이번 장거는 같은 예수교 내의 다른 종파며 다른 종파 단체에도 큰 충동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천성명

본 총회는 □자성명과 혁신요항을 발표하고 사십만 교도의 향할 곳을 명시하였다.

이에 의지하여 지난 해 황기(皇紀) 2600년 봉축 신도 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을 결성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에 가맹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천장(天長)의 가절(佳節)을 맞이하여 본 총회연맹 여자부를 결성하고 교회헌법개정의 사업도 개시되는 등 착착(着着) 혁신(革新)의 열매(實)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당국의 간절한 지도와 우리 40만 교우의 동심협력의 덕택이라고 믿는다.

현하 시국은 더욱더 심각화 되어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고 최근에 이르러 영국과 미국 등 적성(敵性)국가의 국제에 대한 도전적 태도는 더욱더 노골화하여 제국(帝國) 부동(不動)의 국시(國是)인 동아공영권 확립의 방해에 광분하는 터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복잡 미묘한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초지관철(初志貫徹) 국책의 수행을 완전히 하자면 우리 국민 된 자, 불퇴전(不退轉)의 결의와 당국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에 임전체제를 실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총회는 우리 40만 교우의 분기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 체제에 즉응(卽應)한 교양 훈련과 봉사의 도(道)를 보이고자 함에 제2회의 성명과 실천사항을 선언하는 바이다.

친애하는 우리 교우들은 모름지기 이 중대한 시국을 통찰하여 물심양면에 걸쳐 국민적 총력을 들여 정신보국(挺身報國)함으로써 성지(聖旨)에 봉부(奉副)[20]하기를 맹서해야 할 것이다.

실천사항

1. 정신생활의 앙양
   (가) 황도정신의 체제. (나) 내선일체의 완수. (다) 시국정해(時局正解)의 강화. (라) 난국타개 극복신념의 강화. (마) 당국지도 절대 신뢰.
2. 일상생활의 혁신
   (가) 사생활의 순화. ▲위생확보 ▲체위향상 ▲단련실천
   (나) 전시생활의 실천. ▲총력발군 총조련 ▲사기 진작 ▲물질애호 ▲방공방호관념 철저
   (다) 시국경제체제 실천. ▲국채(國債) 소화 ▲저축장려 ▲생산 확충 ▲취인(取引)[21] 명명(明明)
3. 시국봉사의 실천
   (가) 애국기 헌납. (나) 금속품 공출. (다) 폐품 회수.

19) 정인과의 창씨명.
20) 받들어 맞이함을 뜻함.
21) 거래라는 뜻.

4. 교제(敎制) 혁신의 단행

(가) 일본적 기독교 건설. (나) 구미 의존, 구태잔영(舊態殘影)의 철폐. (다) 구미인 선교사 착오 사행(思行)의 배격. (라) 교역자(敎役者)의 재수연(再修研). (마) 지방강연회 개최. (바) 내선(內鮮)[22] 내 반도인 학생 지도

덕천(德川)위원장 담(談)

별항과 같은 애국기 헌납에 계획에 대하여 발기 위원장 덕천인과(德川仁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상한 시국 아래에서 적은 정성이나마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하여 물심(物心) 양방면에 40만 교도들의 정신을 통일하여 가지고 이번 결성된 성명서와 실천사항의 취지에 따라 장래 한층 국가에 봉공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는 정성을 다하여 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제국의 국책에 순응하여 각기 지역에 봉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에 감천, 세토(瀨戶) 경찰부장 담(談)

별항과 같은 예수교장로회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에 세토(瀨戶) 경기도 경찰부장은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장로회에서 혁신적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금후 일으켜 나갈 애국운동의 실천사항을 결정하였고 그 구체적 계획으로 40만 신도들의 자발적인 애국지성에 호소하여 15만 원의 헌금으로 애국기를 헌납하게 된 것은 중대한 시국의 오늘, 참으로 감격할 일이다. 1936년에는 신사불참배 문제로 말썽 많은 장로회에서 1938년에 신사에 참배하여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맹서한 다음부터는 교회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기독교를 확립하고자 힘쓰는 등 그들의 지성에 오직 감격할 뿐이다. 40만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정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오직 장로회를 위하여서만이 아니요. 다른 종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금후에도 일본의 기독교와 밀접한 연락을 맺어 가지고 한층 총후국민으로서 국가에 봉공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戰時體制信仰活動 －四十萬長老敎徒 實踐을 決議」, 『長老會報』, 1941년 8월 15일〉

8) 긴급통고문 －'신편찬송가' 정정 사용 주지의 건

만근(輓近)[23] 사변 이래로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정신에 기초하여 일본적 기독교를 재건하기로 발족

22) 내선(內鮮)은 일본과 조선을 함께 부르는 말.
23)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했음을 요즘 본 총회의 수차 성명서에도 발표한 바라. 그 실행 항목 중에 간행물에 있어 1941년 8월 이후 당국의 선도하에 본 총회 종교 교육부 발행인 「신편찬송가」 가사 중 국체에 부적합한 장절(章節)과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이미 제출하였던 바 같은 해 12월 31일에 완전 결재 되었기로 여좌(如左) 발표하오니 각 교회 담임 목사는 본보(本報)를 접람(接覽)하는 직후 예배시간에 교우 각위에게 특별히 고하여 물자가 소귀(所貴)한 때라 종래 소지한 찬송가 각종에 아래(左記) 표시한 대로 정정사용토록 철저 협력하시오.

그리고 새로 구람(購覽)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본부 재고품을 별항(別項) 광고와 같이 수응(需應)해 드리오니 두루 널리 알려 주시오.

〈출전 : 「緊急通告文, '新編讚頌歌' 正訂使用周知의件」, 『長老會報』, 1942년 1월 21일〉

9)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신체제 하의 신도

신체제의 근본방침은 고노에(近衛) 수상(首相)이 성명(聲明)한 것처럼 '팔굉(八紘)을 일우(一宇)로 하는 조국(肇國)의 대 정신에 기하여 세계 평화의 확립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근본으로 하되 먼저 황국(皇國)을 핵심으로 하여 일(日)·만(滿)·중(中)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데 있다.' 그 때문에 고도(高度)의 국방국가의 건설, 외교의 대전환, 국민조직의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1.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에는 인적자원을 함양하고 생활력의 확충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외교와 조직 등은 우리 보통인이 직접 간여할 바가 못 되지만은 인자(人資)함양이나 생산증식은 일반 국민된 우리의 직접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체제의 지도이념의 하나는 공(公)을 먼저하고 사(私)를 후에 하는 즉 멸사봉공(滅私奉公)이다. 이 정신이 아니면 아니 된다. 이 정신이 이 말로 참 기독교 정신의 일치된다.

즉, 희생봉사의 정신이 이것이다.

2. 국민된 우리는 희생봉사에 생활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자.
   1) 육체적 희생.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는 육체도 희생하자. 한 명을 희생하여 만인을 구하도록 하자.
   2) 물질적 희생. 금전은 우리의 선한 사환(使喚)[24]이요 토전(土典)이 아니라했다.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자.
   3) 정신적 희생. 제1은 정신이다. 더욱이 일본의 성공은 1원 성심(誠心)의 정신력이다.
3. 일본정신과 기독교.

종래 영미식 자유사상을 □하고 도래한 기독교는 일본의 존엄한 국체(國體)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24)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을 뜻함.

일설에 오해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일본 국체에 적합지 않은 종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독이 보여준 교양상으로 보아서 모순이 없고 반대로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도 일본이 기독교정신과 제일 적합하다고 자신한다. 만약 신도 중에 국가정신이 결핍되거나 일본정신 즉 희생봉사의 정신에 배치되는 자 있다면 이는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요 기독의 정신이 부족한 신자 개인일 것이다.

고로 이번 신체제 재출발의 호기회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용력(用力)하여 국체와 모순이 없기를 바란다.

〈출전 : 金應珣, 「新體制 下의 信徒」, 『長老會報』 1941년 1월 22일〉

6. 『기독교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

1) 천장절(天長節) 관련 기사

(1) 천장절 봉축식(奉祝式) 성황, 조선기독교연합회 주최

지난 4월 29일 정전(征戰)하 최초의 천장절(天長節)[25]을 각지에서 성대히 봉축하였는데, 경성 각교회 주최로 동일 오후 2시부터 정정(貞町) 감리교 제1예배당에 부내 내선 각파 교회 교역자 신도 대표들이 회집하여 봉축식을 거행하였는데, 동회 위원장 니와(丹羽清次郎) 목사 인도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경성기독교청년회 총주사 카사야(笠谷保太郎) 씨의 교육칙어의 봉독이 있은 후, 찬미가를 합창하고, 감리교단 경성교구장 박본연서(朴本淵瑞) 목사와 약초정(若草町) 일기(日基) 야마구치(山口重太郎) 목사의 성서배독, 성결교회 시게무라(茂村鍵) 목사와 미창정(米倉町) 일기[日基(전조합)] 사쿠라이(櫻井乾一郎) 목사의 기도에 이어 일본기독교단 조선교구장 우루가 마사미(宇留賀政實) 목사의 별기와 같은 봉축사가 있었고, 찬송 후 정동(貞洞) 일기(日基) 무라기시(村岸清彦) 목사의 축도와 위원장 수창의 성수만세 삼창으로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한다.

〈출전 : 「天長節奉祝式盛況」(朝鮮基督教聯合會主催), 『基督教新聞』, 1942년 5월 6일〉

(2) 천장절 봉축지사, 목사 우루가 마사미(宇留賀政實)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서 오늘 경사스러운 마흔 한 번째의 탄신일을 맞이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맞이하시는 탄신일입니다. 금상폐하가 탄생하신 것은 1911[26] 동아(東亞)

25)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일.
26) 원문 : 메이지 44년(明治 卅四年)

의 풍운이 점점 거세지는, 즉 일·러전쟁이 임박해 질식할 듯한 공기 속에 놓여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폐하의 탄생은 불안과 암흑을 비추는 빛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삼가 공손히 살펴보면, 폐하에게는 이미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비상시의 일본에 군림하시어 어떠한 곤란도 돌파하려는 기백과 세력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 약속되신 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 천장절을 맞이하여 차고 넘치는 성덕의 일단(一端)을 함께 우러러 받들고, 또 기독교인의 각오와 맹세를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금상폐하의 탄생을 특별히 기쁘게 맞이하신 분은 메이지(明治)천황이십니다. 메이지 천황이 금상폐하께 품으신 깊은 뜻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사다난한 제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질 황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한 품격을 갖추게 키워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인 듯 합니다.

금상폐하가 그 풍격이나 인자함에 있어서 메이지 천황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한결같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눈썹, 그 눈, 그 어조, 목소리가 메이지 천황과 똑같으시며, 그 위엄이 있고 당당한 영자(英姿)를 뵐 적마다 메이지천황이 다시 살아오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무한한 성덕 가운데 폐하의 유소년 시대의 일화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감동을 합니다. 그것은 학습원에 재학하던 때의 일로, 생도(生徒)모두 다마가와(多摩川) 부근으로 소풍을 갔었을 때 그 마을 사람이 하록(河鹿) 여러 마리를 바쳤습니다. 전하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며 그대로 데리고 돌아와 키우셨습니다. 그 후 -하록의 일이 생각나서 "하록은 어쩌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 "그중 한 마리를 보살피던 사람이 놓쳐버렸어." 하시길래 놀라서 "잃어버렸습니까?" 하고 다시 여쭤보니, "아니야, 내가 잘못 다뤄서 그렇게 된 거야." 하시며 잃어버린 사람의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는 것을 보고 무의식중에 숙연히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이 관대한 대어심(大御心), 인자(仁慈)함 -신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어심-폐하께서는 유소년 때부터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어심'을 갖추고 계셨고 이것이 성장하시면서 더욱 더 크게 확장되어 영명(英明)하신 천자(天子)의 풍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나를 벌하라' '신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심' 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가. 이 얼마나 끔찍한 사랑인가. 이러한 성덕의 일단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올 해 1월, 궁중에서 열린 신년 가회(歌會)때 황송하옵게도 폐하께서는 '연봉운(連峯雲)'이라는 제목에 '이어진 봉우리를 뒤덮은 자색 구름, 빨리 바람이 불라고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 이것을 보았을 때 대동아전쟁하의 우리 국민의 각오를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민(臣民)은 군국(君國)을 위해 총력을 바쳐 하루라도 빨리 성전의 목적을 완수하고 이로써 성려(聖慮)를 편안하게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선전(宣戰) 대조(大詔)의 성지(聖旨)를 복□(服□)하여 필승의 신념으로써 용왕매진(勇往邁進)해 대동아건설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해서 무궁한 황운을 부익(扶翼)해야만 한다는 것을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천장절을 맞이하면서 한층 더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진정한 애국과 일치합니다. 성서를 배독(拜讀)할 때, 기독교야말로 참된 애국적 종교라는 걸 모두 깨닫습니다. 거기에는 작열하는 애국적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애국정신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처

럼 외래종교입니다. 하지만 외국종교는 아닙니다. 국법으로 공인된 일본의 종교입니다. 또 실전(實戰)에서 국난에 직면했을 때 분연히 목숨을 바치는 것은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러·일 전쟁 때 특별임무를 받고 (복무하다가 잡혀) 하얼빈에서 총살을 당하면서도 "천황폐하 만세"를 계속 외쳤던 지사(志士) 요코가와 쇼죠(横川省三)씨가 그 일례로, 지금 제 이 제 삼의 요코가와가 기독교도 가운데 속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근래 자주 목격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요코이(横井小□)선생은 '예수교의 탈을 쓴 매국노'로 간주되어 유신각료 최초의 희생자가 되어 자객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교 탈을 쓴 요코이 문하에서 모토다 나가오(元田永夫)선생이 배출되어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시강(侍講)이 되었고, 이노우에(井上毅)선생은 문부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래하기를 수십 차례, 두 사람이 만든 안(案)이 교육칙어의 토대가 된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암시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독교도의 사명과 책무는 중차대합니다. 확대되어 갈 대동아의 정신공작(工作)은 반드시 기독교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우리는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십자가 아래에 서서 더더욱 신앙에 힘쓰며 그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성은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대동아전쟁하의 첫 탄신일을 맞아 일억동포와 함께 거듭 황실의 번영과 성수(聖壽)의 만세(萬歲)를 기원합니다.

〈출전 : 「天長節奉祝之辭」, 『基督教新聞』, 1942년 5월 6일〉

2) '천장절국민봉축실시요강'에 관한 건

오는 4월 29일의 「천장절국민봉축실시요강」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배려하도록 이에 이첩하는 바이다.

천장절국민봉축실시요강

－ 취지

영광이 대동아의 천지에 적시고 10억의 인민들이 모두 황풍(皇風)에 쏠리는 대동아전쟁 제2년째인 여기에 천장절을 맞이하여 삼가 성수(聖壽)의 무궁을 기원하고 광대무변한 성은을 숭상하는 동시에, 어능위(御稜威) 아래 황민(皇民) 일억은 모두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성을 다하여 외이(外夷)를 격퇴하여 대동아전쟁의 완수에 매진할 결의를 다짐하는 바이다.

－ 실시 방법

당일 오전 7시 궁성요배(宮城遙拜) 시간을 기해 '국민봉축의 시간'을 설정하고 아래 요강에 따라 국민

봉축의 방도를 강구할 것.

(1) 라디오는 동 시각에 '국민봉축의 시간'을 방송할 것.
(2) 각 가정에서는 '국민봉축의 시간'에 각자 궁성요배를 행할 것.
(3) 부·읍·면연맹에서는 부·읍·면연맹원을 위해 신사(神社), 신사(神祠), 학교, 공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봉축행사를 거행하고, 또 필승기원(必勝祈願)을 할 것.
(4) 관공서(官公衛), 학교, 회사, 공장, 선박, 각종 단체 등에서는 식전(式典)을 거행하고, 필승기원을 할 것.
(5) 관국폐사(官國幣社) 이상의 신사(神社), 신사(神祠)에서 집행하는 천장절 기념제에는 관하 연맹을 다수 참열 시킬 것.
(6) 기타의 경우에는 국민 각자 '국민봉축의 시간'을 명기하고 같은 시각에 각자 있는 곳에서 궁성요배를 할 것.

부기 '국민봉축의 시간'의 주지 방법에 대하여

(1) 라디오는 그 금지가 없는 한 오전 7시를 기해 '국민봉축'의 시간 방송을 하므로 이에 따를 것.
(2) '기적 사이렌 종' 등 음향에 의한 신호는 그 금지가 없는 한 위의 항에 준하고 이를 주지하도록 할 것.
(3) 기차, 기선, 전차, 버스 등의 차내, 혹은 기타 집합 장소에서는 승무원 또는 사회자는 같은 시각을 지킬 방법을 취할 것.

〈출전 : 「天長節國民奉祝實施要綱ニ關スル件」(總聯發 제88호), 『基督敎新聞』 제49호, 1943년 5월 5일〉

3) 징병제실시축하강연회, 성명서 발표와 강연, 성결교회신도대회

5월 17일 밤 경성(京城) 성결교회 연합으로 경성신학교 강당에서 신도 천여 명이 입추(立錐)의 여지없이 회집(會集)하여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국민의례가 끝난 후 조선군 보도부장 창무주장(倉茂周藏) 각하의 강연으로 일반에게 징병에 대한 깊은 인식을 주었으며 따라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총리대신, 육군대신, 척무(拓務)대신에게 감사전보 보내기로 결의하고, 성수만세 삼창으로 동 10시경 성황리에 마쳤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서

이번에 반도동포에게 징병제가 시행되고 1944년을 기해 실시되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경하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실로 반도동포를 일시동인(一視同人)하시는 성지(聖旨)에 의한 것으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성은(聖恩)에 황송하고 감격스러울 뿐이다.

내선관계는 아득한 신대(神代)부터 죽 불가분의 관계였으나, 시정(始政)이래 33년간 반도동포가 시정(施政)의 정신을 이해하고 황국신민으로서 자각하여 당국의 지도하에 각 방면에서 견실한 노력과 향상을 지속하면서 글자 그대로 나눌 수 없는 일체가 되었다.

지난 1938년 4월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지원병의 수가 늘어나 올해에는 25만 명이 넘는 지원자 중 약 3천명의 지원병만 채용된 실정이다. 게다가 장병들의 졸업성적이 양호하며, 목숨을 바쳐 수훈(殊勳)을 세운 자도 있다. 물론 전사하지 않고 은상(恩賞)에 빛나는 수훈갑의 공을 세운 용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총후(銃後)에 있는 일반인들의 대전(大戰)완수에 대한 열의 역시 특필해도 무방할 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반도에서 징병제 실시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선일체가 구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천사백만 민초의 환희와 감격은 절정에 달했다. 반도의 기독청년은 지금이야말로 떨치고 일어나 황국신민의 최대의 특권이자 최고의 의무라 할 수 있는 병역의 영광을 향유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감사하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 성결교회신도는 충절의 정신을 단련하여 신명(身命)을 군국(君國)에 바치고, 정성을 다해 일억봉공(一億奉公)하여 내선일체 완성 및 대동아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무궁한 황은에 감사를 올리면서 진충보국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바이다.

1942년 5월 17일
징병제실시 경성성결교회신도 축하대회

〈출전 : 「徵兵制實施祝賀講演會 聲明書發表와 講演 聖潔教會信徒大會」, 『基督教新聞』 제5호, 1942년 5월 27일〉

4)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관련 기사

(1)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김응순(新森一雄) 씨 포부

지난 번 평양에서 열리었든 장로회 총회 제31회 회장으로 신임된 신삼일웅(新森一雄)[27]씨를 방문하여 신임소감과 포부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국어'(일본어)로 표시하였다.

(신임소감)

이번에 불초 저 같은 사람이 당선의 영예를 입은 것은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많은 원조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아무쪼록 여러분 원조를 바라는 바이다. 지금은 초비상시국에 이어서 여러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테니 앞으로도 한층 더

27) 김응순의 창씨개명.